

2019

정책연구 2019-08

# 2019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진 이주연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08

# 2019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연구진

---

연구책임 이주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최지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

자문위원 이상엽 ·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국장  
윤정미 ·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장

---

연구관리 코드 : 19JU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3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나. 연구내용 .....	6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	7
제2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	15
제1절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	15
제2절 중앙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20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	20
나.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및 추진체계 .....	28
제3절 전라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44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	44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45
제4절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분석 .....	50
가.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업과 특화사업 분석 .....	50
나. 타 시도 지원 사례 분석 .....	54
다. 요약 및 시사점 .....	60
제3장 전북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 .....	65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65
가. 전국의 학교중단 학생 현황 .....	65
나. 전북의 학교중단 학생 현황 .....	69
제2절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	82
제3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현안과제 .....	84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현황 .....	84
나. 주요 현안과제 .....	97

<b>제4장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b> .....	<b>103</b>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	103
가. 조사개요 .....	103
나. 분석결과 .....	108
1. 응답자 분포 .....	108
2. 학교중단 관련 일반사항 .....	112
3. 학교중단 이후 생활실태 .....	132
4.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실태 .....	162
5.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 욕구 .....	172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182
가.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	182
1. 조사개요 .....	182
2. 분석결과 .....	184
나.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212
1. 조사개요 .....	212
2. 분석결과 .....	215
제3절 소결 .....	234
<b>제5장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b> .....	<b>247</b>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247
제2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	260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260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262
<b>참고문헌</b> .....	<b>288</b>

## 표목차 | Contents

〈표 1-1〉 2016년과 2019년의 실태조사 개요 비교 .....	10
〈표 2-1〉 법률에서의 청소년 연령 구분 및 소관부서 .....	16
〈표 2-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분(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윤철경 (2013) 연구결과 참고) .....	18
〈표 2-3〉 5대 중점 추진과제, 18개 세부 추진과제 .....	24
〈표 2-4〉 3대 중점 추진과제, 11개 세부 추진과제 .....	25
〈표 2-5〉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주제별 세부과제 .....	27
〈표 2-6〉 각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현황 .....	28
〈표 2-7〉 학업중단 숙려제 단계별 흐름도 .....	30
〈표 2-8〉 전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중단 현황 .....	31
〈표 2-9〉 지역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중단 현황 .....	32
〈표 2-10〉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2019) .....	33
〈표 2-11〉 시·도 센터 및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비교 .....	34
〈표 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발굴 현황 .....	35
〈표 2-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세부 지원성과 .....	35
〈표 2-14〉 연도별 대학진학 현황 .....	35
〈표 2-15〉 내일이룸학교 현황(2019) .....	37
〈표 2-16〉 내일이룸학교,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비교(2019) .....	40
〈표 2-1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현황 .....	43
〈표 2-18〉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	45
〈표 2-19〉 전북 시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학업중단학생수 .....	46
〈표 2-20〉 전북 비인가형 대안교육기관 현황(2018년 기준) .....	48
〈표 2-21〉 전북지역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현황 .....	48
〈표 2-22〉 전북 청소년 쉼터 현황(2019년 기준) .....	49
〈표 2-23〉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우수사업 사례(2018) .....	51
〈표 2-24〉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특화사업 사례(2019) .....	52
〈표 2-25〉 타 시·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 .....	53

〈표 3-1〉 전국 연도별*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2015~2018년) .....	65
〈표 3-2〉 전국 시도별 *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 수 및 중단율(2018년) .....	68
〈표 3-3〉 전국 및 전북 학업중단 학생 현황 .....	70
〈표 3-4〉 전라북도 시군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및 중단율(2018년) .....	72
〈표 3-5〉 전라북도 학교중단 학생의 성별 현황(2018년) .....	74
〈표 3-6〉 전라북도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5~2018년) .....	75
〈표 3-7〉 전라북도 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5~2018년) .....	76
〈표 3-8〉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의 변화(2017~2018년) .....	78
〈표 3-9〉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사유(2018년) .....	79
〈표 3-10〉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사유(2018년) .....	80
〈표 3-11〉 전북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 현황과 주요 사유(2018년) .....	81
〈표 3-12〉 전북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2016~2018년) .....	83
〈표 3-13〉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화사업 .....	87
〈표 3-14〉 전북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현황 .....	88
〈표 3-15〉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	89
〈표 3-16〉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2018년) .....	91
〈표 3-17〉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 비교(2015~2018년) .....	92
〈표 3-18〉 전북지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현황 및 중단과 도센터 연계 현황 .....	94
〈표 3-19〉 전북교육청(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현황 .....	94
〈표 4-1〉 설문조사 표본설계 .....	104
〈표 4-2〉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과 문항 .....	106
〈표 4-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9
〈표 4-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비교 .....	111
〈표 4-5〉 학교를 그만둔 시점 .....	112
〈표 4-6〉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의 기간 .....	114
〈표 4-7〉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의논한 사람(다중응답: N=536) .....	116
〈표 4-8〉 학교생활 규범 위반 경험 .....	118
〈표 4-9〉 학교생활(교사관계/친구관계/수업참여)에 대한 평가 .....	120
〈표 4-10〉 학교에서의 상담경험 .....	122

〈표 4-11〉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 .....	124
〈표 4-12〉 학교를 그만둘 당시 도움받고 싶었던 사항 .....	126
〈표 4-13〉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상담받은 기관 .....	128
〈표 4-14〉 학교를 그만둔 이유 .....	130
〈표 4-15〉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	132
〈표 4-1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했던 이유 .....	134
〈표 4-1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 .....	136
〈표 4-18〉 향후 진로계획 .....	138
〈표 4-19〉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	140
〈표 4-20〉 학교를 그만둔 후 집 외에 일주일 이상 거주해본 경험(다중응답: N=547) .....	142
〈표 4-21〉 최근 한 달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 .....	144
〈표 4-22〉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 .....	146
〈표 4-23〉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	148
〈표 4-24〉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	150
〈표 4-25〉 심리상태 .....	152
〈표 4-26〉 최근 1개월간 신체활동 현황 .....	154
〈표 4-27〉 최근 1개월간 수면 패턴 .....	156
〈표 4-28〉 식사습관 .....	158
〈표 4-29〉 폭력피해 및 비행경험(‘경험있음’ 기준) .....	160
〈표 4-30〉 가정과 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 .....	162
〈표 4-31〉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경험 .....	164
〈표 4-32〉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경험 .....	166
〈표 4-33〉 차별경험(‘경험있음’ 기준) .....	168
〈표 4-34〉 인권교육 수료 현황 .....	170
〈표 4-35〉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다중응답: N=541) .....	172
〈표 4-36〉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II) (다중응답: N=539) .....	174
〈표 4-37〉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인지도 .....	176
〈표 4-38〉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I) .....	178
〈표 4-39〉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II) .....	181
〈표 4-40〉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의 영역과 세부 내용 .....	184
〈표 4-41〉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186

〈표 4-42〉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의 영역과 세부 내용 .....	214
〈표 4-43〉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	215
〈표 5-1〉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	262
〈표 5-2〉 전국 시도 교육청별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현황 .....	268
〈표 5-3〉 진로·직업 및 적성 검사 사이트 안내 .....	272
〈표 5-4〉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급하는 지역 .....	282
〈표 5-5〉 서울시 학교 밖 배움터 운영 .....	288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	12
〈그림 2-1〉 학교밖청소년(꿈드림) 지원사업의 변천 .....	21
〈그림 2-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의 기본방향과 업무흐름도 .....	23
〈그림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	24
〈그림 2-4〉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체계 .....	26
〈그림 2-5〉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 .....	39
〈그림 2-6〉 광주광역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	56
〈그림 2-7〉 경기도 꿈울림 진로박람회 주요 행사 내용 및 홍보물 .....	58
〈그림 2-8〉 광주광역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	59
〈그림 3-1〉 전국 연도별*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수(2015~2018년) .....	66
〈그림 3-2〉 전국 연도별*학교급별 학교중단율(2015~2018년) .....	66
〈그림 3-3〉 전국 시도별 학업중단 학생 수 및 중단율(2018년) .....	67
〈그림 3-4〉 전국 시도별 * 학교급별 학교 중단율(2018년) .....	69
〈그림 3-5〉 전북 연도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5~2018년) .....	69
〈그림 3-6〉 전북 연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5~2018년) .....	70
〈그림 3-7〉 전라북도 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2018년) .....	71
〈그림 3-8〉 전북 시군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2018년) .....	71
〈그림 3-9〉 전라북도 시군별 학업중단자 수 및 중단율(2018년) .....	73
〈그림 3-10〉 전북 시군별 * 학교급별 학업중단율(2018년) .....	73
〈그림 3-11〉 전라북도 학교급별*성별 학교중단율(2018년) .....	74
〈그림 3-12〉 전북 초·중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2018년) .....	75
〈그림 3-13〉 전북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2015~2018년) .....	76
〈그림 3-14〉 전북 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2015~2018년) .....	77
〈그림 3-15〉 전라북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2018년) .....	78
〈그림 3-16〉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2017년, 2018년) .....	79

<그림 3-17>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사유(2018년) .....	80
<그림 3-18>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사유(2018년) .....	81
<그림 3-19> 전북지역 시·군 학교 밖 지원센터 소재지 .....	85
<그림 3-20>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2019) .....	86
<그림 3-21> 전북지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현황 및 도센터 연계 현황 .....	94
<그림 3-22> 전북 시·군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2018년 기준) .....	95
<그림 3-23> 전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유관기관 소재지 .....	96
<그림 4-1> 학교를 그만둔 시점 .....	113
<그림 4-2>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의 기간 .....	115
<그림 4-3>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의논한 사람(다중응답) .....	117
<그림 4-4> 학교생활 규범 위반 경험 .....	119
<그림 4-5> 응답자 유형별 교사관계 .....	121
<그림 4-6> 응답자 유형별 친구관계 .....	121
<그림 4-7> 응답자 유형별 수업참여도 .....	121
<그림 4-8> 응답자 유형별 학교상담 여부 및 횟수 .....	123
<그림 4-9> 응답자 유형별 학교상담 대상 .....	123
<그림 4-10> 응답자 유형별 학교상담 내용 .....	123
<그림 4-11> 응답자 유형별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 .....	125
<그림 4-12> 학교를 그만둘 당시 도움받고 싶었던 사항 .....	127
<그림 4-13> 학교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상담받은 기관 .....	129
<그림 4-14> 학교를 그만둔 이유 .....	131
<그림 4-15>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	133
<그림 4-1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했던 이유 .....	135
<그림 4-1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 .....	137
<그림 4-18> 향후 진로계획 .....	139
<그림 4-19>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	141
<그림 4-20> 학교를 그만둔 후 집 외에 일주일 이상 거주해본 경험(다중응답) .....	143
<그림 4-21> 최근 한 달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 .....	145
<그림 4-22>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과 종류 .....	147
<그림 4-23>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	149

〈그림 4-24〉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	151
〈그림 4-25〉 심리상태 .....	153
〈그림 4-26〉 최근 1개월간 신체활동 실천율(단위: 점) .....	155
〈그림 4-27〉 최근 1개월간 수면 패턴 .....	157
〈그림 4-28〉 식사습관 .....	159
〈그림 4-29〉 각종 폭력피해 및 비행경험(누적%) .....	161
〈그림 4-30〉 청소년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 .....	163
〈그림 4-31〉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수혜 경험 .....	165
〈그림 4-32〉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경험 .....	167
〈그림 4-33〉 각종 차별경험(누적%) .....	169
〈그림 4-34〉 인권교육 수요 현황 .....	171
〈그림 4-35〉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다중응답)-① .....	173
〈그림 4-36〉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다중응답)-② .....	175
〈그림 4-37〉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인지도 .....	177
〈그림 4-38〉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4점만점) .....	179
〈그림 4-39〉 2016년과 2019년 정책지원 욕구 비교 .....	180
〈그림 5-1〉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성별 비율 .....	253



# 1

장

##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령기 청소년 중,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해하거나,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를 일컫음
-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매년 1천 5백 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났고, 현재까지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규모)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전북지역 학교중단 학생 비율은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0년을 정점으로 2012년 이후부터는 과거에 비해 소폭씩 감소추세에 있으나 매년 일정 규모의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학업중단 학생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19.5%, 중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17.7%인 반면, 고등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62.8%로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자퇴(95.2%, 810명)가 가장 많았고, 자퇴로 인한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39.5%는 ‘학교 부적응’이 주원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해외출국(8.6%), 질병(2.5%)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애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개인적·사회적으로 낙오의 원인이 되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불리함을 갖고,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함. 또한, 국가·사회적 측면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sup>1)</sup>’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1명을 방치했을 때,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최소 9,724만원으로 추산함
-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교육과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4.5.28)·시행(15.5.29)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신설·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전국적 관심을 증가시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3년)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도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5.2.6)하여,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매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시행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즉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회기의 실태조사(2015년, 2018년)는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보호관찰 및 소년원, 취업사관학교(내일이룸학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일정 기관 내에 속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조사뿐만 아니라 실태파악도 명료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도 대체적으로 용이하게 진행되었음

---

1) 여성가족부(2014)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 추계연구. 청소년정책리포트 제3호.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하지만, 어느 기관에도 속해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모든 기관에서 조차 그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실태와 필요 지원 욕구 등에 대한 종합 정보가 미흡함. 이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도 많음. 무엇보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파악조차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고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적 집단이라 볼 수 있음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6년에 이어 2019년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019년의 실태조사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기관 소속 유·무별 및 기관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와 시군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보다 발전된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진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한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향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인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청, 통계청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 전북지역 학교중단 학생의 현황 파악 및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및 지원정책별 필요성 평가와 지원정책 욕구 등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셋째, 기관 유형 및 시군별 실무자 대상 현 지원정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한계점, 지원 정책 욕구분석 등을 통해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 마지막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구체적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중앙과 전북의 관련법률 및 지원 정책 분석, 그리고 전북지역에 적용가능한 타시도의 우수 지원 사례를 검토함
- 제3장에서는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규모를 추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과 지원내용 및 운영현황 등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전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유형별 현장 전문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경찰관, 대안학교 교사, 보호관찰소 직원 등)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마지막 5장에서는 2장에서 4장까지의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 가.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통계자료 분석, 설문 및 면접조사와 더불어 지원 사례 분석 및 전문가자문회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 1)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중앙 및 전북의 관련 법률과 지원정책 분석 및 타 시도 지원사례 검토
- 통계자료 수집·분석
  - 통계청과 교육청의 청소년관련 통계자료 재분석 :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규모추정 등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지원시설 현황 분석 등

#### 2) 실태조사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만 9세 ~ 만 19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550명
- ※ 만 9세~24세 중 특히 사회적 자원이 보다 필요한 만 20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함
- (조사지역) 전북 14개 시·군
- (표집방법) '2017년 학교중단 발생 통계현황(교육청)'을 토대로 지역별(시·군)과 학교급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기관소속 유무별 등을 고려하여 임의 할당 표집 함. 기관소속(7개 기관유형, 28개 기관<sup>2)</sup>)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는 의도적 표집, 기관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는 검정고시

---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5개소), 비인가형 대안교육기관(3개소), 청소년쉼터(4개소), 소년원(1개소), 보호관찰소(4곳), 자립생활관(1개소)

접수처에서 눈덩이 표집을 실시함

- (조사방법) 일대일 대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함
  -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각 기관별 실무 담당자의 협조로 학교 밖 청소년을 10명 이상 모아주고 그에 대한 일정을 알려주면, 본 연구원이 실무 담당자와 함께 직접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그 외(특히 소년원·보호관찰소 등) 기관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과 더불어 설문지를 배포하고 실무 담당자가 직접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하는 방법
  - ※ 기관 실무 담당자가 설문조사 실시 시에는 설문조사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공지와 더불어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기관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협조로 검정고시 접수처에서 두 차례(2월, 6월), 검정고시 고사장(4월)에서 한 차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실무 담당자와 본 연구원이 병행하며 직접 실시 함.
- (분석방법) SPSS Win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통계분석(기술통계, t-test,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등)
- (조사기간) 2019. 3 ~ 6(약 4개월)
- (조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 실태 관련 선행연구들과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참고로 설문영역과 문항을 구성함. 설문영역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됨(학교 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중단 이후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정책적 지원, 응답자의 배경요인)

### ○ 면접조사 개요

- (면접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20명, 기관 유형별 실무자 12명
- 학교 밖 청소년 면접 조사 개요

- (목적)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내용을 부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수행. 특히 기관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 파악 필요
  - (대상자 선정) 시군별, 기관 소속 유·무별, 기관 유형별, 성별 고려 선정
  - (섭외과정) (1) 기관 소속 대상자는 유형별 기관 내에서 설문조사 응답자 중 기관 실무 담당자로부터의 면접조사 관련 소개와 안내로 사전에 면접조사에 동의한 청소년, 혹은 기관 담당 실무자로부터 현재의 경험과 의견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청소년 추천 중심, (2) 기관 무소속 대상자는 아웃리치 및 검정고시 접수처 등을 통해 접촉하여 면접조사에 동의한 청소년 중심
  - (면접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 1:1개별 심층면접, 2~3명 집단면접 병행
  - (면접시간) 약 1시간 30분 정도, 집단면접 시 약 2시간 이상
  - (면접장소) 연구자와 협의 및 조정, 조용한 카페나 기관 내 상담실 등
  - (면접내용) 학교중단관련 사항, 학교중단 이후 생활실태(현 생활경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경험 및 정책지원 욕구 파악, 배경요인 등
  - (분석방법) 사전에 녹음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한 면접내용을 녹취 및 전사하여 자료 분석
- 기관 유형별 실무자 대상 면접 조사 개요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 현 지원 사업 수행과정상의 문제점·지원사업의 주요 쟁점사항, 정책적 지원욕구 파악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군별 지역을 고려해 실시함
  - (면접내용) 기관별 이용 청소년 현황, 기관운영 실태, 이용 청소년들의 발달경로, 이용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서비스) 파악, 기관유형별 실무자의 지원 정책 욕구 파악 등
  - (면접방법/시간/장소)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토대로 1:1 개별면접, 약 1시간, 기관 내 상담실

- (분석방법) 사전에 녹음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한 면접내용을 녹취 및 전사하여 자료 분석

### 3) 전문가 자문

#### ○ 전문가 자문회의와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방향·방법 및 내용 구성과 연구결과에 따른 타당성, 정책적 제언의 효과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기타 제안 사항에 대해 자문받기 위함
- 담당부서와는 연구방향과 내용,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과 세부과제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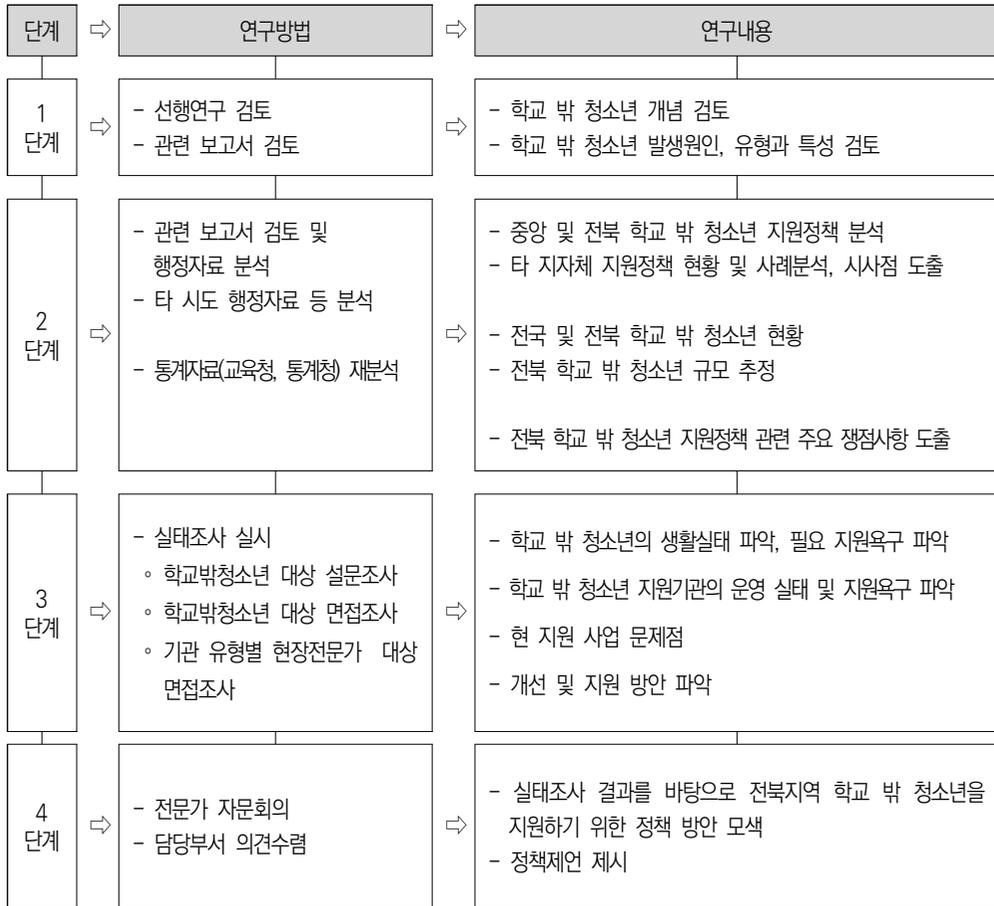
〈표 1-1〉 2016년과 2019년의 실태조사 개요 비교

구분	2016년(종료)	2019년
대상	만 9세 ~ 만 24세 - 만 13-15세 31명(10.3%) - 만 16-19세 222명(74.0%) - 만 20세 이상 47명(15.7%)	만 9세 ~ 만 19세까지(2000년생 ~ 2010년생까지만) ※ (이유) 만 9세 ~ 24세 중 특히 사회적 지원이 보다 필요한 만 20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크기	300명(남 133명, 여 167명)	550명(남 257명, 여 290명)
표집	학교 밖 지원센터(10개) : 148명 비인가형 대안학교 : 31명 청소년쉼터(5개) : 13명  (무소속) 검정고시접수처(1차례) : 108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0개소) 청소년상담복지기관 (5개소) 비인가형 대안교육기관(3개) 청소년자립생활관(1개소) 청소년쉼터(3개) 소년원(1개) · 보호관찰소(4개)  (무소속)검정고시 접수처(2차례), 검정고시 교사장(1차례)
조사내용	◦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29문항)  ◦ 학교 그만 둔 후의 생활실태(76문항)	◦ 학교중단 관련 일반사항(27문항) (삭제) 가족관계의 질(부모관계, 가족관계)관련 문항 (추가) 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여부 및 개인정보 연계 관련 문항(4문항) ② 전북교육청 요청 5문항(학교 그만들 당시 학교에서의 상담유무, 상담자 신분, 상담 횟수, 상담 내용, 학교에서 도움 받고 싶은 내용 등)  ◦ 학교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47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 지원욕구(33문항)</li> <li>◦ 응답자의 배경요인(7문항)</li> </ul>	<p>(삭제) 게임/스마트폰 중독관련 문항, 진로태도(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 정보탐색, 심리정서평가(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 지원욕구(33문항) (추가) 도움받고 싶은 교육/사업/프로그램 기술</li> <li>◦ 응답자의 배경요인(21문항) (추가) 학교중단 한 형제자매 유무, 현재상태, 학교성적</li> <li>◦ <b>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23문항)</b></li> </ul>
<b>면접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센터 10명</li> <li>- 청소년쉼터 5명</li> <li>- 보호관찰 2명</li> <li>- 대안교육기관 2명</li> <li>- 기관무소속 1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센터 8명(市: 中 2명, 高 2명/ 郡: 高 3명)</li> <li>- 청소년쉼터 2명</li> <li>- 보호관찰 2명 / 소년원 2명</li> <li>- 대안교육기관 3명(中 1명, 高 1명)</li> <li>- 기관무소속 4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유형별 종사자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센터 종사자 4명</li> <li>- 청소년쉼터 종사자 3명</li> <li>- 대안교육기관 1명</li> <li>- 보호관찰소 1명</li> <li>- 경찰서 1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유형별 종사자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센터 종사자 5명(市 2명, 郡 3명)</li> <li>- 청소년쉼터 종사자 1명</li> <li>- 보호관찰소 1명 / - 청소년자립생활관 1명</li> <li>-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2명 (市 1명, 郡 1명)</li> <li>- 경찰서 1명</li> <li>- 내일이룸학교 1명</li> </ul> </li> </ul>
<b>조사기간</b>	2016. 6. 1 ~ 6. 24(약 24일)	2019. 2. 18 ~ 6. 22(약 4개월 이상)

## 나. 연구 절차

○ 이상으로 연구방법과 내용 등에 따라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 2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Jeonbuk Institute

- 
- 제1절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 제2절 중앙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제3절 전라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 제4절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 제2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 제1절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일컫음. 유사한 용어로 중도탈락자, 부적응 청소년, 중퇴, 학업중퇴자라는 부정적 용어로 많이 사용하였음. 그러다 2002년 이후에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교육부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는 학업중단 학생이란 용어가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이지 학업·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확산되었음. 이에 최근에는 ‘학교중단 청소년’이란 용어가 확산되고 있음
- 한편,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가 만들어지게 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고등학교와 동일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나타냄. 이에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 연령도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에 더하여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 수립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 9~24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지원이 보다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성인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표 2-1〉 법률에서의 청소년 연령 구분 및 소관부서

법률	연령구분	소관부서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9~24세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9~24세	여성가족부
초·중등교육법	7~18세	교육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민법과 소년법	19세 미만	법무부

##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목적 및 처해진 상황들에 따라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학교중단 이후의 상이한 생활실태 차이 등을 고려해 여러 개의 집단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특성들을 살펴봄
- 연구자가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실태 등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유형과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남
-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기관 유형별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집단(소년원,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과 일반집단(꿈드림센터, 취업사관학교, 단기 및 이동쉼터, 비인가대안학교)으로 나누어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학업형(학력취득, 대학입학 등 학업지원), 직업형(직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은둔형·무업형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2018년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동일하였음
- 다음으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따라 학습형(검정고시 준비, 학원수강, 기술훈련, 대안교육시설 재학 등 무엇을 배우고 있는 유형), 취업 및 알바형(어떤 형태로든 근로에 종사하는 유형), 니트형(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유형)으로 나누고, 니트형은 다시 은둔형, 배회형, 소일형으로 세분화함. 그 외 비행 경험 및 장애 유무를 또 다른 유형화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비행형(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사법적 경험이 있는 유형)과 장애형(지적, 정서적 장애 가진 유형)을 추가함(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이후 윤철경(2013)은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지속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에 따라 학업형(정규학교 복학,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준비 등), 직업형(직업기술 배우거나 근로현장에서 8시간 이상 일하는 유형), 니트형(혼자 또는 또래와 놀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형), 비행형(가출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유형)으로 구분함

- 백혜정과 송정미(2015)는 진로결정과 생활특성에 따라 진로결정형 중 학업형(학력취득을 위한 대안학교, 검정고시 준비 유형), 진로결정형 근로형(근로와 취업 목적으로 직업훈련 받거나 경제활동하는 청소년), 진로미결정형 중 유예형(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 준비 없이 일상을 보내는 청소년), 진로미결정형 중 비행형(비행등과 같은 문제 행동 일으키는 청소년)으로 구분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 이냐에 따라 혹은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이나 진로결정 유무와 생활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유형 구분은 궁극적으로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형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윤철경(2013년)이 유형화한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정책 및 사업(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한계와 개선방안 및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표 2-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분(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윤철경(2013) 연구결과 참고)

구분		내용
학업형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 검정고시 준비 등 배우고 학습하는 경우
직업형		근로현장(아르바이트/취업)에서 일하거나 직업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집중형	비행형	가출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등 비행경험이 있는 유형
	니트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또는 또래와 놀거나 집에만 있는 경우

-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초·중·고등학교 학교 중단 비율은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며,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 중단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학년 중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학교 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행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더 집중적으

로 그만두는 경향을 보임. 반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은 중학교  
과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대안학교기관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강했음

- 다음으로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된  
지 1년 미만의 청소년이 많은 반면, 단기쉼터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는  
학업 중단 된지 3년 이상의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중단 시 부모님, 친구, 담임교사 순으로 학교 중단에 대한 논의를 했  
고, 아무와도 학교 중단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쉼터와 소년원  
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남. 비행과 위기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의논할  
상대가 없는 매우 취약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냄
- 주요 중단 사유로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등이 나타남. 비행  
청소년의 경우는 ‘공부하기 싫다’와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 없음’이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특기를  
살리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 정도를 살펴보면, 비행청소년 집단(소년원, 보호관  
찰, 쉼터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인가 대안교육기  
관 청소년은 후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후회 이유는 ‘다양한 경  
험의 부재’, ‘친구 사귄 기회 감소’, ‘졸업장 못 받음’ 등으로 나타났고, 후  
회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자유 시간 증가’, ‘하고 싶었던 일 하게 됨’ 등  
의 이유로 나타남
- 학업중단 후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가장 큰 어  
려움은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과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등이 나타났고,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근로경험이 있었으며, 비행 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약 26% 정도의 근로경험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한 지원은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  
강검진 및 진학정보 제공, 질병치료와 진로 탐색 체험 순으로 나타남

## 제 2 절 중앙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자립준비)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젝트’ 시범운영 12개소(2007년)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해밀’ 운영 3개소(2009년)
- 두드림·해밀 통합운영 50개소(2013년)
  - 두드림·해밀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공동, 2013. 1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5. 28 제정), (2015. 5. 29 시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사업이 2015년 국가 정책으로 시행 시작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신설(15.2.2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만들어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지정·운영 199여 개소 (2015년)
-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안) 발표(2015.5.12.)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 마련(2016.6)
  - 법률 시행 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도약
-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6. 12)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을 위한 동의 주체에 청소년 외에 청소년의 법적대리인 포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 없이 연계, 동의 없이 연계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받도록 하되, 1년 경과 시 까지 동의받지 못할 경우 파기

-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한 3년, 맞춤형 지원 더욱 강화(2018. 5. 28)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개소(2017년), 206개소(2018년) 지정·운영

연도	추진내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기관 총 206개 지역으로 확대(광역 16개소, 기초 190개소)</li> <li>•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8개 시도센터)</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7개 시도센터)</li> <li>• 내일이름학교(구, 취업사관학교) 개선방안 연구</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기관 총 202개 지역으로 확대(광역 16개, 기초 186개소)</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변경</li> <li>•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정·운영</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림해밀 운영기관 총 54개 지역(광역 16개소, 기초 38개소)으로 확대</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림 사업 및 해밀 사업의 통합운영, 운영기관 총 50개 지역(광역 16개소, 기초 34개소)</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과 '시범' 두드림 사업을 일반회계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상시 운영하는 '두드림존'사업 추진, 운영기관 총 49개소(광역 16개소, 기초 33개소)</li> <li>•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업중단숙려제 시행요청으로 전국확대시행(2012.6)</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림 프로그램 중 '상설 두드림존'을 16개 광역 자치단체(지자체경상보조사업)로 확대</li> <li>• 청소년 우호기업(Youth Friendly Corporation) 위촉, 운영기관 총 30개소(상설 10개소, 시범 20개소)</li> <li>•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해밀)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민간경상보조)</li> <li>•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등기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학습클리닉' 개정</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림 프로그램 중 '상설 두드림존(10개소)' 일반회계 지자체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운영기관 총 30개소(상설 10개소, 시범 20개소)</li> <li>• 민간기관(세종문화회관, SK 텔레콤 등)과 연계한 직업·문화·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li> <li>• 학업중단청소년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클리닉' 개발</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림 프로그램 중 '상설 두드림존'을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입, 운영기관 총 20개소(상설 3개소, 시범 17개소)</li> <li>• 두드림존 수혜 청소년 고용노동부 '뉴스타트' 프로젝트 연계</li> <li>•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해밀) 3개 지역 운영</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두드림존 프로젝트) 사업운영, 운영기관 총 15개소(상설 2개소, 시범 13개소)</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두드림존 프로젝트) 시범운영, 운영기관 총 12개소(상설 2개소, 시범 10개소)</li> <li>• 두드림존 프로그램 개발</li> <li>•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해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과 통합운영</li> <li>• 학업중단청소년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li> </ul>

자료: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index.asp>).

〈그림 2-1〉 학교밖청소년(꿈드림) 지원사업의 변천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2015.5.8, 2016.6)이 마련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법률(제15조 3항)이 개정되었으며(2017.3) 동법 시행규칙(제5조 3항) 개정(2017.10)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수당 지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 교육, 자립,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지정 및 학교장의 동센터 연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8.1.16일 개정, '18.7.17 시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함. 매년 12월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대회 실시

## 1) 연도별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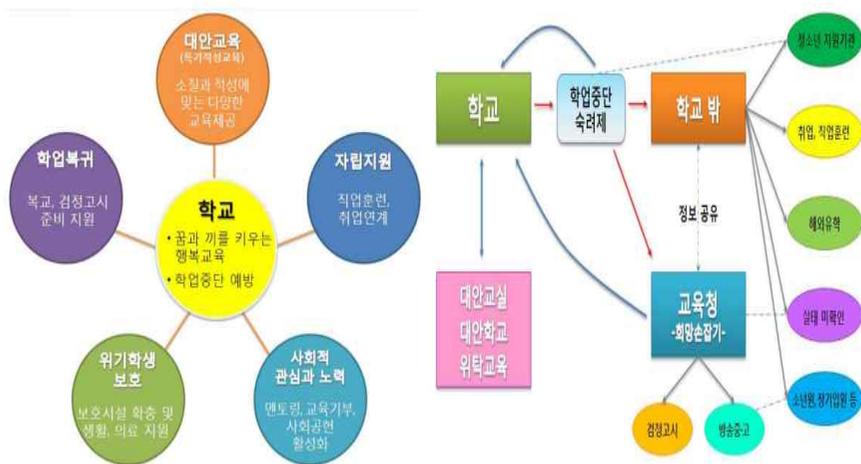
### 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여성가족부, 2013. 11)

- 학업중단 예방 체계 구축
  -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원인별 맞춤형 지원
  -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부여
  - 시도교육청, 학교 등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 학업중단 실태파악 및 협업·연계 강화
  -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정책 대응
  - 범정부·지역추진체계 구성·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 학업중단 전·후 복학, 검정고시, 청소년 지원기관 등 정보제공

---

\* 연도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참조

- 학교 밖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생활·의료, 학업 복귀,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지원
  - 지자체의 우수프로그램 발굴·확산
- 학교-정부-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 구축
- 멘토링, 교육기부, 사회공헌 등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 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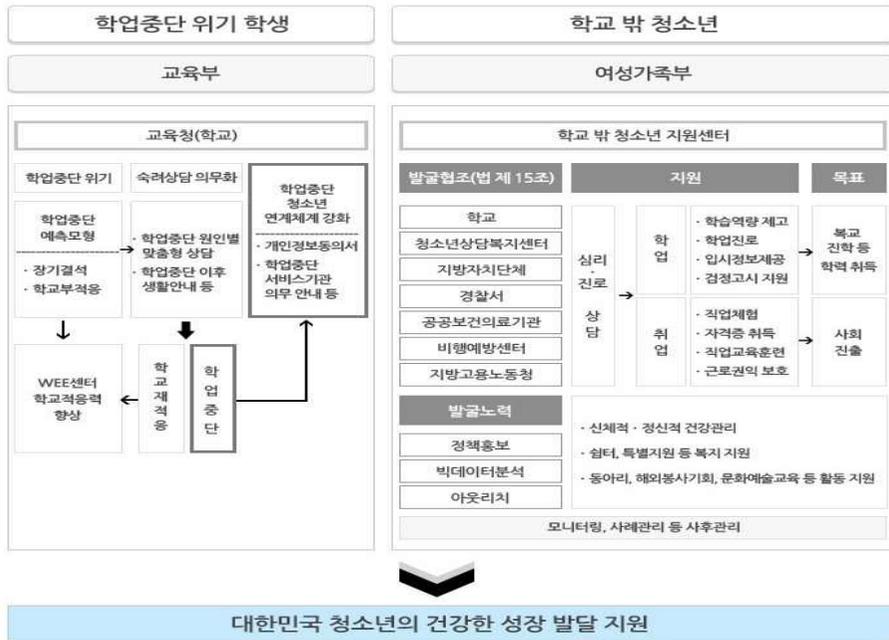
〈그림 2-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의 기본방향과 업무흐름도

## ②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안) 발표 (2015.5.12.)

-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함
  - 정부-지역-민간 연계·협업으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
  - 학업중단 예방, 진로상담부터 의료·보호·복지 등 촘촘한 지원체제 마련
- 종합대책은 ▲학업중단 사전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됨

〈표 2-3〉 5대 중점 추진과제, 18개 세부 추진과제

기본방향(중점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1.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1-1. 학업중단 속려제 내실화		교육부
1-2.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육부
1-3. 가족 및 또래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교육부·여가부
1-4.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 강화		경찰청·교육부 등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2-1. 실태조사 등을 통한 촘촘한 지원 기반 마련		여가부·미래부
2-2.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제공 및 연계 강화		여가부·교육부
2-3.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연계 강화		여가부(관계부처)
3.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3-2. (학업형)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여가부
3-3. (직업형)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여가부·교육부·고용부
3-4. (집중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립 동기부여		여가부·법무부
4.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4-1.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복지부
4-2.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 강화		여가부 (관계부처)
4-3. 위기 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 지원		여가부
4-4. 긍정적 사고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여가부·문체부
5.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5-1. 수요자 중심의 환류시스템 마련		여가부
5-2. 범부처-지역-민간 협업체계 구축		여가부(관계부처)
5-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여가부(관계부처)



〈그림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③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 마련(2016. 6. 14)**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 마련('15.5월, 11월, '16년 6월)
-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2017년 말부터 관계부처(경찰서, 교육청)와 온라인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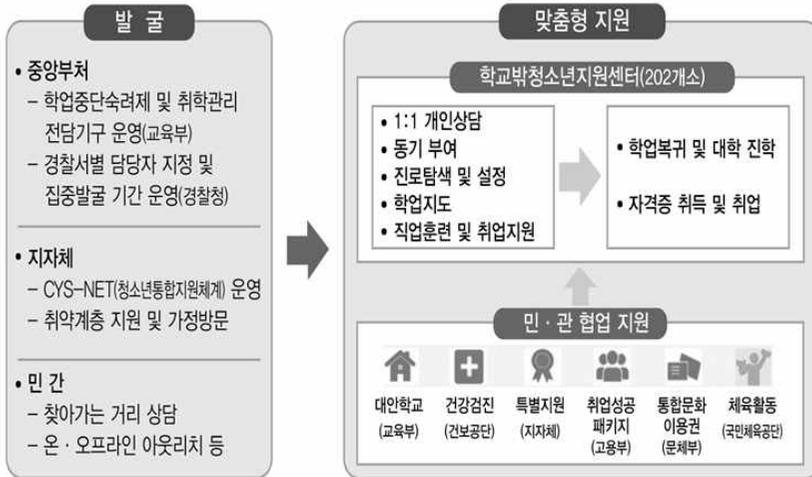
〈표 2-4〉 3대 중점 추진과제, 11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1-1. 신규발생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연중	교육부, 여가부
1-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연계 강화	연중	교육부·여가부, 복지부
1-3.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연중	경찰청·법무부
1-4.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연중	여가부·행자부
1-5. 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16년 하반기	여가부
2.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2-1.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16.3월~	교육부·여가부
2-2. 직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취업지원	연중	고용부·여가부
2-3.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6.6월~	법무부·여가부
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16.3월~	여가부·복지부
2-5.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중	여가부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3-1.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역량 지원	연중	여가부

**④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체계 강화(2018. 5. 28)**

- (발굴·연계) 교육부, 경찰청 등 부처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상담지원) 시·군·구별 ('17)202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연계 초기에 1:1상담 통해 개인별 특성 및 욕구파악 등 서비스 지원
- (교육지원)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 설명회 등 지원
-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및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

- (자립 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자존감·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자유공간 등 지원
- (건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그림 2-4〉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체계

### ⑤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2018. 3. 6)

-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2018년 상반기에 발표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용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총 4개의 정책목표, 12개의 중점과제, 중점과제 각각에 2-7개의 세부과제 포함함. 총 48개의 세부과제 중 2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정 지원을 나타냄
-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① ‘청소년 작업장(목공예, 영상촬영, 바리스타 등 관련 기술 습득 및 직업 체험 가능한 작업장 운영 지원)’ 활성화, ②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간 연계 지원, ③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 조성 및 자립 동기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학업형, 직업형, 집중형(비행형, 무업형, 은둔형))과 민관협력을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스포츠역량강화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 둘째,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①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실화, ②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과 연계, ③ 청소년 유형을 고려한 학업, 취업,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2-5〉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주제별 세부과제

구분	내용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1. 청소년 참여 확대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3. 청소년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b>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직업장 활성화</li> <li>◦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li> <li>◦ 취·창업기반 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li> </ul>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b>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개입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li> <li>◦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실화</li> <li>◦ 관계부처 및 기관협력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li> <li>◦ 특성 고려한 맞춤서비스 지원</li> </ul>
	3-3.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총괄과 조정강화	
	4-2. 지역·현장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자료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나.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및 추진체계

-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지원 정책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 부처들 중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교육부가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대상 학업중단숙려제, 위(WEE)프로젝트 및 위탁형 대안학교와 학력인정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 외 고용노동부는 취업과 직업체험관련 지원사업을, 법무부는 비행형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6〉 각 부처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현황

소관 부처	주요대상	주요사업	사업목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역사회연계망 구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맞춤형 경제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가출청소년 보호	주거 및 생활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근로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건강진단	건강보험공단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 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양육비지원 검정고시지원 등	한부모가족담당부서
교육부	학교중단 청소년	위탁형 대안교육	교육기회 제공 및 학력취득 지원	미인가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인가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잠재적) 학교중단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학교중단 예방	사도교육청
		Wee-Project		사도교육청
고용노동부	무직·비진학 청소년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고용지원센터
		내일배움카드		
법무부	비행범죄 청소년	소년원	사회복귀역량 강화	비행예방센터/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꿈꾸움센터		

## (1) 교육부

### ① 학업중단숙려제

- 학교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3주간의 심사숙고기간을 주는 제도로 2013년부터 도입됨.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적은 지원기관인 Wee센터나 교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등을 지원받음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과 함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시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업중단숙려 상담 의무화 및 전국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상담 복지센터(CYS-Net)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숙려상담 요청 시 적극 개입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제고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54조 (5)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4조 (6)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 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5.5.29. 시행)

제15조(지원센터와의 연계) (1)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 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범위,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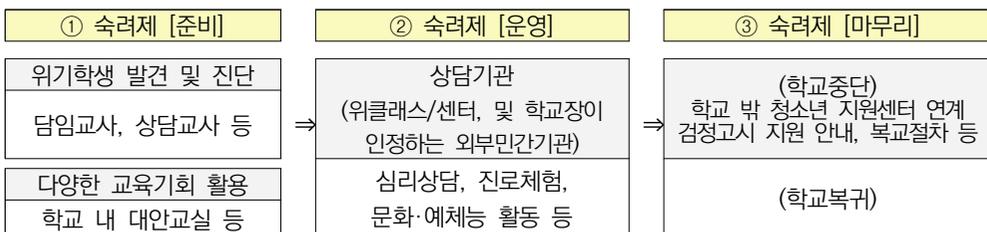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3. 21. 시행; 일부 개정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장기결석 등)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주 이상 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주고, 이 기간 동안 상담, 진로에 대한 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임. 즉 학교중단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임. 이를 위해 교육 여건 변경, 학교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학교중단 학생 사례, 중단 이후 다시 복교하는 방법, 학교중단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등이 이루어짐
- 숙려기간 동안 학교와 Wee센터(교육지원청), 교육청 지정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의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기원인별 및 개인별 맞춤 지원토록 하고 있음
- 운영방식은 학업위기에 대한 징후를 보이는 학생 및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대상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이 학업중단숙려제 안내와 참여 유도함.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 대상 다양한 상담과 체험 활동 등을 제공하고 숙려제 참여 이후에도 학교를 중단한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학생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함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대상은 대략적으로 학업중단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 학생,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를 보이는 학생, 담임 및 상담과 진로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임
- 반면, 학업중단숙려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숙려제 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거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 학내 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되는 학생 등이 있음

〈표 2-7〉 학업중단 숙려제 단계별 흐름도



자료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2019)

-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 중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 중 학업중단숙려제에 참가한 학생은 2014년 44,778명, 2015년 43,854명, 2016년 4,241명, 2017년 41,686명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중단 한 학생은 2015년 5,919명, 2016년 8,148명, 2017년 8,787명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한 이후에도 학교를 중단한 비율이 증가 추세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에도 학교를 중단한 비율을 보면 2015년 13.5%, 2016년 20.2%, 2017년 21.1%의 중단 비율을 보여 2년 사이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를 중단한 비율은 전국 평균 21.1%로 나타남. 전국 지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를 중단한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65.96%로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남 61.7%, 경남 61.4%, 대전 56.3%, 전북 5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중단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로 9.99%를 나타냈으며, 전국 평균(21.1%)보다 11.1%p 낮게 나타남
- 한편, 공통된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이 각 지역별로 공유되어 있어도 학업중단숙려제 성과는 지역 간 차이가 컸고, 그 격차는 해가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음.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의 범위와 숙려제 기간 동안 실시되는 프로그램 질적 제고, 전문가의 전문성 제고, 교육청의 교사, 교감, 교장 등의 관심과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나타냄

〈표 2-8〉 전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중단 현황

	학업중단자 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학생 수(A)	학업중단자 수(B)	비율(B/A*100)
2017년	50,057	41,689	8,878	21.08%
2016년	47,663	40,241	8,148	20.25%
2015년	47,070	43,854	5,919	13.50%
2014년	51,906	44,778	36,691	18.1%

자료: 2018년 국감자료 재편집

〈표 2-9〉 지역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중단 현황

지역	학업 중단자 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A)	참여학생 중 학업 중단자(B)	비율 (B/A*100)
전국	50,057	41,689	8,787	21.08%
서울	11,546	2,680	1,032	38.51%
부산	2,679	1,211	589	48.64%
대구	1,948	1,999	717	35.87%
인천	2,441	1,794	596	33.22%
광주	1,405	684	199	29.09%
대전	1,592	969	546	56.35%
울산	751	994	171	17.20%
세종	430	94	62	65.96%
경기	15,576	23,403	2,338	9.99%
강원	1,414	685	322	47.01%
충북	1,226	857	237	27.65%
충남	1,809	1,018	447	43.91%
전북	1,355	392	220	56.12%
전남	1,385	671	414	61.70%
경북	1,668	3,417	457	13.37%
경남	2,361	606	372	61.39%
제주	471	215	68	31.63%

자료: 2018년 국감자료 재편집

## (2) 여성가족부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신설·확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소속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센터 사업 지원,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자원연계구축과 사회적 인식과 홍보 확대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방향은 크게 3가지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임
- 2019년 현재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13개소로 각 시·도의 광역 센터와 함께 시·군·구 센터가 있음. 2015년에 전국 199개, 전북 10개소가 운영되었고, 3년이 지난 2019년에는 전국은 14개소가 증가 한 213개소이며 전북은 2015년과 동일하게 10개소를 유지하고 있음

〈표 2-10〉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2019)

단위: 개소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	199	24	14	9	9	6	3	5	1	31	8	13	15	10	15	15	18	3
'17	202	24	15	9	9	6	3	5	1	31	9	13	15	10	16	15	18	3
'19	213	26	16	9	9	6	3	5	1	31	11	13	16	10	19	15	20	3
시도 센터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 센터	197	25	15	8	8	5	2	4	1	30	10	12	15	9	18	14	19	2

자료 :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사업안내,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부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광역)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로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고 이에 따른 사업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음
- (광역)시·도 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시·군·구 센터의 종사자교육과 컨설팅 지원,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정책수요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 시·군·구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공지사향 전달과 지역의견 수렴 및 연합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연계 및 홍보 등을 주로 실시함. 반면,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서부터 개인육구 맞춤형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

〈표 2-11〉 시·도 센터 및 시·군·구 센터의 역할과 기능 비교

구분		사업내용
도 센터	시군센터 역량강화	- 시군센터 종사자 교육, - 시군센터 컨설팅 -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연계 - 시도단위 정책수요 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공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광역 연계기능 수행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참여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공지사향 전달 및 지역의견 수렴 - 꿈드림 멘토단·청소년단 모집, 교육, 회의 등 구성 운영 지원 - 시도 단위 연합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실시
시군 센터	상담지원	심리·진로상담, 학업중단 숙려제, 자립·학습동기 강화 상담, 가족 및 친구관계 상담 등
	교육지원	복합, 상급학교,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동기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지원, 대학입시지원,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 련 지원	직업탐색, 체험프로그램 제공,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8곳,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취업훈련 연계지원(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비즈쿨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경제적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초 소양교육 제공, 법률교육,
	건강검진	10대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서비스 제공(본인부담 없음) 건강생활 관리 지원, 체계관리 지원
	멘토 연계	멘토대상 : 20세 이상의 청장년 중 재능기부 희망자, 최소 6개월 활동 지원 : 학습지원, 정서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진로취업역량강화 지원 멘토혜택사항 : 자원봉사활동 인증,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연계 국 가근로장학금 지급, 이력서전문교육(21종) 상시가능 등
(지역)특화서 비스	재능개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자료 :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사업안내,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부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청, 경찰청, 소년원 등의 기관 연계와 본인, 가족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성과가 증가하고 있음

〈표 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발굴 현황

연도	교육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보호차분	소년원	복지시설	CYS-NET	본인	가족	가타	계
2017년	36,276	5,564	2,629	1,004	225	6,740	9,121	2,303	4,597	68,459
2016년	25,098	2,334	2,646	1,066	396	10,870	6,491	1,806	5,202	55,909
2015년	16,910	1,353	2,403	841	639	4,843	4,733	1,623	3,123	36,468

자료 : 여성가족부 발표 자료(2018.5.28)

-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정보 연계된 인원 또한 증가 추세이며, 이에 서비스지원 인원수도 증가함. 학업복귀는 2015년 4,147명에서 2017년 9,000명까지, 사회진입은 2015년 1,875명에서 2017년 4,667명까지 증가함. 세부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성과가 높았음
- 또한,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도 증가 추세임. 2018년 대학 진학 학생 수(616명)는 2017년 대비 62.5%(237명)가 증가함

〈표 2-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세부 지원성과

구분	정보 연계인원	지원 인원	성 과									
			합계	학업복귀				사회진입				
				소계	학업 복귀	검정 고시	대학 진학	소계	취업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자기 계발
17년	68,459	65,685	12,195	9,000	638	8,250	548	4,667	852	520	2,298	1,775
16년	55,909	53,553	9,554	7,161	697	6,645	270	3,121	489	440	1,342	1,149
15년	36,468	33,718	5,606	4,147	1,783	18,564	1,045	1,875	371	409	871	396

자료 : 여성가족부 발표 자료(2018.5.28.)

〈표 2-14〉 연도별 대학진학 현황

구분	계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2018년	616명	332명	284명
2017년	379명	229명	150명
2016년	398명	243명	1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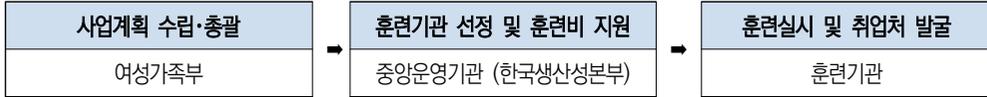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망

## ② 내일이름학교

- 여성가족부는 내일이름학교를 '11년도 청소년고용종합대책(고용노동부)에 따라 취업사관학교 시범 운영을 '17년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관한 후 '18년도 '내일이름학교'로 사업 명칭을 변경함.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사관학교를 2011년 3곳으로 시작해 2017년 9곳으로 증설됨
-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내일이름학교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 받아 9개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음. 2017년 기준 905명이 내일이름학교를 거쳐 갔고, 2018명이 재학 중에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모집률과 수수료, 취업률의 성과는 저조함
-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내일이름학교 사업이 2017년 이관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중요시 되었음
- 2019년 기준 내일이름학교 훈련기관은 17개소, 1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숙사 제공 기관은 5곳(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원광보건대학교)이며, 총 322명의 청소년이 이용가능함
- 주요 사업개요

- 의미 :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 일)을 이룬다는 의미
- 사업목적 : 맞춤형 직업 훈련 실시로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지원
- 훈련대상 : 만15세 - 24세의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 훈련기간 : 단기(3~6개월) / 장기(6개월 이상) (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 훈련과정 : 예비학교 → 직업훈련 + 특화프로그램 → 취업지원
  - 예비학교 : 직업훈련 시작 전 훈련과정 안내 및 훈련생간 친밀감 형성 등 훈련생 적응지원
  - 직업훈련 : 훈련생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수준별 훈련
  - 특화 프로그램 : 인성·교양, 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등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항
  -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처 알선 등
  -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훈련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무료 기숙사 제공(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숙사 미보유 기관인 경우 훈련생에 월 10만원의 교통비 지원)
  -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력취득, 직종 관련 자격증(기능사) 취득 및 심리상담 등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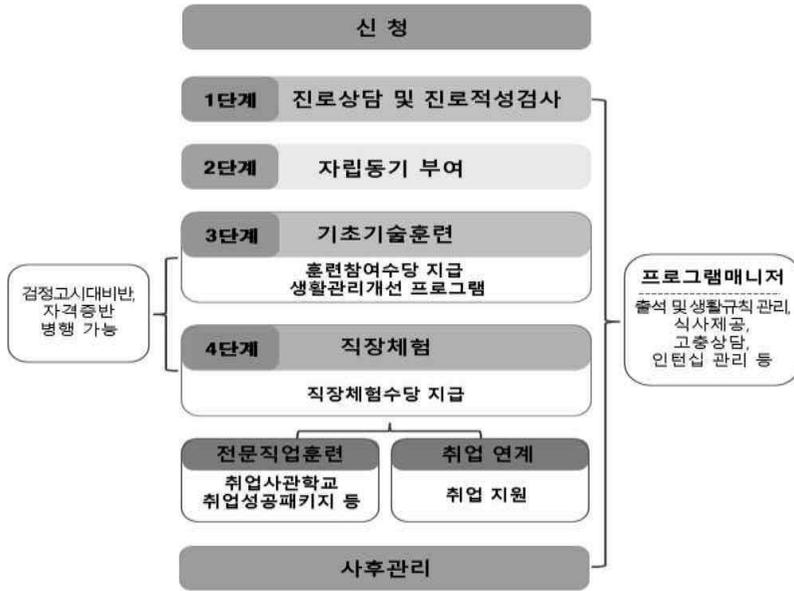
〈표 2-15〉 내일이름학교 현황(2019)

시·도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모집인원	기숙사
서울 (6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2.19. ~ 12.24.)	40	제공
	애란원	간호조무사훈련 (2.25. ~ 12.31.)	20	제공
	(사)에인청소년세상	뷰티아티스트 양성과정 (3.18. ~ 12.6.)	20	-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과제빵 (3.25. ~ 11.20.)	15	-
	하나투어 평생교육원	문화관광인재 양성과정 (4.1. ~ 9.30.)	15	-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드론 운용 조종 및 촬영 편집 (4.1. ~ 9.20.)	15	제공
부산 (3개)	사회복지법인 더굿세이브 부산지부	반려동물관리사·핸들러·트리밍3급과정 (2.15. ~ 11.30.)	15	-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리사 과정 (3.4. ~ 9.27.)	15	-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바리스타과정 (10.7. ~ 12.18.)	15	-
인천 (2개)	HS평생교육원	애견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3.4. ~ 10.1.)	16	-
	인천실용전문학교	미용사(네일) 자격증 취득과정 (3.4. ~ 11.29.)	16	-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커피 바리스타자격 및 머신AS수리과정 (4.15. ~ 7.31. )	15	-
경기 (2개)	남양주직업전문학교	한식·양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3.28. ~ 8.7.)	15	-
	한주요리제과커피직업전문학교	카페 바리스타&제과기능사 과정 (4.1. ~ 8.27.)	15	-
강원	다운간호학원(속초시꿈드림)	간호조무사과정 (2.18. ~ 12.27. )	20	-
충남	동천안직업전문학교	미용사(일반) 양성과정 (3.11. ~ 12.12. )	20	제공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원	헤어미용 (3.4. ~ 12.20.)	20	제공
경북	구미직업능력개발학원	초급 일반사무원 입문과정 (4.1. ~ 8.30.)	15	-

### ③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 2016년 여성가족부의 사업공모 이후 2017년(7개 지역)부터 시작하여 2018년 8개 지역, 2019년 9개 지역이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3년째 추진 중임.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에서 실시되고 있음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직업에 대한 기초 기술습득과 진로설계를 구체화하고 성공적인 사회진입의 토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직업형 학교밖청소년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이며, 총 4단계로 구성됨. 1단계는 개인별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진로탐색), 2단계는 자립동기 부여 활동 프로그램, 3단계는 기초기술훈련, 4단계는 직장체험 훈련으로 직장체험 훈련은 약 3개월간 사업장에 투입되어 인턴십까지 진행됨. 4단계 이후에는 내일이룸학교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이루어짐. 즉 4단계 프로그램 이후에는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인상담 등을 통해 취업하여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됨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시·도 센터가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시·군·구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연계 받아 운영하는 통합형과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됨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기관별 1년에 1억 원의 예산을 지급하며 4개월 이상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함. 3과 4단계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실습의 효과성을 위해 통합운영(기초기술 훈련과 직장체험)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김기현, 김태성, 배진우(2018).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여성가족부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7년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결과보고서(김기현 외, 2018 재인용)  
 <그림 2-5>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내용

### (3) 고용노동부

#### ①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면서 집중 취업 알선 등의 구직촉구 프로그램임
- 취업성공패키지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음. 1유형 참여 가능 대상자는 위기청소년(만15-24세), 니트족(만18-34세), 미혼모 및 생계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됨. 2유형은 참여대상자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 중 미진학 미취업 청년, 대졸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재학중인 자, 최근 2년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18-34세) 및 중장년(만35-64세 이하)이 해당됨. 1유형이 2유형보다 지원혜택이 많으며, 1유형은 전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2유형은 민간 위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참가가능대상자의 개인 맞춤형 취업역량 등을 진단하여 최장 1년의 기간 동안에 단계별로 취업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함. 1단계에는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함. 이 단계에서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1유형) 혹은 최대 20만원(2유형)을 지급해 줌. 2단계에는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토대로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소기업탐방, 청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등)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제공 받음. 3단계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행면접 실시 등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하며 취업성공 시 취업 후 최대 150만원(3개월째 30만원, 6개월째 40만원, 12개월째 80만원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이 지급됨

〈표 2-16〉 내일이룸학교,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비교(2019)

단위: 개소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		
내일이룸학교 (여성가족부)	만 15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다문화 학생	예비학교(2~4주) 직업훈련(3~6개월)	기숙사 사용 (출퇴근 시 교통비 10만원) 훈련수당 30만원	34억6 천만원 (19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 운영)	만 15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1단계 진로상담 및 진로작성검사(1주) 2단계 자립동기부여 프로그램(2주) 3단계 기초기술훈련 4단계 직장체험(3개월) 5단계 전문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 (6개월)	검정고시 대비반 및 자격증 취득반 병행 식사제공 고충상담 인턴십 관리 등 훈련수당 10만원	9억원 (19년) (9개 지역)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노동부)	(1유형) 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미혼모  (2유형) 고졸이하 비진학청소년 (만18세 ~ 34세)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취업알선)	3,710 억원 (19년)
		1 유형	3주~1개월 참여수당 25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개월 취업성공 시 최대 150 만원 지급 저소득층 구직촉구수 당 30만원(3개월)	
		2 유형	1주~1개월 참여수당 20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7%)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개월	

자료 : 김기현 외(2018) 보고서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019) 참고로 재편집

## ② 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개인 맞춤형 훈련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심사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
-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밟을 수 있음. 1인당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취업 전 1회가 원칙이나 최대 2회까지 가능함. 그리고 월별 훈련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할 경우 1일 훈련시간에 따라 훈련장려금이 지급 됨. 반면 취업을 위한 추진 사업이기에 자기계발이나 경력을 위한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대상자로는 구직을 신청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 학교장의 인정 필요) 등이 해당됨

## (4) 법무부\*

### ① 소년원

-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범법 청소년 재교육기관임.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한 소년을 수용하고 교육하는 기관임.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으로 보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도를 위한 수용 시설임
- 전국적으로 총 10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의 소년원이 있고, 이중 여자청소년이 갈 수 있는 소년원은 2개(안양, 청주) 임.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더불어 직업훈련과정,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성교육, 체험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www.cppb.go.kr/cppb/716/subview.do> 내용 참고

## ② 청소년 보호관찰소

-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 등의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학교,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그 외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제도임
-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로 범죄로 이어지는 습성을 버리고 선행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하고, 주거지 이동 시에는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 그 외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외출 제한, 정신과 진료 및 성실한 학업 유지 등의 개별적 과제를 부여하기도 함

## ③ 청소년자립생활관\*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의거 하에 운영하는 시설임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룹홈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 숙식 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대학진학, 직업교육 등 성공적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돕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만 12세 이상 24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전국에 총 8개(부산, 대구, 광주, 의왕, 대전, 안양, 전주, 춘천)가 설치되어 있음. 각 시설마다 12명에서부터 20명까지 전국적으로 총 130명의 정원이 있음

## ④ 청소년비행예방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꿈키움센터·솔로몬파크(청소년예방센터) 명칭으로 총 18개소가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음. 청소년 비행예방을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7000000037> 자료 참고

위해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 대상 상담조사, 심리검사 및 상담, 법 교육과 법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2-1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현황

지역	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서울	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대안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상담조사, 법 교육·법 체험, 보호자 교육
	북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	동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법교육·법체험, 법 캠프, 교사 등 직무연수
	부산솔로몬파크	
	부산 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	대구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대안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상담조사, 법 교육·법 체험, 보호자 교육
광주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	인천 청소년꿈키움센터 <sup>h</sup>	
대전	대전솔로몬파크	법교육·법체험, 법 캠프, 교사 등 직무연수
	대전 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울산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대안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상담조사, 법 교육·법 체험, 보호자 교육
경기	수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 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전북	전주 청소년꿈키움센터	
전남	순천 청소년꿈키움센터	
충북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경남	창원 청소년꿈키움센터	

### 제 3 절 전라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전북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진 지역이나 기관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와 군산시, 남원시로 나타남. 전라북도청은 2015년 2월에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제정 및 시행하였고, 다음으로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5년 4월 3일에 제정·시행함
- 전주시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15년 11월에 제정·시행하였고, 남원시는 16년 5월에, 군산시는 가장 최근인 18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함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종합지원계획 내용은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표 2-18〉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구분	조례명	제정	주요 내용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5. 2. 6	매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지원위원회 설치, <b>대안교육기관 지원</b>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인권 및 차별 실태조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5. 11. 6	<b>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까지 포함</b> ,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후견인 제도 운영, 건강권 확보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8.12. 21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등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6. 5. 13	학교 밖 청소년 및 <b>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b> 에게 교육, 상담, 자립, 문화·휴식공간 등의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편의 보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한 건강권 확보 지원 등
전북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15. 4.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b>대안교육기관 지원</b> ,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적극 협력, 정보제공, <b>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b> , 지자체 등과의 협력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 1) 주요 내용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가장 대표적임. 2015년 2월 조례 제정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대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원사업도 다양화·활성화 됨
- 반면, 여전히 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간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공개가 미흡하며,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타 지자체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대상 교육기자재, 교육활동비, 운영비, 급식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북지역 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2) 기관 유형별 지원 사업

- 전북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10개소; 광역 1, 시군 9개)가 가장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음.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학교인 내일이룸학교가 익산에 1개소(20명 정원) 고, 교육부서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총 6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이 종교성향을 지니고 있음. 그 외 가출과 비행·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5개소), 소년원(1개소), 보호관찰소(4개소), 전주 청소년꿈키움센터(1개소),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1개소) 등에서 보호·지원해주고 있음

### 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됨. 전북에는 2015년과 동일하게 총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전북지역의 총 1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광역센터 1개소(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각 시·군 센터 9개소가 있음. 전북도 센터는 광역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군센터 사업 컨설팅, 경계기능, 연합 사업 등을 지원하고 시·군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서부터 홍보, 청소년 각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2-19〉 전북 시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학업중단학생수

단위: 개소

구분	전북도 (광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부안 포함)	완주	무주 (진안 포함)	순창 (임실)	계
센터 수	1	1	1	1	1	1	1	1	1	1	10
학업중단자		495	159	176	83	68	178	121	53	22	1,35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2018)

## ② 내일이룸학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가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을 2019년 기준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1개소가 전북에 있음
- 기숙사 무료 제공과 자립장려금(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훈련시간 이수료 필기시험 면제(훈련시간 80% 이상 이수 시)하고 있음
- 전북에 있는 내일이룸학교는 만 15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이주배경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다문화교육원에서 헤어미용(일반) 국가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훈련생의 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 내 미용장 교수진과 훈련전담 강사의 밀착교육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도 진행
  - 수료생 직업관련 대회 참가 및 수상지원(제11회 전북도지사배 미용예술경영 대회 8개 상 수상), 프로그램 이수자 67%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③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전북지역에는 비인가형 대안교육기관에 2019년 기준 약 8개소가 있음. 이중 대부분은 종교적 교육이념을 지니고 학교 운영을 하고 있음. 지역별로 전주와 진안군에 각 3개소, 남원 2개소, 부안에 1개소가 위치해 있음
  - 전북의 5개 지역 총 9개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은 대략적으로 약 25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초등에서 고등까지 모든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2곳이며 나머지 대안교육기관은 중등과 고등 교과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표 2-20〉 전북 비인가형 대안교육기관 현황(2018년 기준)

지역	학교명	교육과정	학습자 수
전주	꿈나제청소년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중고	20
	링컨 전주 스쿨 (기독교)(2008년 설립)	고	60
	토기장이학교(기독교)	초중고	20
남원	실상사작은학교(불교)	중고	30
	한마음기독교학교	고	10
진안	이랑대안학교(기독교)	중고	40
	진솔대안학교 (기독교)(2000년 설립)	중고	40
	시냇가에 심은 나무학교 (기독교)(2008년 설립)	중고	25
부안	변산 공동체학교(1995년 설립)	초중고	20
소계(대략적)			265

#### ④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 학교 청소년 중 범죄와 비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이나 혹은 자퇴로 비의도적·의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 범죄와 비행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거나, 수감기간이 끝난 경우 혹은 범죄가 경미한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전북지역에서는 소년원 1개소, 보호관찰소 4개소에서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 법무부의 한 기관인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 위기단계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심리상담, 문제 진단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에 1개소가 설치·운영됨

〈표 2-21〉 전북지역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현황

구 분	지 역(관할지역)
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보호 관찰소	군산 (군산, 익산) 정읍 (정읍, 부안, 고창) 남원 (남원, 장수, 순창) 전주 (전주, 김제,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⑤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기관으로 전국에 총 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전북지역에 있음
- 자립생활관 정원은 각 시설의 크기에 따라 약 20명 정도 수용가능하며 입소대상자는 만 12~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을 우선순위로 그 외 보호관찰 대상자 및 지역 내 소외계층 불우 청소년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음
- 생활시설 형태로 생활공간 제공, 무료숙식 이외에도 취업활동 지원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지원과 학업연계지원 등으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하는 곳임

### ⑥ 청소년 쉼터

-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 대상 일시보호, 숙식제공을 목적으로 있음. 그 외 단기 및 중장기 쉼터를 중심으로 학업과 직업훈련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북에는 5개의 쉼터가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수는 약 50명 정도이며 남자와 여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각 2개소, 남녀 공동은 1개소가 있고, 일시쉼터 1개소, 단기 쉼터 2개소, 중장기 쉼터 2개소가 있음

〈표 2-22〉 전북 청소년 쉼터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지역	정원	직원수	보호기간	성별
일시쉼터	익산	12	6	24시간~7일	남녀 모두
단기쉼터	전주	10	4	3개월, 최장 9개월	여자
	전주	12	5		남자
중장기쉼터	군산	7	3	1년 최장 4년	여자
	전주	8	3		남자
계	5개소	49	21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http://jikimi.or.kr/index.php>)

## 제4절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분석

- 본 절에서는 먼저 16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 우수 사업과 지자체 예산을 통해 수행하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함
- 다음으로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화 사업 현황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지원 사례를 몇 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함

### 가.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업 및 특화사업 분석

- 2018년 기준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들 중 우수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봄. 여성가족부는 지난 3년 동안(15~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현장 안착과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8년부터는 사업의 질적 역량을 높이고 청소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13개소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 총 29개의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대상은 경기도의 '2018년 꿈울림 진로박람회', 금상은 경남 산청군의 '1인 1책 만들기 책꿈 내꿈'과 김해시의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 봉사로 하나 되다!'가 선정됨
- 총 29개의 우수 사업 중 학습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은 서울의 '너에게 딱', '맞춤형 교육지원', 전북의 '나도대학간다'가 있었고, 취업 및 직업체험관련 사업으로는 경기의 '드림캐뎁', 울산의 뷰벤처스 플러스, 전주의 '챌린지UP 컨소시엄 운영 직업 잡아 세상 속으로' 등이 선정됨. 그 외 경기의 꿈울림 진로박람회는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과 진학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함
- 그 외 대부분의 우수 사업들은 자기계발과 관계증진 및 동아리 활동, 사회 인식개선과 홍보를 겸한 사업 내용이었음. 예로 압화 동아리(꿈길 꽃길), 환경 봉사 동아리(해피 봉사단), 지역사회 봉사, 탭댄스 동아리(비행기), 모樂모락 동아리(모이는 재미, 피어나는 즐거움), 사진동아리(디카 free oh!), 붉은 닭 행사운영 동아리 등이 있음

〈표 2-23〉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우수사업 사례(2018)

지역	사업명	세부내용
경기	2018년 '꿈울림 진로박람회'	-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전국 최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박람회' (홍보존, 진학존, 취업존, 체험존, 특별관, 공연 부스 운영)
	드림캐츄 (Dream Cat & Dog)	- 지역특성과 청소년 특성 반영 반려동물 관련 진로 탐색 및 경험 - 애견훈련 · 승마 동아리 운영, 동물매개치유캠프, 애견용품만들기 등
	사이언스 30 (과학실험탐구 자기계발 프로그램)	- 사고력 탐구력 향상을 위한 실제 과학실험과 탐구교육의 기회 제공 - 집단프로그램 운영,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기전자, 환경, 우주, 생활과학 등 실험활동 진행, 1인 1실험도구로 직접 실험, 총 10회기 참여와 수료증발급
	동아리 모락모락 (모이는 재미, 피어내는 즐거움)	- 학교 밖 청소년 주체 동아리 개설 및 운영으로 정체성 발견에 도움 -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바탕으로 5개 영역(애병, 기운, 알파벳타 20, 다꿈꽃집, 카페:D 케이터링)에서 자기계발과 자격증취득내용과 대내외적 활동으로 적극적 참여와 능동적 운영 방식 추진
	소나기 (소소한 나의 이야기 기록)	- 인문학을 매체로 내면이야기 나누기, 공감, 타인에 대한 이해와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 - 이론교육(작품수업, 토론, 글쓰기, 발표) → 문학기행 → 전시(1년 5회)
경남	1인 1책 만들기 '책꿈내꿈'	- 꿈을 담은 책 출판 기획, 직접 그림과 글을 써서 1인 1책 출판 - 출판기념회 및 작중집 전시화로 꿈 발표와 스스로의 각오 다지는 시간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 봉사료 하나 되다!	- 자발적 봉사활동 미흡에 따른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봉사활동으로 심리적 위축감 해소, 정서적 보람 추구,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꿈 농부, 마음 소중 프로젝트, 세.다.방.세상에 다가가는 방법, 사람의 빵·썸크림 만들기 3개 프로그램 운영
서울	너에게 댕	- 전문적이고 맞춤형 검정고시 준비(검정고시 전문강사 초빙, 맞춤형 모의고사 진행) 및 졸업식 진행, 맞춤형 대학입시 컨설팅
	청소년증 제작소	- 권리보호와 자립생활 위해 청소년증 제작서비스 지원 - 발급절차 간소화로 발급율 향상, 청소년 유입 꾀함
	붉은닭 행사운영 동아리	- 동아리 활동 통해 또래관계 형성,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추진으로 사회적 향상 - 청소년이 직접, 기획, 운영으로 성공경험 축적 및 자기성장 발전 도모
	나는 뮤지컬 배우다	-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예술분야의 체험과 전문 교육 기회 마련, 진로탐색 등 - 뮤지컬 교유그 문화·예술 체험, 문화·예술 특상, 뮤지컬 공연, 뮤지컬 캠프
	맞춤형 교육지원	- 청소년 개인별 욕구와 수준, 시대에 맞는 지속적이며 소규모 분반의 학습지원 - 국, 영, 수, 사회, 과학 수준별 분반 등 학습지원
충남	다독(다독)이는 아띠들	- 책을 통한 심리치료 기회 제공, 소속감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 독서심리코칭 통한 자존감 회복, 자기성장의 기회제공
	꿈드림, 공주한옥마을에 가다	- 1박2일 가족과 함께 숙박하면서 가족관계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제공 - 8가족 참여, 추억 만드는 경험
	탭댄스 동아리 '비행기'	- 동아리 활동, 탭댄스 강습과 발표회, 총 16차시 운영
울산	꽃, 자수를 만나다	- 손바느질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향상,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 서천의 특산물 모시 이음, 상품개발 및 제작, 판매, 전시까지 실무경제 체험
	해피 봉사단 (환경 봉사 동아리)	- 자기주도형 봉사 동아리 - 청소년 스스로 기획·참여하는 자기주도적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공익 활동
부산	위풍당당 소풍단	- 문학·음악·미술·문화기행·경제·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 융합적 프로그램 구성 - 문화체험 5회, 인문·여행 2회, 문학 2회, 음악 6회 운영
대구	학교 밖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단	- 악기 연습과 합주를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획득 - 집단 음악교육 활동, 오케스트라 악기 수업 강사 지원, 악기 구입 예산 지원
	꿈을 찾아주는 SPO 멘토단	- 학교전담경찰관 멘토 등록과 멘토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 아웃리치 활동과 경찰학교 체험으로 지속적 연계 서비스 지원

자료 :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7).

- 다음으로 특화사업이란 자체 시·도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사업 운영 현황과 세부 내용을 살펴봄. 전구 지역 중 서울,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신규 사업 발굴도 지속 되고 있었음. 특화사업의 주요 대상은 취약청소년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교통비, 급식비, 수업료 등)과 문화 및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었음
- 특히 서울시는 교육청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교육 참여 수당을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4〉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특화사업 사례(2019)

지역	사업명	세부 내용
서울	교육참여수당 지급(교육청)	2019년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10만 - 20만원 수당 지급 41명 청소년에게 3월달 처음으로 교육 참여수당 지급(관악구 꿈드림센터 친구랑에서 지원) 2019년 500명, 2020년 800명으로 확대(이후 서울시 꿈드림 청소년도 수당 지급 계획)
	인턴십 대안학교 수업료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일·배움 과정을 통한 진로 설계 및 자립강화 지원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수업료 전액 지원
대구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에게 복지카드를 통한 기초생활 지원(급식비, 교통비)
	꿈드림 연합 캠프 꿈드림 페스티벌	위기 취약 학교 밖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캠프, 체험활동과 교육을 위한 제주도 생태 체험 캠프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제, 공연행사
광주	작업장 운영 교통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5곳에 운영실무자 1인 인건비 지원 세상스통카드 : 만9~18세, 학교 밖 청소년, 월 1회 5만원씩 최대 4개월(총 20만원)
대전	대안교육프로그램	◦ 대안교육: 정규 교과과정/검정고시 병행,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대안교육 프로그램 ◦ 진로탐색 : 학교 밖 청소년이 선호하는 특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 대안학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
충남	문화체험 복지지원	제주도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수학여행) 체육대회, 모의 창업 캠프 법인교통카드 시스템(티모넷) 도입, 자체 교통카드 제작
전남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수련회	청소년 수련활동, 직업체험 및 운전면허 취득 지원
	청소년 일자리 체험 사업	청소년 일자리 체험
경북	검정고시(기술훈련) 학원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경상북도 학습지원단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해 민간차원의 재능기부 조직 운영(9현재 14개 시군 161명 구축) 권역별 위촉 시, 교통비 지급, 권역별 평가회의 등 운영
제주	청소년정서치유 힐링캠프	우울, 불안, 품행문제 등으로 학교 부적응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적 대안활동

자료 : 각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재구성

- 마지막으로, 타 시·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권 밖 교육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7개 시·도에서 급식비와 사업비(서울시만)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급식비 지원은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순으로 퍼져갔으며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로 2019년도에는 경기 광주와 용인시, 강원도의 원주시, 제주도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 광주, 전남, 제주 4개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 지역 3곳과 강원 지역 1곳은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를 근거, 서울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함

- 한편, 경기 광주시는 ‘2019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에 따라 급식비가 지원되나,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의거 등록 학원시설, 동일사업 재정지원 기관, 특정사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기관,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 편견 교육기관은 지원 대상기관에서 제외시켰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신청은 급식 조리시설을 구비해 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와 보조금심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임

〈표 2-25〉 타 시·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

지역	지원 내용	시기	법적근거	주체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서울	급식비 및 사업비, 인건비 지원 ◦ 사업비 : 기관별 연 3,000천원 ◦ 급식비: 초 3,150원 중·고등 4,170원	'12~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시	급식지원 약 2,116명
인천	미인가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 급식비 : 340,560천원	'16~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제11조	인천시 지립지원팀	
광주	무상급식 지원*1일 1식 4천원 인건비 지원(10개소)	14.3~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제2조, 제7조	광주광역시	11개 학교 약 300명
경기	(성남시) 무상급식비 지원 ◦ 초, 중학생에게 보편적 복지 실현	'16.3~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성남시	4개 학교 약 281명
	(광주시)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 대상 : 초, 중등학생 ◦ 공모로 선정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용인시) 대안학교 급식비지원	'19.3~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2개 학교 (190명)
강원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 친환경 급식 지원	'19.4 ~ '20.2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원주시 로컬푸드과	6개 학교 197명
전남	미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 대상 : 초·중학생	15.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 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 정책 담당실	
제주	비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 총 급식사업비 : 2400만원 ◦ 초 3,550원, 중·고 3,700원	'19.9~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 에 관한 조례	도청 친환경농업 정책과	7개교 123명

자료 : 인터넷 뉴스 자료를 검색하여 정리함(2019. 7)

## 나. 타 시도 지원 사례 분석

### 1)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서울/광주/인천)

- ‘학교 밖 배움터’란 용어는 과거에 네트워크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네트워크 학교’ 혹은 ‘네트워크 배움터’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었었음. ‘학교 밖 배움터’의 의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부의 정규 학교를 그만 두고 나와서도 배움(학업)을 지속 이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대안적 공간 모드를 통칭하고 있음(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백서). 이에 특히 서울특별시는 학교 밖 배움터를 비인가 도시형대안학교와 징검다리거점공간으로 정의하고 이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일정 심사기준에 의해 최종 선정된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최종 선정된 비인가 대안학교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약 절차를 거쳐 사업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됨. 서울시는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징검다리거점공간)에 대해 31개소(‘18년)를 대상으로 인건비, 사업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음

####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배움터 지원 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지원
  - 지원규모 : 31개소(‘13년)→44개소(‘18년) → 45개소(‘19년)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45개소) 학습교사 인건비, 사업비, 재학생 급식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맞춤형 학습콘텐츠 개발
    - 인텡십 사업(200명),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150명)
    -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등
  - 서울시예산(일반회계) 5,401백만원

자료 : 서울시 세출예산서 참고(2019년)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백서’ 참조.

## ① 도시형대안학교

- 비인가대안학교는 '전원형대안학교'와 '도시형대안학교'로 구분됨. '전원형대안학교'는 전원과 학습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자활, 자존능력을 기르며 의식주를 위한 노작교육 및 실제적인 진로와 연계된 직업체험, 다양한 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획일화된 정규 교육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전원(농촌)에서 운영하는 기관임. 반면, 도시형대안학교는 생활하는 곳을 떠나 전원형대안학교를 선택할만한 여유나 여건이 안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유형임
- 전원형대안학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종교적 성향을 지닌 곳이 다소 많음. 반면, 도시형 대안학교는 민간영역의 대안교육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공교육에서의 대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함
- 인천광역시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도시형대안학교(미인가대안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즉, 학업부적응 등의 이유로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사후복지 시스템인 도시형대안학교를 신설 운영·지원함.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교과목 외에 다양한 체험학습, 진로탐색, 상담, 특기개발,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음
- 광주광역시도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도시형대안학교(비인가대안학교) 10개소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비인가대안학교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② 징검다리거점공간

- '징검다리거점공간'은 대안학교 현장에서도 담아지지 않는 청소년의 유형을 발견하면서 설립되었음. 학교 밖의 진로를 위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학습, 체험, 진로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 등을 위한 공간임

## 비인가대안학교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 수업은 학생들의 욕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따라 학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간 오픈 챔피언스필드 인근 236-2728	#고전강독 #철학 #문학 #사회 #밴드합주 #영화제작 #연극 #미술 #체육 #영어 #수학	월~금 09:30~16:00	학기별 모집	24세 이하 15명
징검다리배움터 놀롬 예술의거리 070-8838-1317	#분기별 자유여행 #악기 #미술교실 #영화교실 #검정고시 #체육활동	월~금 13:30~20:30	상시모집	24세 이하 15명
레이학교 화정역 도보3분 062-375-1326	#희망수업 #학생주도 수업개설 #문화예술 #자치활동 #생활자립 #사계절여행 #증감파티 #자유여행	월~금 9:30~17:30	매년 1~2월	14세~19세 20명
무진일용학당 상무지구 입구 무진교회 382-0035	#검정고시 #일본어 #영상요가 #화해 #음악밴드 #사회참여 #DIY목공예 #캘리그래피 #청년수공예 #올롱도 #독도여행 #세리믹아트 #푸드아트	월~금 11:00~17:00	상시모집	14세~20세 15명
발발학교 침단 생암공원 옆 971-5533	#손작업장 도예&디자인 #즉흥무용 #밴드 #미디어인문학 #환경캠페인 #진로진학 직업체험 #동아리 #계절별여행	월~금 10:00~17:00	상시모집	14세~20세 10명
지혜학교 광산구 등암동 962-0981	#전국단위생활관형 #철학인문학 #생태 #영성 #자기주도선택수업 #독서토론글쓰기 #예술통합 #체험학습 #인도네발, 해외이동수업 #검정고시	2주마다 커가	상시모집	14세 ~ 19세 150명
청소년공간 낚다 전대후문 267-9787	#검정고시 #미술 #음악 #농구 #우주이야기 #지리산걷기 #생활공예	월~금 10:30~17:00	상시모집	14~22세 (16~17세 집중모집) 10명
광주YMCA해일학교 광주YMCA 4층 234-0073	#창의과학 #미술 #캘리문학 #영어회화 #시민사회 #실림 #지렁이농부 #대자유여행 #소풍 #사회참여 #생활체육 #명화교육 #실림 #검정고시	월~금 12:00~18:00	상시모집	17세~19세 10명
행복학교 36.5 꽃대백화점 맞은편 714-3650	#검정고시 #분기별 여행 #스포츠 #인성교육 #한국어	월~금 11:00~18:00	상시모집	북한 이탈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자녀 12명
화월주 성장학교 다은 영주사거리 372-1328	#음악 밴드 #체육 #고졸검정고시 #수공예 #쿠링클래스 #사회참여 #봉사 #역사문화체험 #성장여행 #출입여행	월~금 14:00~19:00	상시모집	17세~21세 10명

자료: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lyyouth.or.kr/>).

### 〈그림 2-6〉 광주광역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 징검다리거점공간 이용 가능 대상자는 배움의 동기와 자원이 결핍된 청소년으로 정규 학교의 울타리를 거부하는 청소년, 학적은 학교에 있으나 배움의 계기가 부재한 청소년, 니트형 청소년, 학습 목표와 기대가 있으나 학교 안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청소년, 반복된 규범 위반으로 학적을 이곳 저곳으로 옮겨간 청소년, 특별한 정서적 성향을 학교 안에서 이해받기 어려운 청소년, 위기의 가정상황으로 학적을 가질 수 없는 청소년 등이 있음
-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의 교사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일반학교로 찾아가기도 하며, 청소년들이 모이는

아지트로 찾아가기도 하여 청소년들과 공감하고, 신뢰를 형성함

- 징검다리학습과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발걸부터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및 설계, 대안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징검다리거점공간은 7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학교, 대안학교, 혹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못한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2) 꿈올림 진로박람회(경기)\*

- 경기도는 도·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여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그려낸 동반 성장의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음.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자원 연계 및 재능 기부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박람회’를 2018년 9월에 개최함
- ‘꿈올림’은 경기도내 31개 꿈드림 센터가 어울려 꿈을 올린다는 뜻임
- 진로박람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진학존, 취업존, 직업체험존, 게임존 등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며, (2)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11명의 인기 전문직업인 특강, 선배와의 만남, 다양한 공연 등 다양한 후원과 연계로 교류의 장을 마련함. 마지막으로 (3) 검정고시 맞춤형 대학입시 설명회 및 입시전문가의 1:1 대입입시 컨설팅과 취업토탈서비스가 제공됨
- 특히, 동물매개치료사, 스타일리스트, 퍼스널트레이너, 푸드테라피스트, 마술사, 스킨스쿠버 전문가, 미군수상생존교관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전문직업군의 직업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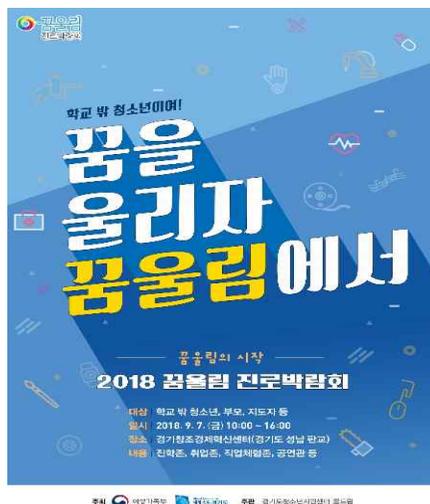
---

\* 경기도청 보도자료(2018.9.7.).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올림’ 진로박람회 개최.

- 체험존과 공연관에서는 공예, 캘리그래피, 원예사 등의 직업체험도 이루어짐
-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진로·직업에 관해 도움이 되었고, 또한 전문가들의 자발적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특강	현역 선배들의 생생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 특강(7층)</li> <li>- 박준영 변호사(11:30~12:00)</li> <li>※ 영화 '재삼의 실재모델로' 약자를 위해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기 전문직업인과의 만남(10층)</li> <li>- 스타일리스트, 퍼스널 트레이너</li> <li>푸드테라피스트 등 11명의 전문가와 만남</li> </ul>	
부스 운영	취업 토탈 서비스(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 스타일링 ⇒ 면접사진 촬영 ⇒ 모의면접 ⇒ 피드백 ⇒ 일자리버스</li> <li>※ 개별 취업상담을 위해 경기일자리재단 일자리버스 배치</li> </ul>		
	<b>진학존(지하2, 9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맞춤 입시설명회(9층)</li> <li>◆ 입시전문가 1:1 컨설팅(9층)</li> <li>◆ 검정고시만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부스 운영(지하2층)</li> </ul>	<b>취업존(지하2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성 검사 및 진로 설계</li> <li>◆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보제공</li> <li>◆ 드론, 스타일링 등 전문가 양성과정 소개</li> <li>◆ 건물 외부 일자리버스 운영</li> </ul>	<b>체험존(지하2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체험</li> <li>- 공예, 캘리그래피, 원예사, 내일아트 sns마케터 등 13개</li> <li>◆ VR(가상현실) 게임존</li> </ul>

〈그림 2-7〉 경기도 꿈울림 진로박람회 주요 행사 내용 및 홍보물



### 3) 청소년 작업장\*

○ 광주광역시는 목공, 미디어, 라디오, 뷰티, 동물, 자전거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작업장(6곳)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작업장이란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제3조)의 법적근거를 토대로 노동의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근로 권익이 보호되고 배우면서 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일터임. 특히, 작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만들고, 진로를 탐색함과 동시에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을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

- 목공작업장, '생각하는 손': 청소년들이 목공기술을 배우고, 직접 가구와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함. 또한, 목공교육도 진행함
- 방송작업장, '안테나': 라디오방송 제작,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PD, 라디오 다큐제작, 라디오방송 축제 참여 등을 경험함(광주 FM 88.9MHz)
- 뷰티작업장, '예뻐져라':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등의 분야를 배우고 다양한 현장의 경험 등을 알아가며 판매하여 소득을 창출함
- 동물행동교정작업장, '놀이줄개': 동물에 관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반려동물 행동교정 훈련, 미용, 사양관리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작업장
- 자전거작업장, '바이크런': 자전거 수리 및 재활용사업, 자전거 카페 사업, 자전거안전학교 사업 등을 진행하고 기술을 배우는 작업장



〈그림 2-8〉 광주광역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 자료: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lyyouth.or.kr/>).

## 다. 요약 및 시사점

- 먼저, 타 시·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 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 총 29개의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대상은 경기도의 '2018년 꿈울림 진로박람회', 금상은 경남 산청군의 '1인 1책 만들기 책꿈 내꿈'과 김해시의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 봉사로 하나 되다!'가 선정됨. 29개의 우수 사업 중 학습복귀 지원 사업 3개, 취업 및 직업체험관련 사업 3개 등이 선정됨.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자기계발과 관계증진 및 동아리 활동, 사회인식개선과 홍보를 겸한 내용이었음.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타 시·도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광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음. 대부분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지원(교통비, 급식비, 수업료 등)과 문화체험 지원 사업,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 등이었음
- 타 시·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시·도에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급식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음. 서울시는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순으로 퍼져갔음.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로 2019년도에는 경기 광주와 용인시, 강원도의 원주시, 제주도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 광주, 전남, 제주 4개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 지역 3곳과 강원 지역 1곳은 학교급식지원관련 조례를 근거, 서울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타 시·도의 우수지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첫째, '학교 밖 배움터'가 있었음. 학교 밖 배움터는 교육부의 정규 학교를 그만 두고 나와서도 배움(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대안적 학습공간으로 서울시는 학교 밖 배움터를 비인가 도시형대안학교와 징검다리거점공간으로 정의

하고 이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음. 내년 공모 과정을 거쳐 일정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된 비인가 대안학교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약 절차를 거쳐 사업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됨. 서울시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징검다리거점공간)는 2018년 기준 31개소로 교사 인건비, 사업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광주광역시(10개소)와 인천시도 학교 밖 배움터인 도시형대안학교를 연계·지원(무상급식 제공 등)하고 있음. 한편, 전북지역의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은 대부분 전원형으로 군 단위지역에 위치해 있고, 특히 강한 종교적 성향을 띠고 학교 수업료도 비싸서 거주지 근거리에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원형 비인가대안학교를 추천하고 권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북지역에도 거주지와 근접한 지역에 쉽게 찾아가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지원 및 체험학습, 진로탐색, 특기개발 등의 지원을 개별적으로 면밀한 관심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도시형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둘째, 경기도의 ‘진로박람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된 TF팀이 직접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그려낸 동반 성장의 축제의 장임. 박람회 주요내용은 진학존, 취업존, 직업체험존, 게임존 등으로 다양한 부스 운영과 인기 전문직업인 특강, 선배와의 만남, 교류의 장 마련 및 검정고시 맞춤 대입입시 설명회와 입시전문가의 1:1 대입입시 컨설팅, 취업토탈서비스가 제공된 사업임. 이에 전북지역에서 1년에 최소 1차례 정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종합 서비스를 안내하고 실시하면서 홍보,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겸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무엇보다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들의 관심과 필요도가 높은 영역을 확대 홍보하여 신규 청소년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작업장은 노동의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근로 권익이 보호되고 배우면서 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일터로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만들고, 진로를 탐색함과 동시에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을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광주광역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6곳이 있음)



# 3

장

## 전북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

Jeonbuk Institute

---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제2절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제3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현안과제



# 제3장 전북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

## 제 1 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가. 전국 학교중단 학생 현황

- 2018년 기준(2017. 3~2018. 2) 전국 초·중·고교 학교중단 학생은 총 50,057명으로 전체 재학생중 0.9%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에 따른 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6%, 중학교 0.7%, 고등학교 1.5%를 나타내었고, 고등학교 학교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재학생 대비 학교중단 학생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0.9%에서 2016년과 2017년 0.8%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8년 0.9%로 다시 상승함
-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중단 학생 수 중 48.1%(24,078명)로 여학생으로 남학생이 1,90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로 살펴봐도 초·중·고 모두 학교중단 학생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중단 학생 수 중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15% 이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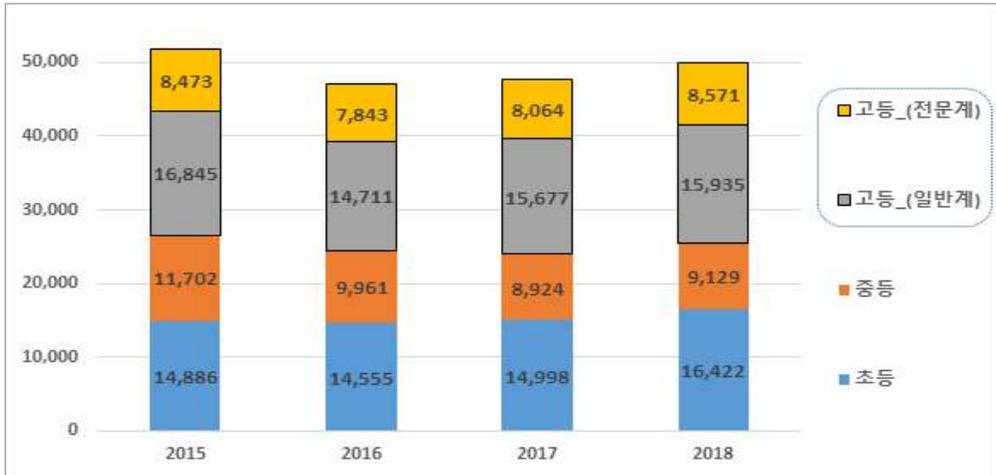
〈표 3-1〉 전국 연도별\*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2015~2018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고등학교				전체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일반계		전문계		중단학생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15	14,886	0.5	11,702	0.7	25,318	1.4	16,845	1.2	8,473	1.8	51,906	0.9
'16	14,555	0.5	9,961	0.6	22,554	1.3	14,711	1.1	7,843	1.8	47,070	0.8
'17	14,998	0.6	8,924	0.6	23,741	1.4	15,677	1.2	8,064	1.9	47,663	0.8
'18	16,422 (7,902)	0.6	9,129 (4,516)	0.7	24,506 (11,660)	1.5	15,935 (7,516)	1.3	8,571 (3,636)	2.1	50,057 (24,07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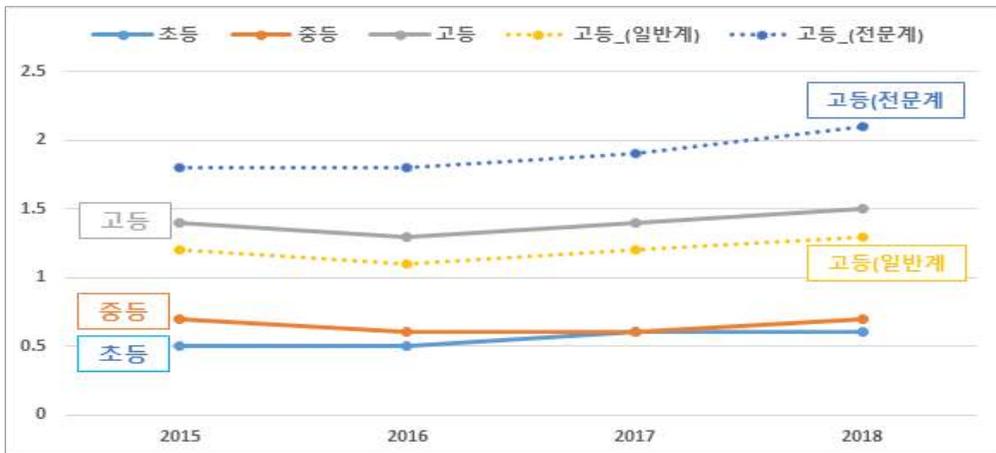
주 :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수(해당 학년도 3월 1일~차년도 2월말)/전체학생수(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100.

괄호( )안의 숫자는 여학생의 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주 : 일반계고: 일반고+특수목적고 / 전문계고: 특성화고+자율고  
 <그림 3-1> 전국 연도별\*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수(2015~2018년)



주 : 일반계고: 일반고+특수목적고 / 전문계고: 특성화고+자율고  
 <그림 3-2> 전국 연도별\*학교급별 학교중단율(2015~2018년)

○ 전국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학교중단 학생 현황

- 전국 시도별 학교중단 학생 수를 살펴보면, 학교중단 총 학생 수 중 경기도가 15,576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1,546명(23.1%), 부산 2,679명(5.3%), 경남 2,361명(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국 학업 중단 청소년 50,057명 중 전라북도는 1,355명으로 전체 중단자의 2.7%를 차지함

- 전국 평균 학교 중단율은 0.9%로 서울(1.2%), 세종(1.2%), 경기(1.0%)는 평균 중단율 보다 높았고, 부산, 대전은 평균 중단율(0.9%)과 동일하며, 울산은 0.5%로 가장 저조한 중단율을 보임. 전북의 학교중단 비율은 0.6%로 강원도(0.8%), 충북(0.7%), 충남(0.7%), 전남(0.7%)보다는 다소 낮으나 경북과 제주와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전국 시도별 학업중단 학생 수 및 중단율(2018년)

-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별과 학교급별 학교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중단비율이 전국평균 0.6%로 나타났으며, 서울(1.1%), 세종(1.1%), 경기(0.8%), 대전(0.7%) 지역이 평균을 상회함. 중학교의 경우 중단비율은 전국평균 0.7%로 서울(1.0%), 경기(0.8%), 세종(0.8%) 지역이 평균을 상회함
-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중단비율이 1.5%로 초등학교 중단비율 보다 0.9%, 중학교 중단비율보다 0.8%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남. 고등학교 중단비율 역시 세종(1.7%), 서울(1.6%), 경기(1.6%), 강원(1.6%) 지역이 평균을 상회함
- 고등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평균 중단비율은 1.3%인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 평균 중단비율은 2.1%로 고등학교 평균 중단비율보다는 0.6%p가 높고, 전문계 고등학교 평균 중단비

율보다는 0.8%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계 고등학교 중단비율도 세종(1.6%), 경기와 서울(1.5%)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계 고등학교 중단비율은 강원(3.9%), 경남(2.4%) 대전·경기·부산·충북(2.3%)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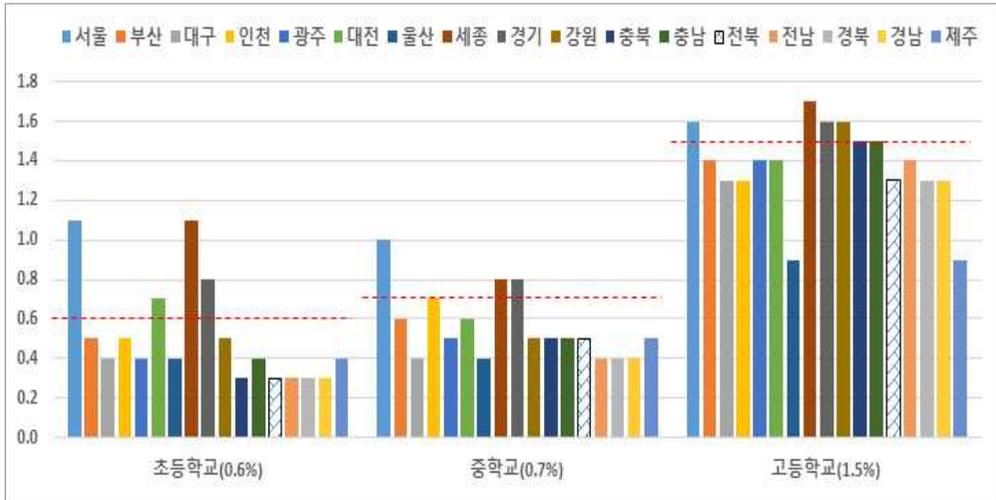
-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 0.3%, 중학교 0.5%, 고등학교 1.3%의 학교 급별 모두의 중단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고등학교를 일반계와 전문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계 1.1%, 전문계 2.0%로 전북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중단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전국 시도별 \* 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 수 및 중단율(2018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전문계		전체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중단학생 수	중단율
<b>총계</b>	<b>16,422</b>	<b>0.6</b>	<b>9,129</b>	<b>0.7</b>	<b>24,506</b>	<b>1.5</b>	15,935	1.3	8,571	2.1	<b>50,057</b>	<b>0.9</b>
서울	4,686	1.1	2,329	1.0	4,531	1.6	3,001	1.5	1,530	1.8	<b>11,546</b>	<b>1.2</b>
부산	760	0.5	477	0.6	1,442	1.4	736	1.1	706	2.3	<b>2,679</b>	<b>0.8</b>
대구	493	0.4	292	0.4	1,163	1.3	526	0.9	637	2.1	<b>1,948</b>	<b>0.7</b>
인천	737	0.5	516	0.7	1,188	1.3	684	1.0	504	2.0	<b>2,441</b>	<b>0.7</b>
광주	346	0.4	239	0.5	820	1.4	626	1.3	194	1.7	<b>1,405</b>	<b>0.7</b>
대전	555	0.7	288	0.6	749	1.4	368	1.0	381	2.3	<b>1,592</b>	<b>0.9</b>
울산	244	0.4	131	0.4	376	0.9	217	0.7	159	1.6	<b>751</b>	<b>0.5</b>
세종	230	1.1	71	0.8	129	1.7	106	1.6	23	2.2	<b>430</b>	<b>1.2</b>
경기	5,650	0.8	2,974	0.8	6,952	1.6	5,479	1.5	1,473	2.3	<b>15,576</b>	<b>1.0</b>
강원	396	0.5	201	0.5	817	1.6	462	1.1	<b>355</b>	<b>3.9</b>	<b>1,414</b>	<b>0.8</b>
충북	250	0.3	197	0.5	779	1.5	360	1.1	419	2.3	<b>1,226</b>	<b>0.7</b>
충남	492	0.4	271	0.5	1,046	1.5	688	1.3	358	2.0	<b>1,809</b>	<b>0.7</b>
<b>전북</b>	<b>264</b>	<b>0.3</b>	<b>240</b>	<b>0.5</b>	<b>851</b>	<b>1.3</b>	557	1.1	294	2.0	<b>1,355</b>	<b>0.6</b>
전남	289	0.3	193	0.4	903	1.4	402	1.0	501	2.2	<b>1,385</b>	<b>0.7</b>
경북	331	0.3	253	0.4	1,084	1.3	614	1.0	470	2.0	<b>1,668</b>	<b>0.6</b>
경남	537	0.3	358	0.4	1,466	1.3	937	1.0	529	2.4	<b>2,361</b>	<b>0.6</b>
제주	162	0.4	99	0.5	210	0.9	172	0.9	38	1.0	<b>471</b>	<b>0.6</b>

주 : 일반계고: 일반고+특수목적고 / 전문계고: 특성학교+자율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그림 3-4〉 전국 시도별 \* 학교급별 학교 중단율(2018년)

#### 나. 전북 학교중단 학생 현황

- 2018년 전라북도의 초·중·고교의 학교중단 학생은 총 재학생 210,819명 중 1,355명이며, 0.6%의 학교 중단율을 보임
- 2015년도에는 전체 234,248명의 학생 중 1,537명(0.7%)의 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6%의 동일한 중단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5〉 전북 연도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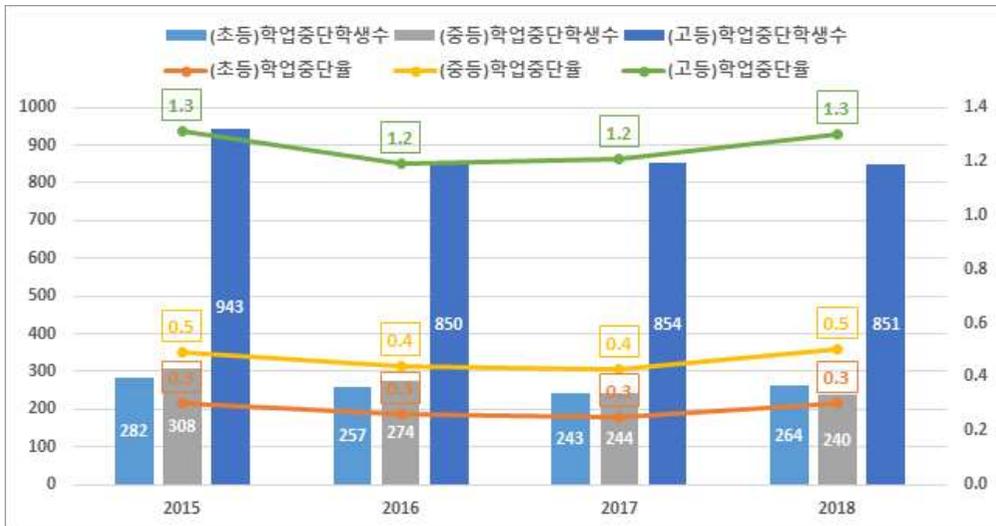
〈표 3-3〉 전국 및 전북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 북	총 재학생	210,819	217,835	225,267	234,248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율)	1,355 (0.6%)	1,341 (0.6%)	1,381 (0.6%)	1,537 (0.7%)
전 국	총 재학생	5,584,249	5,725,260	5,882,790	6,088,827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율)	50,057 (0.9%)	47,663 (0.8%)	47,070 (0.8%)	51,906 (0.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전라북도의 연도별 및 학교급별 학교중단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학교 중단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5%, 고등학교 1.3%로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3%의 동일한 중단율을 보였 으나, 중학교의 경우 2015년 0.5%의 중단율에서 0.4%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에 다시 0.5%로 상승함.
- 고등학교의 경우도 중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2015년 1.3%의 중단율에서 2016년과 2017년 1.2%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8년 1.3%로 다시 상승함



〈그림 3-6〉 전북 연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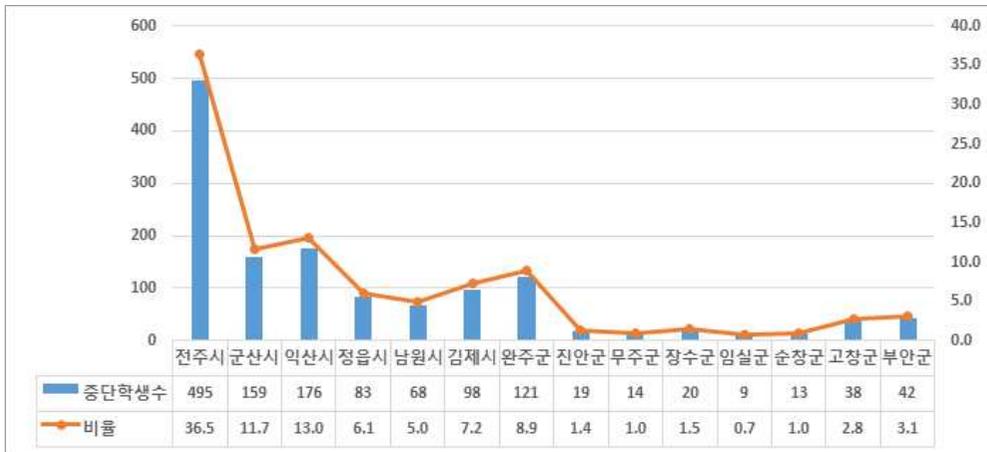
- 2018년 기준 학교중단 학생 수 1,355명을 학교 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19.5%(264명), 중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17.7%(240명)인 반면, 고등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62.8%(851명)로 나타남



주 : 2017.03.01. ~ 2018.02.2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그림 3-7> 전라북도 학교급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2018년)

○ 전북 시도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

- 2018년 기준 학교중단 학생 수 1,355명을 전북 시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주가 495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익산 176명(13.0%), 군산 159명(11.7%), 완주 121명(8.9%) 순으로 많았으며, 임실이 9명(0.7%)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주 : 2017.03.01.~2018.02.2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그림 3-8> 전북 시·군별 학교중단 학생 현황(2018년)

- 2018년 기준 전라북도 학교중단율은 0.6%로 전국평균(0.9%)보다 0.3%p 낮음. 전북 시군별 학교중단율을 살펴보면, 김제가 1.2%로 가장 높고, 완주 1.1%, 진안과 장수 1.0%, 부안 0.9%, 정읍과 남원 0.7% 순으로 나타남
- 학교중단 학생 수와 중단율을 시·군별 및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중단율인 0.3%보다 상회하는 지역은 전주(0.4%), 김제(0.4%), 진안(0.4%)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평균 중단율인 0.5%보다 상회하는 지역은 완주군(0.8%), 순창군(0.7%)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중단율인 1.3%보다 상회한 지역은 김제(2.9%), 완주(2.9%), 장수(2.6%), 진안(2.5%), 부안(2.1%), 정읍(1.6%), 남원(1.6%), 임실(1.5%)로 나타남

〈표 3-4〉 전라북도 시군별 \*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및 중단율(2018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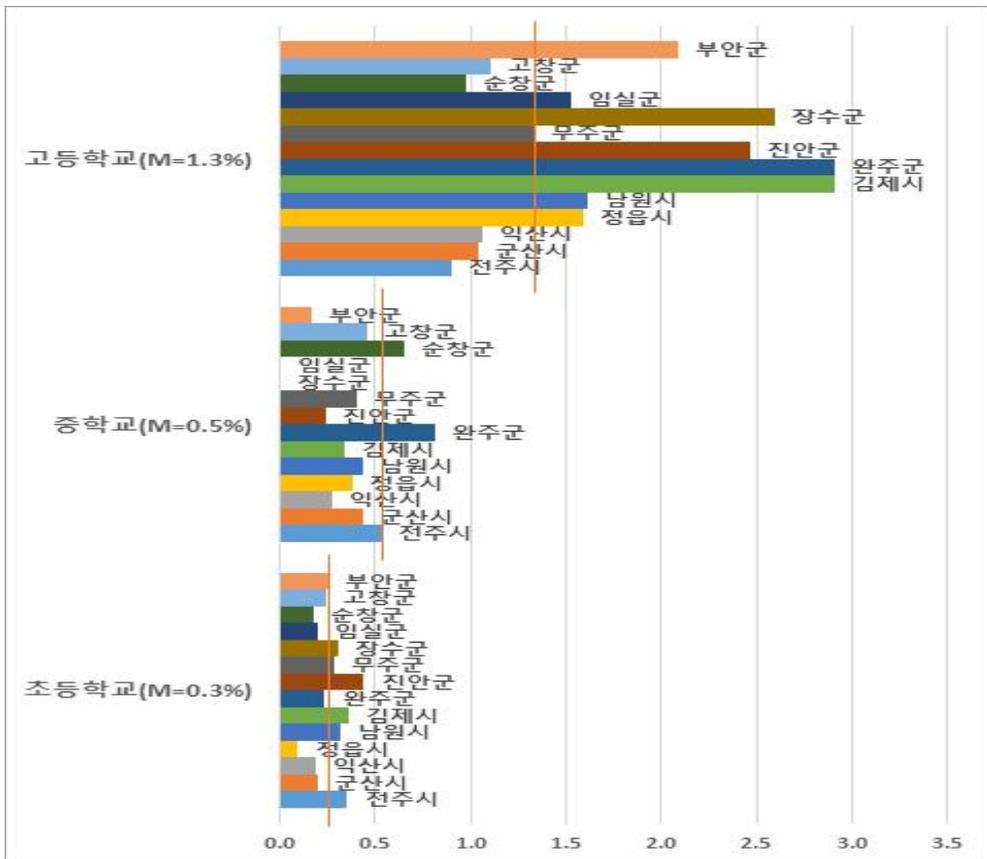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전주시	136	0.4	116	0.5	243	0.9	495	0.6
군산시	31	0.2	35	0.4	93	1.0	159	0.5
익산시	30	0.2	24	0.3	122	1.1	176	0.5
정읍시	5	0.1	12	0.4	66	1.6	83	0.7
남원시	13	0.3	10	0.4	45	1.6	68	0.7
김제시	13	0.4	6	0.3	79	2.9	98	1.2
완주군	12	0.2	21	0.8	88	2.9	121	1.1
진안군	4	0.4	1	0.2	14	2.5	19	1.0
무주군	3	0.3	2	0.4	9	1.3	14	0.6
장수군	3	0.3	0	0.0	17	2.6	20	1.0
임실군	2	0.2	0	0.0	7	1.5	9	0.5
순창군	2	0.2	4	0.7	7	1.0	13	0.5
고창군	5	0.2	7	0.5	26	1.1	38	0.6
부안군	5	0.3	2	0.2	35	2.1	42	0.9
<b>계</b>	<b>264</b>	<b>0.3</b>	<b>240</b>	<b>0.5</b>	<b>851</b>	<b>1.3</b>	<b>1,355</b>	<b>0.6</b>

주 :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수(2017.3.1.~2018.2.29.)/전체학생수(2017.4.1.기준)\*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그림 3-9〉 전라북도 시군별 학업중단자 수 및 중단율(2018년)



〈그림 3-10〉 전북 시군별 \* 학교급별 학업중단율(2018년)

○ 전라북도의 학교중단 학생의 성별 현황

- 성별에 따른 학교중단 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학교 중단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특히,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의 경우 성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표 3-5〉 전라북도 학교중단 학생의 성별 현황(2018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남자	재적생	50,333	27,754	35,034	25,522	9,512
	중단자	135	128	414	259	155
	중단율	0.3	0.5	1.2	1.0	1.6
여자	재적생	47,050	25,549	32,115	26,716	5,399
	중단자	129	112	437	298	139
	중단율	0.3	0.4	1.4	1.1	2.6

주 : 일반계고: 일반고+특수목적고 / 전문계고: 특성화고+자율고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통계 현황(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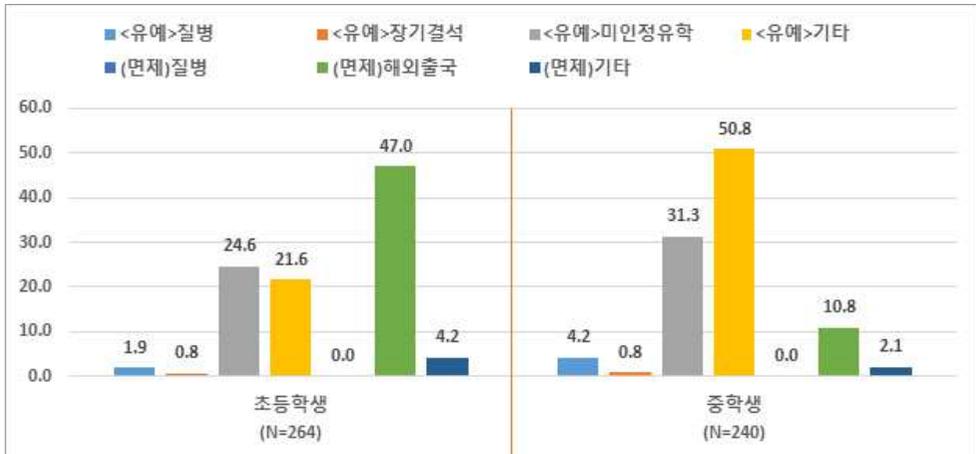
〈그림 3-11〉 전라북도 학교급별 \* 성별 학교중단율(2018년)

○ 전라북도의 학교중단 학생의 주요 학교중단 사유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

- 먼저, 2018년 기준 전북 학교중단 학생 중 19.5%(264명)를 차지한 초등학교생의 경우 해외출국으로 인한 면제(47%)와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유예

(24.6%)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중학교의 경우(전북 학교중단 학생 중 17.7%, 240명)는 기타의 유예(50.8%)와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유예(31.3%)가 8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전북 초·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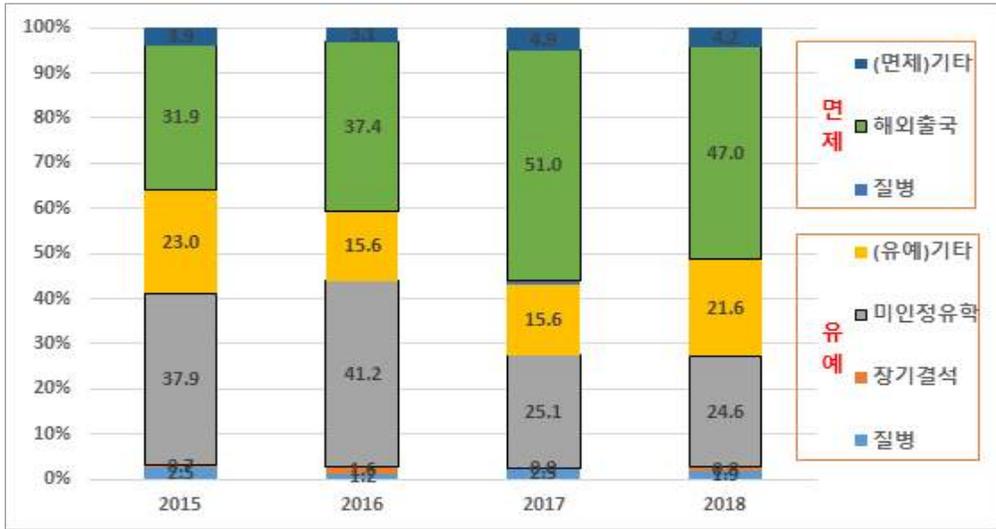
- 다음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업중단 사유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미인정유학'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해외출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전라북도 초·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5~2018년)

(단위: 명, %)

구분	학업중단자 수	유예					면제			
		계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2015	282	181	7	2	107	65	101	0	90	11
	100.0	64.2	(2.5)	(0.7)	(37.9)	(23.0)	35.8	(0.0)	(31.9)	(3.9)
2016	257	153	3	4	106	40	104	0	96	8
	100.0	59.5	(1.2)	(1.6)	(41.2)	(15.6)	40.5	(0.0)	(37.4)	(3.1)
2017	243	105	6	0	61	38	138	2	124	12
	100.0	43.2	(2.5)	(0.0)	(25.1)	(15.6)	56.8	(0.8)	(51.0)	(4.9)
2018	264	129	5	2	65	57	135	0	124	11
	100.0	48.9	(1.9)	(0.8)	(24.6)	(21.6)	51.1	(0.0)	(47.0)	(4.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현황(각 년도)」.



〈그림 3-13〉 전북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201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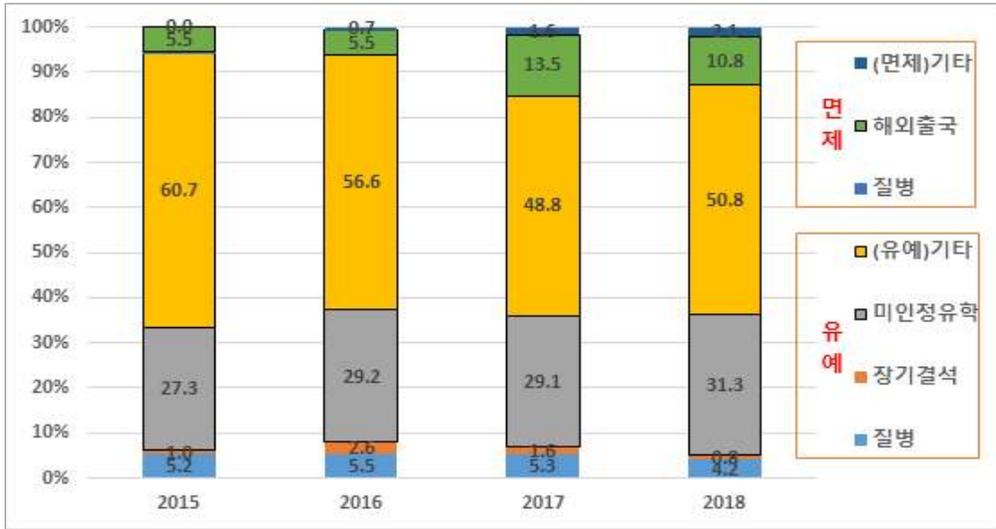
- 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유예 기타’로 많이 분류되었으나, 2017년부터 ‘미인정유학’과 ‘해외출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전라북도 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현황(2015~2018년)

(단위: 명, %)

구분	학업중단자 수	유예					면제			
		계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2015	308	290	16	3	84	187	18	1	17	0
	100.0	94.2	(5.2)	(1.0)	(27.3)	(60.7)	5.8	(0.3)	(5.5)	(0.0)
2016	274	257	15	7	80	155	17	0	15	2
	100.0	93.8	(5.5)	(2.6)	(29.2)	(56.6)	6.2	(0.0)	(5.5)	(0.7)
2017	244	207	13	4	71	119	37	0	33	4
	100.0	84.8	(5.3)	(1.6)	(29.1)	(48.8)	15.2	(0.0)	(13.5)	(1.6)
2018	240	209	10	2	75	122	31	0	26	5
	100.0	87.1	(4.2)	(0.8)	(31.3)	(50.8)	12.9	(0.0)	(10.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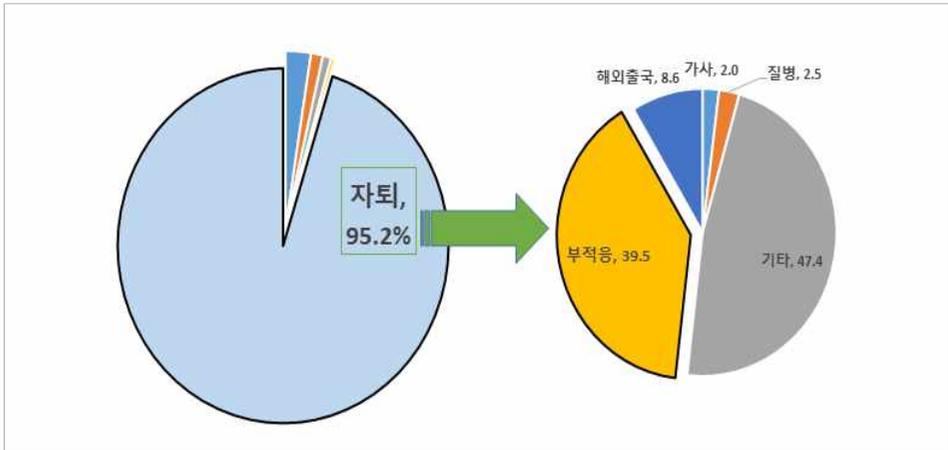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현황(각 년도)」.



〈그림 3-14〉 전북 중학생의 학업중단 사유(2015~2018년)

## ② 고등학교

- 2018년 기준 전북 학교중단 학생 중 62.8%(851명)가 고등학교 때 그만 두었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31.4%, 425명)와 2학년 시기(25.5%, 345명)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많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학교중단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자퇴'가 95.2%(81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행으로 인한 '퇴학'이 2.5%(21명)로 나타남. 특히 자퇴로 인한 학업중단 고등학생 중 47.4%(기타)는 조기진학,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학교중단이었고 이어 39.5%는 '학교부적응'이 주원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해외출국(8.6%), 질병(2.5%) 순으로 나타남



주 : 2017.03.01.~2018.02.2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그림 3-15〉 전라북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2018년)

- 고등학교는 4가지 유형, 즉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로 구분됨. 먼저 4가지 유형별 학업중단율의 변화를 사유를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 한편, 2017년과 대비하여 일반고와 자율고는 소폭 감소하거나 동일하였으며, 특목고는 소폭 증가하였음

〈표 3-8〉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의 변화(2017년, 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지수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지수	학업중단율
전체	70,449	854	1.2	67,149	851	1.3
일반고	51,279	568	1.1	48,853	506	1.0
특수목적고	3,142	44	1.4	3,385	51	1.5
특성화고	13,083	223	1.7	11,938	277	2.3
자율고	2,945	19	0.6	2,973	17	0.6

주 : 학업중단율=학업중단지수(2017.3.1.~2018.2.29.)/전체학생수(2017.4.1.기준)\*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시군구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그림 3-16〉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2017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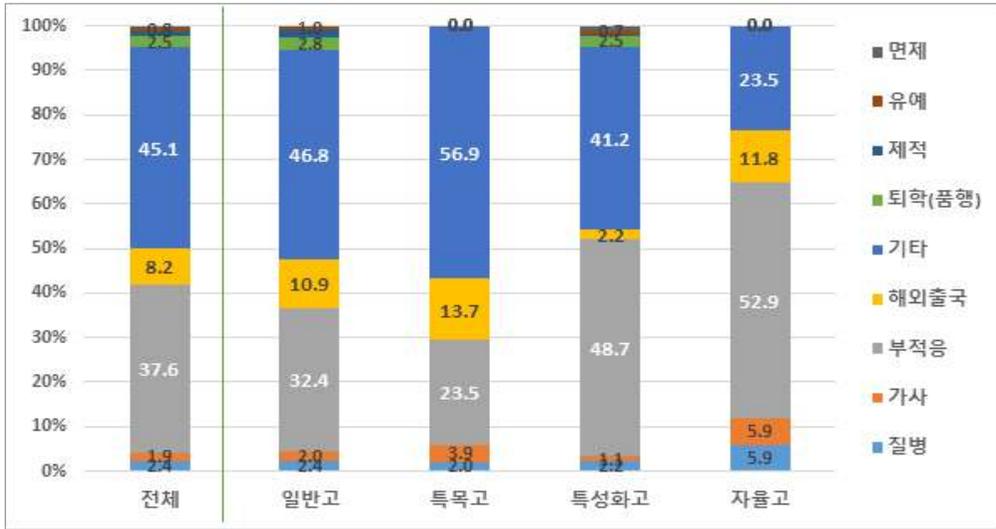
- 고등학교는 유형별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는 기타(46.8%)와 부적응(32.4%),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기타(56.9%)와 부적응(23.5%), 특성화고등학교는 부적응(48.7%)과 기타(41.2%), 자율고등학교는 부적응(52.9%)과 기타(23.5%) 사유가 높게 나타남. 특성화고는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3-9〉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사유(2018년)

(단위: 명, %)

구분	학업 중단자수	자퇴						퇴학 품행	제적	유예	면제
		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전체	851	810	20	16	320	70	384	21	10	7	3
	100.0	95.2	(2.4)	(1.9)	(37.6)	(8.2)	(45.1)	2.5	1.2	0.8	0.4
일반고	506	478	12	10	164	55	237	14	9	5	0
	100.0	94.5	(2.4)	(2.0)	(32.4)	(10.9)	(46.8)	2.8	1.8	1.0	0.0
특수 목적고	51	51	1	2	12	7	29	0	0	0	0
	100.0	100.0	(2.0)	(3.9)	(23.5)	(13.7)	(56.9)	0.0	0.0	0.0	0.0
특성화고	277	264	6	3	135	6	114	7	1	2	3
	100.0	95.3	(2.2)	(1.1)	(48.7)	(2.2)	(41.2)	2.5	0.4	0.7	1.1
자율고	17	17	1	1	9	2	4	0	0	0	0
	100.0	100.0	(5.9)	(5.9)	(52.9)	(11.8)	(23.5)	0.0	0.0	0.0	0.0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통계 현황(2018)」.



〈그림 3-17〉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사유(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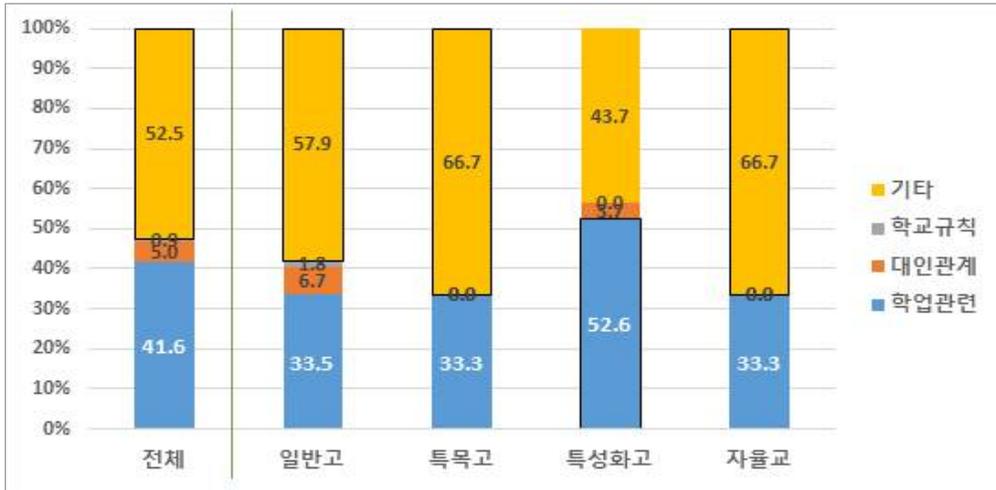
○ 전북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 중 ‘부적응’ 학업중단의 세부 사유를 살펴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는 기타 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기타 사유는 특목고(66.7%)와 자율고(66.7%)에서 가장 높았음. 특성화고의 경우 학업관련 부적응 비율이 52.6%고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0〉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사유(2018년)

(단위: 명, %)

구분	부적응 학업 중단자수	부적응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전체	320	133	16	3	168
	100.0	41.6	5.0	0.9	52.5
일반고	164	55	11	3	95
	100.0	33.5	6.7	1.8	57.9
특수목적고	12	4	0	0	8
	100.0	33.3	0.0	0.0	66.7
특성화고	135	71	5	0	59
	100.0	52.6	3.7	0.0	43.7
자율고	9	3	0	0	6
	100.0	33.3	0.0	0.0	66.7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통계 현황(2018)」.



〈그림 3-18〉 전북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사유(2018년)

-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 현황과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0%로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학년별 중단 사유를 보면, 3학년의 경우 부적응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학년과 2학년에서는 기타 사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하지만 부적응으로 인해 자퇴한 학생 320명 중 145명은 고1, 134명은 고2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전북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 현황과 주요 사유(2018년)

(단위: 명, %)

구분	학업중단율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중단자 수	중단율	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품행			
전체	851	1.3	810	20	16	320	70	384	21	10	7	3
	100.0		95.2	(2.4)	(1.9)	(37.6)	(8.2)	(45.1)	2.5	1.2	0.8	0.4
고1	425	2.0	406	8	7	145	33	213	12	3	3	1
	100.0		95.5	(1.9)	(1.6)	(34.1)	(7.8)	(50.1)	2.8	0.7	0.7	0.2
고2	345	1.5	330	10	9	134	31	146	7	5	3	0
	100.0		95.7	(2.9)	(2.6)	(38.8)	(9.0)	(42.3)	2.0	1.4	0.9	0.0
고3	81	0.4	74	2	0	41	6	25	2	2	1	2
	100.0		91.4	(2.5)	(0.0)	(50.6)	(7.4)	(30.9)	2.5	2.5	1.2	2.5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통계 현황(2018)」.

## 제2절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청소년정책 대상 중 정책적으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규모 크기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은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있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명부나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통계자료로도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도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함
-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 몇몇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어 졌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몇 자료들을 통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은 설문조사를 통해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략적인 모집단을 추정하는 직접추정방식과 행정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간접추정방식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하는 간접추정방식을 통해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 최정호 외(2018), 정혜원( 2017), 윤철경 외(2016)의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함

### 나. 전북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 본 연구에서는 만 9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전북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2016년~2018년 3년 동안의 규모를 추정함

- 먼저 만 9세에서 19세까지의 각 연령대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상 학령기 청소년의 인구수에서 공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를 찾아 정리함. 즉 2018년 기준 만 9세에서 19세까지의 주민등록 상 학령기 청소년 수는 총 213,481명이었고, 공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 49,734명, 중학교 50,859명, 고등학교 62,333명, 기타학제 816명과 만 18세와 만 19세 졸업생 수를 더해 총 재학생과 졸업생 수는 209,990명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만 9세에서 19세까지의 각 연령대 주민등록 상 학령기 전체 청소년의 인구수에서 공교육 기관 재학생수와 졸업생 수의 격차를 산출한 결과 2018년 기준 3,490명이 전라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됨.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7년과 2016년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함
-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6년 5,285명, 2017년 4,008명, 2018년 3,490명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2〉 전북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2016~2018년)

(단위: 명)

만9-19세	주민등록상 학령인구 수(A)	재학생 수(B)				졸업생 수(C)	합계(D=B+C)	학교 밖 청소년(E=A-D)	학교 밖 청소년 비율(E/D×10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제				
2018년	213,481	49,734	50,859	62,333	816	46,248	209,990	3,490	1.66%
2017년	222,914	49,903	53,303	67,132	874	47,694	218,906	4,008	1.83%
2016년	231,008	48,873	56,923	70,435	880	48,512	225,723	5,285	2.34%

자료 : 주민등록인구 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 안전행정부, 2018. 2017. 2016. 각 해 3월 기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8(17.3~18.2), 2017(16.3~17.2), 2016(15.3~16.2)

주 : 기타학제 :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을 의미  
졸업생 수는 각 연도 만 18세와 만19세의 졸업자 수임 (졸업 후 상황)

-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통계 상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자 수와 학업중단률로 나타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는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학업중단자와 함께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미진학자를 모두 내포하고 있음. 이에 매년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크기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업중단자 수와 더불어 학교급별 미진학자 수를 산출하여 이를 학령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 발생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 3 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현안과제

- 본 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 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과 사업 내용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주요 현안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현황

##### 1)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발전과정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학업중단 및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2008년 두드림 사업 지정받아 운영, 2011년 해밀 사업 지정 받아 운영하게 됨
- 2013년부터는 자립지원 두드림과 학업지원 해밀을 통합운영하게 되었고,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2015년부터 전라북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받았음. 이에 2015년부터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국가사업인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함. 그 뒤 전라북도 내에 9개의 시·군 센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 순창, 무주)로 확대 운영되었음
- 전라북도도 2015년 2월 6일에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함. 이 후 지원조례를 근거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축 및 추진되고 있음

## 2) 전북 도 센터 및 시·군 센터별 지원 사업 내용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개소)와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9개소)로 구분하여 운영됨
  - 전북 도내에 있는 시·군 센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순창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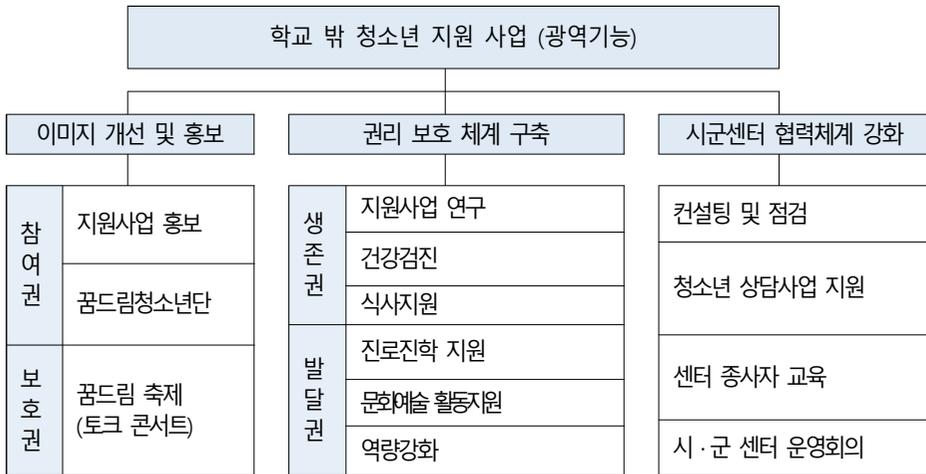


〈그림 3-19〉 전북지역 시·군 학교 밖 지원센터 소재지

- 먼저, 전라북도 협약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시·군 센터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광역 및 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첫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허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위해 지역자원 연계 체계 강화(민·관 지역 자원 연계 구축),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지원 사업 개발 및 보급, 시군 센터 컨설팅 및 컨설팅으로 시·군 센터 프로그램과 운영 지원 내실화, 센터 종사자 교육 실시로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시·군 센터와 지역자원연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황들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과 논의의 장 마련 및 효과적인 사례관리와 사업의 어려움과 노하우 공유 등이 가능하게 함
- 둘째,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

습 공간(꿈틀) 운영 및 지원, 검정고시 수험생 도시락 지원, 수능준비를 위한 수능대비반 마련, 검정고시 점수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입시설명회와 1:1맞춤형 입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대학별 특성화 학과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셋째, 취업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작업장 5개소 지원, 시군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 전북도내 학교밖청소년 우호기업 발굴 및 연계, 잡월드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수학여행 기획 및 수학여행비 일부지원, 청소년 문화 공간(꿈틀) 운영 및 지원, 꿈드림 축제(토크 콘서트 등)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음, 그 외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지원을 위해 건강검진, 식사지원,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책자 제작, 찾아가는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권실태조사 등 지원사업 연구 등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20〉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2019)

- 다음으로, 전북지역 9개의 각 시·군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 맞춤형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중앙 공통 사업인 상담지원(초기상담과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상담 등), 교육지원(복고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와 수능시험 지원 등 학업중단 예방 지원), 취업지원(직업체험, 진로교육활동, 취업연계 지원 등), 자립지원(자격증 취득, 생활기술 지원, 경제교육 등), 복지지원(건강검진, 식사비 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자기계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등), 멘토링 지원(학습·정서·체험 멘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 시·군 센터별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10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직업지원 사업 4개, 문화예술지원사업 3개, 학습지원사업 1개, 자립지원사업 2개였음. 이 중 2019년 신규로 시작한 군산의 자립지원사업 예산이 6천8백만으로 가장 컸음

〈표 3-13〉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화사업

구분	지역	특화사업	사업내용	예산
2019	전북	직업지원 사업	코딩창의개발능력 자격과정 SW 캠프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지원 사업	전라북도 꿈드림 수학여행	2,000,000원
	전주	학습지원 사업	학습 소외계층 교육기회 제공 및 지원	600,000원
	군산	자립지원 사업	자립지원 단계별 수당지급 사업	68,000,000원
	익산	직업지원 사업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연계	30,000,000원
	김제	직업지원 사업	바리스타 자격과정, 페이스페인팅 과정	프로그램 지원
	완주	문화예술지원 사업	자기이해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2,500,000원
	무주	문화예술지원 사업	미술 지원, 봄소풍	5,924,800원
		직업지원 사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1,166,000원
순창	자립지원 사업	청소년보호협의회 모범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	1,500,000원	
2018	전북	직업지원 사업	잡월드 방문, 드론자격과정 캠프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지원 사업	전라북도 꿈드림 수학여행	1,000,000원
	전주	학습지원 사업	학습 소외계층 교육기회 제공 및 지원	600,000원
	문화예술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체험형 프로그램	13,500,000원	
	정읍	직업지원 사업	'휴(休)카페'운영으로 바리스타 기술습득 기회 제공	1,000,000원
	김제	직업지원 사업	ITQ자격증 취득과정, 4차산업 체험교실	프로그램 지원
	완주	직업지원 사업	'꿈마루카페' 바리스타 동아리 활동	1,000,000원
		문화예술지원 사업	독서 동아리, 도서후원 등	7,000,000원
	무주	문화예술지원 사업	피아노/미술/컴퓨터 지원, 가을소풍, 무주산골영화제	7,473,900원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

#### 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적 및 사업성과

- 전북지역에서 집계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744명이 발굴됨. 이는 2017년(1,450명), 2016년(1,829명)보다 상대적으로 발굴 실적이 2배 이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발굴 인원 중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찾은 경우가 134명(18%)으로 가장 많았고, 소년원(106명, 14.2%), 경찰서(86명, 11.5%), 상담복지센터(84명, 11.3%) 순으로 발굴 인원이 많이 나타남
- 반면, 교육청(43명, 5.7%), 학교(19명, 2.5%)를 연계하여 발굴된 실적은 저조하였음. 특히 학교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적은 2017년 기준 학교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인원은 338명, 23.3%, 2016년 학교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인원은 661명, 36.1%로 2018년에 상대적으로 유난히 저조했음을 보여줌.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한편, 소년원을 연계로 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2016년 65명, 2017년 81명, 2019년 10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4〉 전북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현황

연도	본인	가족	친구/선배	경찰서	학교	타 상담센터	상담복지센터	자활지원관/지역이동센터	상담/그룹홈	직업전문학교	병원/약국	법무부	보호관찰
2018	134	49	56	86	19	2	84	0	8	12	0	0	7
2017	129	57	40	145	338	8	211	1	10	1	1	0	58
2016	224	83	64	50	661	26	148	1	5	1	0	5	64
연도	인터넷	홍보물	이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소년원	이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군부대	교육청	검정고시학원	지자체등	기타	합계	
2018	0	0	2	65	106	2	1	43	23	4	41	744	
2017	0	0	88	178	81	0	0	62	19	4	19	1,450	
2016	1	20	94	185	65	0	43	18	37	7	27	1,829	

자료 : 출처:꿈드림정보망-학교밖대상연계관리-의뢰구분현황

- 전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살펴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복실적 포함해서 총 2,37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 2,379명 중 1,249명은 학업복귀(학교복귀, 검정고시, 대학진학)하였고, 1,130명은 사회진입(취업, 직업훈련, 자격취득, 자기계발)을 한 것으로 나타남. 매년 학업복귀 관련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적게는 384명에서 많게는 456명이었고, 사회진입 관련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매년 적게는 57명에서 많게는 71명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업은 검정고시 준비 지원 프로그램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 자기계발지원, 취업지원, 대학진학 관련 지원으로 나타남

〈표 3-15〉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연도	학업복귀				사회진입				
	계	학교 복귀	검정 고시	대학 진학	계	취업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자기 계발
합계	1,249	104	1,005	140	1,130	198	117	568	247
2018년	409	30	336	43	391	71	48	206	66
2017년	384	38	268	78	387	57	31	177	122
2016년	456	36	401	19	352	70	38	185	59

자료 : 출처:꿈드림정보망-꿈드림통계-결과성과 종합통계 / 중복실적 포함

## ② 예산 및 인력 현황

- 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 지원단가에 따른 지방비 확보해야하고, 국고보조 사업 이외에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사업운영이 가능함
- 2018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1,110,700천원으로 전라북도의 기준에 따라 예산이 차등적으로 배정됨. 여성가족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광역시도 및 시군구 센터로 나뉨. 이 중 전북 시군은 가형(전주시), 나형(군산시/익산시), 다형(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분류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꿈드림」은 서울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의 국고보조율은 70%임
- 예산 및 인력은 전북도센터는 총 예산 229,950천원이 편성되며 이 중 65,750천원(사업비), 156,650천원(인건비), 7,550천원(운영비)로 편성됨. 인력배정은 5명을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센터는 '가형'의 경우 총 예산 157,710천원이 편성되며, 이 중 36,000천원(사업비), 116,160천원(인건비), 5,550천원(운영비)로 편성됨. 인력배정은 4명을 배정할 수 있음. '나형'의 경우 총 예산 120,020천원이 편성되며, 이 중 28,450천원(사업비), 87,120천원(인건비), 4,450천원(운영비)로 편성됨. 인력배정은 3명을 배정할 수 있음. '다형'의 경우 총 예산 80,500천원이 편성되며, 이 중 18,970천원(사업비), 58,080천원(인건비), 3,450천원(운영비)로 편성됨. 인력배정은 2명을 배정할 수 있음

〈표 3-16〉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2018년)

지역	학업중단자 수 연계된 수	예산 (사업비)	종사자 수	발굴실적	수혜 청소년	성과율
합계	1,355 119	1,110,700천원 (272,470)	27	986	1,617	50.0
전북도	- 20	229,950천원 (65,750천원)	5	43	219	19.2
전주시	495 30	157,710천원 (36,000천원)	4	348	490	55.1
군산시	159 8	120,020천원 (28,450천원)	3	103	159	42.8
익산시	176 34	120,020천원 (28,450천원)	3	152	320	33.8
정읍시	83 8	80,500천원 (18,970천원)	2	86	98	45.9
남원시	68 5	80,500천원 (18,970천원)	2	71	78	56.4
김제시	178 7	80,500천원 (18,970천원)	2	55	79	102.5
완주군	121 5	80,500천원 (18,970천원)	2	82	107	84.1
무주군	53 1	80,500천원 (18,970천원)	2	37	39	112.8
순창군	22 1	80,500천원 (18,970천원)	2	9	28	60.7

- 전북지역 도 센터와 시군 센터의 2015년~2018년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발굴실적은 2016년도가 가장 높았고,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986명으로 나타남. 이중 전주시센터가 348명으로 가장 많았음
- 반면, 운영성과 측면에서는 2018년도가 가장 높았음.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성과 모두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 성과비율(운영성과/수혜 청소년\*100) 역시 2015년부터 계속 높아져서 2018년 기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센터별 성과비율은 무주군이 11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김제시(102.5%)가 높게 나타남

\* 교육청에서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수

〈표 3-17〉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실적 비교(2015년~2018년)

(단위: 명, %)

구분	발물 실적				수혜 청소년 (A)				운영성과												성과비율 (B/A)*100			
									계(B)				학업 복귀				사회 진입							
	'15	'16	'17	'18	'15	'16	'17	'18	'15	'16	'17	'18	'15	'16	'17	'18	'15	'16	'17	'18	'15	'16	'17	'18
전체	1,544	2,108	1,730	<b>996</b>	1,513	2,246	2,109	<b>1,617</b>	381	808	780	<b>809</b>	236	456	393	<b>418</b>	145	352	387	<b>391</b>	25.2	36.0	36.9	<b>50.0</b>
전북도	304	119	278	<b>43</b>	304	160	364	<b>219</b>	52	61	109	<b>42</b>	44	46	61	<b>28</b>	8	15	48	<b>14</b>	17.1	38.1	29.9	<b>19.2</b>
전주시	1,191	458	446	<b>348</b>	1,209	382	507	<b>490</b>	329	158	238	<b>270</b>	192	143	149	<b>141</b>	137	15	89	<b>129</b>	27.2	41.4	46.9	<b>55.1</b>
군산시	166	327	249	<b>103</b>	145	306	223	<b>159</b>	42	87	101	<b>68</b>	37	25	46	<b>49</b>	4	62	55	<b>19</b>	29.0	28.4	45.2	<b>42.8</b>
익산시	198	309	159	<b>152</b>	198	320	306	<b>320</b>	50	115	39	<b>108</b>	47	89	23	<b>58</b>	3	26	16	<b>50</b>	25.3	35.9	12.7	<b>33.8</b>
정읍시	221	213	128	<b>86</b>	213	238	160	<b>98</b>	65	59	56	<b>45</b>	37	36	31	<b>35</b>	28	23	25	<b>10</b>	30.5	24.8	35	<b>45.9</b>
남원시	120	137	74	<b>71</b>	120	214	115	<b>78</b>	27	91	42	<b>44</b>	18	38	21	<b>17</b>	9	53	21	<b>27</b>	22.5	42.5	36.5	<b>56.4</b>
김제시	92	238	160	<b>55</b>	92	312	178	<b>79</b>	45	98	75	<b>81</b>	10	26	19	<b>37</b>	35	72	56	<b>44</b>	48.9	31.4	42.1	<b>102.5</b>
완주군	209	193	166	<b>82</b>	209	196	143	<b>107</b>	73	73	60	<b>90</b>	37	21	21	<b>23</b>	36	52	39	<b>67</b>	34.9	37.2	41.9	<b>84.1</b>
무주군	116	18	86	<b>37</b>	114	17	82	<b>39</b>	18	18	48	<b>44</b>	2	10	11	<b>19</b>	16	8	37	<b>25</b>	15.8	105.9	58.5	<b>112.8</b>
순창군	69	96	34	<b>9</b>	69	101	31	<b>28</b>	2	48	12	<b>17</b>	0	22	11	<b>11</b>	1	26	1	<b>6</b>	2.9	47.5	38.7	<b>60.7</b>

자료: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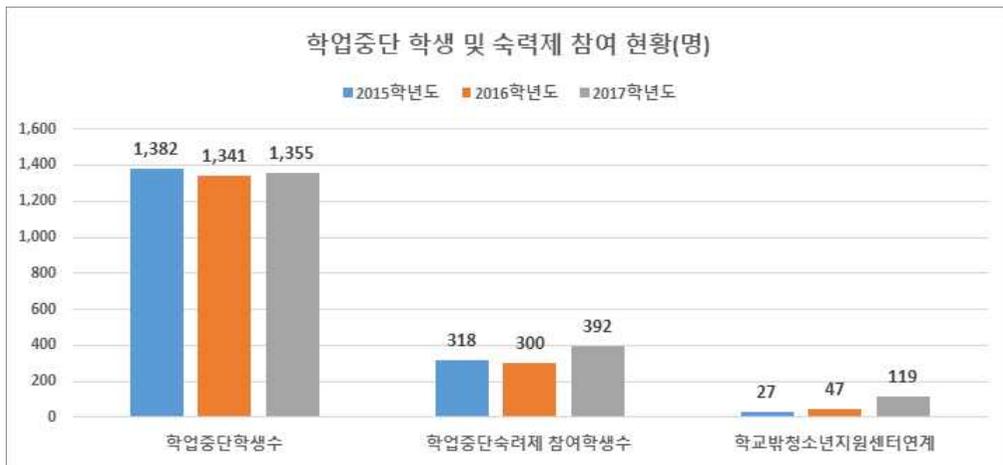
#### 4) 전라북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중단 학생 센터 연계 현황

-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함. 전북지역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기준('17.3~'18.2) 전북지역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업중단 위기의 청소년은 총 392명이었고, 이 중 172명(43.8%)만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지속한 반면, 나머지 220명(56.1%)은 학교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7년 한 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전국 학생은 41,689명이었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32,902명(78.9%)인 반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를 중단한 학생은 8,787명(21.1%)로 나타남. 이는 전북지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를 중단한 비율(56.1%) 보다 35%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북지역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점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실질적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과 자원연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냄
- 무엇보다 전북지역은 최근으로 올수록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또한, 전국과 비교하여 전북지역 학교중단 청소년의 약 2/3 이상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전북지역의 학교중단 청소년의 2/3 이상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참여 했다 하더라도 반 절 이상이 학교를 중단하는 현상을 보여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전문적인 상담자격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체계적인 연계 필요성이 부각됨

〈표 3-18〉 전북지역 학업중단속려제 참여 현황 및 중단과 도센터 연계 현황

구분	학교 중단 자 수	학업중단속려제 현황			전북교육청 연계인원	
		참여 학생 수	참여 이후 중단한 학생 수	비율		
전국	2017	50,057	41,689	8,878	21.08%	-
	2016	47,663	40,241	8,148	20.25%	
	2015	47,070	43,854	5,919	13.50%	
전북	2017	1,355	392	220	56.12%	119명
	2016	1,341	300	131	43.67%	49명
	2015	1,382	318	106	33.33%	27명

자료: 2018년 국감자료 및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부자료, 출처:꿈드림정보망-학업속려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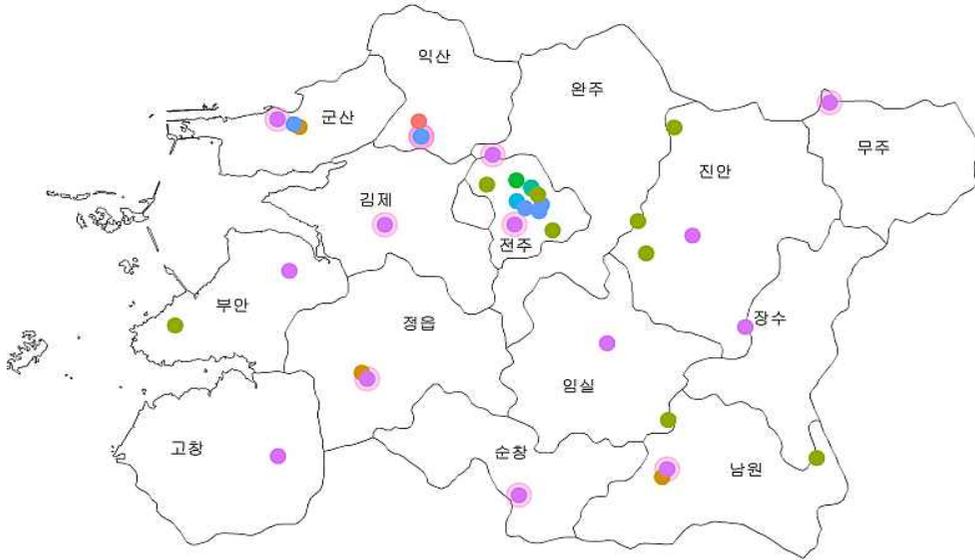
〈그림 3-21〉 전북지역 학업중단속려제 참여 현황 및 도센터 연계 현황

〈표 3-19〉 전북교육청(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현황

지역	교육청에서 연계된 수	
	2017년	2018년
합계	49명	119명
전북도	6명	20명
전주시	15명	30명
군산시	12명	8명
익산시	6명	34명
정읍시	4명	8명
남원시	3명	5명
김제시	0명	7명
완주군	2명	5명
무주군	1명	1명
순창군	0명	1명



- 내일이룸학교
- 소년원(송전정보통신학교)
- 청소년 센터
- 보호관찰소
-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림 3-23〉 전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유관기관 소재지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개소)
  - 전라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군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김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완주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무주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순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개소)
  - 전북도 1개와 14개 시군별 각 1개씩
- ▶ 소년원(송전정보통신학교)      전주시 덕진구
- ▶ 보호관찰소 (4개소)
  - 전주시 보호관찰소
  - 군산지소
  - 정읍지소
  - 남원지소
-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9개소)
  - (전주) 공나제청소년학교    덕진구
  - 링컨 전주스쿨        덕진구
  - 토기장이                완산구
  - (남원) 실상사작은학교    산내면
  - 한마음기독교학교    사매면
  - (진안) 이랑대안학교        부귀면
  - 진솔대안학교            주천면
  - 시냇가에심은나무학교   마령면
  - (부안) 변산공동체학교    변산면
- ▶ 청소년센터 (5개소)
  - 군산 꽃동산 여자 중장기
  - 익산 일시
  - 전주임마누엘남자 중장기
  - 전주 푸른여자 단기
  - 전주 한울안 남자 단기
- ▶ 내일이룸학교                    익산시 원광보건대학교
- ▶ 전북 청소년자립생활관        전주시 덕진구

## 나. 주요 현안 과제

- 전북지역에서는 매년 학교중단 학생이 1천 3백 여명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학교에서 학교중단 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였더라도 학교를 중단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이에 전라북도 학업중단숙려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학교·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와의 연계에 관한 개선안 마련과 내실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활성화와 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한 개별적 이유와 다양한 특성 및 욕구를 지니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유의하고 정서·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맞춰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 시·군별 학업중단 현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지역적 특성(인프라, 지역자원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물리적 접근성, 대중교통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계획을 모색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지속 모니터링하여 개선해나갈 필요 있음.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실적과 수혜청소년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지역적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실적과 수혜청소년이 적으면 적은대로의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었음. 각 처해진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역할을 하는 도 센터와 긴밀한 연계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18년 기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발굴 실적은 전라북도 전체 발굴 실적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원 사업 수혜 청소년 실적은 전라북도 전체 수혜 청소년 실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물론 전주 지역에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 그리고 학교중단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실적이라 할 수 있지만, 완산구와 덕진구를 모두 아울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곳에서 담당하기에는 업무과중, 예산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양적·질적 사업수행의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는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광역사업과 직접사업까지 운영해야만 하는 체계였지만 2017년부터 직접사업을 제외한 광역과 거점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주시 한 곳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접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접근성 문제로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덕진구에 소재한 전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분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 전북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됨에 따라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기관 연계와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연계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발굴실적, 수혜 청소년 수, 운영 성과 실적으로 학업 복귀자 수와 사회진입 수 등 양적으로만 운영실적을 살펴 보고 있음. 이에 지역적 특성과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고려한 사업 개발은 어려워짐. 따라서 양적 실적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운영 실적을 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 실적 기준도 새로이 만들어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질 성과 사업들이 다수 발굴될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마다 이용하고 수혜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에 있어 편차가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원센터에 동일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특성, 지역 내 인프라 형성 정도, 기관의 준비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기관 지정, 운영에 대한 계획 재검토가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중단 청소년들 중심의 센터 이용 중단의 요인(아르바이트로 시간 부족, 종사자 선생님의 교체 등)들을 분석하여 이용 중단 청소년들이 보다 지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월등하게 많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남자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자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며, 이로 인해 종사자의 전문성 하락,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의 질 저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 중단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센터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함



# 4

장

##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

Jeonbuk Institute

---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제3절 소결



## 제4장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

본 장에서는 전북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첫째, 지역별·학교급별·기관별 및 기관소속 유무 등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중단 이후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정책적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자함. 둘째,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내용을 부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원인부터 학업중단 이후 구체적인 생활경험 실태와 필요 지원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함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종사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함

### 제 1절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 가. 조사개요

##### 1) 조사대상자 및 표본설계

- 조사대상자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 19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550명 임.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규정한 만 9세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특히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만 20세 미만(주민등록 기준 2000년~2010년생 대상)의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함

- 조사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6개 기관유형, 24개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어느 기관도 이용하지 않은 기관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함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8개 유형, 총 28개 기관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개소, 비인가형 대안교육기관 3개소, 청소년쉼터 4개소, 소년원 1개소, 보호관찰소 4개소, 자립생활관 1개소였음
  - 기관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경찰소 등의 협조로 아웃리치를 통해 그리고 검정고시 접수처와 고사장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함
- 조사대상 550부의 표본설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집단의 정보가 없어서 '2017년 학업중단 발생 통계현황(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을 토대로 지역별(시·군), 학교급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기관 유형과 기관소속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임의 할당 표집함

〈표 4-1〉 설문조사 표본설계

(단위: 개소, 부, %)

구 분		참여 기관	최종 표본	비율
기 관 소 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0	308	5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22	4.0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	30	5.5
	청소년 쉼터	4	11	2.0
	소년원	1	76	13.8
	보호관찰소	4	25	4.5
	청소년자립생활관	1	4	0.7
기관 무소속 (아웃리치 및 검정고시 접수처·고사장)		-	74	13.5
합계		28	550	100.0

##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과 1:1 대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함. 먼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각 기관별 실무 담당자의 협조로 학교 밖 청소년을 10명 이상 모아주고 그에 대한 일정을 알려주면, 본 연구원이 실무 담당자와 함께 직접 1:1 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그 외(특히 소년원·보호관찰소 등) 기관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요청과 설문조사 관련 주의사항 교육을 통해 각 기관별 실무 담당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지 검수 및 회수하였음
- 다음으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경찰소 등)의 협조로 아웃리치를 통해 기관 실무자가 1:1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검정고시 접수처와 고사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와 본 연구원이 병행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이었음
- 분석방법은 SPSS Win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등을 실시함

## 4)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2016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보고서와 여성가족부의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내용 및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먼저 조사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됨.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영역,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 영역, 학교 밖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적 지원 영역 및 응답자의 배경요인 영역으로 총 151개의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짐
- 설문조사의 조사내용과 세부문항은 연구원이 선행연구를 참고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이 설문지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대상 2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설문내용, 세부 문항  
과 추가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함

〈표 4-2〉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과 문항

영역	조사내용	문항 수
학교 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중단 이전 실태)	◦ 학교 그만 둔 시점과 그만 둔 기간	2
	◦ 학교 가만 둘 당시 의논 상태	1
	◦ 학교 그만 두기 전 학교규범 위반 및 행동 정도	5
	◦ 학교 그만 두기 전 학교생활(친구, 교사관계, 수업참여도)	3
	◦ 학교 그만 둘 무렵 학교에서의 상담여부, 상담대상 및 상담 내용과 횟수	4
	◦ 학교 중단 시 학교에서 받은 제공 받은 정보	6
	◦ 학교 그만 둘 당시 학교에서 도움 받고 싶었던 내용	1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 숙려기간 동안 상담 받은 기관,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및 동의하지 않은 이유	4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2
	◦ 학교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	1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 실태 (현 생활경험)	◦ 학교 그만 둔 이후, 후회 경험 유무 및 후회 이유와 후회하지 않는 이유	2
	◦ 학교 그만 둔 이후, 향후 진로	1
	◦ 학교 그만 둔 이후, 주로 어울리는 친구유형	1
	◦ 학교 그만 둔 이후, 가출경험(주거형태)	1
	◦ 학교 그만 둔 이후, 하루에 가장 많이 한 일과 평균 시간	2
	◦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및 종류, 평균 근로일수와 시간	4
	◦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 경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와 부모동의를 제출 여부	10
	◦ 최근 한 달 동안의 심리상태(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6
	◦ 최근 한 달 동안의 신체(운동)활동	1
	◦ 하루 수면시간(취침시간과 기상시간)	2
◦ 하루 평균 결식 빈도 및 결식하는 이유와 식사제공방법	3	
◦ 학교 그만 둔 이후, 문제행동(비행·피해) 경험	1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 학교 그만 둔 이후 나의 인권 존중 정도	4
	◦ 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경험	3
	◦ 학교 그만 둔 이후, 인권 및 차별 경험	5
	◦ 최근 1년 동안, 차별 받은 경험	7
	◦ 학교 그만 둔 이후, 인권교육 경험 유무, 교육받은 곳과 교육받지 못한 이유	3
23문항	◦ 학교 그만 둔 이후,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한 사람	1

(계속)

영역	조사내용	문항 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욕구  33문항	◦ 학교 그만 둔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	1
	◦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여부, 이용경험·도움정도	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별 필요성 평가	24
응답자의 배경요인  21문항	◦ 기관소속(유형별) 및 무소속 구분	1
	◦ 성별 및 생년월일, 거주지역	3
	◦ 학교 행정처리 형태, 학교 중단 한 형제·자매 유무	2
	◦ 현재 상태 및 가족구성	2
	◦ 경제적 수준, 부모님 직업 유무, 부모님 최종학력, 부모님 결혼상태	6

## 나. 분석결과

### 1) 응답자 분포

- 조사대상자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 19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550명 임
  -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257명(47.0%), 여자 청소년은 290명(53.0%) 임
  - 연령별로는 만16~18세가 66.7%(359명)로 가장 많았고, 만9~12세 4.3%(23명)로 가장 적었으며, 만 19세 이상 중 만 20세인 11명을 포함해 93명이었음
  - 학교를 그만 둔 행정처리 유형은 본인이 스스로 '자퇴'한 자발적 중단 비율이 65.9%(32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님 권유(11.2%)의 비자발적 중단 비율이 높았음
  -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이 47.3%로 가장 많았고, '하'가 34.3%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대부분이 '학업형(68.9%)'이었고, 다음으로 비행형(12.0%)과 니트형(10.2%)으로 집중형이 약 22.2%를 차지함
  - 가족형태(구조)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비율이 6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부모 가구 비율이 24.9%로 높게 나타남
  - 부모의 혼인상태는 '결혼유지' 비율이 62.3%, 이혼·별거 37.7%로 나타남
  - 거주지역은 시 단위가 72.9%, 군 단위가 27.1%였음. 전주시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44명), 익산(40명)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였음
  - 현재 소속된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포함) 소속 청소년이 60.4%, 쉼터/소년원/보호관찰소 20.4% 등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학업성적은 55.2%가 '하위권'이라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관심이 없었음
  - 형제·자매 중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21.1%

〈표 4-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257	47.0	부모의 혼인상태	결혼유지	311	62.3	
	여자	290	53.0		이혼·별거	188	37.7	
	계	547	100.0		계	499	100.0	
연령	만9~12세	23	4.3	거주지역	전주시	209	41.7	
	만13~15세	63	11.7		군산시	44	8.8	
	만16~18세	359	66.7		익산시	40	8.0	
	만19세이상	93	17.3		정읍시	23	4.6	
	계	538	100.0		남원시	36	7.2	
학교행정 처리유형	스스로 자퇴	324	65.9		김제시	13	2.6	
	부모님 권유	55	11.2		완주군	43	8.6	
	퇴학	18	3.7		진안군	1	0.2	
	장기결석	29	5.9		무주군	5	1.0	
	진학포기	22	4.5		장수군	9	1.8	
	기타	44	8.9		임실군	5	1.0	
	계	492	100.0		순창군	8	1.6	
경제수준	상(5~7)	99	18.4		고창군	2	0.4	
	중(4)	255	47.3		부안군	13	2.6	
	하(1~3)	185	34.3		전북외	50	10.0	
	계	539	100.0		계	501	100.0	
응답자 유형	학업형	346	68.9		기관유형	센터소속	328	60.4
	직업형	45	9.0			대안학교	30	5.5
	니트형	51	10.2			쉼터/소년원/ 보호관찰	111	20.4
	비행형	60	12.0			검정고시장	74	13.6
	계	502	100.0			합계	543	100.0
현재 거주형태	한부모	135	24.9	학교 중단 시 학업성적	상위권	106	21.9	
	조손	21	3.9		중위권	111	22.9	
	혼자	37	6.8		하위권	267	55.2	
	부모함께	335	61.7		계	484	100.0	
	기타	15	2.8	학교중단 형제·자매	없다	422	78.9	
	계	543	100.0		있다	113	21.1	
					계	535	100.0	

주: '무응답' 사례수 제외.

-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별 분포를 보면, 성별과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임. 만 16~18세가 가장 많고, 19세 이상, 13~15세, 9~12세 순임
  - 학교행정 처리유형의 비율 분포를 보면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남. 여학생에게서 스스로 '자퇴'를 결정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특히, 남학생의 경우 퇴학, 장기결석 등 비자발적 학업중단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는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업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학생의 경우 '비행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현재 가족형태와 부모의 혼인상태의 경우 응답 비율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거주형태와 부모의 혼인상태는 공통된 특성으로 조사됨
  - 거주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市 단위 거주 비율이, 남학생은 郡 단위 거주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소속된 기관별 유형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와 검정고시 접수장으로 분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학생의 경우 쉼터/소년원/보호관찰소 소속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차이는 여학생의 경우 '학업형'으로 분류된 비율과 같은 맥락임
  - 학교 중단 시 학업성적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형제·자매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임

〈표 4-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비교

(단위: %)

구 분		남자	여자	$\chi^2$
연령	만9~12세	4.0	4.6	5.676
	만13~15세	14.6	9.1	
	만16~18세	62.5	70.5	
	만19세이상	19.0	15.8	
학교행정 처리유형	스스로 자퇴	52.8	77.2	41.273***
	부모 권유 자퇴	12.7	9.9	
	퇴학	6.1	1.5	
	장기결석(제적)	7.4	4.6	
	진학포기	5.7	3.4	
	기타	15.3	3.4	
경제적 수준	상	22.2	15.0	7.340*
	중	48.4	46.3	
	하	29.4	38.7	
응답자 유형	학업형	55.9	80.5	74.486***
	직업형	9.3	8.6	
	니트형	9.7	10.5	
	비행형	25.0	0.4	
현재 가족형태	한부모	22.7	26.7	3.285
	조손	3.1	4.5	
	혼자	8.2	5.6	
	부모함께	62.7	60.8	
	기타	3.1	2.4	
부모의 혼인상태	결혼유지	61.8	62.8	.061
	이혼·별거	38.2	37.2	
거주지역	시	66.4	78.2	50.406***
	군	13.3	20.4	
	전북외	20.4	1.5	
소속기관 유형	센터소속	46.9	72.4	96.939***
	대안학교	5.9	5.2	
	쉼터/소년원	38.2	4.5	
	무소속	9.1	17.8	
학교 중단 시 학업성적	상위권	17.5	25.8	5.690*
	중위권	22.4	23.4	
	하위권	60.1	50.8	
학교중단 형제자매	없다	81.0	77.0	1.230
	있다	19.0	23.0	

\* p<.05, \*\* p<.01, \*\*\* p<.001

## 2) 학교중단 관련 일반사항

### Q. 학교를 그만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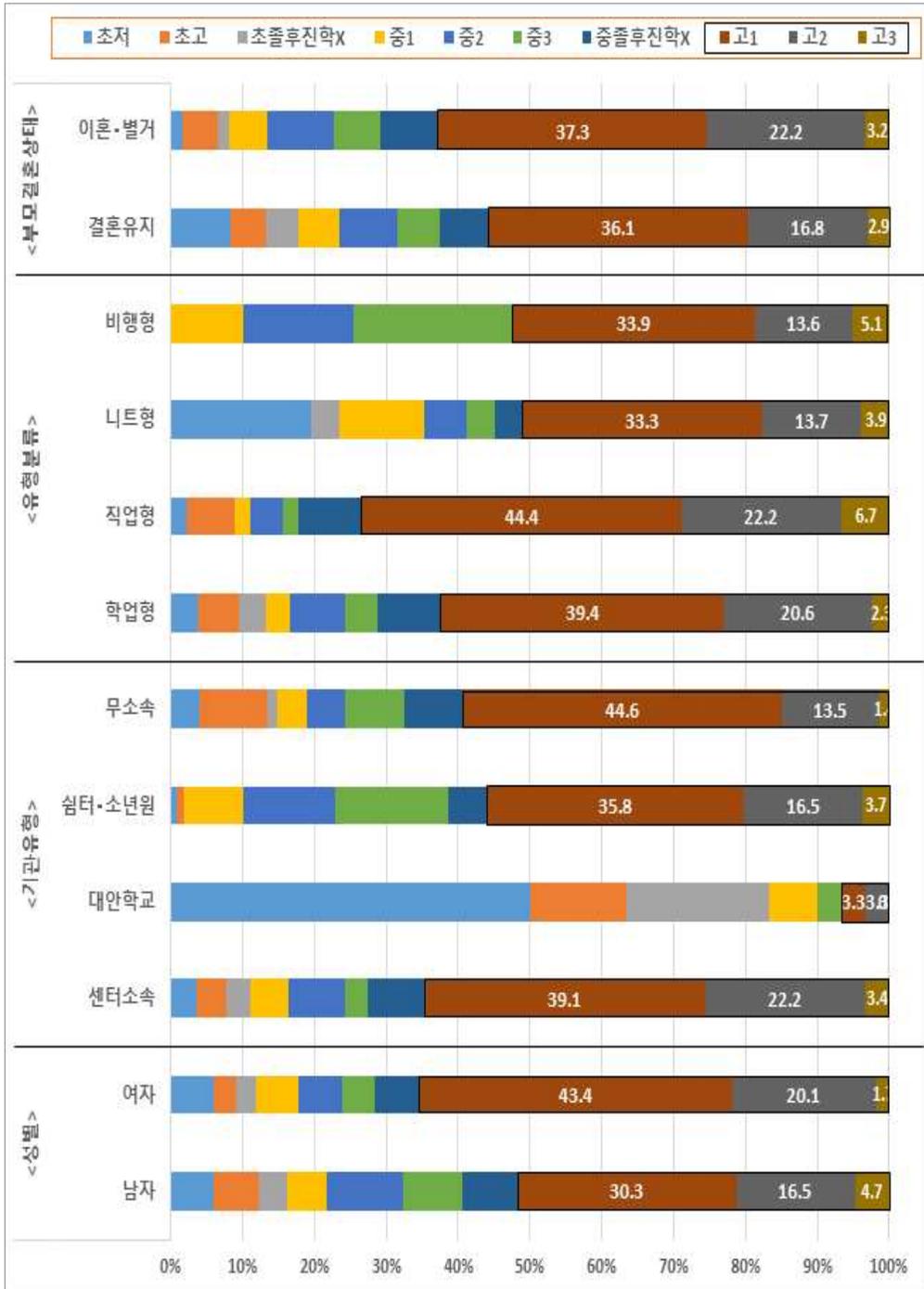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 대해 살펴보면, 고등학교(58.9%) 시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고1 시기가 37.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성별로 구분해보면, 초등학교~중1,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여학생의 중단비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교 시기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대안학교를 제외한 집단유형에서 고등학교 때 그만둔 비율이 높았으며, 대안학교의 경우 부모와의 능동적인 진로선택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시기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로는 비행형의 경우 중학교 시기, 그 중에서도 중3 시기에 그만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그룹이 중2 시기 이후의 중단비가 높았음

〈표 4-5〉 학교를 그만둔 시점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chi^2$	
	저학년 (1~3)	고학년 (4~6)	진학 안함	1학년	2학년	3학년	진학 안함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2016년	2.0	3.4	-	3.0	6.0	14.8	-	43.6	22.1	5.0	100.0
	2019년	5.9	4.6	3.3	5.9	8.3	6.2	7.0	37.2	18.5	3.1	100.0
성별	남자	5.9	6.3	3.9	5.5	10.6	8.3	7.9	30.3	16.5	4.7	30.13*
	여자	5.9	3.1	2.8	5.9	6.3	4.5	6.3	43.4	20.1	1.7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7	4.0	3.4	5.2	8.0	3.1	8.0	39.1	22.2	3.4	225.53***
	대안학교	50.0	13.3	20.0	6.7	0.0	3.3	0.0	3.3	3.3	0.0	
	소년원 쉼터	0.9	0.9	0.0	8.3	12.8	15.6	5.5	35.8	16.5	3.7	
	무소속	4.1	9.5	1.4	4.1	5.4	8.1	8.1	44.6	13.5	1.4	
유형 분류	학업형	3.8	5.8	3.8	3.2	7.8	4.3	9.0	39.4	20.6	2.3	114.61***
	직업형	2.2	6.7	0.0	2.2	4.4	2.2	8.9	44.4	22.2	6.7	
	니트형	19.6	0.0	3.9	11.8	5.9	3.9	3.9	33.3	13.7	3.9	
	비행형	0.0	0.0	0.0	10.2	15.3	22.0	0.0	33.9	13.6	5.1	
부모 결혼	결혼유지	8.4	4.8	4.5	5.8	8.1	5.8	6.8	36.1	16.8	2.9	22.30*
	이혼·별거	1.6	4.9	1.6	5.4	9.2	6.5	8.1	37.3	22.2	3.2	

\* p<.05, \*\* p<.01, \*\*\* p<.001



<그림 4-1> 학교를 그만둔 시점

**Q.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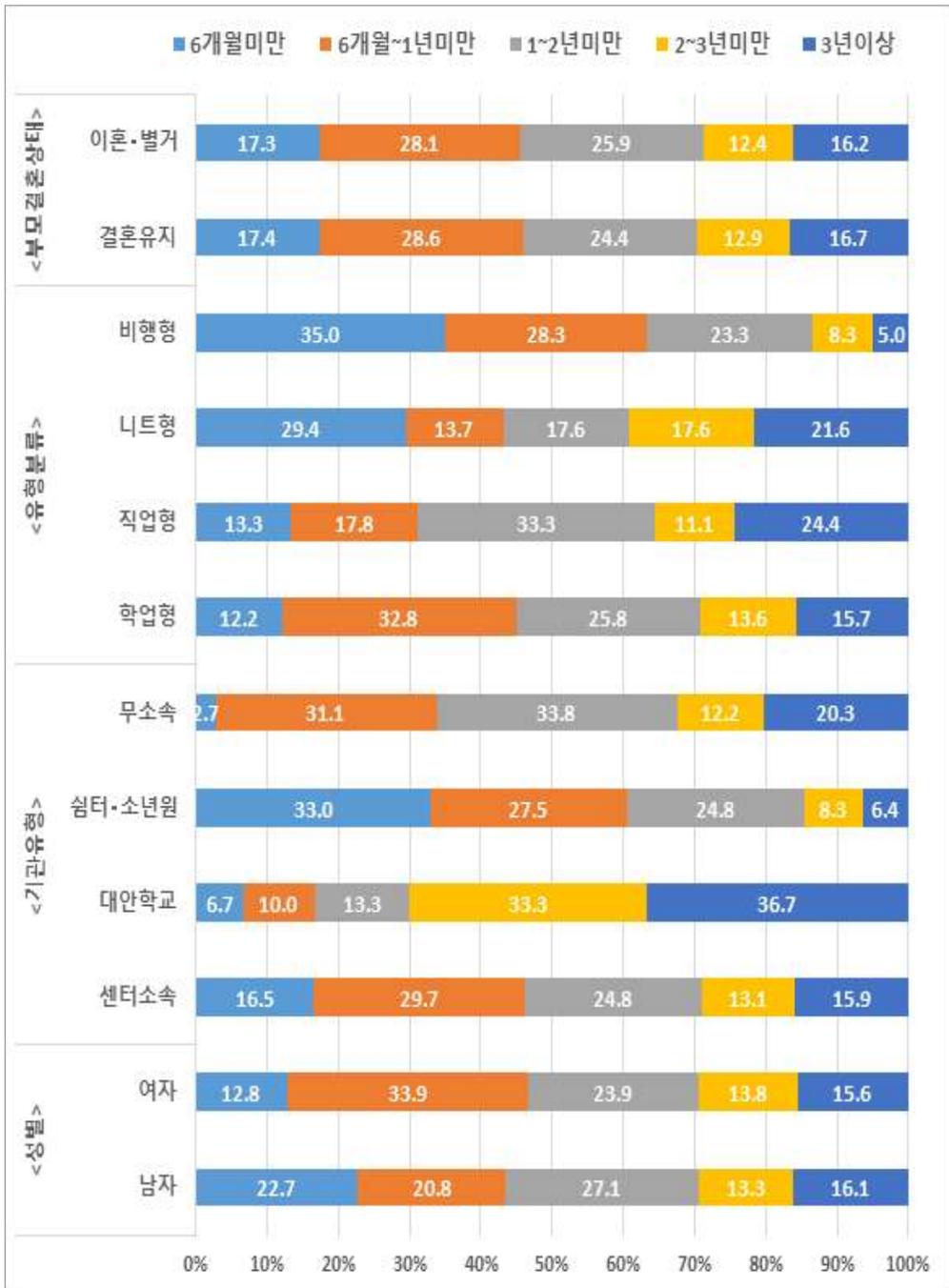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인 경우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년 미만(25.4%), 6개월 미만(17.4%) 등의 순으로 2년 미만 비율이 7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1~2년 미만 비율이 27.1%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 6개월~1년 미만 비율이 33.9%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음
- 기관 유형별로는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시점이 초등학교 시기로 빠르게 따라 현재까지 2년 이상 경과된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의 청소년은 6개월~1년 미만 경과된 경우가 많았음.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소속 청소년은 기관 입소 시 즉각적으로 꿈드림 센터의 기관연계로 이어져 학교를 그만둔 시점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형별로는 비행형이 가장 짧았고, 직업형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집단 간 분포가 유사하였음

〈표 4-6〉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의 기간

(단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합계/ $\chi^2$
전체	2016년	-	-	-	-	-	-
	2019년	17.4	28.0	25.4	13.5	15.7	100.0
성별	남자	22.7	20.8	27.1	13.3	16.1	16.67*
	여자	12.8	33.9	23.9	13.8	15.6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6.5	29.7	24.8	13.1	15.9	61.10***
	대안학교	6.7	10.0	13.3	33.3	36.7	
	소년원/쉼터	33.0	27.5	24.8	8.3	6.4	
	무소속	2.7	31.1	33.8	12.2	20.3	
유형 분류	학업형	12.2	32.8	25.8	13.6	15.7	41.32***
	직업형	13.3	17.8	33.3	11.1	24.4	
	니트형	29.4	13.7	17.6	17.6	21.6	
	비행형	35.0	28.3	23.3	8.3	5.0	
부모 결혼	결혼유지	17.4	28.6	24.4	12.9	16.7	.15
	이혼/별거	17.3	28.1	25.9	12.4	16.2	

\* p<.05, \*\* p<.01, \*\*\* p<.001



〈그림 4-2〉 학교를 그만둔 후 현재까지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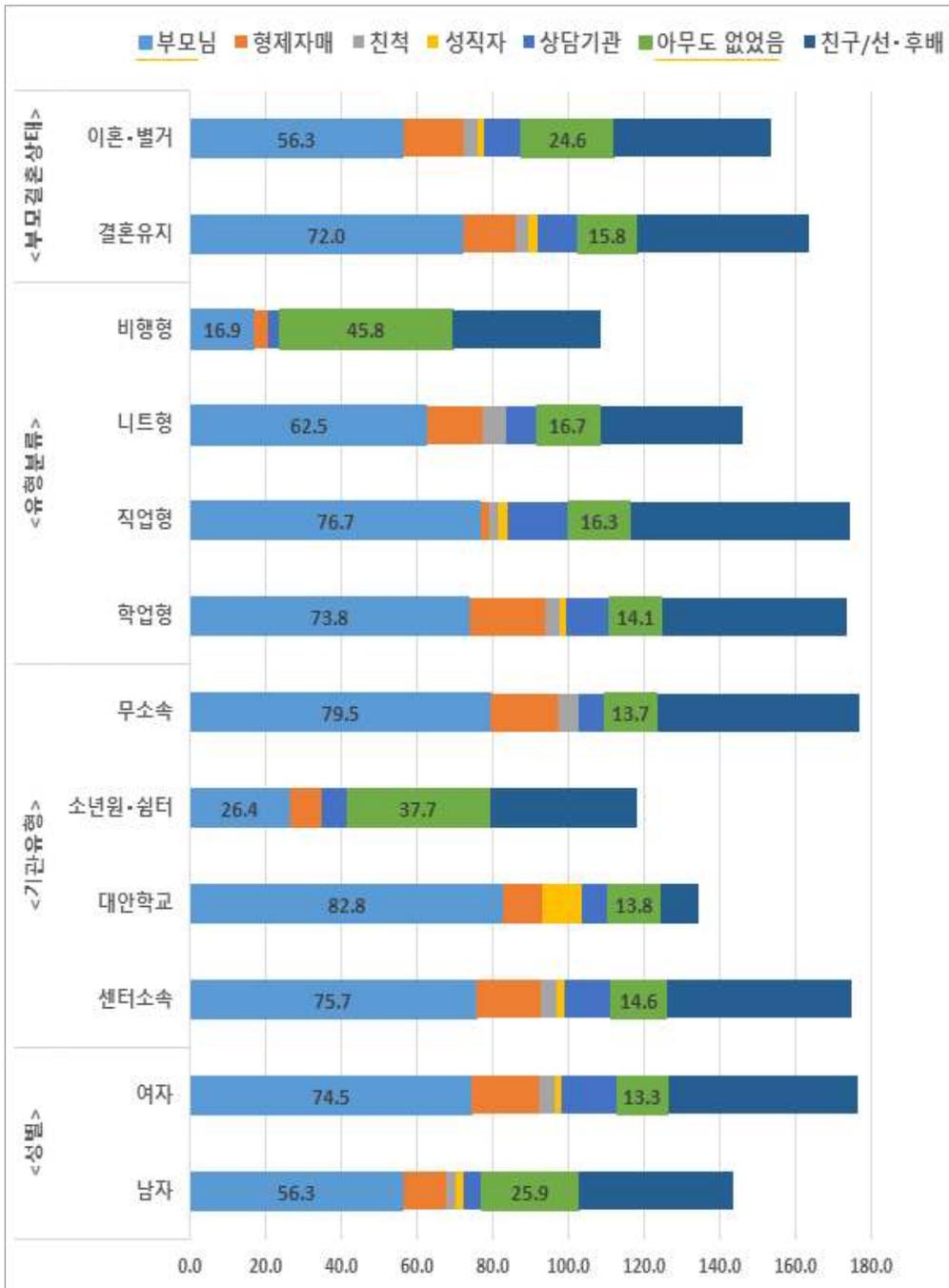
**Q.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한 사람**

-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고민을 의논한 대상을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결과, 총 536명의 청소년 중 355명(66.2%)이 ‘부모님’을 선택하였음. 다음으로 친구/선·후배(45.3%), 형제/자매(14.7%)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체 응답빈도를 보면, ‘비행형’과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이 가장 낮아 사회적 지지가 다양하지 못하고 취약한 집단임을 미루어 볼 수 있음
-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모와 의논한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남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빈도가 더 높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의 경우 ‘아무도 없었다’는 빈도가 가장 높고, 전체 응답빈도가 가장 낮아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하였음. 반면 부모와 의논한 비율은 대안학교(82.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비행형,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집단은 ‘아무도 없었다’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전체 응답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의논한 사람(다중응답: N=536)

(단위: 명, %)

구분		합계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선·후배	선생님	친척	성직자	상담기 관	아무도 없었음
전체	2016년	531	1순위	5순위	2순위	3순위	7순위	8순위	6순위	4순위
	2019년	861	1순위 66.2	4순위 14.7	2순위 45.3	-	6순위 3.4	7순위 1.9	5순위 10.1	3순위 19.0
성별	남자	247	56.3	11.3	40.5	-	2.4	2.0	4.9	25.9
	여자	286	74.5	17.8	50.0	-	4.2	1.7	14.7	13.3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21	75.7	16.8	48.9	-	4.4	2.2	12.1	14.6
	대안학교	29	82.8	10.3	10.3	-	0.0	10.3	6.9	13.8
	소년원·쉼터	106	26.4	8.5	38.7	-	0.0	0.0	6.6	37.7
	무소속	73	79.5	17.8	53.4	-	5.5	0.0	6.8	13.7
유형 분류	학업형	340	73.8	20.0	48.8	-	3.8	1.8	11.2	14.1
	직업형	43	76.7	2.3	58.1	-	2.3	2.3	16.3	16.3
	니트형	48	62.5	14.6	37.5	-	6.3	0.0	8.3	16.7
	비행형	59	16.9	3.4	39.0	-	0.0	0.0	3.4	45.8
부모 결혼	결혼유지	304	72.0	14.1	45.4	-	3.3	2.3	10.5	15.8
	이혼·별거	183	56.3	15.8	41.5	-	3.8	1.6	9.8	24.6



〈그림 4-3〉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의논한 사람(다중응답)

### Q. 학교생활 규범 위반 경험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학교규범 위반 경험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규범 위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규범 항목에 대해 ‘거의 매일’ 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지각(19.6%)이 가장 높았으며, 무단결석(15.3%), 무단조퇴(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위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기관 유형별로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무소속 집단의 청소년들이 위반 비율이 높은 반면,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유형별로는 니트형의 위반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한편, 비행형은 ‘교사-보호자 면담’이 전혀 없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하게 나타난 조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들의 위반 비율이 결혼유지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8〉 학교생활 규범 위반 경험

(단위: %)

구분		지각		무단결석		무단조퇴		선생님과 의견충돌		교사-보호자 면담	
		전혀 없음	거의 매일	전혀 없음	거의 매일	전혀 없음	거의 매일	전혀 없음	거의 매일	전혀 없음	거의 매일
전체	2016년	24.5	26.5	37.2	20.8	46.6	17.4	61.3	7.4	64.4	4.4
	2019년	33.8	19.6	35.2	15.3	31.7	12.6	52.6	11.0	51.0	3.7
성별	남자	25.0	21.4	33.5	15.9	32.0	13.2	47.6	11.5	54.8	4.8
	여자	41.5	17.8	36.7	14.5	31.5	12.2	57.2	10.6	47.9	2.8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7.8	16.1	37.3	13.9	30.6	12.8	55.8	8.8	45.0	3.1
	대안학교	55.2	0.0	69.0	0.0	51.7	0.0	82.8	0.0	79.3	0.0
	소년원/쉼터	16.5	27.5	21.1	18.3	33.0	11.0	33.9	18.3	62.6	5.6
	무소속	31.1	28.4	31.1	21.6	25.7	17.6	54.1	13.5	51.4	4.1
유형 분류	학업형	36.4	18.4	37.8	16.3	30.5	12.3	54.7	10.3	47.9	3.2
	직업형	33.3	24.4	35.6	13.3	24.4	8.9	66.7	2.2	55.6	2.2
	니트형	32.7	24.5	26.5	20.4	34.7	24.5	46.0	20.0	46.9	8.2
	비행형	13.3	20.0	21.7	11.7	35.0	10.0	32.2	15.3	62.1	3.4
부모 결혼	결혼유지	41.8	13.4	40.8	12.4	35.2	9.2	59.5	7.9	57.8	2.0
	이혼/별거	23.2	28.1	29.6	19.4	29.3	16.3	44.0	14.1	45.1	4.9



〈그림 4-4〉 학교생활 규범 위반 경험

## Q.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 10명 중 약 4명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없었다고 응답함. 하지만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10명 중 약 7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수업참여도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그렇지 못했다고 응답함. 한편, 2016년과 비교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수업참여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었던 편으로 나타남
- 성별로 비교해보면,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업참여도는 남학생의 부정적 평가가 유의하게 높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비행형과 니트형에서 부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의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표 4-9〉 학교생활(교사관계/친구관계/수업참여)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학교에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계셨다			학교에 믿고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곤 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chi^2$	그렇지 않다	그렇다	$\chi^2$	그렇지 않다	그렇다	$\chi^2$	
전체	2016년	41.8	58.2	-	24.1	75.9	-	65.2	34.8	-
	2019년	39.4	60.6	-	27.0	73.0	-	57.8	42.2	-
성별	남자	38.0	62.0	.40	25.8	74.2	.35	65.9	34.1	13.68***
	여자	40.7	59.3		28.0	72.0		50.2	49.8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3.2	66.8	39.58***	25.7	74.3	9.99**	51.7	48.3	28.08***
	대안학교	30.0	70.0		30.0	70.0		53.3	46.7	
	소년원쉼터	65.1	34.9		35.5	64.5		79.8	20.2	
	무소속	29.7	70.3		14.9	85.1		51.4	48.6	
유형 분류	학업형	34.2	65.8	22.40***	22.9	77.1	12.83**	51.7	48.3	26.32***
	직업형	28.9	71.1		17.8	82.2		55.6	44.4	
	니트형	49.0	51.0		43.1	56.9		78.4	21.6	
	비행형	63.3	36.7		33.3	66.7		80.0	20.0	
부모 결혼	결혼유지	34.5	65.5	9.03**	25.8	74.2	.56	52.1	47.9	9.62**
	이혼별거	48.1	51.9		28.9	71.1		66.3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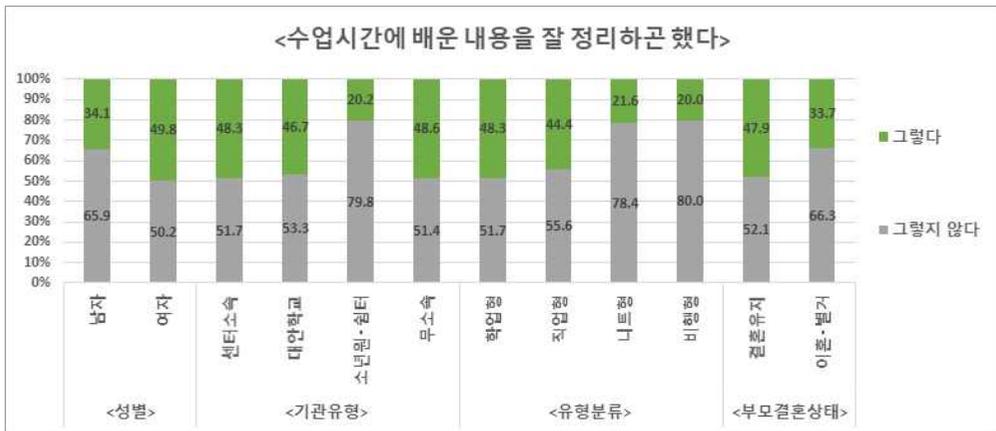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그림 4-5) 응답자 유형별 교사관계



(그림 4-6) 응답자 유형별 친구관계



(그림 4-7) 응답자 유형별 수업참여도

### Q. 학교에서의 상담경험

- 학교에서의 상담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44.6%(245명)가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한편, 상담을 받았던 55.4%(304명)의 청소년들은 평균 3.5회, 상담대상은 주로 담임교사(66.4%), 상담내용은 진로(41.7%) 관련이었음
- 성별로는 상담여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담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대상은 남녀 모두 담임교사 비율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내용은 주로 남학생은 진로관련, 여학생은 또래관계 관련 내용이었음. 평균 상담횟수는 대략 3~4회 정도(여자 3.3회, 남자 3.7회)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기관 유형별로는 상담여부는 대안교육학교,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상담 미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상담대상은 주로 담임교사였으며, 대안교육학교기관은 상담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상담내용은 무소속 청소년은 진로관련, 대안교육기관은 진학,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는 성격 관련이었음. 평균 상담횟수는 대안교육기관과 무소속이 가장 적었음
- 유형별로는 비행형의 상담 미실시 비율이 높았고, 니트형의 상담횟수가 가장 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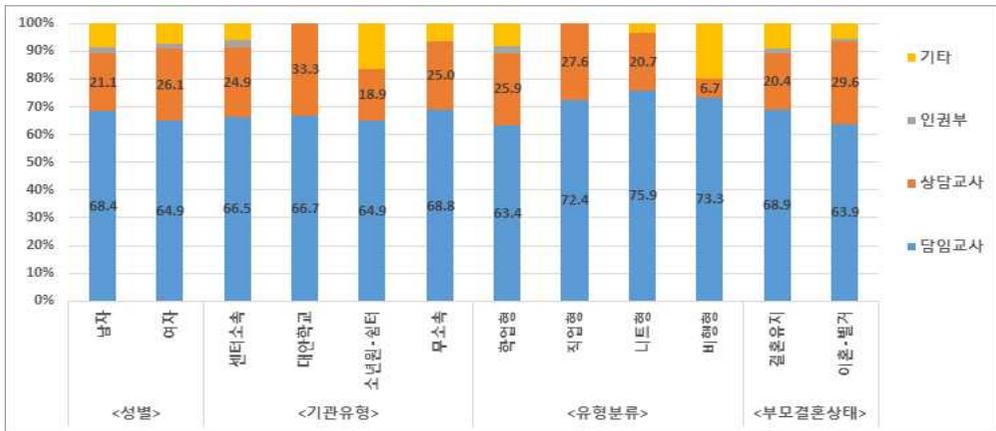
〈표 4-10〉 학교에서의 상담경험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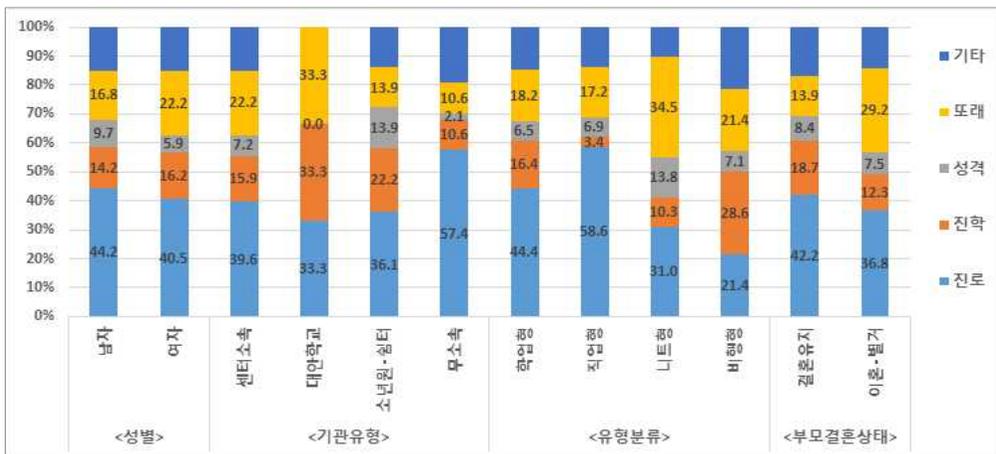
구분	상담여부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 횟수	
	상담 안했음	상담 했음	담임 교사	상담 교사	인권 부	기타	진로	진학	성격	또래	기타		
전체	2016년	-	-	-	-	-	-	-	-	-	-	-	-
	2019년	44.6	55.4	66.4	24.0	1.6	7.9	41.7	16.0	7.3	20.0	15.0	3.5
성별	남자	55.1	44.9	68.4	21.1	1.8	8.8	44.2	14.2	9.7	16.8	15.0	3.7
	여자	35.5	64.5	64.9	26.1	1.6	7.4	40.5	16.2	5.9	22.2	15.1	3.3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6.3	63.7	66.5	24.9	2.4	6.2	39.6	15.9	7.2	22.2	15.0	3.5
	대안학교	80.0	20.0	66.7	33.3	0.0	0.0	33.3	33.3	0.0	33.3	0.0	2.8
	소년원/쉼터	66.4	33.6	64.9	18.9	0.0	16.2	36.1	22.2	13.9	13.9	13.9	4.2
	무소속	35.1	64.9	68.8	25.0	0.0	6.3	57.4	10.6	2.1	10.6	19.1	2.7
유형 분류	학업형	37.6	62.4	63.4	25.9	2.3	8.3	44.4	16.4	6.5	18.2	14.5	3.2
	직업형	35.6	64.4	72.4	27.6	0.0	0.0	58.6	3.4	6.9	17.2	13.8	3.4
	니트형	43.1	56.9	75.9	20.7	0.0	3.4	31.0	10.3	13.8	34.5	10.3	2.9
	비행형	75.0	25.0	73.3	6.7	0.0	20.0	21.4	28.6	7.1	21.4	21.4	7.3
부모 결혼	결혼유지	46.3	53.7	68.9	20.4	1.8	9.0	42.2	18.7	8.4	13.9	16.9	3.4
	이혼/별거	42.2	57.8	63.9	29.6	0.9	5.6	36.8	12.3	7.5	29.2	14.2	3.5



〈그림 4-8〉 응답자 유형별 학교상담 여부 및 횟수



〈그림 4-9〉 응답자 유형별 학교상담 대상



〈그림 4-10〉 응답자 유형별 학교상담 내용

**Q.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

-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복학절차’에 대해 33.7%만이 안내받았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청소년 시설(29.6%), 검정고시 준비방법(28.9%)에 대해 안내받았다고 응답함. 전반적으로 안내받았다는 경우가 적었으며, 2016년 조사 때보다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비슷한 분포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소년시설 관련 안내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아 차이를 보였음
- 기관 유형별로는 검정고시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서 가장 낮고, 무소속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검정고시 준비방법과 청소년시설 안내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비행형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음
-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복학절차와 청소년시설 안내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유지 가정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4-11〉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

(단위: %, 명)

구분		복학절차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준비방법		청소년시설 안내 (꿈드림, 상담 등)		직업교육기관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016년	75	37.5	68	34.0	101	50.5	98	49.0	55	27.5
	2019년	183	33.7	122	22.5	157	28.9	161	29.6	103	19.0
성별	남자	83	33.1	62	24.7	74	29.4	59	23.4	47	18.7
	여자	98	33.9	59	20.4	81	28.0	101	34.9	54	18.7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13	34.9	76	23.5	98	30.2	107	33.0	69	21.3
	대안학교	6	20.0	9	30.0	2	6.7	4	13.3	4	13.3
	소년원쉼터	35	32.1	23	21.1	29	26.6	28	25.5	16	14.7
	무소속	29	39.2	12	16.2	26	35.1	20	27.0	12	16.2
유형 분류	학업형	124	36.2	76	22.2	120	34.9	113	32.8	72	21.0
	직업형	18	40.9	12	27.3	14	31.8	16	36.4	10	22.7
	니트형	15	30.0	17	34.0	10	20.0	15	30.0	10	20.0
	비행형	13	21.7	11	18.3	8	13.3	9	15.0	7	11.7
부모 결혼	결혼유지	88	28.7	61	19.9	83	26.9	75	24.4	58	18.9
	이혼별거	76	41.1	50	27.0	58	31.4	67	36.2	31	16.8

\* 해당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 기준임.



〈그림 4-11〉 응답자 유형별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

**Q. 학교를 그만둘 당시 도움 받고 싶었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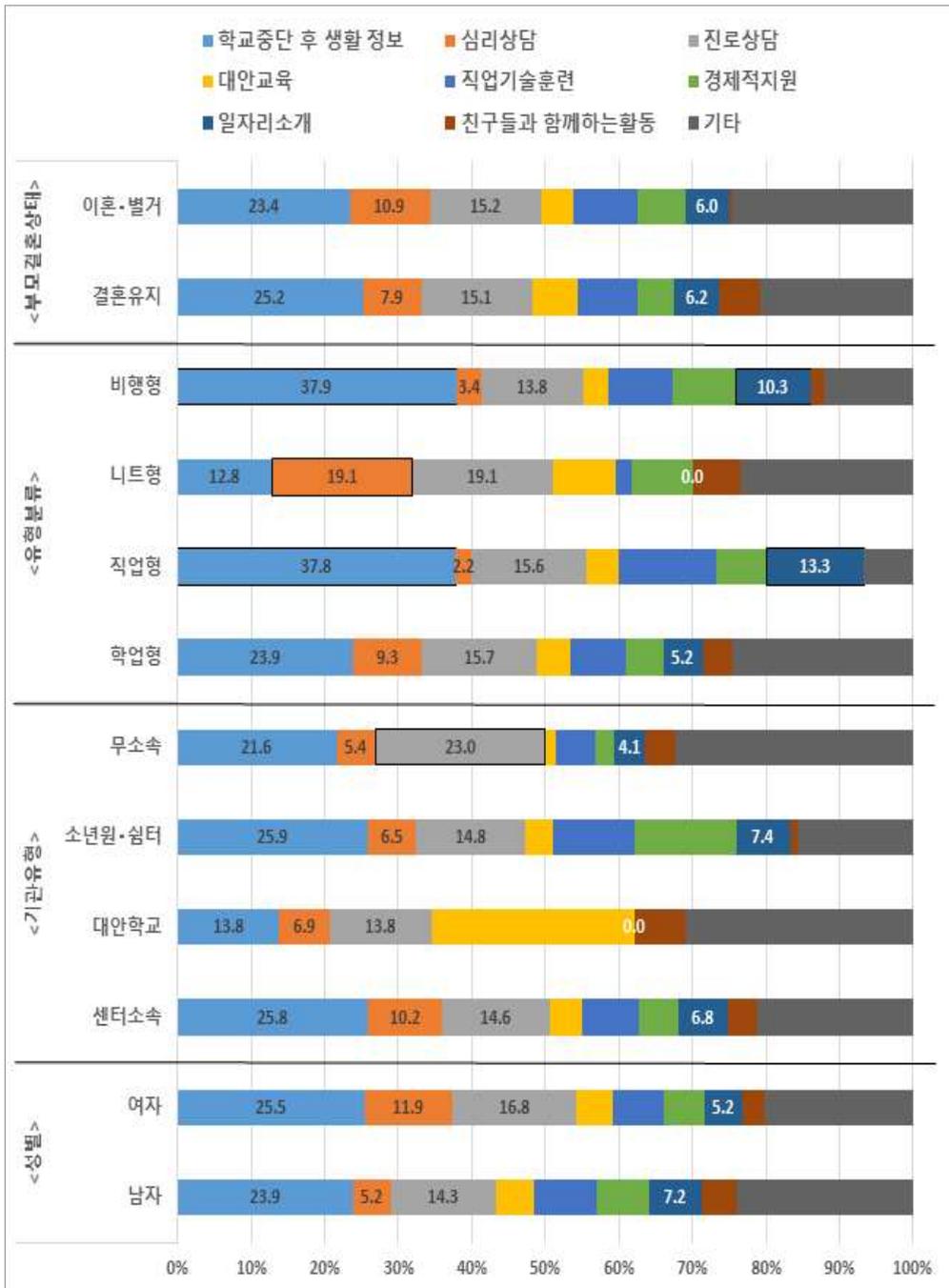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둘 당시 도움 받고 싶었던 사항은 ‘학교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24.6%)’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진로상담(15.7%), 심리상담(8.7%), 직업기술훈련(7.6%)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기관 유형별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보, 무소속 청소년은 진로상담,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직업기술훈련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도움을 특히 더 원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직업형은 학교중단 이후 생활 정보, 직업기술훈련, 일자리 사항에 대한 정보, 니트형은 심리상담, 비행형은 학교중단 이후 생활 정보, 일자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특히 더 원했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4-12〉 학교를 그만둘 당시 도움 받고 싶었던 사항

(단위: %)

구분		학교중단 후 생활 정보	심리상담	진로상담	대안교육	직업기술훈련	경제적 지원	일자리 소개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	기타	합계 / $\chi^2$
전체	2016년	-	-	-	-	-	-	-	-	-	-
	2019년	24.6	8.7	15.7	5.0	7.6	6.3	6.1	3.7	22.2	100.0
성별	남자	23.9	5.2	14.3	5.2	8.4	7.2	7.2	4.8	23.9	11.42
	여자	25.5	11.9	16.8	4.9	7.0	5.6	5.2	2.8	20.3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25.8	10.2	14.6	4.3	7.8	5.3	6.8	4.0	21.1	69.83***
	대안학교	13.8	6.9	13.8	27.6	0.0	0.0	0.0	6.9	31.0	
	소년원/쉼터	25.9	6.5	14.8	3.7	11.1	13.9	7.4	0.9	15.7	
	무소속	21.6	5.4	23.0	1.4	5.4	2.7	4.1	4.1	32.4	
유형 분류	학업형	23.9	9.3	15.7	4.4	7.6	5.2	5.2	4.1	24.5	47.53**
	직업형	37.8	2.2	15.6	4.4	13.3	6.7	13.3	0.0	6.7	
	니트형	12.8	19.1	19.1	8.5	2.1	8.5	0.0	6.4	23.4	
	비행형	37.9	3.4	13.8	3.4	8.6	8.6	10.3	1.7	12.1	
부모 결혼	결혼유지	25.2	7.9	15.1	6.2	8.2	4.9	6.2	5.6	20.7	11.27
	이혼별거	23.4	10.9	15.2	4.3	8.7	6.5	6.0	0.5	24.5	

\* p<.05, \*\* p<.01, \*\*\* p<.001



〈그림 4-12〉 학교를 그만둘 당시 도움받고 싶었던 사항

**Q.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 및 숙려제 상담기관**

-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5%(118명)에 불과하였음. 한편,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숙려제 기간 동안 상담해준 기관은 Wee클래스(23.1%), 꿈드림센터(22.2%)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학생의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남. 한편, 상담 받은 기관은 여학생은 Wee클래스/센터의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 비율이 높았음
- 유형별로는 니트형 및 비행형의 참여비율이 낮았음. 상담받은 기관은 비행형은 Wee클래스/센터가 대부분이었고, 니트형은 Wee클래스와 꿈드림센터가 많았음
- 한편, 숙려제 이후 꿈드림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한 청소년은 61명이었으며,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은 6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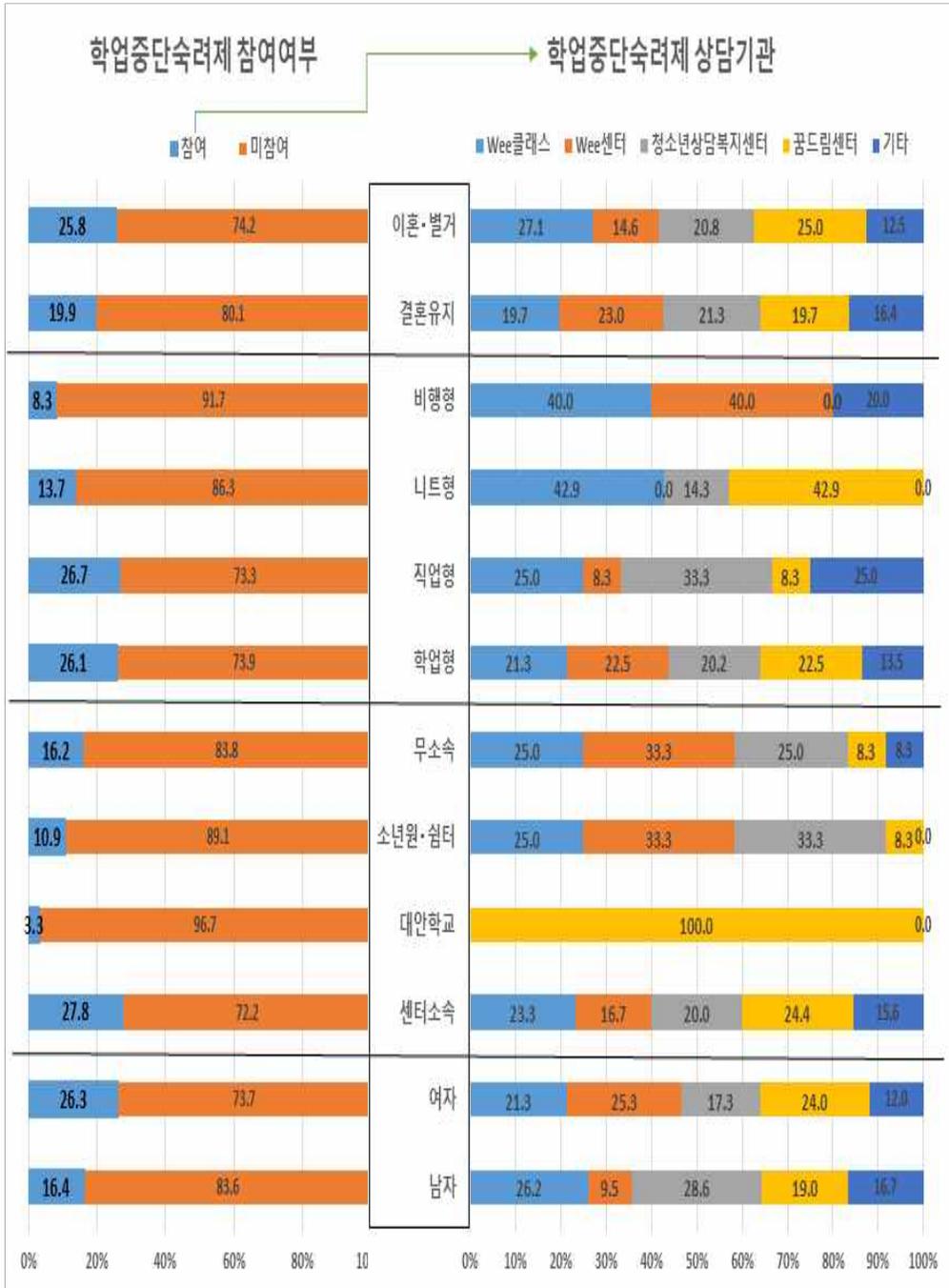
〈표 4-13〉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및 상담받은 기관

(단위: %, 명)

구분	참여 여부			상담받은 기관						동의 여부		
	참여	미참여	$\chi^2$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기타	동의	모르겠음	동의 안함	
전체	2016년	-	-	-	-	-	-	-	-	-	-	-
	2019년	21.5	78.5	-	23.1	19.7	21.4	22.2	13.7	61	48	6
성별	남자	16.4	83.6	7.83**	26.2	9.5	28.6	19.0	16.7	20	18	4
	여자	26.3	73.7		21.3	25.3	17.3	24.0	12.0	41	30	2
소속기관유형	센터소속	27.8	72.2	22.20***	23.3	16.7	20.0	24.4	15.6	48	35	5
	대안학교	3.3	96.7		0.0	0.0	0.0	100.0	0.0	1	0	0
	소년원쉼터	10.9	89.1		25.0	33.3	33.3	8.3	0.0	5	6	1
	무소속	16.2	83.8		25.0	33.3	25.0	8.3	8.3	6	6	0
유형분류	학업형	26.1	73.9	12.04**	21.3	22.5	20.2	22.5	13.5	42	39	6
	직업형	26.7	73.3		25.0	8.3	33.3	8.3	25.0	8	4	0
	니트형	13.7	86.3		42.9	0.0	14.3	42.9	0.0	5	2	0
	비행형	8.3	91.7		40.0	40.0	0.0	0.0	20.0	2	3	0
부모결혼	결혼유지	19.9	80.1	2.33	19.7	23.0	21.3	19.7	16.4	34	23	3
	이혼별거	25.8	74.2		27.1	14.6	20.8	25.0	12.5	24	21	3

\* p<.05, \*\* p<.01, \*\*\* p<.001

\*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장이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을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의 숙려제 참여 권유는 의무사항인 반면, 학생들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님.



〈그림 4-13〉 학교업중단속려제 참여 및 상담받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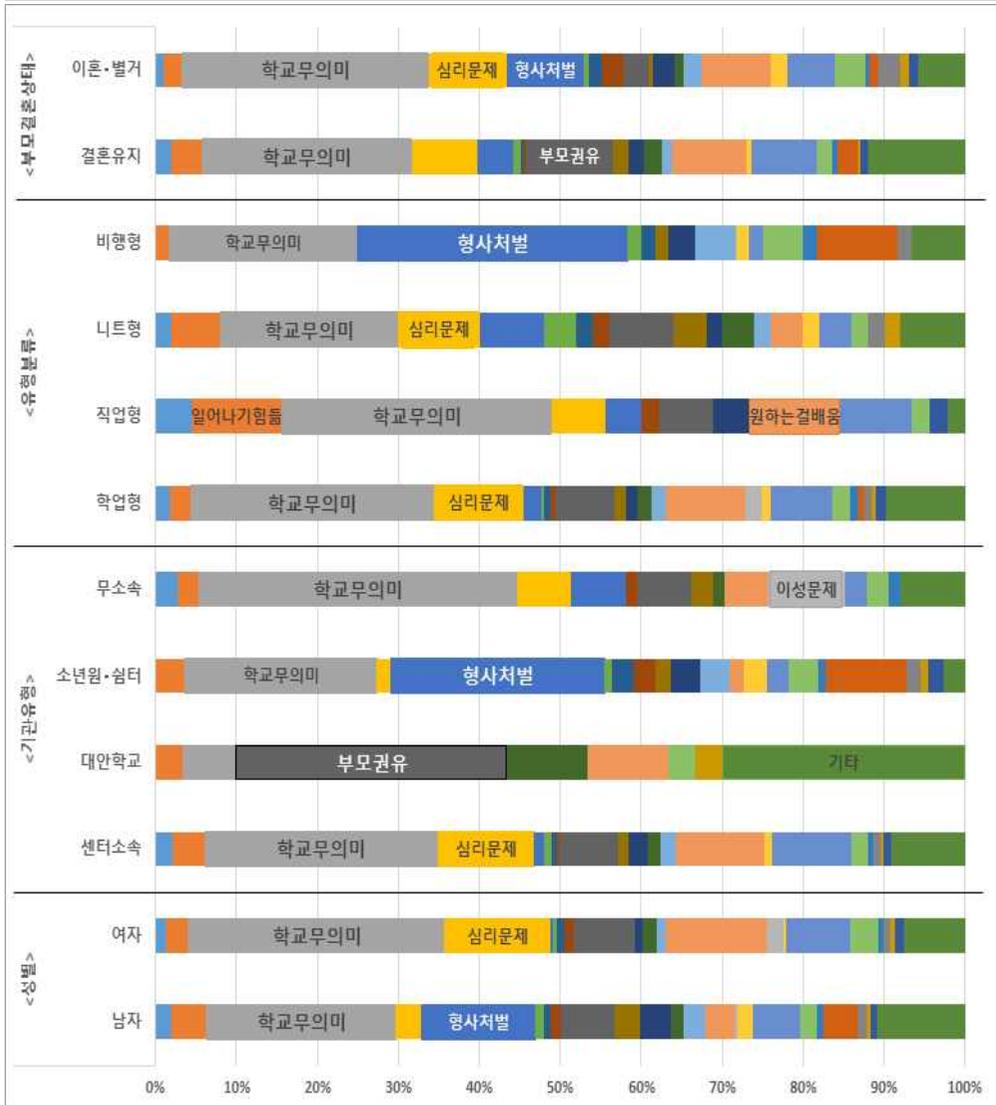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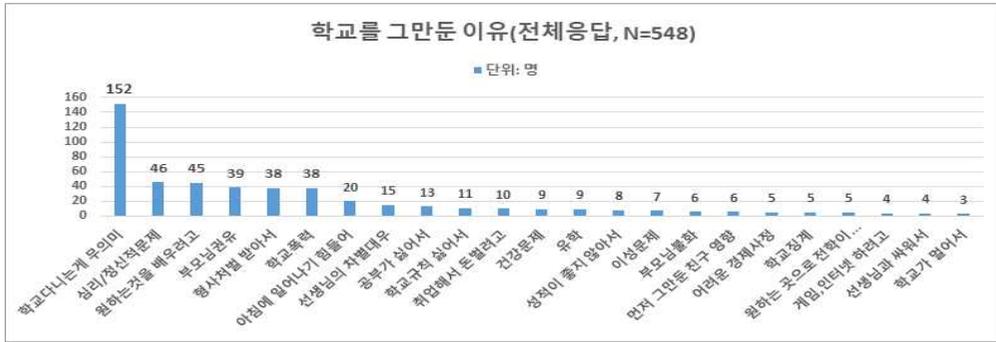
## Q. 학교를 그만둔 이유

-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 없음’이라는 응답이 27.7%(152명)로 가장 많았고, 심리·정신적 문제(8.4%),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8.2%), 부모님 권유(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4〉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

구분		건강 문제	일어나기 힘들	학교 무의미	심리 정신 문제	형사 처벌	게임	경제 사정	부모 불화	부모 권유	낮은 학습 성적	공부 싫음	유학
전체	2016년	4.4	17.8	-	8.4	2.0	-	0.7	0.3	-	2.0	8.7	3.4
	2019년	1.6	3.6	27.7	8.4	6.9	0.7	0.9	1.1	7.1	1.5	2.4	1.6
성별	남자	2.0	4.3	23.4	3.1	14.1	1.2	0.8	1.2	6.6	3.1	3.9	1.6
	여자	1.4	2.8	31.5	13.1	0.3	0.3	1.0	1.0	7.6	0.0	1.0	1.7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2.1	4.0	28.7	11.9	1.2	0.9	0.6	0.3	7.3	1.2	2.4	1.5
	대안학교	0.0	3.3	6.7	0.0	0.0	0.0	0.0	0.0	33.3	0.0	0.0	10.0
	소년원·쉼터	0.0	3.6	23.6	1.8	26.4	0.9	2.7	2.7	0.0	1.8	3.6	0.0
	무소속	2.7	2.7	39.2	6.8	6.8	0.0	0.0	1.4	6.8	2.7	0.0	1.4
유형 분류	학업형	1.7	2.6	30.1	11.0	2.3	0.3	0.9	0.6	7.2	1.4	1.4	1.7
	직업형	4.4	11.1	33.3	6.7	4.4	0.0	0.0	2.2	6.7	0.0	4.4	0.0
	니트형	2.0	6.0	22.0	10.0	8.0	4.0	2.0	2.0	8.0	4.0	2.0	4.0
	비행형	0.0	1.7	23.3	0.0	33.3	1.7	1.7	0.0	0.0	1.7	3.3	0.0
부모 결혼	결혼유지	1.9	3.9	25.8	8.1	4.5	1.0	0.3	0.3	10.6	1.9	1.9	2.3
	이혼·별거	1.1	2.1	30.5	9.6	9.6	0.5	1.6	2.7	3.2	0.5	2.7	1.1
		취업	원하는 걸 배움	이성 문제	친구 영향	폭력 왕따	선생님의 차별	선생님과 다름	엄한 학교 규칙	학교 징계	통학 거리	전학 안됨	기타
전체	2016년	1.0	15.4	1.7	0.7	8.4	2.3	1.3	2.0	2.0	2.0	1.3	4.0
	2019년	1.8	8.2	1.3	1.1	6.9	2.7	0.7	2.0	0.9	0.5	0.9	9.1
성별	남자	2.7	3.5	0.4	2.0	5.9	2.0	0.8	4.3	1.2	0.4	0.8	10.9
	여자	1.0	12.5	2.1	0.3	8.0	3.5	0.7	0.0	0.7	0.7	1.0	7.6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8	11.0	0.0	0.9	9.8	2.1	0.6	0.0	0.9	0.3	0.9	9.2
	대안학교	0.0	10.0	0.0	0.0	0.0	3.3	0.0	0.0	0.0	3.3	0.0	30.0
	소년원·쉼터	3.6	1.8	0.0	2.7	2.7	3.6	0.9	10.0	1.8	0.9	1.8	2.7
	무소속	0.0	5.4	9.5	0.0	2.7	2.7	1.4	0.0	0.0	0.0	0.0	8.1
유형 분류	학업형	1.7	9.8	2.0	1.2	7.5	2.3	0.9	0.9	0.9	0.6	1.2	9.8
	직업형	0.0	11.1	0.0	0.0	8.9	2.2	0.0	0.0	0.0	0.0	2.2	2.2
	니트형	2.0	4.0	0.0	2.0	4.0	2.0	0.0	0.0	2.0	2.0	0.0	8.0
	비행형	5.0	0.0	0.0	1.7	1.7	5.0	1.7	10.0	1.7	0.0	0.0	6.7
부모 결혼	결혼유지	1.3	9.0	0.0	0.6	8.1	1.9	0.6	2.6	0.0	0.3	1.0	11.9
	이혼·별거	2.1	8.6	0.0	2.1	5.9	3.7	0.5	1.1	2.7	1.1	1.1	5.9



〈그림 4-14〉 학교를 그만둔 이유

### 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

#### Q.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 여부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를 살펴본 결과, ‘후회한 적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56.5%(309명)로 나타남. 후회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6년(51.5%)에 비해 5%p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후회하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좀 더 높았음. 기관 유형별로는 대안교육기관 소속 청소년의 경우 그만 둔 것을 후회한적 있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 유형별로 학업형의 경우 후회한적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결혼유지 가정 청소년이 후회한적 없다는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었음

〈표 4-15〉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단위: 명, %)

구분		후회한적 있다		후회한적 없다	
		명	%	명	%
전체	2016년	144	48.5	153	51.5
	2019년	238	43.5	309	56.5
성별	남자	116	45.5	139	54.5
	여자	120	41.5	169	58.5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44	43.9	184	56.1
	대안학교	18	60.0	12	40.0
	소년원쉼터	44	40.7	64	59.3
	무소속	30	40.5	44	59.5
유형 분류	학업형	145	42.0	200	58.0
	직업형	20	44.4	25	55.6
	니트형	23	45.1	28	54.9
	비행형	27	45.8	32	54.2
부모 결혼	결혼유지	130	41.8	181	58.2
	이혼별거	87	46.5	100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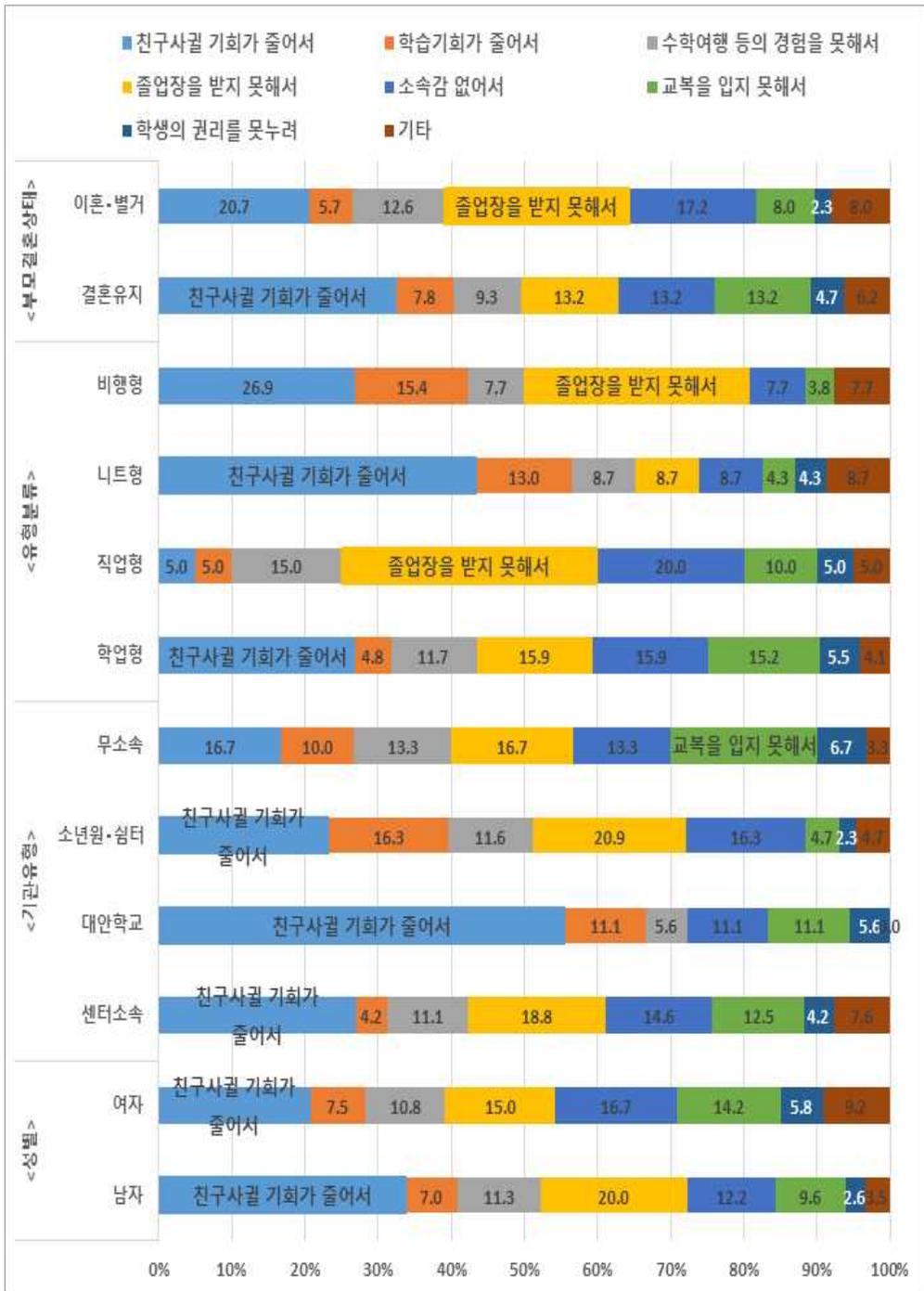


**Q.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했던 이유**

-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238명(43.5%)을 대상으로 후회했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들어서(27.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17.7%)' 등의 순으로 높았음. 한편, 2016년도는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37.5%)'가 가장 높았음
-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서 후회를 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기관 유형별로는 무소속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서 후회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무소속 집단은 교복을 입지 못한 후회를 가장 많이 선택함
- 유형별로는 학업형과 니트형의 경우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서 후회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직업형과 비행형의 경우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후회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함. 부모의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은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결혼유지 가정 청소년은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서 후회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표 4-1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했던 이유 (단위: %)

구분		친구사귄 기회가 줄어서	학습기회 가 줄어서	수학여행 등의 경험을 못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소속감 없어서	교복을 입지 못해서	학생의 권리를 못누려	기타
전체	2016년	11.8	6.9	10.4	37.5	6.9	16.0	6.3	4.2
	2019년	27.0	7.6	11.0	17.7	14.3	11.8	4.2	6.3
성별	남자	33.9	7.0	11.3	20.0	12.2	9.6	2.6	3.5
	여자	20.8	7.5	10.8	15.0	16.7	14.2	5.8	9.2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27.1	4.2	11.1	18.8	14.6	12.5	4.2	7.6
	대안학교	55.6	11.1	5.6	0.0	11.1	11.1	5.6	0.0
	소년원·쉼터	23.3	16.3	11.6	20.9	16.3	4.7	2.3	4.7
	무소속	16.7	10.0	13.3	16.7	13.3	20.0	6.7	3.3
유형 분류	학업형	26.9	4.8	11.7	15.9	15.9	15.2	5.5	4.1
	직업형	5.0	5.0	15.0	35.0	20.0	10.0	5.0	5.0
	니트형	43.5	13.0	8.7	8.7	8.7	4.3	4.3	8.7
	비행형	26.9	15.4	7.7	30.8	7.7	3.8	0.0	7.7
부모 결혼	결혼유지	32.6	7.8	9.3	13.2	13.2	13.2	4.7	6.2
	이혼·별거	20.7	5.7	12.6	25.3	17.2	8.0	2.3	8.0



〈그림 4-1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했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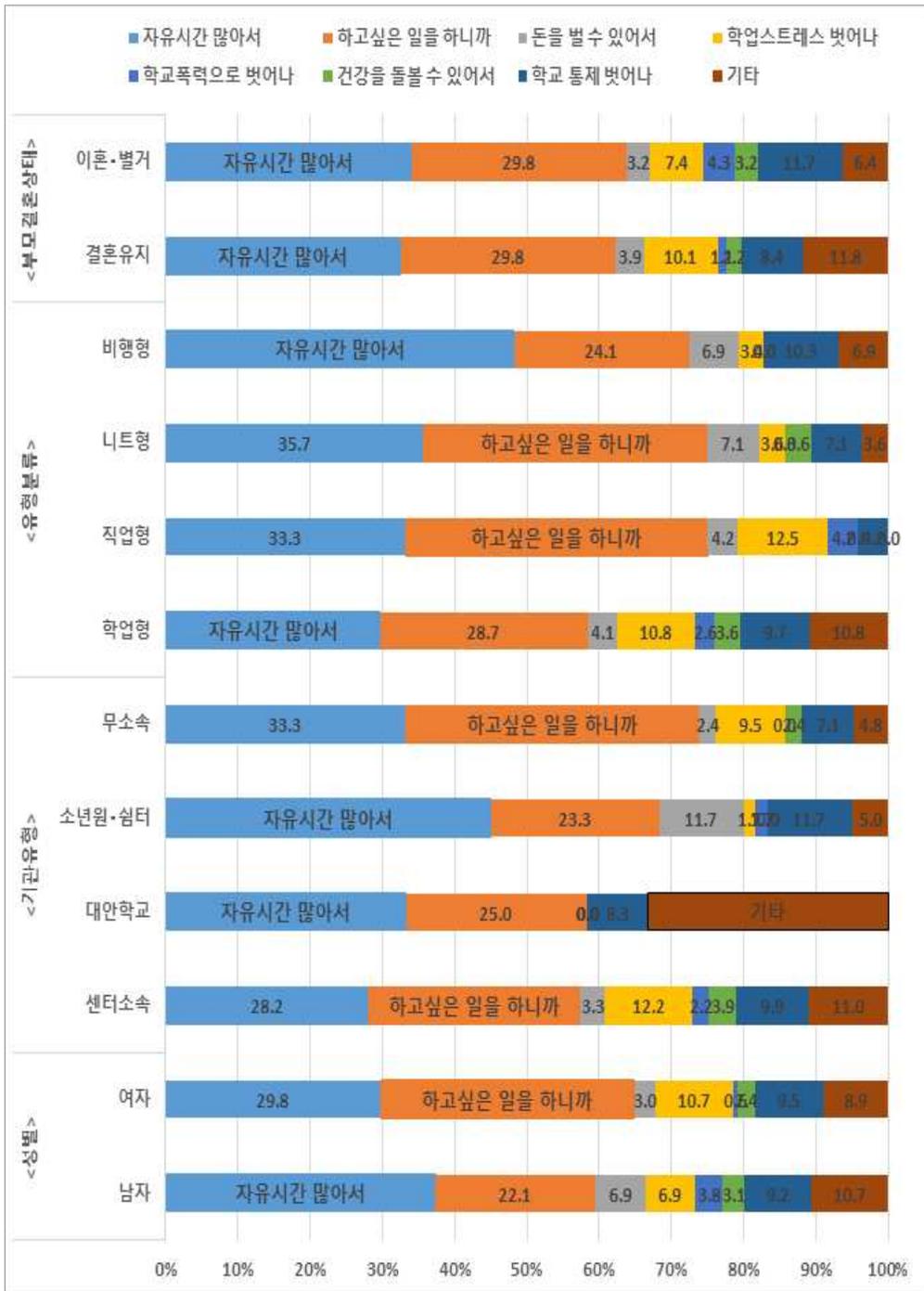
### Q.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

-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309명(56.5%)을 대상으로 후회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유시간이 늘어나서(33.0%)'가 가장 많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서(29.3%)' 등의 순임. 한편, 2016년도는 반대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42.5%)'가 가장 높았고, '자유시간이 늘어나서(26.8%)'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학생은 '자유시간이 늘어나서(37.4%)'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35.1%)'가 높아 차이를 보임
- 기관 유형별로는 무소속과 꿈드림 센터소속 청소년들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서'가 가장 높았고,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및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은 '자유시간이 늘어나서'를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함
- 유형별로는 학업형과 비행형은 '자유시간이 늘어나서'가 가장 많았고, 직업형과 니트형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음. 부모 결혼유형별로는 '자유시간이 늘어나서'를 가장 많이 선택함

〈표 4-1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

(단위: %)

구분		자유시간 많아서	하고싶은 일을 하니까	돈을 벌 수 있어서	학업스트레스 벗어나	학교폭력으로 벗어나	건강을 돌볼 수 있어서	학교 통제 벗어나	기타
전체	2016년	26.8	42.5	6.5	5.2	3.9	1.3	10.5	3.3
	2019년	33.0	29.3	4.7	9.0	2.0	2.7	9.7	9.7
성별	남자	37.4	22.1	6.9	6.9	3.8	3.1	9.2	10.7
	여자	29.8	35.1	3.0	10.7	0.6	2.4	9.5	8.9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28.2	29.3	3.3	12.2	2.2	3.9	9.9	11.0
	대안학교	33.3	25.0	0.0	0.0	0.0	0.0	8.3	33.3
	소년원/쉼터	45.0	23.3	11.7	1.7	1.7	0.0	11.7	5.0
	무소속	33.3	40.5	2.4	9.5	0.0	2.4	7.1	4.8
유형 분류	학업형	29.7	28.7	4.1	10.8	2.6	3.6	9.7	10.8
	직업형	33.3	41.7	4.2	12.5	4.2	0.0	4.2	0.0
	니트형	35.7	39.3	7.1	3.6	0.0	3.6	7.1	3.6
	비행형	48.3	24.1	6.9	3.4	0.0	0.0	10.3	6.9
부모 결혼	결혼유지	32.6	29.8	3.9	10.1	1.1	2.2	8.4	11.8
	이혼/별거	34.0	29.8	3.2	7.4	4.3	3.2	11.7	6.4



〈그림 4-17〉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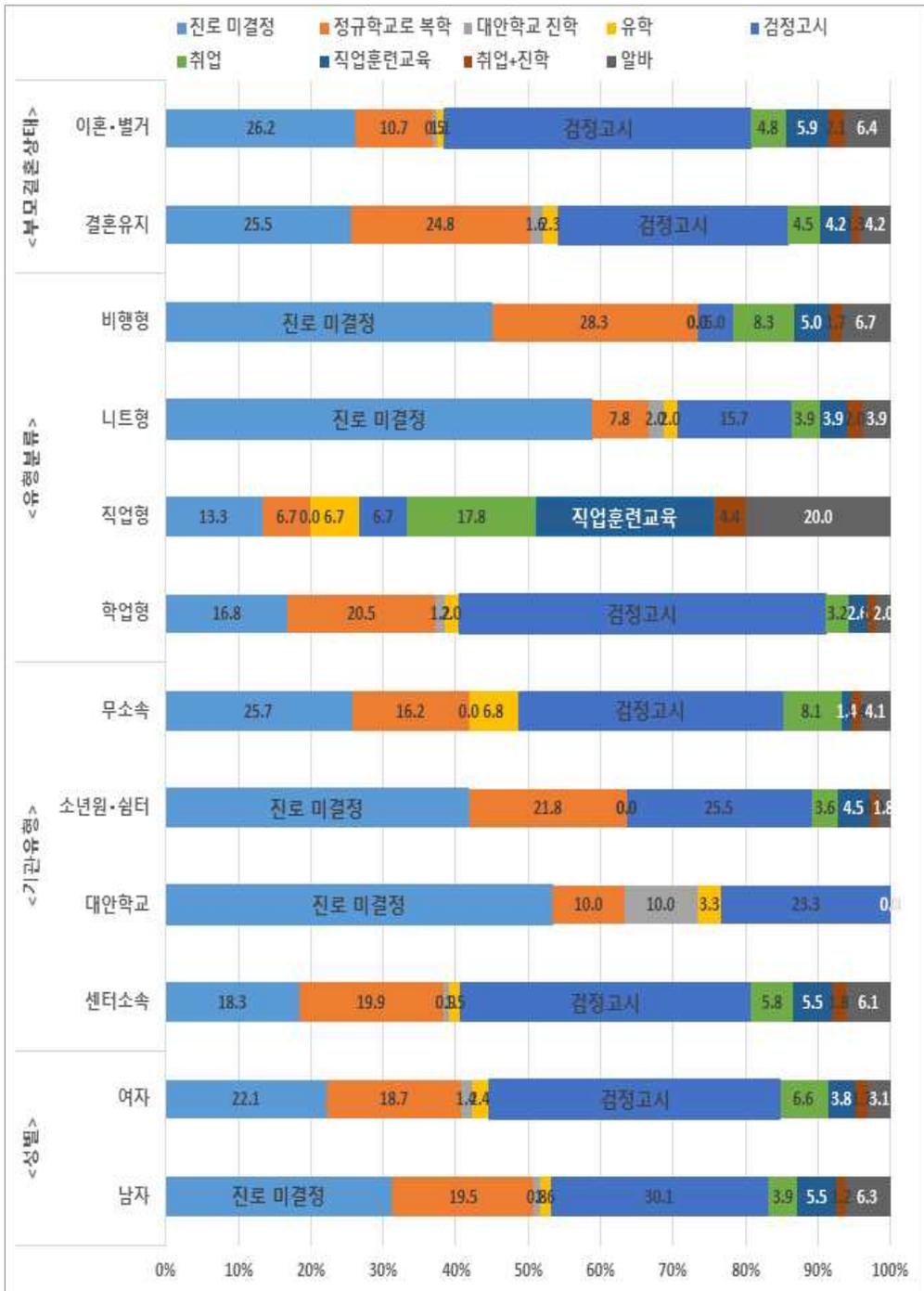
## Q. 향후 진로계획

-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검정고시 준비(35.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조사는 절반 가까이 검정고시 준비를 선택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 반면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아직 모르겠음’ 응답은 26.5%로 2016년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 ‘진로 미결정’ 비율은 니트형(58.8%), 대안학교(53.3%), 비행형(45.0%) 순
- 성별로는 남학생은 ‘아직 모름’, 여학생은 ‘검정고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비율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기관 유형별로는 센터와 무소속 청소년은 ‘검정고시’, 대안학교와 소년원·쉼터 청소년은 ‘아직 모름’ 응답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유형별로는 학업형은 ‘검정고시’, 직업형은 ‘직업교육훈련’, 니트형과 비행형은 ‘아직 모름’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검정고시’가 모두 높았으나, 결혼유지 가정 청소년의 경우 ‘정규학교 복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4-18〉 향후 진로계획

(단위: %)

구분		아직 모르겠음	정규 학교 복학	대안 학교 진학	해외 유학	검정 고시 준비	취업	직업교육훈련	취업+진학	아르바이트
전체	2016년	15.1	7.4	1.7	2.7	<u>49.0</u>	10.1	5.4	4.7	4.0
	2019년	<u>26.5</u>	19.0	1.1	2.0	<u>35.6</u>	5.3	4.6	1.5	4.6
성별	남자	<u>31.3</u>	19.5	0.8	1.6	30.1	3.9	5.5	1.2	6.3
	여자	22.1	18.7	1.4	2.4	<u>40.1</u>	6.6	3.8	1.7	3.1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8.3	19.9	0.9	1.5	<u>40.1</u>	5.8	5.5	1.8	6.1
	대안학교	<u>53.3</u>	10.0	10.0	3.3	23.3	0.0	0.0	0.0	0.0
	소년원·쉼터	<u>41.8</u>	21.8	0.0	0.0	25.5	3.6	4.5	0.9	1.8
	무소속	25.7	16.2	0.0	6.8	<u>36.5</u>	8.1	1.4	1.4	4.1
유형 분류	학업형	16.8	20.5	1.2	2.0	<u>50.6</u>	3.2	2.6	1.2	2.0
	직업형	13.3	6.7	0.0	6.7	6.7	17.8	<u>24.4</u>	4.4	20.0
	니트형	<u>58.8</u>	7.8	2.0	2.0	15.7	3.9	3.9	2.0	3.9
	비행형	<u>45.0</u>	28.3	0.0	0.0	5.0	8.3	5.0	1.7	6.7
부모 결혼	결혼유지	25.5	<u>24.8</u>	1.6	2.3	31.6	4.5	4.2	1.3	4.2
	이혼·별거	26.2	10.7	0.5	1.1	<u>42.2</u>	4.8	5.9	2.1	6.4



〈그림 4-18〉 향후 진로계획

**Q.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 학교를 그만둔 후 지금까지 어울리는 친구로는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친구’가 가장 많았음. 반면, ‘주로 혼자 지냄’ 응답도 23.5%로 높은 편으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함
-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기존에 다니던 학교 친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응답분포가 비슷하였음. 한편, ‘주로 혼자 지냄’ 응답은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 형별로는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후 새로 사귀 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소년원·쉼터 청소년은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한편, 센터소속 청소년의 경우 ‘주로 혼자 지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직업형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 기존에 알던 친구와 지낸다는 응답이 높았고, 학업형과 비행형은 다니던 학교의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응답이 높았음. 한편, 비행형은 혼자 지낸다는 응답이 가장 낮아, 긍정적이든 부정적 측면으로든 또래와 어울림

〈표 4-19〉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단위: %)

구분		기존에 다니던 학교 친구	기존에 다니던 학교 이외 친구	학교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	주로 혼자 지냄
전체	2016년	36.2	28.5	19.1	16.1
	2019년	31.7	20.8	24.0	23.5
성별	남자	32.8	22.3	24.2	20.7
	여자	31.0	19.3	24.1	25.5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28.7	22.0	19.8	29.6
	대안학교	16.7	6.7	76.7	0.0
	소년원·쉼터	40.9	15.5	25.5	18.2
	무소속	39.2	27.0	17.6	16.2
유형 분류	학업형	33.2	22.0	19.7	25.1
	직업형	22.2	35.6	22.2	20.0
	니트형	25.5	17.6	29.4	27.5
	비행형	38.3	11.7	38.3	11.7
부모 결혼	결혼유지	30.9	21.9	25.4	21.9
	이혼·별거	31.0	18.2	25.1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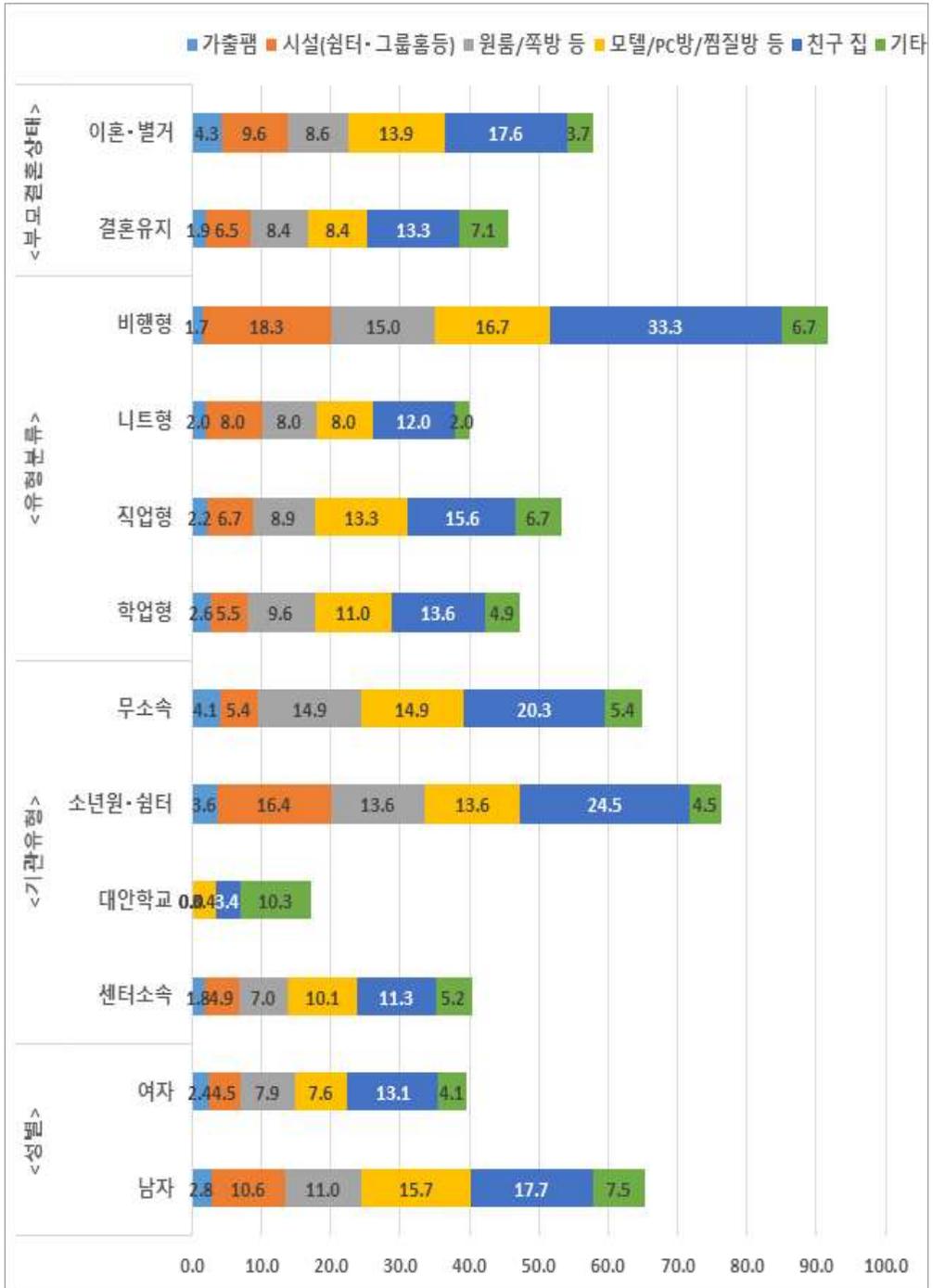
〈그림 4-19〉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Q. 학교를 그만둔 후 집 외에 거주했던 장소**

- 학교를 그만둔 후 '본인의 집이 아닌 장소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62.8%로 과반 수 이상이었으며,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응답한 거주지로는 친구집(15.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PC방/모텔/찜질방(11.3%), 원룸/고시원(9.3%) 등의 순이었음
- 집 외에 거주해본 경험 다중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비행형>소년원·쉼터>남학생>무소속>이혼·별거' 등의 청소년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학생의 절반가량이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거주 장소로는 친구집(17.7%), 모텔/PC방(15.7%) 등의 순으로 많았음. 기관유형별로는 소년원·쉼터 청소년의 가출경험이 높았고, 거주 장소로는 친구집(24.5%), 시설(16.4%)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유형별로는 비행형의 경우 약 75%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부모결혼 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의 가출경험이 높았음. 거주 장소로는 친구집이 가장 많았음

〈표 4-20〉 학교를 그만둔 후 집 외에 일주일 이상 거주해본 경험(다중응답: N=547) (단위: 명, %)

구분		합계	가출팜	시설(쉼터 그룹홈등)	원룸, 쪽방 등	모텔, PC방, 찜질방 등	친구 집	기타	해당사항 없음
전체	2016년	378	5.3	7.0	17.7	14.7	19.0	2.3	<b>60.0</b>
	2019년	625	2.6	7.3	9.3	11.3	15.2	5.7	<b>62.8</b>
성별	남자	254	2.8	10.6	11.0	15.7	17.7	7.5	<b>52.4</b>
	여자	290	2.4	4.5	7.9	7.6	13.1	4.1	<b>71.7</b>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27	1.8	4.9	7.0	10.1	11.3	5.2	<b>72.2</b>
	대안학교	29	0.0	0.0	0.0	3.4	3.4	10.3	<b>82.8</b>
	소년원·쉼터	110	3.6	16.4	13.6	13.6	24.5	4.5	<b>35.5</b>
	무소속	74	4.1	5.4	14.9	14.9	20.3	5.4	<b>60.8</b>
유형 분류	학업형	345	2.6	5.5	9.6	11.0	13.6	4.9	<b>66.1</b>
	직업형	45	2.2	6.7	8.9	13.3	15.6	6.7	<b>68.9</b>
	니트형	50	2.0	8.0	8.0	8.0	12.0	2.0	<b>70.0</b>
	비행형	60	1.7	18.3	15.0	16.7	33.3	6.7	<b>26.7</b>
부모 결혼	결혼유지	309	1.9	6.5	8.4	8.4	13.3	7.1	<b>64.7</b>
	이혼·별거	187	4.3	9.6	8.6	13.9	17.6	3.7	<b>60.4</b>



〈그림 4-20〉 학교를 그만둔 후 집 외에 일주일 이상 거주해본 경험(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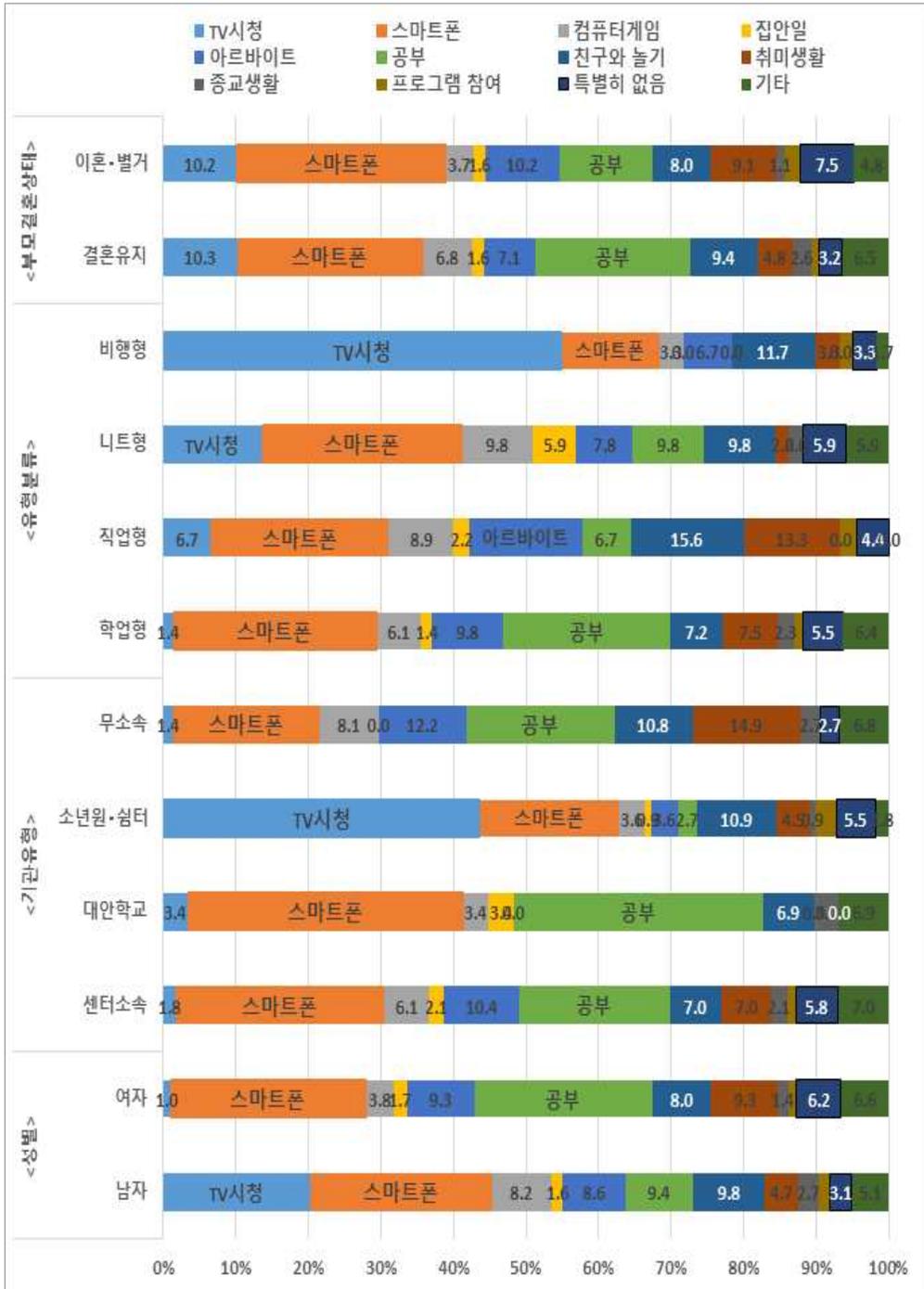
**Q. 최근 한 달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

-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스마트폰 사용(25.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부(17.5%), TV시청(10.2%) 등의 순이었음. 2016년도에 비해 TV시청, 스마트폰(SNS), 공부 등은 증가하였고, 컴퓨터게임, 아르바이트 등은 감소함. 한편, 무의미하게 ‘특별히 하는게 없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함
- 성별로는 응답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은 TV시청, 스마트폰(SNS), 여학생은 스마트폰과 공부를 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 기관 유형별 응답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년원·쉼터 청소년은 TV시청을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반면, 공부는 매우 낮았음. 대안학교 청소년은 스마트폰과 공부를 했다는 응답이 주로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비행형과 니트형은 TV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이 주를 이루었고, 직업형은 아르바이트, 학업형은 공부 응답이 주로 높았음
- 부모결혼 상태별로는 모두 스마트폰, 공부 순으로 높았음. 한편, 공부한다는 비율은 결혼유지 가정에서, 딱히 없다는 비율은 이혼·별거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4-21〉 최근 한 달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

(단위: %)

구분	TV시청	핸드폰	컴퓨터게임	집안일	아르바이트	공부	친구와 놀기	취미생활	종교생활	프로그램 참여	딱히 없음	기타	
전체	2016년	4.7	19.7	13.0	4.3	15.3	12.3	9.3	9.7	-	1.0	5.3	5.3
	2019년	10.2	25.9	5.8	1.6	8.9	17.5	8.8	7.1	2.0	1.3	4.9	5.8
성별	남자	<u>20.3</u>	<u>25.0</u>	8.2	1.6	8.6	9.4	9.8	4.7	2.7	1.6	3.1	5.1
	여자	1.0	<u>27.0</u>	3.8	1.7	9.3	<u>24.6</u>	8.0	9.3	1.4	1.0	6.2	6.6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8	<u>28.7</u>	6.1	2.1	10.4	<u>20.7</u>	7.0	7.0	2.1	1.2	5.8	7.0
	대안학교	3.4	<u>37.9</u>	3.4	3.4	0.0	<u>34.5</u>	6.9	0.0	3.4	0.0	0.0	6.9
	소년원·쉼터	<u>43.6</u>	<u>19.1</u>	3.6	0.9	3.6	2.7	10.9	4.5	0.9	2.7	5.5	1.8
	무소속	1.4	<u>20.3</u>	8.1	0.0	12.2	<u>20.3</u>	10.8	14.9	2.7	0.0	2.7	6.8
유형 분류	학업형	1.4	<u>28.0</u>	6.1	1.4	9.8	<u>23.1</u>	7.2	7.5	2.3	1.2	5.5	6.4
	직업형	6.7	<u>24.4</u>	8.9	2.2	<u>15.6</u>	6.7	<u>15.6</u>	13.3	0.0	2.2	4.4	0.0
	니트형	<u>13.7</u>	<u>27.5</u>	9.8	5.9	7.8	9.8	9.8	2.0	2.0	0.0	5.9	5.9
	비행형	<u>55.0</u>	<u>13.3</u>	3.3	0.0	6.7	0.0	11.7	3.3	0.0	1.7	3.3	1.7
부모 결혼	결혼유지	10.3	<u>25.5</u>	6.8	1.6	7.1	<u>21.3</u>	9.4	4.8	2.6	1.0	3.2	6.5
	이혼·별거	10.2	<u>28.9</u>	3.7	1.6	10.2	<u>12.8</u>	8.0	9.1	1.1	2.1	7.5	4.8



〈그림 4-21〉 최근 한 달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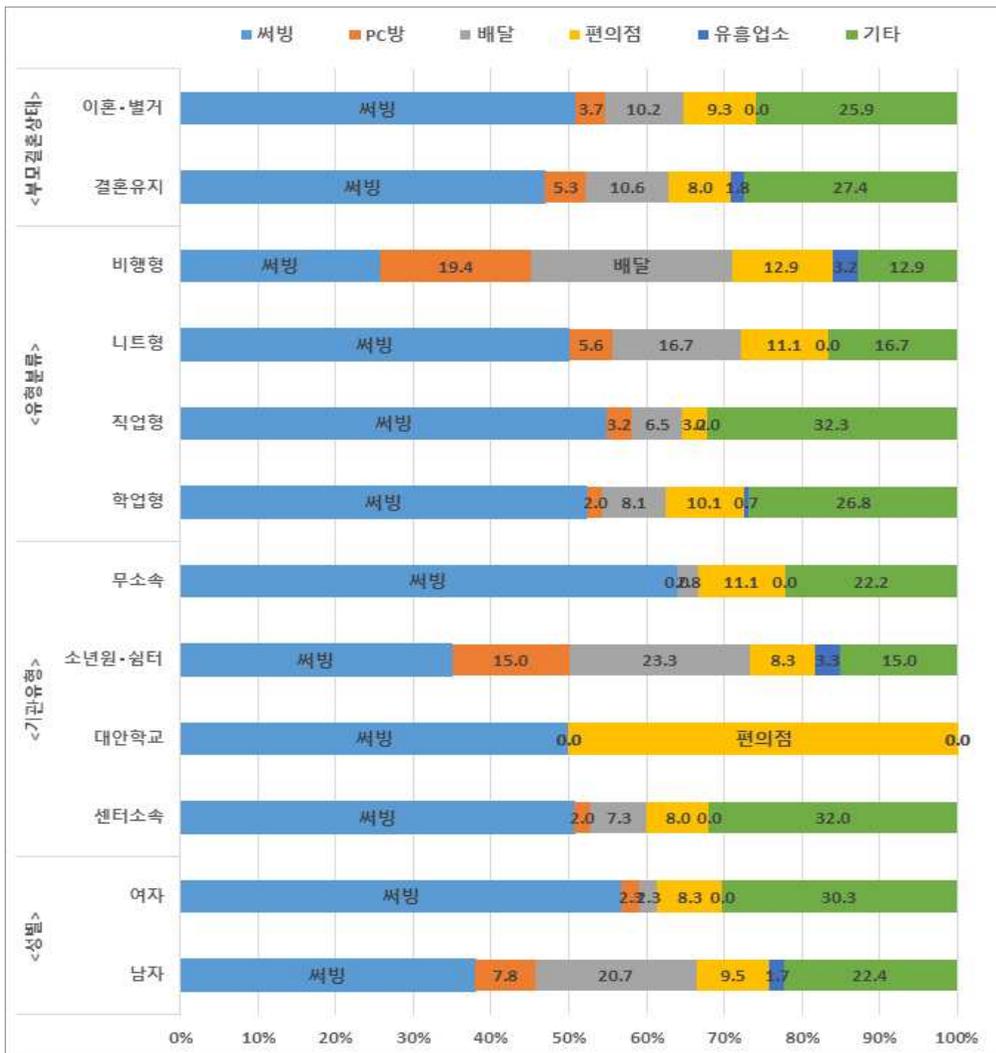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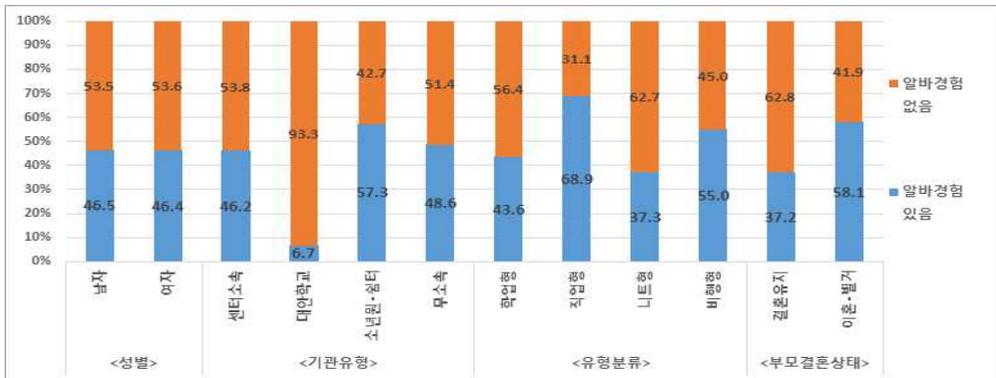
**Q.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

-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6.5%(254명)로 2016년에 비해 감소함. 가장 오랜 기간 했던 아르바이트는 서빙(48.4%), 기타(26.4%), 배달(10.8%) 등의 순임. 서빙과 배달은 증가하고, PC방, 편의점, 유흥업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사하였고, 아르바이트 종류는 여학생은 서빙, 남학생은 배달이 가장 많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남. 아르바이트 종류는 서빙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나, 소년원/쉼터 청소년은 PC방과 배달 아르바이트도 높은 분포를 보임
- 유형별로는 니트형 청소년의 경험이 가장 적었고, 직업형 청소년이 가장 많았음. 아르바이트 종류는 서빙이 가장 많았고, 비행형 청소년의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가 높은 분포를 보임
-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 아르바이트 종류							
			계	서빙	PC방	배달	편의점	유흥업소	기타	
전체	2016년	30.1	69.9	100.0	38.0	6.7	8.2	17.3	5.3	22.6
	2019년	53.5	46.5	100.0	48.4	4.8	10.8	8.8	0.8	26.4
성별	남자	53.5	46.5	100.0	37.9	7.8	20.7	9.5	1.7	22.4
	여자	53.6	46.4	100.0	56.8	2.3	2.3	8.3	0.0	30.3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53.8	46.2	100.0	50.7	2.0	7.3	8.0	0.0	32.0
	대안학교	93.3	6.7	100.0	50.0	0.0	0.0	50.0	0.0	0.0
	소년원/쉼터	42.7	57.3	100.0	35.0	15.0	23.3	8.3	3.3	15.0
	무소속	51.4	48.6	100.0	63.9	0.0	2.8	11.1	0.0	22.2
유형 분류	학업형	56.4	43.6	100.0	52.3	2.0	8.1	10.1	0.7	26.8
	직업형	31.1	68.9	100.0	54.8	3.2	6.5	3.2	0.0	32.3
	니트형	62.7	37.3	100.0	50.0	5.6	16.7	11.1	0.0	16.7
	비행형	45.0	55.0	100.0	25.8	19.4	25.8	12.9	3.2	12.9
부모 결혼	결혼유지	62.8	37.2	100.0	46.9	5.3	10.6	8.0	1.8	27.4
	이혼/별거	41.9	58.1	100.0	50.9	3.7	10.2	9.3	0.0	25.9



〈그림 4-22〉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과 종류

## Q.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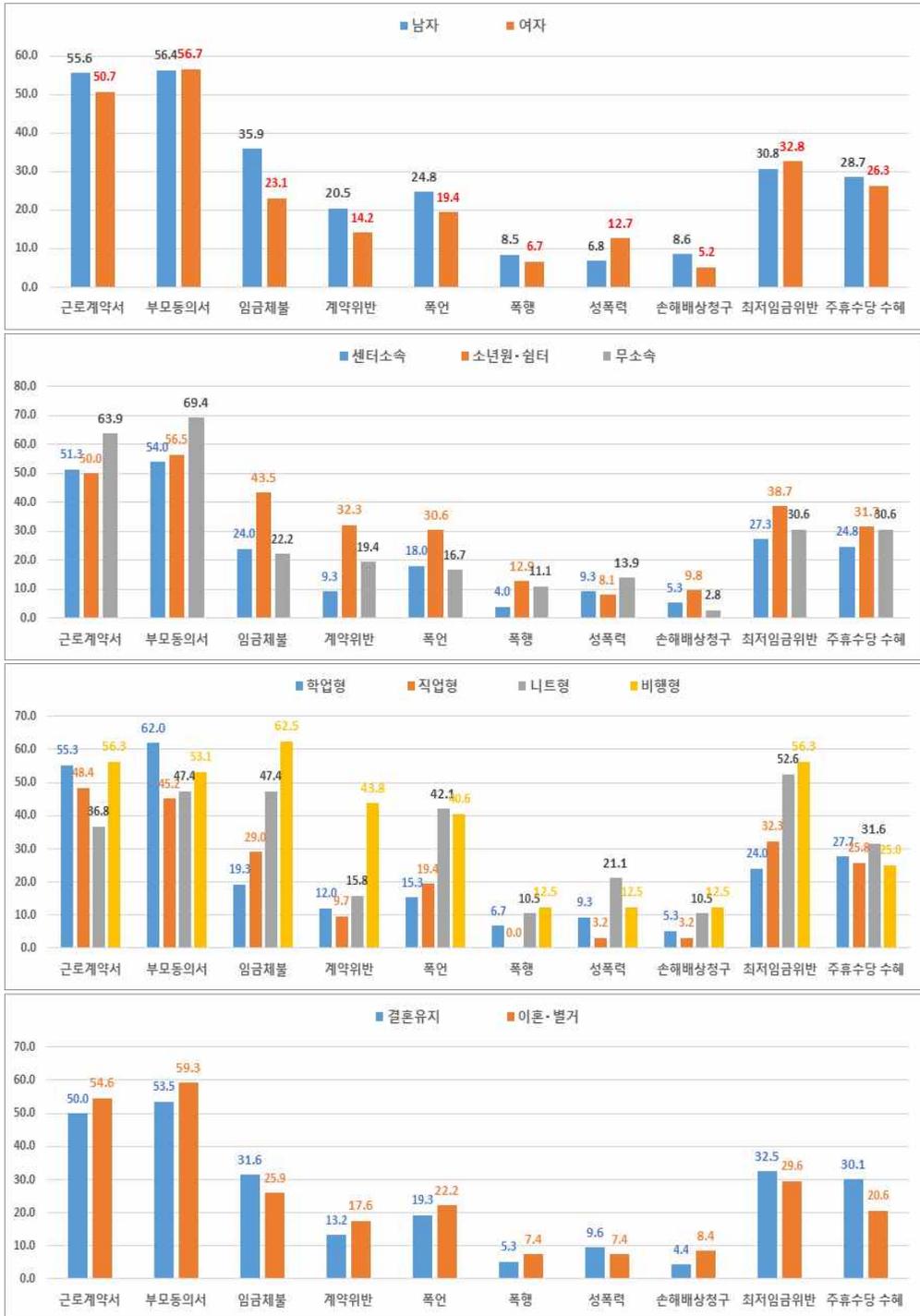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254명(46.5%)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6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내용은 ‘최저임금 위반(31.6%)’, ‘임금체불(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음(28.9%))’, ‘욕설·폭언(21.7%)’ 등의 순으로 많았음. 한편, ‘주휴수당 받음’ 응답은 27.6%에 불과하였음
- 부당한 대우 항목의 누적%는 비행형 > 니트형 > 소년원·쉼터 > 남학생 유형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비율과 관련 있는 경향을 보임
- 성별로는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남학생은 임금체불, 계약위반(약속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킴), 폭언 피해율이 높음. 여학생은 성폭력(성희롱/성추행)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는 무소속 청소년의 근로계약서와 부모동의서 비율이 높았음.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5%에 달함

〈표 4-23〉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단위: %)

구분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부당한 대우							주휴수당받음	
			임금체불	계약위반	폭언	폭행	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최저임금위반		
전체	2016년	34.8	47.1	25.6	15.4	-	-	5.8	-	-	-
	2019년	53.0	56.5	28.9	17.0	21.7	7.5	9.9	6.7	31.6	27.6
성별	남자	55.6	56.4	35.9	20.5	24.8	8.5	6.8	8.6	30.8	28.7
	여자	50.7	56.7	23.1	14.2	19.4	6.7	12.7	5.2	32.8	26.3
소속기관유형	센터소속	51.3	54.0	24.0	9.3	18.0	4.0	9.3	5.3	27.3	24.8
	대안학교	-	-	-	-	-	-	-	-	-	-
	소년원·쉼터	50.0	56.5	43.5	32.3	30.6	12.9	8.1	9.8	38.7	31.7
유형분류	무소속	63.9	69.4	22.2	19.4	16.7	11.1	13.9	2.8	30.6	30.6
	학업형	55.3	62.0	19.3	12.0	15.3	6.7	9.3	5.3	24.0	27.7
	직업형	48.4	45.2	29.0	9.7	19.4	0.0	3.2	3.2	32.3	25.8
	니트형	36.8	47.4	47.4	15.8	42.1	10.5	21.1	10.5	52.6	31.6
부모결혼	비행형	56.3	53.1	62.5	43.8	40.6	12.5	12.5	12.5	56.3	25.0
	결혼유지	50.0	53.5	31.6	13.2	19.3	5.3	9.6	4.4	32.5	30.1
이혼별거	이혼별거	54.6	59.3	25.9	17.6	22.2	7.4	7.4	8.4	29.6	20.6

\* 해당 항목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4-23〉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 Q.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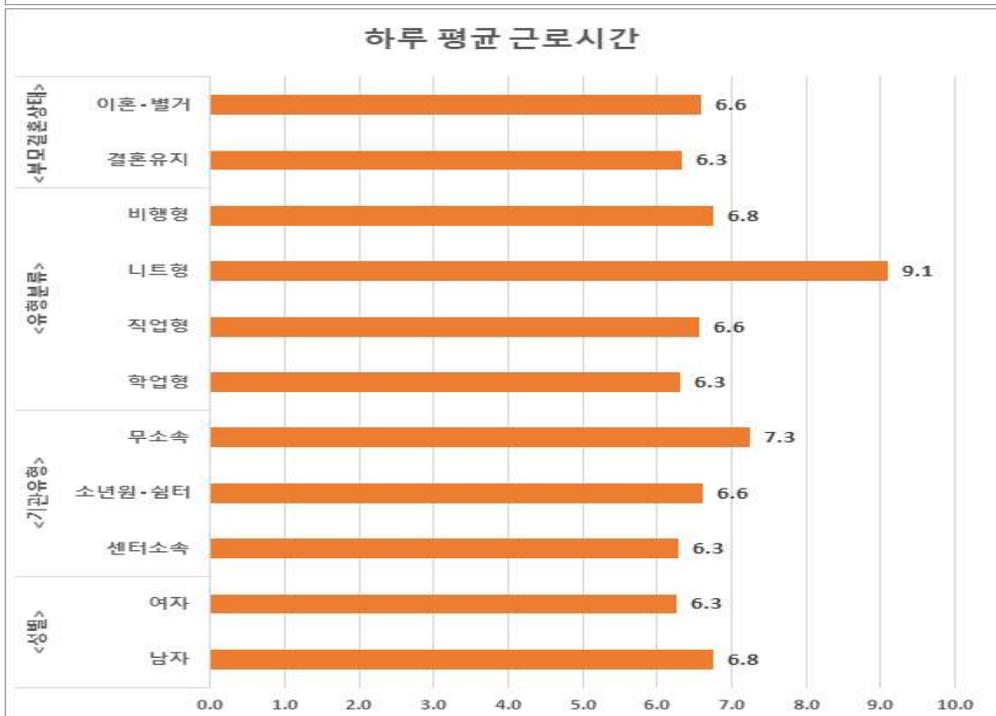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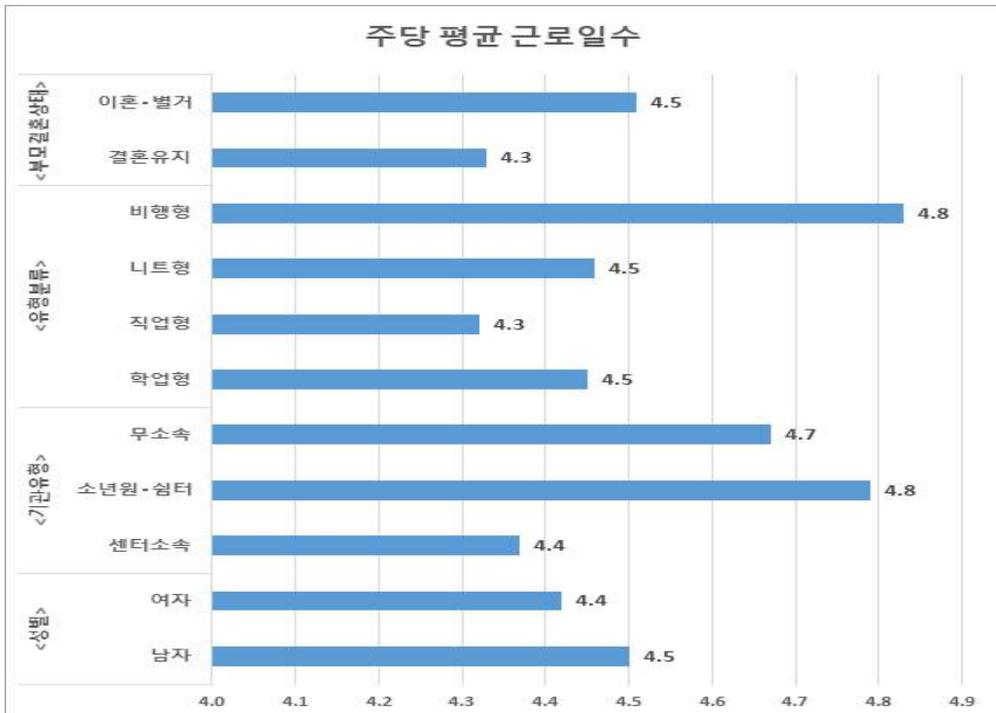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5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6.5시간임. 2016년도에 비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평균 근로일수와 시간이 더 긴 편임
- 기관 유형별로는 근로일수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4.8일), 무소속(4.7일), 센터소속(4.4일) 순이며, 근로시간은 무소속(7.3시간), 소년원/쉼터(6.6시간), 센터(6.3시간) 순으로 길었음
- 유형별로는 비행형이 4.8일로 근무일수가 가장 길었고, 근로시간은 니트형이 9.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표 4-24〉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단위: 일, 시간)

구분		주당 평균 근로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N	M	SD	t/F	N	M	SD	t/F
전체	2016년	206	5.09	1.55	-	203	7.64	2.67	-
	2019년	199	4.46	1.57	-	198	6.48	3.03	-
성별	남자	86	4.50	1.54	.34	87	6.76	3.13	1.13
	여자	111	4.42	1.59		109	6.27	2.96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38	4.37	1.63	1.42	134	6.29	3.00	1.46
	대안학교	-	-	-		-	-	-	
	소년원/쉼터	42	4.79	1.41		44	6.61	2.78	
	무소속	15	4.67	1.45		16	7.25	3.09	
유형 분류	학업형	121	4.45	1.54	.40	120	6.30	2.76	3.03*
	직업형	28	4.32	1.57		28	6.57	3.23	
	니트형	13	4.46	2.03		11	9.09	4.23	
	비행형	18	4.83	1.54		20	6.75	2.95	
부모 결혼	결혼유지	98	4.33	1.57	-.82	99	6.32	3.11	-.62
	이혼/별거	94	4.51	1.55		92	6.60	2.98	

\* p<.05



〈그림 4-24〉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 Q. 심리상태

-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심리상태를 알아본 결과, 4점을 기준으로 우울감 2.09점, 불안감 2.02점, 자아존중감 2.60점으로 나타남. 2016년도와 비교해 우울감 및 불안감, 자아존중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우울감 및 불안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이 우울감/불안감이 높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우울감은 소년원·쉼터 청소년이 낮았고, 센터소속 청소년이 높았음. 불안감은 대안학교 청소년이 낮고, 센터소속 청소년이 높았음. 하지만, 자아존중감은 소년원·쉼터 청소년이 가장 낮았고, 센터소속=대안학교<무소속 순으로 높았음
- 유형별로는 우울감과 불안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우울감, 불안감은 비행형이 가장 낮았고, 학업형<직업형<니트형 순으로 높았음. 한편,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행형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음

〈표 4-25〉 심리상태(우울감, 불안감, 자아존중감)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우울감				불안감				자아존중감				
	N	M	SD	t/F	N	M	SD	t/F	N	M	SD	t/F	
전체	2016년	300	2.42	.94	-	300	2.24	.94	-	300	2.83	.71	-
	2019년	545	2.09	.85	-	542	2.02	.84	-	546	2.60	.75	-
성별	남자	254	1.93	.79	-4.21***	253	1.85	.76	-4.57***	255	2.58	.82	-89
	여자	288	2.23	.88		286	2.17	.89		288	2.64	.69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23	2.19 <sup>a</sup>	.84	5.29***	322	2.10 <sup>a</sup>	.86	3.09*	324	2.65 <sup>a</sup>	.73	5.14**
	대안학교	30	1.90 <sup>ab</sup>	.80		30	1.78 <sup>b</sup>	.82		30	2.65 <sup>a</sup>	.51	
	소년원·쉼터	111	1.86 <sup>b</sup>	.81		110	1.87 <sup>ab</sup>	.78		111	2.37 <sup>b</sup>	.85	
	무소속	74	1.97 <sup>ab</sup>	.86		73	1.95 <sup>ab</sup>	.83		74	2.76 <sup>a</sup>	.70	
유형 분류	학업형	342	2.10 <sup>a</sup>	.85	5.31***	340	2.02 <sup>ab</sup>	.83	4.60**	343	2.66	.72	1.43
	직업형	45	2.17 <sup>a</sup>	.78		45	2.10 <sup>bc</sup>	.75		45	2.60	.69	
	니트형	50	2.36 <sup>b</sup>	.91		50	2.36 <sup>a</sup>	1.0		50	2.60	.76	
	비행형	60	1.74 <sup>b</sup>	.72		59	1.77 <sup>c</sup>	.75		60	2.44	.97	
부모 결혼	결혼유지	308	1.99	.83	-3.10**	307	1.91	.84	-3.45***	309	2.67	.75	2.26*
	이혼·별거	186	2.23	.86		185	2.18	.83		186	2.51	.75	

주: 우울감/불안감(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 자아존중감(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미)

\* p<.05, \*\* p<.01, \*\*\* p<.001, 사후검증(Duncan) : p<.05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 나타냄( a ) b ) c )



〈그림 4-25〉 심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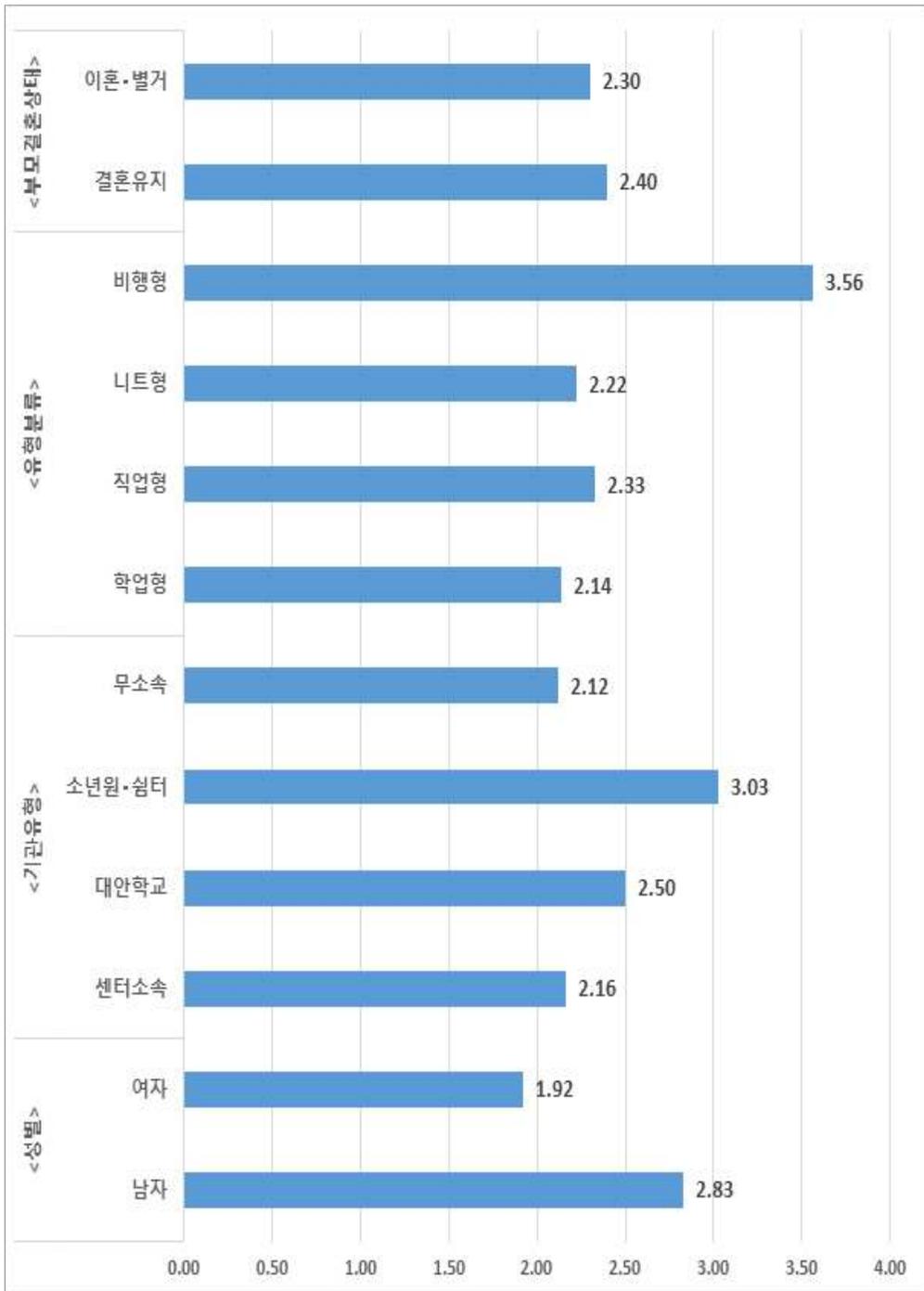
## Q. 신체활동(운동)

- 최근 1개월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빈도를 보면, ‘전혀 없음’ 비율은 32.7%로 2016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함.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총량 평균을 함께 살펴보면, 오히려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이는 단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체 청소년 비율만 소폭 감소하였을 뿐, 한 달 동안의 총량 평균, 즉 꾸준한(최소 주 2회 이상) 운동량은 감소한 것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신체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47.2%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총량 역시 매우 낮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무소속, 센터소속 청소년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고, 총량 역시 낮았음. 한편,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이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비행형의 신체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결혼 유지 가정 청소년의 신체활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6〉 최근 1개월간 신체활동 현황

(단위: %, 점)

구분		전혀 없음	1~5회	6~10회	11~20회	매일	점/5점기준
전체	2016년	34.1	28.8	10.7	11.7	14.7	2.44
	2019년	32.7	35.2	10.9	7.8	13.3	2.34
성별	남자	16.1	36.1	16.5	11.8	19.6	2.83
	여자	47.2	34.1	6.2	4.5	7.9	1.92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8.2	36.7	7.6	6.1	11.3	2.16
	대안학교	23.3	33.3	26.7	3.3	13.3	2.50
	소년원/쉼터	11.8	32.7	18.2	15.5	21.8	3.03
	무소속	39.2	35.1	9.5	6.8	9.5	2.12
유형 분류	학업형	38.0	36.8	8.4	7.2	9.6	2.14
	직업형	31.1	37.8	13.3	2.2	15.6	2.33
	니트형	37.3	35.3	7.8	7.8	11.8	2.22
	비행형	6.8	16.9	23.7	18.6	33.9	3.56
부모 결혼	결혼유지	31.3	33.9	11.6	10.3	12.9	2.40
	이혼/별거	34.2	36.4	9.6	4.3	15.5	2.30



〈그림 4-26〉 최근 1개월간 신체활동 실천율(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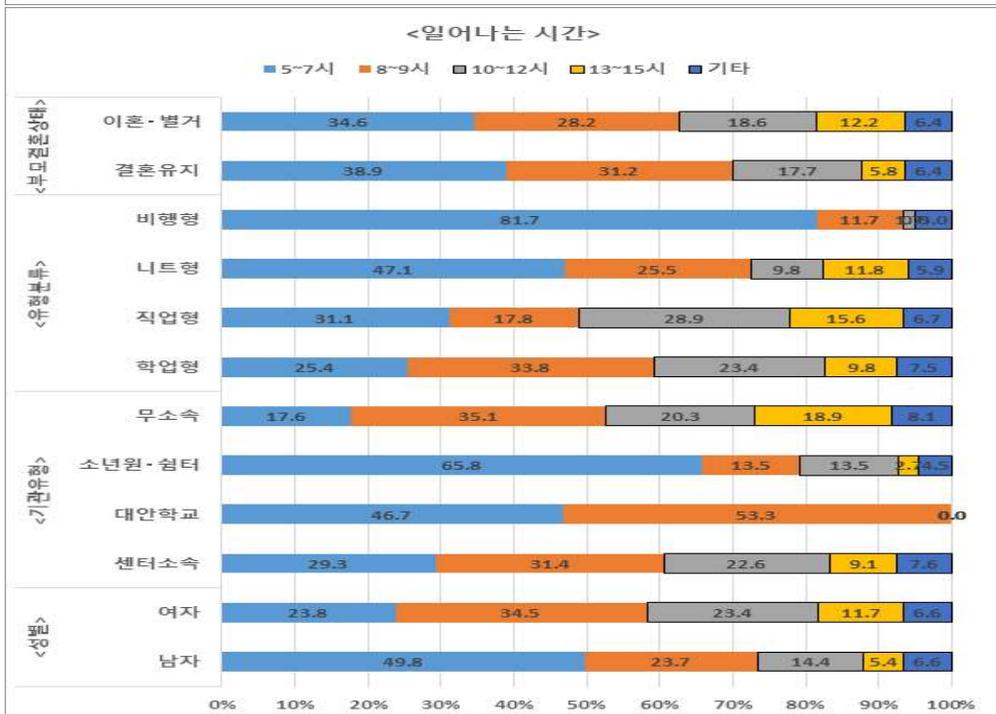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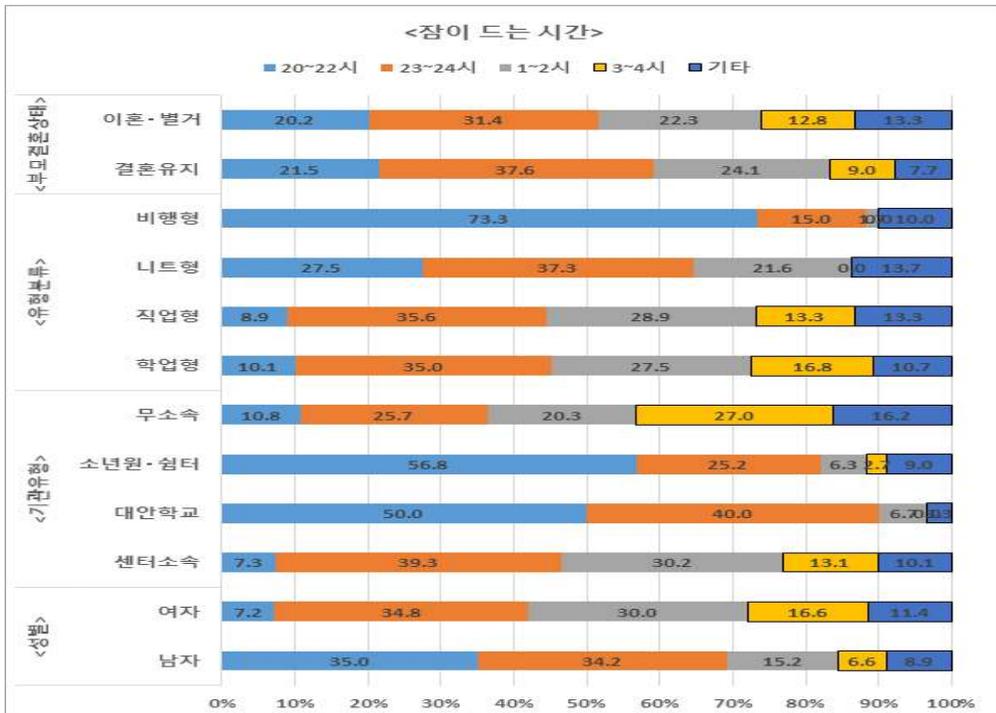
## Q. 수면시간

- 최근 1개월간 보통 몇 시에 취침하고, 몇 시에 기상하는지 살펴본 결과 취침시간은 23~24시(35.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시(23.3%), 20~22시(20.7%) 순으로 많았음. 기상시간은 5~7시(36.8%), 8~9시(29.8%) 순으로 많았음. 한편, 취침시간과 기상시간 모두 비교적 적정한 패턴에 분포되어 있으나, 취침시간의 경우 약 20%(3~4시+기타), 기상시간의 경우 약 34%(10~15시+기타)의 청소년이 일반적인 수면시간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수면패턴이 일반적인 수면시간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유형별로는 센터와 무소속 청소년의 수면패턴이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임. 대안교육기관은 등교,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는 단체생활 영향으로 사료됨
- 유형별로는 학업형과 직업형,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의 수면패턴이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7〉 최근 1개월간 수면 패턴

(단위: %)

구분		잠이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20~22시	23~24시	1~2시	3~4시	기타	5~7시	8~9시	10~12시	13~15시	기타
전체	2016년	-	-	-	-	-	-	-	-	-	-
	2019년	20.7	35.1	23.3	12.2	8.7	36.8	29.8	19.4	8.9	5.2
성별	남자	35.0	34.2	15.2	6.6	8.9	49.8	23.7	14.4	5.4	6.6
	여자	7.2	34.8	30.0	16.6	11.4	23.8	34.5	23.4	11.7	6.6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7.3	39.3	30.2	13.1	10.1	29.3	31.4	22.6	9.1	7.6
	대안학교	50.0	40.0	6.7	0.0	3.3	46.7	53.3	0.0	0.0	0.0
	소년원·쉼터	56.8	25.2	6.3	2.7	9.0	65.8	13.5	13.5	2.7	4.5
	무소속	10.8	25.7	20.3	27.0	16.2	17.6	35.1	20.3	18.9	8.1
유형 분류	학업형	10.1	35.0	27.5	16.8	10.7	25.4	33.8	23.4	9.8	7.5
	직업형	8.9	35.6	28.9	13.3	13.3	31.1	17.8	28.9	15.6	6.7
	니트형	27.5	37.3	21.6	0.0	13.7	47.1	25.5	9.8	11.8	5.9
	비행형	73.3	15.0	1.7	0.0	10.0	81.7	11.7	1.7	0.0	5.0
부모 결혼	결혼유지	21.5	37.6	24.1	9.0	7.7	38.9	31.2	17.7	5.8	6.4
	이혼·별거	20.2	31.4	22.3	12.8	13.3	34.6	28.2	18.6	12.2	6.4



〈그림 4-27〉 최근 1개월간 수면 패턴

## Q. 식사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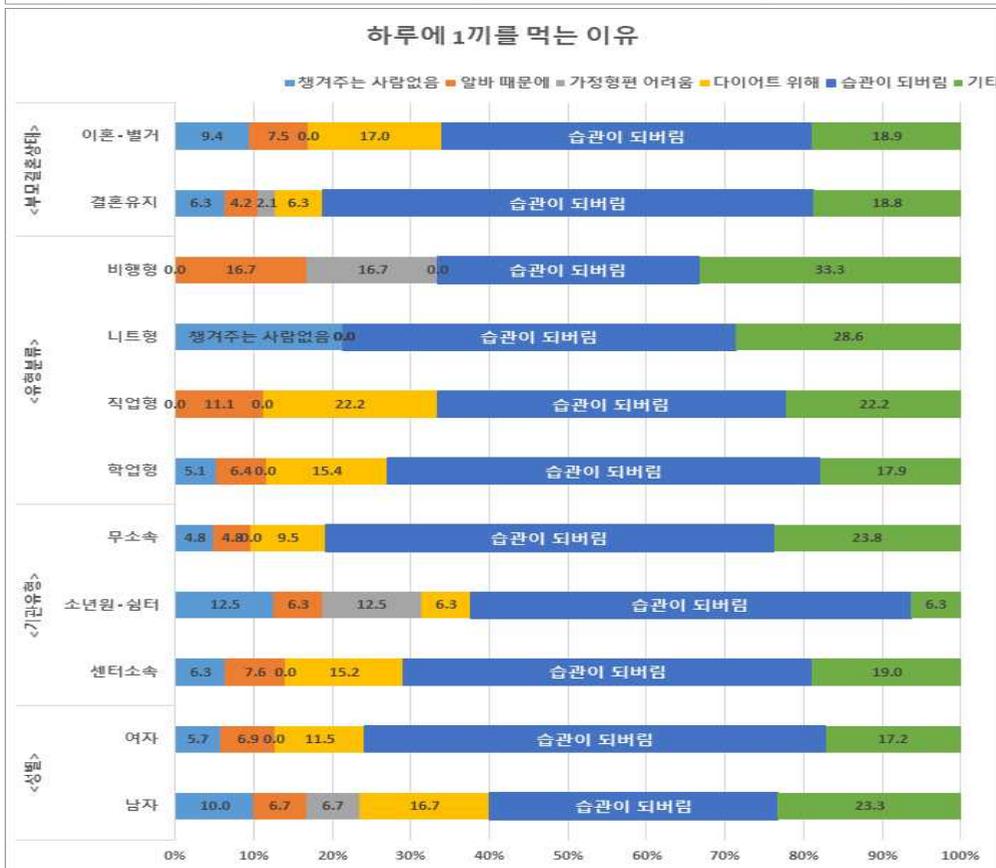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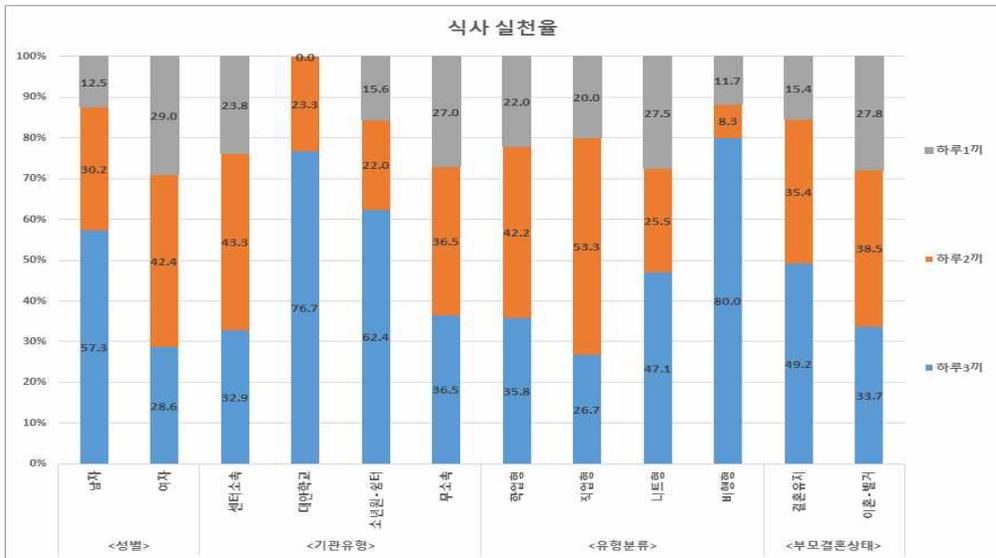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후 보통 하루에 몇 끼의 식사를 하는지 살펴본 결과 21.3%(117명)의 청소년이 ‘하루에 1끼’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음(52.5%)’이 가장 많았음
-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결식률이 더 높았고, 기관유형별로는 소년원·쉼터<센터소속<무소속 청소년 순으로 결식률이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니트형 > 학업형 > 직업형 > 비행형 순으로 결식률이 높았으며,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결혼유지 가정보다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의 결식률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 주면 좋은 식사 방법으로는 ‘급식비 카드지원(5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락 배달(27.1%), 기관에서 급식제공(5.9%) 순으로 나타남

〈표 4-28〉 식사습관

(단위: %)

구분	하루 3끼	하루 2끼	하루 1끼	⇒ 하루에 1끼를 먹는 이유						
				챙겨주는 사람없음	일바 때문에	가정형편 어려움	다이어트 위해	습관이 되버림	기타	
전체	2016년	-	-	-	-	-	-	-	-	-
	2019년	42.0	36.7	21.3	7.6	6.8	1.7	12.7	52.5	18.6
성별	남자	57.3	30.2	12.5	10.0	6.7	6.7	16.7	36.7	23.3
	여자	28.6	42.4	29.0	5.7	6.9	0.0	11.5	58.6	17.2
	$\chi^2$	49.18**			9.33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2.9	43.3	23.8	6.3	7.6	0.0	15.2	51.9	19.0
	대안학교	76.7	23.3	0.0	-	-	-	-	-	-
	소년원·쉼터	62.4	22.0	15.6	12.5	6.3	12.5	6.3	56.3	6.3
	무소속	36.5	36.5	27.0	4.8	4.8	0.0	9.5	57.1	23.8
	$\chi^2$	48.28**			16.43					
부모 유형	학업형	35.8	42.2	22.0	5.1	6.4	0.0	15.4	55.1	17.9
	직업형	26.7	53.3	20.0	0.0	11.1	0.0	22.2	44.4	22.2
	니트형	47.1	25.5	27.5	21.4	0.0	0.0	0.0	50.0	28.6
	비행형	80.0	8.3	11.7	0.0	16.7	16.7	0.0	33.3	33.3
	$\chi^2$	51.21***			30.28**					
부모 결혼	결혼유지	49.2	35.4	15.4	6.3	4.2	2.1	6.3	62.5	18.8
	이혼·별거	33.7	38.5	27.8	9.4	7.5	0.0	17.0	47.2	18.9
	$\chi^2$	15.69**			5.44					

\* p<.05, \*\* p<.01, \*\*\* p<.001



〈그림 4-28〉 식사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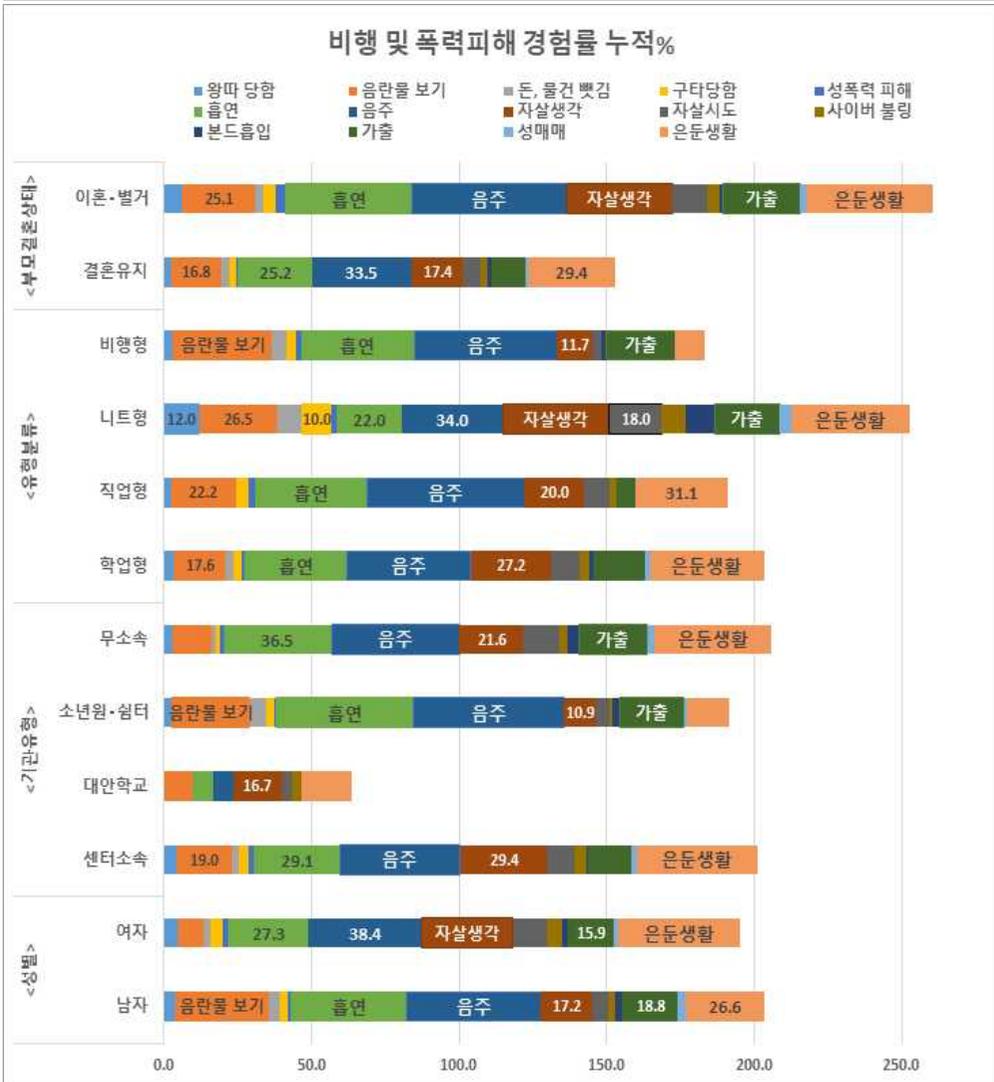
## Q. 폭력피해 및 비행경험

- 학교를 그만둔 후 폭력피해 및 비행경험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음주(41.6%), 은둔생활(34.1%), 흡연(32.8%), 자살생각(24.5%), 음란물(19.6%), 가출(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 관련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학생은 음란물, 흡연/음주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학생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은둔생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는 센터소속 청소년은 자살생각, 은둔생활 경험률이,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음란물, 흡연/음주, 가출 경험률이, 무소속 청소년은 자살생각/시도, 가출, 은둔생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유형별로는 학업형은 흡연/음주, 은둔생활 경험률이, 직업형은 흡연/음주 경험률이, 니트형은 왕따, 폭행, 자살생각/시도, 본드 흡입, 가출, 은둔 경험률이, 비행형은 음란물, 흡연/음주, 가출 경험률이 높은 분포를 보임
-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의 경험률이 모두 높았음

〈표 4-29〉 폭력피해 및 비행경험(‘경험있음’ 기준)

(단위: %)

구분		왕따 당함	음란물 보기	돈 물건 빼앗김	구타 당함	성폭력 피해	흡연	음주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사이버 불링	본드 흡입	가출	성매 매	은 생 활
전체	2016년	7.7	24.3	5.0	6.3	2.3	55.3	64.3	28.0	14.0	-	3.3	27.3	1.7	-
	2019년	4.2	19.6	3.1	3.3	1.6	32.8	41.6	24.5	8.9	3.6	2.0	17.2	2.0	34.1
성별	남자	3.9	31.6	3.9	2.7	1.2	39.1	45.3	17.2	5.9	2.3	2.3	18.8	2.7	26.6
	여자	4.5	9.0	2.4	3.8	2.1	27.3	38.4	30.8	11.8	4.8	1.7	15.9	1.4	41.2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4.3	19.0	2.1	3.4	1.8	29.1	40.7	29.4	9.5	3.7	0.6	14.7	2.1	40.7
	대안학교	0.0	10.0	0.0	0.0	0.0	6.7	6.7	16.7	3.3	3.3	0.0	0.0	0.0	16.7
	소년원/쉼터	2.7	26.4	5.5	2.7	0.9	46.4	50.9	10.9	4.5	0.9	2.7	21.8	0.9	14.5
	무소속	2.7	13.5	1.4	1.4	1.4	36.5	43.2	21.6	12.2	2.7	4.1	23.0	2.7	39.2
유형 분류	학업형	3.2	17.6	2.9	2.6	1.4	34.4	41.9	27.2	9.5	3.5	1.2	17.6	1.7	38.7
	직업형	2.2	22.2	0.0	4.4	2.2	37.8	53.3	20.0	8.9	2.2	0.0	6.7	0.0	31.1
	니트형	12.0	26.5	8.2	10.0	2.0	22.0	34.0	36.0	18.0	8.0	10.0	22.0	4.0	40.0
	비행형	3.3	33.3	5.0	3.3	1.7	38.3	48.3	11.7	3.3	0.0	1.7	23.3	0.0	10.0
부모 결혼	결혼유지	2.6	16.8	2.9	2.3	0.6	25.2	33.5	17.4	6.1	2.3	1.3	11.3	1.3	29.4
	이혼·별거	5.9	25.1	2.7	4.3	3.2	42.8	52.4	35.8	11.8	4.3	1.1	26.2	2.1	42.8



(그림 4-29) 각종 폭력피해 및 비행경험(누적%)

#### 4)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실태

##### Q. 인권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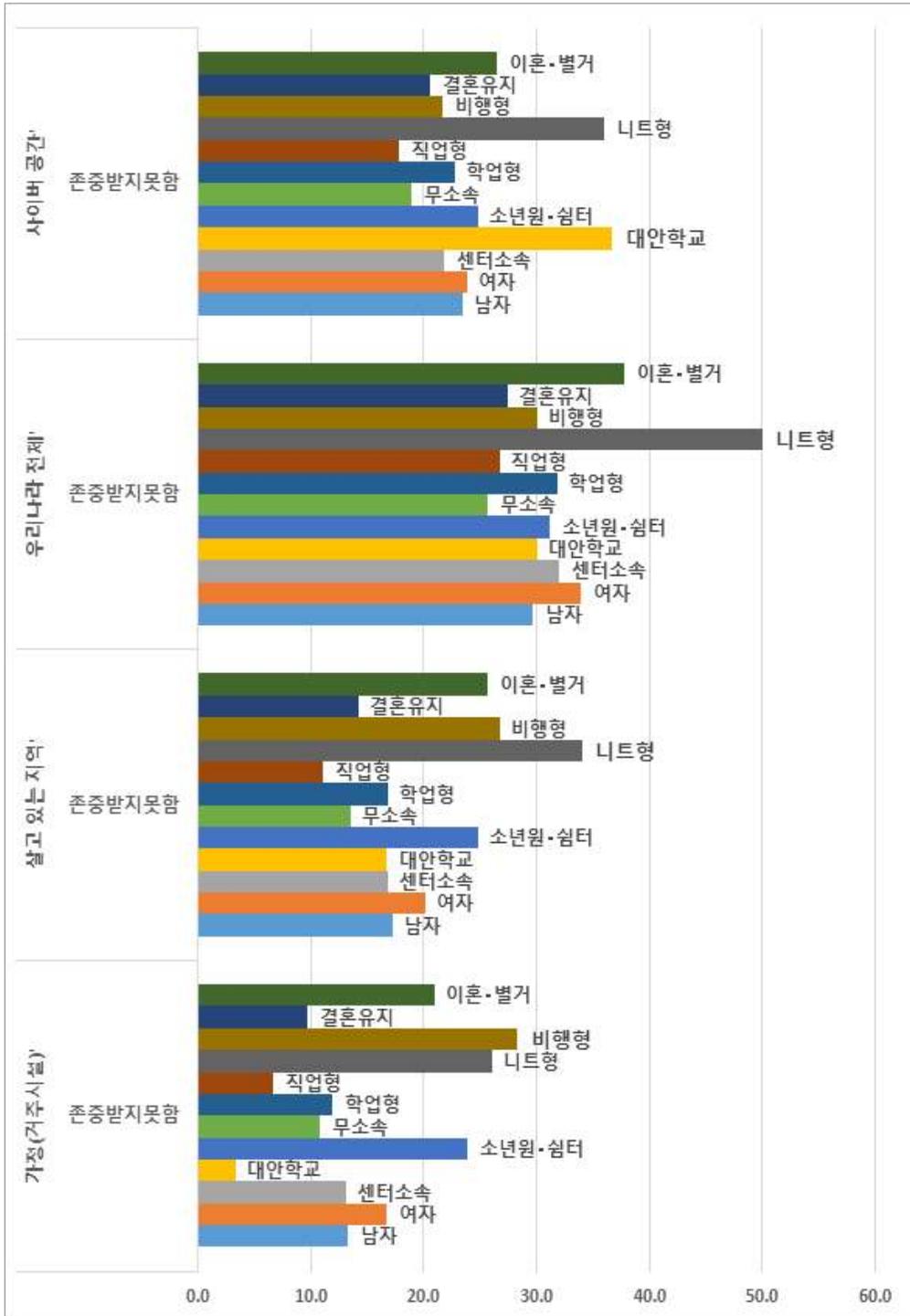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 및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 ‘가정(거주시설)’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전체’가 6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가정(거주시설)’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에서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센터소속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부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었음.
- 유형별로는 니트형이,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0〉 가정과 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가정(거주시설)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존중 받지 못함	존중 받음	χ <sup>2</sup>										
전체	2019년	15.0	85.0	-	18.6	81.4	-	31.7	68.3	-	23.5	76.5	-
성별	남자	13.3	86.7	1.21	17.2	82.8	.78	29.7	70.3	1.11	23.4	76.6	.01
	여자	16.7	83.3		20.1	79.9		33.9	66.1		23.8	76.2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13.1	86.9	12.04**	16.8	83.2	4.75	32.0	68.0	1.15	21.8	78.2	4.31
	대안학교	3.3	96.7		16.7	83.3		30.0	70.0		36.7	63.3	
	소년원/쉼터	23.9	76.1		24.8	75.2		31.2	68.8		24.8	75.2	
	무소속	10.8	89.2		13.5	86.5		25.7	74.3		18.9	81.1	
유형 분류	학업형	11.9	88.1	18.38***	16.8	83.2	12.38**	31.8	68.2	7.84*	22.7	77.3	5.39
	직업형	6.7	93.3		11.1	88.9		26.7	73.3		17.8	82.2	
	니트형	26.0	74.0		34.0	66.0		50.0	50.0		36.0	64.0	
	비행형	28.3	71.7		26.7	73.3		30.0	70.0		21.7	78.3	
부모 결혼	결혼유지	9.7	90.3	12.19***	14.2	85.8	10.18***	27.4	72.6	5.85**	20.6	79.4	2.24
	이혼/별거	20.9	79.1		25.7	74.3		37.8	62.2		26.5	73.5	

\* p<.05, \*\* p<.01, \*\*\* p<.001



〈그림 4-30〉 청소년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

## Q.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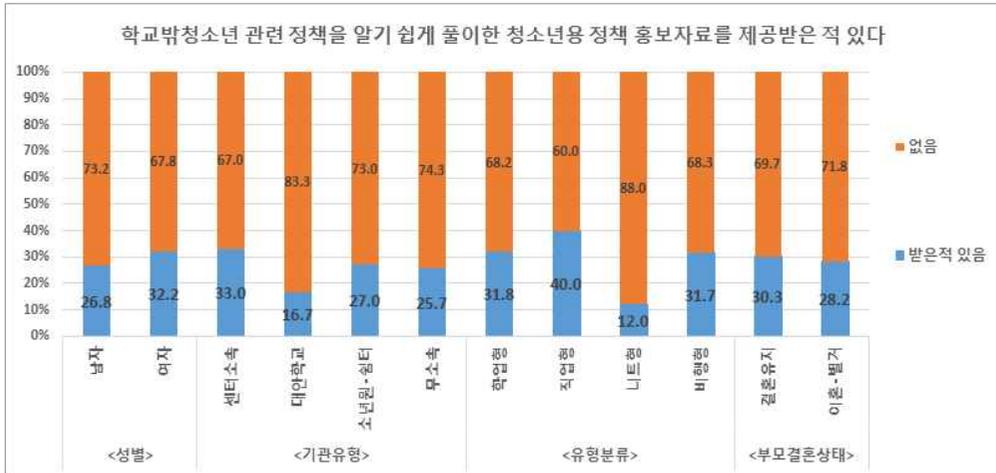
-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들이 30% 이하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9.5%,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구제기관 정보 제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7.0%,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8.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청소년용 정책 홍보자료’는 여학생의 수혜 경험이 다소 높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는 남학생이 좀 더 높았으며, ‘권리침해 구제기관 정보’는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센터소속 청소년들의 수혜경험이 가장 높았고, 대안교육기관과 무소속 청소년이 낮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직업형 청소년의 수혜경험이 가장 높았고, 니트형 청소년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31〉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경험

(단위: %)

구분		청소년용 정책 홍보자료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			권리침해 구제기관 정보		
		받은적 있음	없음	$\chi^2$	받은적 있음	없음	$\chi^2$	받은적 있음	없음	$\chi^2$
전체	2019년	29.5	70.5	-	18.6	81.4	-	27.0	73.0	-
성별	남자	26.8	73.2	1.85	19.5	80.5	.19	22.6	77.4	4.68*
	여자	32.2	67.8		18.0	82.0		30.8	69.2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3.0	67.0	5.10	20.8	79.2	4.61	33.0	67.0	17.39***
	대안학교	16.7	83.3		13.3	86.7		13.3	86.7	
	소년원·쉼터	27.0	73.0		19.8	80.2		24.3	75.7	
	무소속	25.7	74.3		10.8	89.2		12.2	87.8	
유형 분류	학업형	31.8	68.2	10.29**	17.6	82.4	5.45	28.3	71.7	2.77
	직업형	40.0	60.0		28.9	71.1		37.8	62.2	
	니트형	12.0	88.0		14.0	86.0		24.0	76.0	
	비행형	31.7	68.3		25.0	75.0		25.0	75.0	
부모 결혼	결혼유지	30.3	69.7	.26	18.1	81.9	.09	26.8	73.2	.05
	이혼별거	28.2	71.8		19.1	80.9		27.7	72.3	

\* p<.05, \*\* p<.01, \*\*\* p<.001



〈그림 4-31〉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수혜 경험

**Q.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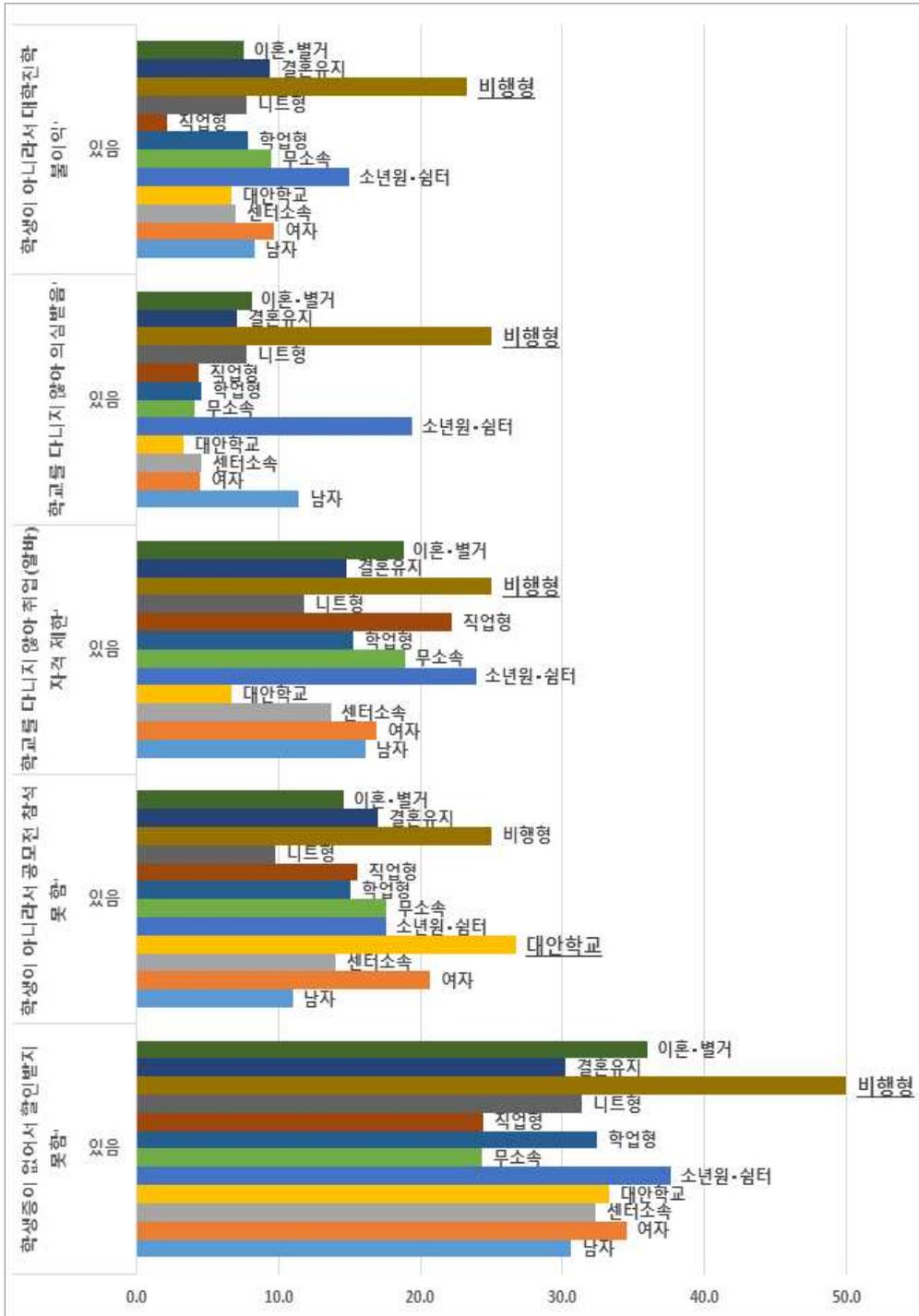
- 학교를 그만둔 후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생증이 없어서 학생 할인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2.5%고 가장 많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 취업(알바) 자격 제한(16.4%), 학생이 아니라 공모전에 참여 제한(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도난 등의 사고발생 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여학생은 학생할인, 공모전 참여제한, 취업제한, 대학진학 불이익 등이 더 높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소속 청소년의 불이익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경우 공모전 참여 제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비행형 청소년의 불이익 경험이 가장 높았고,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남

〈표 4-32〉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경험

(단위: %)

구분		학생증이 없어서 할인받지 못함		학생이 아니라서 공모전 참여 못 함		학교를 다니지 않아 알바 자격 제한		학교를 다니지 않아 범죄의심 받음		학생이 아니라서 대학진학 불이익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019년	32.5	67.5	-	16.1	83.9	-	16.4	83.6	-	7.7	92.3	-	9.0	91.0	-
성별	남자	30.6	69.4	.94	11.0	89.0	9.33*	16.1	83.9	.07	11.4	88.6	9.14*	8.3	91.7	.35
	여자	34.5	65.5		20.7	79.3		16.9	83.1		4.5	95.5		9.7	90.3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2.3	67.7	3.57	14.0	86.0	3.84	13.7	86.3	8.65*	4.6	95.4	28.60***	7.0	93.0	6.44
	대안학교	33.3	66.7		26.7	73.3		6.7	93.3		3.3	96.7		6.7	93.3	
	소년원/쉼터	37.6	62.4		17.6	82.4		23.9	76.1		19.4	80.6		15.0	85.0	
	무소속	24.3	75.7		17.6	82.4		18.9	81.1		4.1	95.9		9.5	90.5	
유형 분류	학업형	32.4	67.6	9.26*	15.1	84.9	5.34	15.3	84.7	5.32	4.6	95.4	36.61***	7.9	92.1	17.78**
	직업형	24.4	75.6		15.6	84.4		22.2	77.8		4.4	95.6		2.2	97.8	
	니트형	31.4	68.6		9.8	90.2		11.8	88.2		7.8	92.2		7.8	92.2	
	비행형	50.0	50.0		25.0	75.0		25.0	75.0		25.0	75.0		23.3	76.7	
부모 결혼	결혼유지	30.2	69.8	1.79	17.0	83.0	.51	14.8	85.2	1.38	7.1	92.9	.18	9.4	90.6	.44
	이혼·별거	36.0	64.0		14.6	85.4		18.8	81.2		8.1	91.9		7.6	92.4	

\* p<.05, \*\* p<.01, \*\*\* p<.001



〈그림 4-32〉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경험

## Q. 차별경험

-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지’를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26.9%)’, ‘성차별(22.2%)’ 등의 순임
  - 차별경험의 응답자 유형별 전체 누적빈도는 니트형(166.8%), 이혼·별거 가정(155.9%), 여자(153.9%)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학생은 ‘가정환경’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그 외 모든 항목에서는 여학생의 차별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성차별 경험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는 성차별은 센터소속, 학교중단 이유는 무소속, 가정환경 이유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외모 이유는 대안교육기관, 어린나이의 학업성적 이유는 무소속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니트형이,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이 모든 항목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33〉 차별경험(‘경험 있음’ 기준)

(단위: %)

구분		성차별		학교중단 이유로 차별		가정환경 이유로 차별		외모 차별		어린 나이를 이유로 차별		학업성적 이유로 차별		성 정체성 이유로	
		있음	$\chi^2$	있음	$\chi^2$	있음	$\chi^2$	있음	$\chi^2$	있음	$\chi^2$	있음	$\chi^2$	있음	$\chi^2$
전체	2019년	22.2	-	28.7	-	8.7	-	17.1	-	26.9	-	17.5	-	3.8	-
성별	남자	8.9		23.0		9.3		15.2		18.7	16.57***	14.8		1.9	
	여자	33.8	48.82***	33.8	7.82**	8.3	.19	18.7	1.19	34.1		19.7	2.25	5.5	4.71*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25.3		29.3		7.6		17.4		27.1		15.5		4.6	
	대안학교	13.3		16.7		6.7		23.3		13.3		6.7		0.0	
	소년원/쉼터	11.7	10.34*	25.2	2.95	13.5	6.03	14.4	2.04	20.7	7.51*	18.9	4.18	1.8	3.29
	무소속	21.6		31.1		4.1		13.5		35.1		21.6		2.7	
유형 분류	학업형	24.0		29.2		6.4		15.0		29.5		16.8		3.5	
	직업형	22.2		26.7		6.7	10.69**	24.4		26.7		17.8	.74	4.4	5.02
	니트형	25.5	6.11	37.3	1.63	15.7		27.5	6.64	31.4	3.48	21.6		7.8	
	비행형	10.0		30.0		16.7		20.0		18.3		16.7		0.0	
부모 결혼	결혼유지	19.6		25.7		4.8	17.70***	13.9	5.93**	23.2		11.3	12.98**	2.9	.04
	이혼·별거	26.1	2.84	35.1	4.98*	16.0		22.3		29.8	2.71	23.4		3.2	

\* p<.05, \*\* p<.01, \*\*\* p<.001



<그림 4-33> 각종 차별경험(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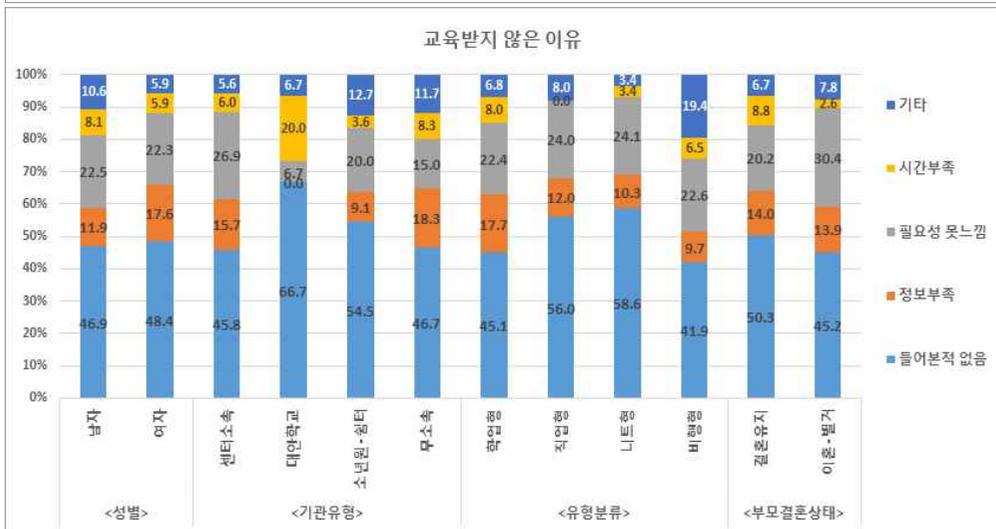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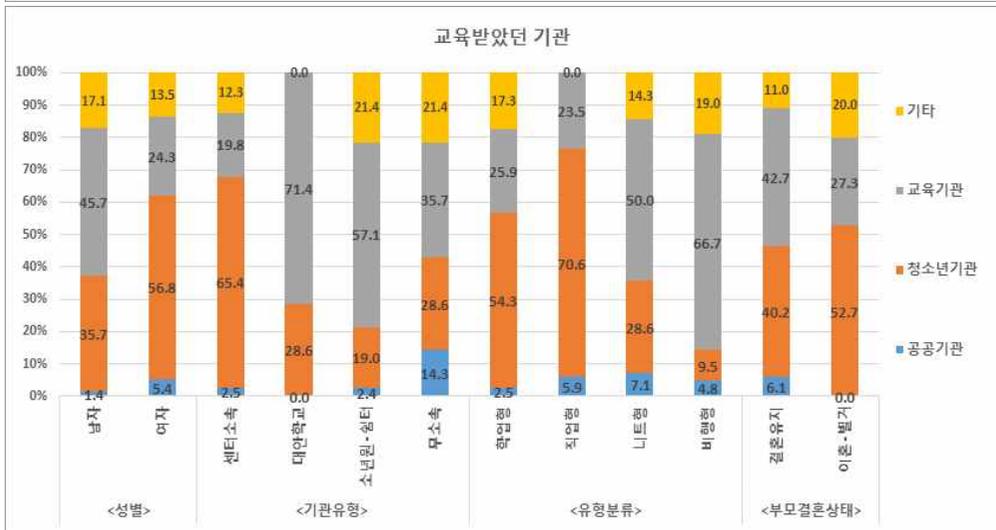
## Q. 인권교육

- 학교를 그만둔 후,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6명(26.8%) 이었고, 교육받은 기관은 꿈드림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6.5%, 교육 기관(학교 등) 34.7%로 나타남. 한편,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 399명 (73.2%)는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서(47.9%)’, ‘알고 있으나 필요 성 못 느껴서(22.5%)’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학생의 수료 경험이 더 높았고, 교육받은 기관은 남학생은 학 교, 여학생은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수료했다는 응답이 높았음. 기관 유형별 로는 소년원/쉼터/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수료경험이 가장 높고, 무소속 청소년이 가장 낮았음. 교육받은 기관은 센터소속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수료함
-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 본적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본인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사람은 ‘부모님(22.2%)’이라고 응답하였음(아버지 10.9%, 어머니 11.3%)

〈표 4-34〉 인권교육 수료 현황

(단위: %)

구분	수료	⇒ 교육받은 기관					미수료	⇒ 교육받지 않은 이유				
		공공 기관	청소년 기관	교육 기관	기타	들어 본적 없음		정보 부족	필요성 못느낌	시간 부족	기타	
전체	2019년	26.8	3.5	46.5	34.7	15.3	73.2	47.9	14.8	22.5	6.8	8.0
성별	남자	28.6	1.4	35.7	45.7	17.1	71.4	46.9	11.9	22.5	8.1	10.6
	여자	25.4	5.4	56.8	24.3	13.5	74.6	48.4	17.6	22.3	5.9	5.9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24.7	2.5	65.4	19.8	12.3	75.3	45.8	15.7	26.9	6.0	5.6
	대안학교	23.3	0.0	28.6	71.4	0.0	76.7	66.7	0.0	6.7	20.0	6.7
	소년원/쉼터	40.9	2.4	19.0	57.1	21.4	59.1	54.5	9.1	20.0	3.6	12.7
	무소속	18.9	14.3	28.6	35.7	21.4	81.1	46.7	18.3	15.0	8.3	11.7
유형 분류	학업형	23.3	2.5	54.3	25.9	17.3	76.7	45.1	17.7	22.4	8.0	6.8
	직업형	38.6	5.9	70.6	23.5	0.0	61.4	56.0	12.0	24.0	0.0	8.0
	니트형	28.0	7.1	28.6	50.0	14.3	72.0	58.6	10.3	24.1	3.4	3.4
	비행형	40.0	4.8	9.5	66.7	19.0	60.0	41.9	9.7	22.6	6.5	19.4
부모 결혼	결혼유지	27.3	6.1	40.2	42.7	11.0	72.7	50.3	14.0	20.2	8.8	6.7
	이혼별거	29.6	0.0	52.7	27.3	20.0	70.4	45.2	13.9	30.4	2.6	7.8



〈그림 4-34〉 인권교육 수료 현황

## 5)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 욕구

### Q.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1)

-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가 어려움(27.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무시(22.2%)가 높게 나타남. 2016년도와는 1위와 2위가 바뀌었으며, 전반적으로 항목별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선입견/무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어려움에 대한 유형별 전체 누적빈도(%)는 이혼·별거가정(224.7%), 센터소속(208.0%), 여자(202.4%)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학생의 어려움이 남학생 보다 높았음. 기관 유형별로는 대안학교의 청소년이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음. 부모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표 4-35〉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1) (다중응답: N=541)

(단위: 명, %)

구분	합계	부모님과 같음	선입견 무시	의지할 사람없음	건강	진로 미설계	도움받을 곳이없음	혼자라는 불안	구직	의욕없음	생계불안	아플 수 없는 비행	친구관계 단절	아름 없음	
전체	2016년	705	28.1	47.8	16.1	-	35.5	16.7	18.1	25.1	-	-	3.3	20.7	-
	2019년	1,124	21.8	22.2	13.3	6.7	27.4	7.8	16.1	15.3	19.6	11.3	1.3	17.0	28.1
성별	남자	253	23.3	17.4	10.7	5.1	24.5	4.7	11.9	11.9	18.2	10.3	2.0	15.4	28.9
	여자	286	20.6	26.6	15.7	8.0	30.1	10.5	19.9	18.5	21.0	12.2	0.7	18.5	26.9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325	21.8	25.2	15.1	8.0	30.5	9.5	20.6	18.2	23.1	13.8	1.2	20.9	24.0
	대안학교	29	6.9	3.4	0.0	0.0	20.7	0.0	0.0	0.0	10.3	0.0	0.0	3.4	75.9
	소년원·쉼터	107	22.4	15.0	14.0	0.9	20.6	4.7	5.6	10.3	10.3	5.6	1.9	6.5	29.0
	무소속	73	24.7	26.0	9.6	11.0	27.4	8.2	17.8	15.1	21.9	11.0	0.0	20.5	28.8
유형 분류	학업형	342	21.3	25.4	13.7	7.6	31.0	8.2	17.5	16.7	19.6	10.8	0.9	22.5	27.5
	직업형	45	24.4	17.8	11.1	8.9	24.4	11.1	20.0	17.8	28.9	13.3	2.2	11.1	13.3
	니트형	51	23.5	21.6	9.8	5.9	23.5	11.8	15.7	11.8	17.6	11.8	2.0	5.9	33.3
	비행형	58	27.6	12.1	15.5	3.4	20.7	1.7	6.9	10.3	19.0	8.6	1.7	1.7	20.7
부모 결혼	결혼유지	310	17.4	19.0	13.2	5.5	26.1	7.4	15.2	12.6	17.1	5.8	0.3	15.8	31.3
	이혼·별거	182	27.5	27.5	14.3	8.8	30.8	9.9	19.8	19.8	23.6	19.8	3.3	19.8	21.4



<그림 4-35>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다중응답)-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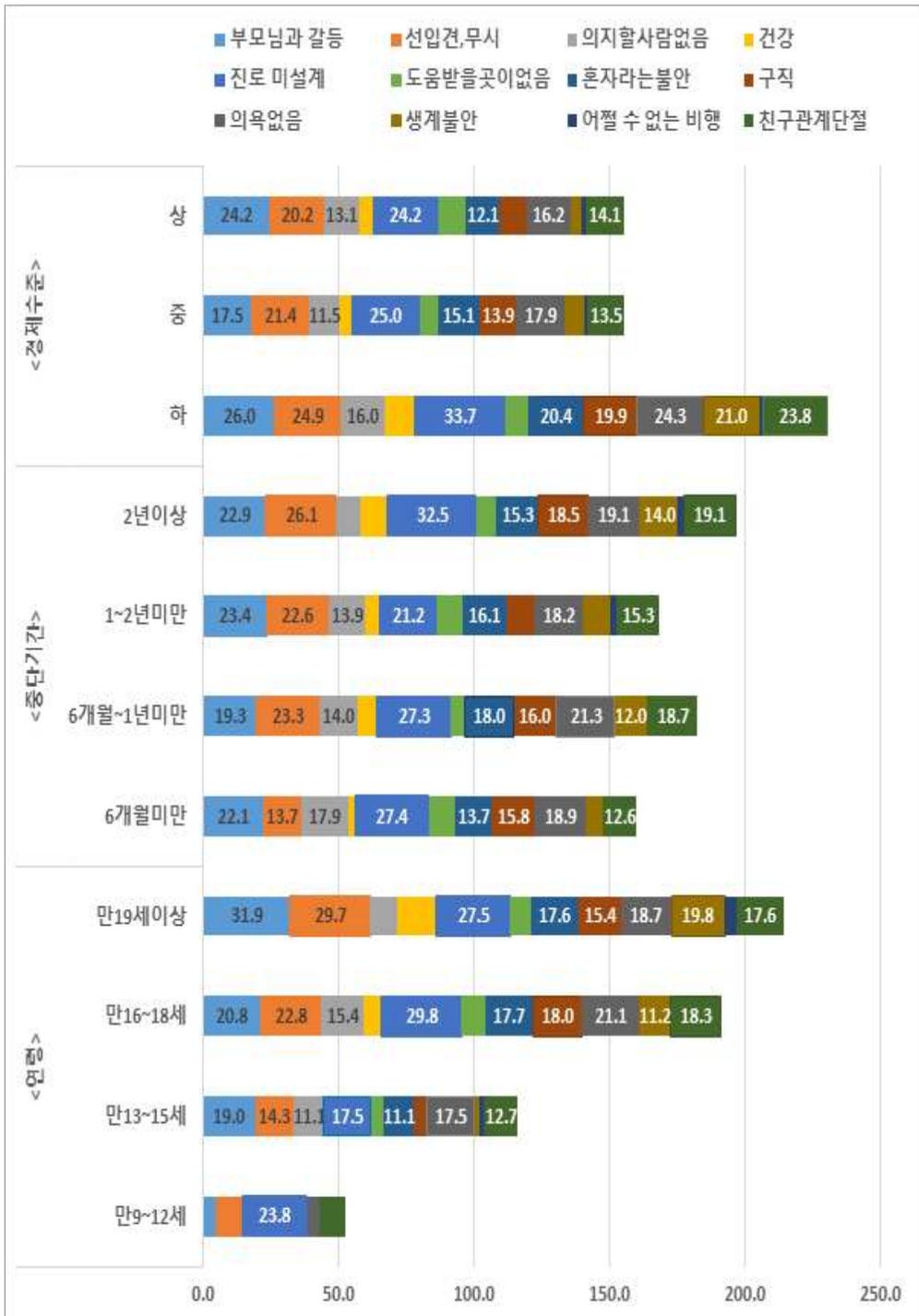
**Q.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II)**

-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을 연령대별, 중단기간별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각 항목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항목의 전체 누적빈도(%)는 경제수준 ‘하’ 집단에서 2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령 ‘19세이상(214.5%)’, 학교를 중단한 지 ‘2년이상(196.7%)’ 집단 순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양하고 많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부모님과 갈등,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에 대한 어려움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의지할 사람이 없다, 진로를 찾지 못했다, 혼자라는 외로움, 구직 어려움, 친구관계 단절 응답은 고등기 이상 청소년에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중단기간별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학교를 중단한지 2년 이상된 청소년의 어려움이 높았고, 6개월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았음. 학교를 그만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겪고 있는 어려움의 분포가 서로 차이를 보임
- 경제적 수준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청소년의 어려움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36〉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II) (다중응답: N=539)

(단위: 명, %)

구분	항목	합계	부모님과 갈등	선입견 무시	의지할사 없음	건강	진로 미설계	도움받을 곳이없음	혼자라는 불안	구직	의욕없음	생계 불안	아플 수 없는 비행	친구관계 단절	어려움 없음
연령	만9~12세	21	4.8	9.5	0.0	0.0	23.8	0.0	0.0	0.0	4.8	0.0	0.0	9.5	76.2
	만13~15세	63	19.0	14.3	11.1	0.0	17.5	4.8	11.1	4.8	17.5	1.6	1.6	12.7	39.7
	만16~18세	356	20.8	22.8	15.4	6.5	29.8	8.7	17.7	18.0	21.1	11.2	0.6	18.3	24.4
	만19세이상	91	31.9	29.7	9.9	14.3	27.5	7.7	17.6	15.4	18.7	19.8	4.4	17.6	23.1
중단 기간	6개월미만	95	22.1	13.7	17.9	2.1	27.4	9.5	13.7	15.8	18.9	6.3	0.0	12.6	23.2
	6개월~ 1년미만	150	19.3	23.3	14.0	7.3	27.3	5.3	18.0	16.0	21.3	12.0	0.0	18.7	27.3
	1~2년미만	137	23.4	22.6	13.9	5.1	21.2	9.5	16.1	10.2	18.2	10.2	2.2	15.3	32.8
	2년이상	157	22.9	26.1	8.9	10.2	32.5	7.6	15.3	18.5	19.1	14.0	2.5	19.1	27.4
경제 수준	하	181	26.0	24.9	16.0	11.0	33.7	8.3	20.4	19.9	24.3	21.0	1.1	23.8	18.2
	중	252	17.5	21.4	11.5	4.4	25.0	6.7	15.1	13.9	17.9	7.1	1.2	13.5	34.9
	상	99	24.2	20.2	13.1	5.1	24.2	10.1	12.1	10.1	16.2	4.0	2.0	14.1	27.3



〈그림 4-36〉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다중응답)-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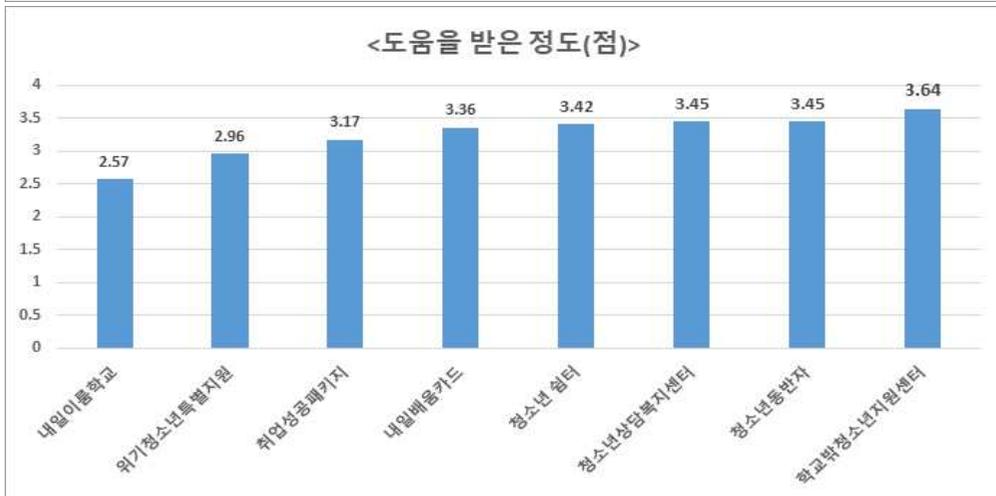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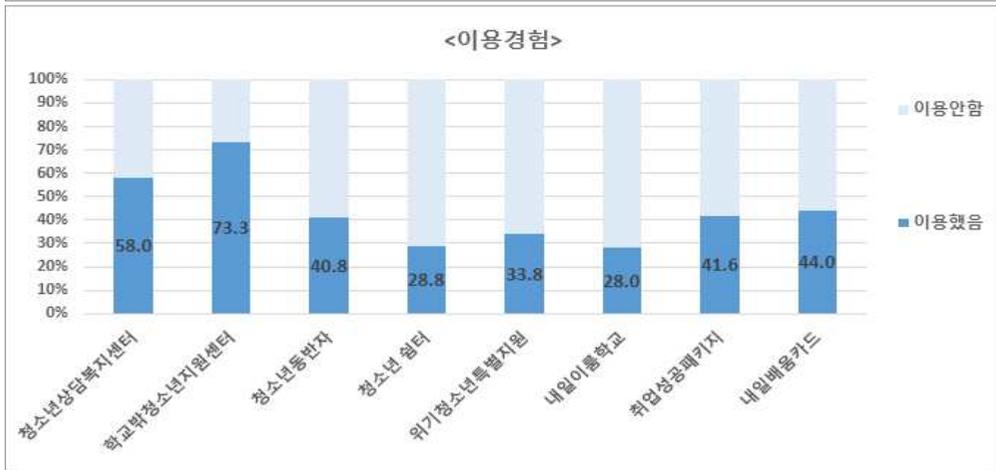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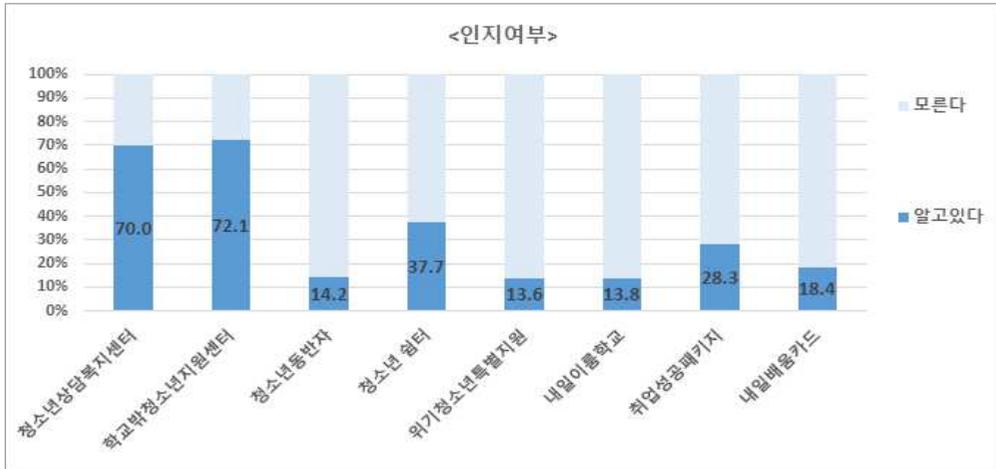
## Q.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인지도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도움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70.0%), 청소년 쉼터(37.7%), 취업성공패키지(28.3%)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음. 2016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인지도 순위에 있어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는 2016년에 2위였으나, 2019년도에는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각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경험률이 7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58.0%), 내일배움카드(44.0%) 등의 순으로 이용경험률이 높았음.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 이용경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원 사업에 대해 ‘이용경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움정도(4점 기준)를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3.64점)」가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표 4-37〉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인지도

(단위: %, 점)

구분	인지여부 (알고있음)		이용경험 (이용했음)		도움정도 (4점기준)
	'16	'19	'16	'19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0.0	70.0	52.2	58.0	3.4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6.0	72.1	52.6	73.3	3.64
청소년동반자	15.3	14.2	5.1	40.8	3.45
청소년 쉼터	55.7	37.7	12.3	28.8	3.42
위기청소년특별지원	15.3	13.6	3.4	33.8	2.96
내일이룸학교	-	13.8	-	28.0	2.57
취업성공패키지	42.3	28.3	16.1	41.6	3.17
내일배움카드	23.0	18.4	11.3	44.0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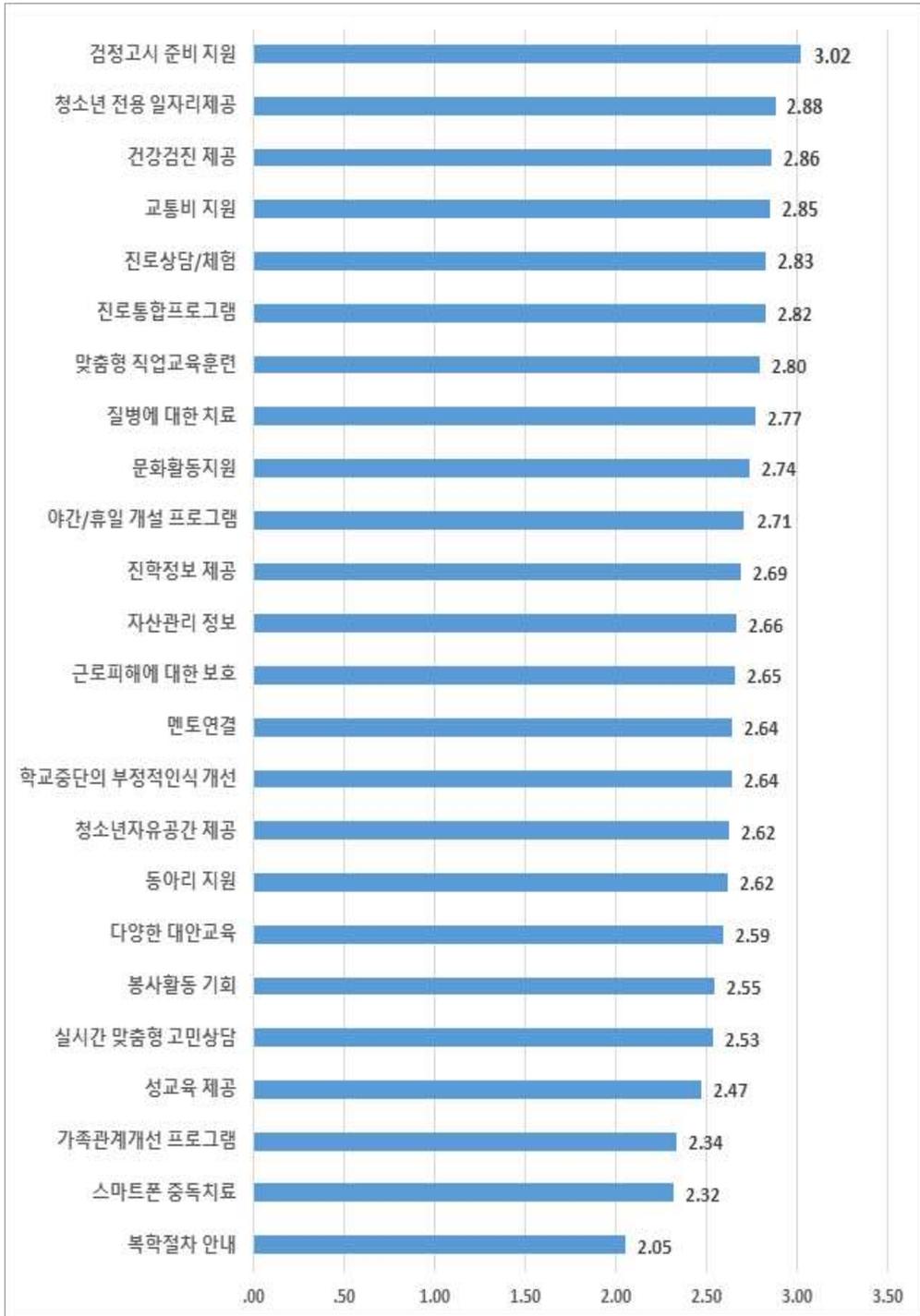
〈그림 4-37〉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인지도

**Q.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욕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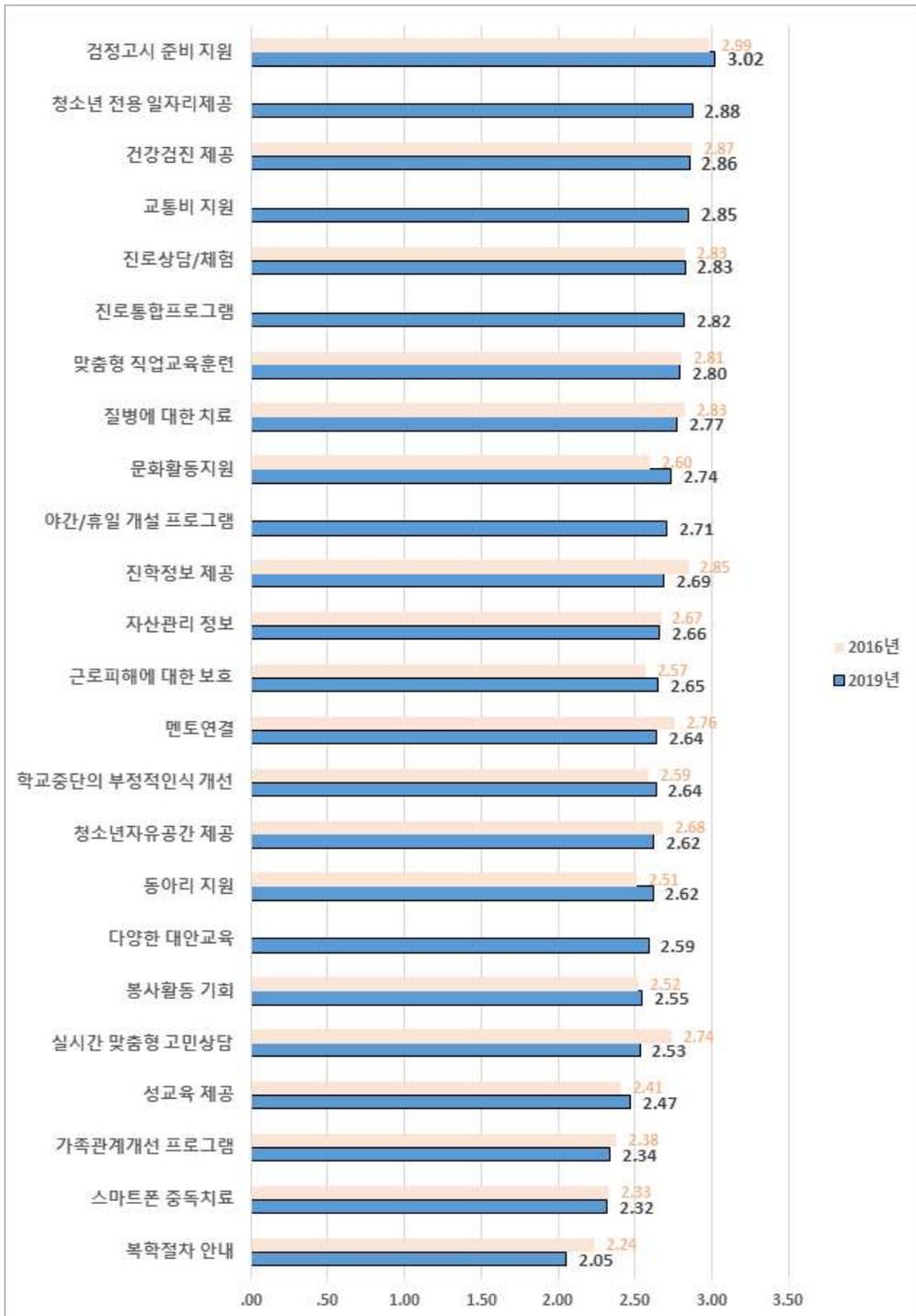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지원 욕구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3.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전용 일자리 지원(2.88점), 건강검진(2.86점), 교통비(2.85점), 진로상담·체험(2.83점)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과 대체로 유사하나, 건강검진 지원이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고, ‘19년에 추가된 ‘청소년 일자리’ 지원 필요도가 2위에 링크되었음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검정고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건강검진, 여학생은 청소년 일자리 지원을 요구하였음
- 기관 유형별로는 소년원·쉼터 청소년은 일자리 지원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 외 유형에서는 검정고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음
- 유형별로는 학업형/니트형은 검정고시 지원을, 직업형/비행형은 일자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결혼 상태별로는 모두 검정고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음

〈표 4-38〉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1)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2016년	검정고시	건강검진	진학정보	질병 치료	진로상담/체험
	2019년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건강검진	교통비	진로상담/체험
성별	남자	검정고시	건강검진	청소년 일자리	진로상담/체험	진로통합프로그램
	여자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교통비	진로통합프로그램	건강검진
소속 기관 유형	센터소속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건강검진	교통비	진로통합프로그램
	대안학교	검정고시	동아리 지원	교통비	문화활동	대안교육
	소년원·쉼터	청소년 일자리	검정고시	진로상담/체험	직업교육훈련	진로통합프로그램
	무소속	검정고시	건강검진	질병 치료	휴일프로그램	문화활동
유형 분류	학업형	검정고시	건강검진	교통비	청소년 일자리	진로통합프로그램
	직업형	청소년 일자리	진로통합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건강검진	진로상담/체험
	니트형	검정고시	교통비	청소년 일자리	진로통합프로그램	건강검진
	비행형	청소년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진로상담/체험	건강검진	진로통합프로그램
부모 결혼	결혼유지	검정고시	건강검진	진로상담/체험	진로통합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이혼·별거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교통비	진로통합프로그램	건강검진



〈그림 4-38〉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4점만점)



〈그림 4-39〉 2016년과 2019년 정책지원 욕구 비교

**Q.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욕구(II)**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욕구를 연령별, 중단기간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적별로 살펴보면, 1순위로 검정고시, 대안교육, 진로상담/체험, 청소년 일자리, 질병에 대한 치료 등이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초등기 학생은 다양한 대안교육 제공을 1순위로, 중등기 학생은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 및 체험, 고등기 이후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남. 고등기 이후 청소년들은 일자리나 진로 관련 정책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단기간별로 보면, 학교를 중단한지 6개월 미만된 청소년은 청소년 일자리 제공을 1순위로, 그 이후부터는 검정고시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남
- 경제적 수준별로는 모두 검정고시 지원욕구가 가장 높았으나, 경제수준 하/중 집단은 청소년 일자리 지원욕구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수준이 좋다고 평가한 청소년은 질병 치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중 청소년은 검정고시 지원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9〉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II)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연령	만9~12세	대안교육	검정고시	문화활동	건강검진	청소년 공간
	만13~15세	진로상담/체험	건강검진	동아리 지원	직업교육훈련	검정고시
	만16~18세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교통비	건강검진	진로통합프로그램
	만19세이상	검정고시	진로통합프로그램	청소년 일자리	교통비	직업교육훈련
중단기간	6개월미만	청소년 일자리	진로통합프로그램	검정고시	진로상담/체험	직업교육훈련
	6개월~1년미만	검정고시	교통비	건강검진	진학정보	청소년 일자리
	1~2년미만	검정고시	질병 치료	건강검진	교통비	청소년 일자리
	2년이상	검정고시	교통비	청소년 일자리	건강검진	문화활동
경제수준	하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교통비	건강검진	직업교육훈련
	중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건강검진	진로통합프로그램	교통비
	상	검정고시	진로상담/체험	건강검진	질병 치료	직업교육훈련
학업성적	하	검정고시	청소년 일자리	진로통합프로그램	진로상담/체험	건강검진
	중	검정고시	건강검진	진학정보	교통비	청소년 일자리
	상	질병 치료	교통비	건강검진	검정고시	문화활동

## 제2 절 학교 밖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본 절에서는 첫째,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층적인 생활 실태 및 구체적인 정책적 욕구 내용을 부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수행됨. 특히 기관 소속 유형별 및 기관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그만둔 배경과 주요 원인, 학교 그만 두 이후의 면밀한 생활실태를 시간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파악함

둘째, 전북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객관적인 생활실태 및 지원사업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다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 등을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함

### 가.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 1) 조사개요

##### ○ 참여대상자 및 조사방법

-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주된 원인과 생활실태 등을 보다 다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관소속 유·무, 기관유형(6개 유형\*), 연령(중학생, 고등학생)과 지역(시·군) 등으로 세분화하여 선정함
- 기관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참여대상자는 기관 내에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실무 담당자로부터 면접조사 안내를 받고 면접조사에 동의한 청소년과 기관 실무 담당자로부터 경험과 의견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청소년을 추천 받아 우선적으로 실시함. 기관 무소속 참여대상자는 검정고시 접수처 등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접촉하여 면접조사의 목적과 진행방법 등에 대해 안내 한 후 면접조사에 동의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청소년자립생활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쉼터 등

- 면접 장소는 기관 이용 참여대상자는 기관 내 상담실에서, 무소속 참여대상자는 검정고시 접수처 근처 조용한 카페 등에서 실시함
- 면접조사 시작 전에 조사 목적과 내용 및 결과활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대상자의 익명성,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언급함. 그리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내용을 녹음함. 면접시간은 평균 40분 이상이 소요됨. 조사 기간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됨

#### ○ 분석방법

- 면접 시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전사한 뒤, 전사된 자료와 면접조사 시 필사한 노트자료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함

#### ○ 면접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교중단 관련 사항, 학교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와 어려운 점,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그리고 현 지원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함
- 면접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함. 첫째, 학교중단 관련 일반사항, 둘째, 학교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포함), 셋째, 기관을 통해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사업(서비스) 현황과 만족도,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참여하지 못한 이유, 현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 정책적 욕구를 파악함. 그 외 참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부모결혼상태, 가족 구성, 경제수준 등)을 살펴봄

〈표 4-40〉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의 영역과 세부 내용

영역	세부 내용
학교중단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중단의 주요 원인과 시기, 학교 중단 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li> <li>◦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여부, 중단 직전 학교에서의 인내한 정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안내 등)</li> <li>◦ 학교 그만둘 당시 주위 반응(가정, 학교, 또래 등)</li> <li>◦ 학교생활(성적, 학교규범 위반 정도 등)</li> </ul>
학교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그만둔 이후 후회 및 만족도(후회하는 이유, 만족하는 이유)</li> <li>◦ 학교 그만둔 직후부터 시간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심리상태</li> <li>◦ 학교 그만둔 이후 경험했던 어려움과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등</li> <li>◦ 현 상태와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진로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li> <li>◦ 가족 및 친구 관계의 변화</li> <li>◦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이유, 기간, 직종, 보수 등) 및 어려움 등</li> </ul>
지원 받고 있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알게 된 경로</li> <li>◦ 센터를 통해 지원 받고(받았던) 있는 서비스와 그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한 점</li> <li>◦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li> <li>◦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이유</li> </ul>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지속 참여하고 싶은 서비스</li> <li>◦ 새로이 생겼으면 하는 지원서비스</li> <li>◦ 센터, 전북도, 중앙정부에 바라는 지원정책</li> </ul>

## 2) 분석결과

### (1)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은 총 21명이며, 이 중 기관소속 학교 밖 청소년 17명, 기관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 4명임. 기관소속 학교 밖 청소년 17명을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 2명, 청소년쉼터 소속 3명, 청소년자립생활관 소속 1명,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속 11명이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중에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3명이 포함되어 있었음
- 연령대를 살펴보면, 21세 1명, 19세 14명, 18세 2명, 17세 1명, 16세 3명이었고, 성별로는 남자청소년 6명, 여자청소년 15명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2배정도 더 많았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수능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뭘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니트형 청소년도 3명 정도 있었음
-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중 1년 때 2명, 중 2년 때 2명, 중 3년 때 1명, 고 1때 8명, 고 2때 3명으로 약 절반 이상이 고 1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학교중단 이후의 기간은 1년 이상 7명, 2~3년 11명, 3년 이상 3명으로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보면, 비행과 범죄로 인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부모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가정문제, 교사와 또래관계 문제, 종교적 이념에 따른 부모 권유 등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21명 중 8명(38.1%) 이었고, 4명만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었음. 아르바이트의 업종은 서빙, 편의점으로 나타남
- 부모의 결혼상태를 보면, 5명을 제외한 16명의 부모는 이혼하거나 이혼 후 재혼, 사별, 연락두절 상태였음. 한부모 가족형태가 8명이었고, 혼자 독립해 지내거나 쉼터 및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6명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중·상' 2명, '중' 5명, '중하' 3명, '하' 11명으로 대부분이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지각함
- 학교중단 이전 학업성적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 2명, '중상' 1명, '중' 3명, '중하' 3명,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하'로 지각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한 지원정책으로는 검정고시 준비 지원(검정고시 학원비, 멘토링, 교재비 지원 등)이 가장 많았고, 대입준비 지원(수능준비, 수시 면접 준비, 대학입시 컨설팅 등), 진로 상담, 건강검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요구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은 점심식사 제공, 다양한 체육 수업 지원, 운동장 이용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나타냄

〈표 4-41〉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센터(기관)	행상태	거주지역	중단시기(중단기간)	중단사유	학업중단 수려제	알바 경험 업종/현재	부모님 결혼상태	가족관계	경제 수준	성 적	필요지원정책
1	여	19세 (01년생)	보호관찰 꿈드림	니트 검정고시 준비	익산	중 3년 2학기 (3년째)	장기 결석 비행(소년원)	미참여	단기 알바 (샤빙/웃집)	재혼 (초1때 혼)	엄마(남동생), 새이빠 총남 혼자 독립생활	중하	하	검정고시 지원 센터 나오기 위한 교통비(교통불편)
2	남	21세 (99년생)	자립생활관	니트 자립취득 고민	전주	고 1년(중학교 자퇴후)(3년째)	소년원 수감 자퇴 퇴학	미참여	경험 유 (샤빙 택배 일용직)	이혼	자립생활관에서 홀로 생활 (모 미국감 부 연락 안함)	하	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필요 경제적 지원 필요
3	남	19세 (01년생)	보호관찰 꿈드림	검정고시 및 취성패 준비	정읍	고 1년 (2년째)	서울서 전학, 친구없음 학교 다니는 것 의미 없음 돈 필요, 소년원수감	미참여	경험 유 (편의점, 마트)	친모 도망 계모이혼	아빠(도박), 본인 (한부모)	하	하	향후 진로에 대해 상담(적성검사 등) 요구, 미술에 관심 적성 고민 성교육 필요(피임법)
4	남	19세 (01년생)	보호관찰 꿈드림	니트 검정고시 준비	익산	고 2년 (1년째)	사기협의로 소년원 수감	미참여	경험 유(주유소 편의점 샤빙)	이혼	큰 아빠 식구와 함께 생활, 돈 벌어 독립 희망	하	하	보호관찰 선생님이 검정고시 준비하라고 센터 연계 해줌
5	남	19세 (01년생)	무소속	검정고시 준비 수시합격	전주	고 2년 (1년째)	학교 다니는 것 의미 없음 시간이 아까웠음 자퇴	미참여	경험 유 (샤빙)	결혼유지	아빠, 엄마, 누나 2명	중상	중하	검정고시 준비 지원 대학입시 준비 지원
6	여	18세 (02년생)	무소속	검정고시 수능 준비(집에서)	전주	고 2년 2학기 (8개월째)	학교(특성화)와 적성이 안 맞음	참여함	없음	이혼	엄마, 오빠(대학생) (한부모)	하	상	수능 공부 지원 학원비 지원
7	여	19세 (01년생)	무소속	알바로 생활 검정고시 준비	전주	고 1년 (2년째)	학교가 없었음 늦집(자각/결석) 선배와 안 좋음	참여함	경험 유 (샤빙)	이혼	엄마, 오빠, 동생(고1녀) (한부모)	하	하	검정고시 지원
8	여	19세 (01년생)	무소속	하루 12시간 알바로 생활 검정고시 준비	전주	중 3년 (3년째)	새엄마 싫어서 가출 아버지 재혼	미참여	경험 유 (애간잡)	4세 때 이혼	혼자 생활 3년째 (부 여동생과 재혼)	중	하	건강검진, 검정고시 지원 알바 때문에 센터 나가기 어려움
9	여	19세 (01년생)	청소년 쉼터	컴퓨터 학원 다님	전주	고 1년 (2년째)	타 지역으로 통학 경제적 문제, 또래관계 문제, 학교와 안 맞음	참여함	경험 유	초1때 이혼	쉼터에서 혼자 생활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하	하	미술관련 진로 고민 미술, 컴퓨터 학원비 지원
10	여	19세 (01년생)	청소년 쉼터	중졸 검정고시 준비	전주	중 1년 (5년째)	교사와의 관계 악화 (중단 후 약 3년 집에만)	미참여	경험 유 (샤빙, 포장하기) (일반천국에서)	이혼	엄마(병중), 언니 2명 현재는 쉼터 생활, 언니의 폭력	중하	하	검정고시 준비, 취업성공패키지(메이 크업, 헤어) 하고 싶음
11	여	19세 (01년생)	청소년 쉼터	검정고시 준비 대학입시 준비	전주	고 2년 2학기 (1년째)	진로와 맞지 않은 학교 공부, 학생스트레스 담당교사와 갈등	미참여	경험 유 (카페)	엄마사별	아빠, 오빠, 언니 (폭력적인 아빠 피해 쉼터움)	하	중하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교통비 지원, 대학 입시 1:1 맞춤 지원, 대학입시 컨설팅

(표 계속)

구분	성별	나이	센터 (기관)	현상태	거주 지역	중단시기 (중단기간)	중단 사유	학업중단 수차례	일부경험 없음	부모님 결혼상태	가족관계	경제 수준	성 격	필요지원정책
12	남	19세 (01년생)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학교 생활 (검정고시, 학원)	전주	초 3년 (9년째)	종교적 이념과 부모님의 권유	-	없음	결혼유지	아빠, 엄마, 누나	중	중	점심식사 제공, 또래관계 필요, 진로상담 전문적 필요, 체육수영, 야구, 축구 등 프로그램 필요, 건강검진, 수학교재 등
13	남	16세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학교 생활	군산	초 4년 (5년째)	부모님권유, 홈스쿨(초4-초6년)	-	없음	결혼유지	아빠, 엄마, 형, 누나	중하	중	예체능 동아리 활동, 운동장 필요 고등학교는 서울에 가서 일반고로 입학 예정
14	여	16세 (04년생)	꿈드림	니트 성향 검정고시준비	전주	중1년 1학기 (2년째)	선생님과 관계 나쁨 왕따	미참여	경험 유 (싸별)	이혼	엄마, 언니(학교 밖 청소년), 남동생, 여동생 (한부모)	하	중	고졸 검정고시 준비, 경제적 지원 미술관련 진로 탐색 필요 (검정고시 접수처에서 발골됨)
15	여	19세 (01년생)	꿈드림	자격증취득 취업준비	부안	고 1년 (2년째)	중학생때부터 고등학교 대학진학 할 생각 없었음	참여함	경험 유 (방직)	결혼유지	아빠, 엄마, 언니	중	하	외국어, 원어민 영어회화 지원 국제교류참여 행사 지원(해외봉사)
16	여	19세 (01년생)	꿈드림	진로 고민 중	김제	고 1년 (2년째)	학교분위기(실업계고)와 친구들 안 맞음, 버티기 힘듦	미참여	경험 유 (카페)	결혼유지	아빠, 엄마, 오빠(학교 밖), 동생	중하	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상담 지원 나의 진로가 뭔지 모르겠음 다양한 직업체험 지원
17	여	19세 (01년생)	꿈드림	검정고시준비 알바 중	부안	고 2년 (1년째)	학교 규칙, 규율이 싫 음, 성적경쟁과 생기부 챙기는 것 싫음	참여함	경험 유 (카페, 싸별)	아빠 연락두절	엄마, 오빠 (한부모)	하	하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입사설명회 교통비(교통전용카드)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18	여	19세 (01년생)	꿈드림	검정고시준비 주말 알바	부안	고 2년 (1년째)	친구문제, 대학 갈 생각 없음 단체생활 싫음	미참여	경험 유 (편의점 싸별)	이혼 (고1때)	언니, 오빠(중학교 중퇴) (한부모)	하	하	취업알선 등을 위한 추천서 지원
19	여	18세 (02년생)	꿈드림 (도넛타)	대학진학 검정고시 알바 중	전주	고 1년 (1년째)	가정문제, 초등 때부터 동생 돌봄(자퇴)	참여함	경험 유 (카페)	이혼 (초5년)	아빠(4일마다 교대근무) 남동생 (한부모)	중	중상	검정고시 전문적으로 가르쳐 줬음 좋았음, 검정고시 학원비와 교통비 지원, 대학 수시 면접준비 지원 여성 생필품 돈으로 지원
20	여	17세 (03년생)	꿈드림	검정수능 준비 자주 추듯 준비 (허머, 메이컵)	군산	중 2년 (2년째)	진로와 학교교육 맞지 않음, 삼과 다툼	참여함	경험 유 (싸별)	결혼유지	아빠, 엄마, 여동생	중상	상	교재비 지원, 교통비 지원, 인강비 지원 학교 교사에게 꿈드림 홍보
21	여	16세 (04년생)	꿈드림	검정고시 준비 수능시험 준비	군산	중 2년 (전학·복귀 반복(2년째)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 선배관계 어려움(자퇴)	참여함	없음	이혼 (초3년)	엄마 (한부모)	중	중하	검정고시 준비 지원 수능 준비 지원(수능대비반, 수능수학)

## (2) 주요 분석결과

- 기관 유형별과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학교 그만둔 이후에 겪는 어려움과 지원받고 싶은 정책 욕구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어려움 및 지원 정책 욕구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기관 유형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보호관찰소·소년원·경찰서, 기관무소속 등)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괄호 안에 기관 유형을 별도로 기입함

### (가) 학교중단 관련 사항

- 학교중단 관련 사항은 학교중단 직전까지의 경험 내용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 그만둔 시기 및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여부와 그 효과성, 학교 그만둘 당시 주위 반응과 학교생활 등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실태 등을 파악함

#### ① 학교를 중단한 주요 이유와 그만둔 시기

- 학교를 중단한 이유는 개인·가족·학교와 사회적 요인, 주위를 둘러싼 상황적 측면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장기간 동안 축적되어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술한 학교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즉 (1) 가족해체·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보호체계 붕괴, (2) 학교분위기와 진로·적성이 맞지 않음, (3) 학교생활에서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 (4) 경쟁위주의 학업중심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 (5) 형사처벌 등 범죄로 인한 비자발적인 중단 등으로 나뉘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의 보호 체계 붕괴로 부모의 관심과 돌봄(양육과 교육) 부족, 정서적 지원 결핍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 가족해체·가정폭력 등 보호체계 붕괴

-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 재혼, 사별, 연락두절 등으로 가족이 이미 해체되었음. 태어나자마자 친모에게 버림받은 경우에서부터 4세, 8세 등 12세 이전에 이미 부모님 간의 갈등과 싸움, 폭력 등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으며 부모님의 이혼이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 우울, 버림받았지도 모른다는 무서움,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심각하게 경험함. 반면, 부모로부터 어린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양육·교육, 관리 및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유기된 채 홀로 힘든 상황을 견디고 버티며 짓누르며 성장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학교 밖 청소년은 원가족이 이미 해체되어 부 또는 모 외만 생활하는 한부모가족 형태로 살고 있거나 부와 모의 연락 두절과 부모의 재혼으로 친척집이나 조부모 집을 오고가며 지내는 경우, 폭력적인 아빠·오빠로부터 도망 나와 본인은 청소년 쉼터에서 언니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도 있었으며, 엄마의 재혼으로 동생은 새 아빠와 새로운 집단에서 생활하나 본인은 새 아빠와 엄마와의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홀로 쉼터와 생활관에 거주하며 혼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부모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살거나 아빠와 함께 생활하는 한부모가족도 상당 수 있었음. 대부분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부모의 직업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이었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동생 돌봄, 가사일 및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용돈을 직접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음
- 그리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형제·자매 중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다소 있었으며, 이런 사례의 경우 가족형태는 한부모가족이거나 집을 나와 쉼터에서 혼자 독립 생활하는 경우였음. 이는 가정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들도 학교를 중단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무엇보다 아버지의 도박과 빚으로 인한 경제적 악화, 부모의 경제적 무능력 및 낮은 경제적 수입 활동으로 청소년은 용돈과 생활비가 궁핍했고 이에 돈을 벌기 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다소 나타남

아빠가 이혼하고 저랑 같이 여기로 내려오면서 학교를 옮겼는데 적응하기도 힘들고, 친구들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어요. 엄마가 친엄마인줄 알았는데 친엄마는 저 낳고 도망갔고 그래서 지금 여자랑 살다가 이혼한 거였어요. 전 이제까지 친엄마 줄 알고 서울로 자꾸 찾아갔는데.. 친엄마가 아니라고 해서.. 방황도 많이 했고.. 학교 그만 두고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소년원도 갔다 왔어요. 아빠가 노름빚을 저서 그것 갚기 위해 형들이랑 안 좋은 것을 했거든요. 집 나가서요.. 그 뒤로 아빠가 조금 정신 차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청소년 3)

엄마랑 이혼하시고 아빠는 다른 지역에 살고 할머니 집에 살다 이제는 친척집에 살아요. 가족이 다 불뼉이 흩어졌어요. 동생은 외할머니 집에서, 형은 대전에서 혼자 생활하고, 아빠는 돈 번다고 연락도 안 되고, 엄마가 보고 싶어 자전거 훔쳐 타고가다 걸려서 소년원도 갔다 왔어요. 친척집에 사는데 얼른 나오고 싶어요 (청소년 4)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가 재혼해서 동생들 둘이나 생겼는데.. 그 사람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이혼하고 지금은 엄마랑 언니랑 동생 2명이랑 살아요. 언니도 학교를 그만 뒀고 저도 그만뒀어요. 집에만 있어요. 엄마는 돈 벌러 갔다 밤에 와요. (청소년 1)

□ 학교 분위기와 진로·적성이 맞지 않음

- 상급학교를 선택·입학 후 원하던 진로·적성과 학교 교육과정의 서로 맞지 않은 경우, 학교 교과과정의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내신이 불리하여 대학입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를 중단함
-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아서,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 없고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아까워서란 말로 학교를 그만두며,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단함

중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특목고로 왔는데 저하고 정말로 적성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애들 숫자도 적어서 내신 받기도 어렵고.. 그냥 인문계고로 전학가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만 두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를 잘 고를 건데.. 몰랐죠.. 엄마도 몰랐고요.. (청소년 6)

와서 보니까 실업계고 라고 해서 컴퓨터, 전사처리, 뭐 이런 것만 가르켜 주는 거예요.. 애들도 무섭고 사납고 놀기만 하고.. 전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는 학교에서는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만두었어요.. 학교가 저랑 안 맞고, 적성도 안 맞고.. 시간도 아깝고.. (청소년 9)

□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일부는 (담임, 체육)교사와의 갈등문제, 또래와 선배와의 관계 문제(이성교제문제 등), 학교 규칙과 규율이 싫어서, 단체생활이 싫어서, 그리고 학교차별과 교칙위반.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를 중단함

- 교사와의 갈등문제는 주로 담임 및 교과목 담당 교사, 특히 체육교사와의 갈등과 관계 악화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로 교사의 부정적인 언행,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갑질, 편애) 등이 싫었고 이를 참고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이런 사례는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다소 많았음
- 그리고 또래와 선배들에 의한 집단 폭행,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또래 무리 내에서 의 거짓말과 모함 등을 힘들어하며 학교를 그만둔 경우임. 어떻게 해서든 학교 내에서 버티고 견뎌보려고 전학과 휴학 및 복귀를 했어도 집단 무리의 괴롭힘과 따돌림과 정신적·심리적 힘들음을 상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상담 받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도움은 거의 없어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됨

체육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체육시간도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욕받이되고 혼내고 억지로 시키고 하는 것들이 싫어서 그만 두었어요. (청소년 14)

담임 선생님의 갑질이 싫었어요. 생기부 때문에 담임 눈치보고 하는 것도 싫었고요 몇몇 애들만 잘 봐주고 감싸고 돌고 그런 것들이 보기도 싫었고. 친구들과도 별로였고 학교 분위기도 안 맞고 (청소년 17)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그게 선배가 짝어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남자친구는 저 좋다고 하니 우리는 사귀었는데 선배가 친구들 떼로 데리고 와서 욕하고 겁주고 그러더라구요. 자꾸 힘들게 해서 아빠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전학했는데 거기는 더 하는 거예요.. 육지사람 왔다고.. 그래서 다시 다니던 학교로 왔는데.. 힘든 일도 많고 담임도 안도와주고 친구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어요.. 00 대학교에서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힘들어서 엄마는 막.. 울고. 점심도 안먹고 화장실에만 있다가 나오고 이런 말을 하니깐 그때 엄마가 학교 그만두어도 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어요.. (청소년 1)

#### □ 경쟁위주의 학업중심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족

- 먼저는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교 수업에 관심과 흥미가 없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부족하며, 학교가 멀어서, 친구들과 밤 낮도록 놀다 늦잠자서, 차비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빈번한 지각과 잦은 결석 및 장기결석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학교를 자퇴라는 행정처리로 그만 두게 됨. 이 경우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면,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제대로 된 돌봄과 관심 및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교생활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학교 교육에 흥미 없어 했음
- 한편, 학교 내에서 학업 경쟁이란 치열함에 있어서 친구들과 과열경쟁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회의감, 과도한 경쟁에 대한 불편감, 학업스트레스, 생기부(생활기록

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교사가 갑이고 학생이 을이 되어 교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등을 참지 못하고 학교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음

그냥 학교 가기가 싫어요. 맨날 지각해요. 학교가 멀어서. 차비가 없어서 안 간 날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밥까지 놓고.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밥까지 놓고 있으니까.. 00경찰소의 00선생님하고 친해지기도 했어요. 학교도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만 두었어요. 엄마도 뭐라 안하고 (청소년 7)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그만 두었어요. 애들이랑 경쟁하는 것도 싫고. 서로 눈치보며 숨겨가며 공부하는 것도 싫고, 생활기록부나 내신 등급 따는 것도 그걸고 해서... 엄마랑 상의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학교 그만 둔다고 했어요. (청소년 17)

#### □ 형사처벌 등 범죄로 인한 비자발적인 중단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일부는 인터넷 사기, 강도·상해, 특수절도, 아동성유리 위반 등의 범죄로 학교장의 강요에 의한 자퇴 혹은 퇴학 처분을 비자발적으로 받았고, 소년원 수감과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
- 이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담배와 음주 및 가출과 성관계 경험 등 비행과 일탈적 행위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가족해체의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방임 및 버려진 경험을 갖고 있음. 무엇보다 소년원 퇴소 후 보호관찰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집안에서 홀로 스마트폰만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과 귀찮아서 식사도 거의 챙겨 먹지 않고 있었음. 향후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보다도 당장 필요한 담뱃값 별이를 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필요로 함

학교 다닐 때 학교 형들이랑 같이 인터넷 사기를 했어요. 또 학교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엔 소년원에 있다가 지금은 보호관찰 받고 있어요. 이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퇴학이라고는 했는데. 자퇴처리 해준다고. 학교에서는 제가 빨리 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로 처리되었어요. (청소년 4)

남자친구.. 성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중2때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애가 저는 괜찮다고 했고. 또 사기 먼저 하자고도 했는데.. 나중에 저만 학교 그만두고 소년원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랑도 연락 안하고요.. 그 여자애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로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학교에서도 퇴학처리되었다고 연락왔어요. 엄마는 충남으로 이사갔어요. 저는 그냥 여기 남고요.. 혼자 지내요 (청소년 1)

## ② 학교를 중단 한 시기와 그만둔 기간(학교 밖 기간)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13명(1학년 때 7명, 2학년 때 6명)은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를 중단 하였고 이는 학교급별 고려 시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통계적 수치와 맥을 같이 함. 그 외는 중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 두었으며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소속 청소년대부분이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상태임
- 학교를 그만둔 기간은 가장 길게는 9년부터 짧게는 8개월까지 다양했음. 학교를 그만둔지 5년 이상이 된 청소년의 대부분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생이었음.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3년 이상인 청소년은 중학교 때 그만둔 사례였으며 집안에 은둔생활을 하다가 센터에 오는 경우, 가출하여 쉼터에 머물고 있는 경우, 혹은 중학교 때부터 자퇴와 복학, 전학을 반복하다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그만둔 경우 등 다양했음. 면접조사 대상자 중 7명은 1년 미만, 8명은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대안학교로 왔어요. 엄마, 아빠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여기로 보내더라구요. 군산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는 것이 힘들지 학업스트레스도 없고 괜찮아요. 한데 고등학교는 다시 서울에 있는 일반 학교로 가려구요. 한 6년 정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또래도 없고, 학생들도 줄어들고. (청소년 13)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만두었어요. 집안도 안 좋고. 전학하려면 교복도 새로 사야하고. 돈도 없고. 엄마 혼자 일하는데.. 언니도 학교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저도 안다니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뒀어요. 집에서만 있다가 검정고시 접수처에서 센터 선생님 만나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2학년 이니까. 학교 애들보다 빨리 중졸 검정고시를 따고 싶어요. (청소년 14)

## ③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와 그 효과성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1/3정도만이 학교 중단 전에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여 숙려기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는 학업중단숙려기간을 갖는 것에 대한 안내와 권유는 받았지만 이미 학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상 학업중단숙려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음

자퇴서 쓸 때 교장선생님이 학업중단숙려제가 있으니 참여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데.. 자퇴서 쓴다고 이야기 꺼낼 때부터 이미 학교를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숙려제가 뭐가를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해서 안한다고 하고 바로 나왔어요. (청소년 5)

학업중단숙려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일주일간 이상 학교 안 나가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숙려제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뭐 한 것 없이 시간만 보낸 것 같아요. (청소년 15)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상담교사가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보다는 학교를 다녀야만 한다는 말을 중점적으로 했음을 토로함. 즉 ‘너가 참아라’, ‘버티라’, ‘시간 금방 간다’란 이야기로 학교에 남아있기만을 강요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에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상담교사와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경험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나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크게 나타남. 실질적으로 나 자신이 존중받고 배려받은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과의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음을 토로함

학교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은 ‘너가 참아라’, ‘시간 금방 간다’, ‘그래도 졸업장은 따야 하지 않겠냐’란 이야기만 계속해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전 지금 학교 분위기와도 안 맞고, 친구들과도 안 맞고 참고 견딜 만큼 견뎌보았는데도 안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자꾸 학교를 참고 다니라고 하니.. . (청소년 19)

전 학업중단숙려제 하면서 받은 선생님과 상담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오히려 폼드림센터 선생님하고 이야기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 하고 나면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 (청소년 20)

#### ④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정보연계 정도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과정에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장, 교감으로부터 학교를 그만둔 이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나 검정고시 준비방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개인정보 연계 등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대부분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학업 중단자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음을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소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친구들이 알려줘서 알게 된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학업중단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았다하더라도 학업중단 직후에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해방감과 자유로움 등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약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이 흐른 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면접참여 대상자 19명 중 학교중단과 함께 학교에서 안내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바로 찾아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은 단 1명(중학교 2년생)뿐인 것으로 나타남. 학업중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청소년은 방향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이는 학교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신속한 연계가 필요하고 신속한 연계를 통한 조기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냄

학업중단숙려제 없이 바로 자퇴서 쓰고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만 둘 당시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가 아무것도 안 알려줬는데요.. 혼자 지내다가 검정고시 보려고 하는데 힘들었는데... 우울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밥도 잘 안먹히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여기오니까 선생님과 이야기도 하고.. 관찰아요 (청소년 14)

전 혼자 인터넷 찾아서 센터에 왔어요.. 학업중단숙려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안 알려줬어요.. 혼자 지내다가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 왔어요.. (청소년 21)

학교 그만 두고 바로 얼마랑 함께 여기 센터로 왔어요.. 학교에서 알려 줬거든요.. 여기 가보라고.. 그래서 와서 상담 받고 지금은 검정고시 공부,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청소년 20)

#### (나)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중단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실태를 시간흐름에 따라 어떠한 경험과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후회 유무 및 후회하는 이유와 후회하지 않은 이유,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은 어려움과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등을 파악함

① 학교를 그만둔 이후 후회하는 이유와 후회하지 않는 이유

- 학교를 그만둔 이후 후회하는 청소년보다도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는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 자퇴를 선택한 청소년들보다 범죄 발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비행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이유

- 검정고시 준비를 혼자 해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졸업장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점, 옛날 친구들과 관계와 연락이 소원해졌다는 점,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 추억을 못 만든다는 점. 또래친구가 없고 친구들과 못 어울려 외로울 때,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그저 부럽고 교복 입는 것 자체가 부러울 때가 있음

저는 수학여행, 학교 종소리, 교복 입는 것,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만 해도 졸업장이 나온다는 것들이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청소년 18)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해 가장 후회될 때는 학교 졸업장이 그냥 나온다는 것. 검정고시 준비 하면서.. 그것이 가장 부럽고, 주위에 친구들이 없어요.. 센터에 와도 친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옛날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기도 하고.. (청소년 20)

□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 일상의 일탈에 따른 즐거움, 시간적 여유와 자유로운 시간이 많음, 구속하는 것이 없고 불규칙한 생활이 가능함.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내신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됨.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적성에 맞는 공부만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음. 하고 싶은 공부와 경험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몰입할 수 있어서 좋음

전 학교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학교 그만두고 여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것 하나까 좋아요. 저 4학년 때 엄마랑 아빠 이혼하고 집안일하며 남동생 돌보는 것이 힘들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학교 그만두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청소년 19)

고등학교를 특성학교로 왔는데.. 전 인문계고가 맞는 것 같아요. 대학도 가야하는데 내신 따기는 힘들고.. 한데 학교를 그만두고 가고 싶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아직도 거기서 서로 힘들게 내신 따려고 경쟁하겠죠.. (청소년 6)

②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시간흐름에 따른 생활실태 변화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학교중단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직후 학교 교육과정 틀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등을 병행하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중단 직후 방황의 기간을 여행을 다녔다는 청소년,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했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냈다는 청소년, 친구와 바깥 생활과는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생활했다는 등 다양했음. 이 방황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청소년은 밤과 낮에 뒤바뀌는 생활패턴과 식사가 불규칙한 것이 특징적이었음
- 이 방황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하며,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상대적 비교와 더불어 앞날의 불안함 등에 의해 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검정고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그리고 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 공부함에 대한 힘들과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 등으로 정보수집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에 나와 도움 받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었음

학교 그만두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았어요. 자유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한 3개월 정도 놓고 나니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동네 아줌마도 왜 학교 안다니냐고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려니 잘 안돼요. (청소년 18)

학교 자퇴하고 한 6개월 정도 놓았나 봐요. 밤낮도 바뀌고 늦게 일어나고 방황이죠. 학교 친구들은 고 2년이거든요 개네들은 학교만 다녀도 졸업장이 나오지만 저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니까요. 공부는 잘 안 되지만 학교 나왔다고 잘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청소년 5)

- 면접조사 대상자 몇몇은 학교중단 직후부터 집 안에서 줄곧 생활하는 모습을 보임. 대부분의 시간을 멍 때리고, 식사도 잘 챙겨먹지 않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쳐다보며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패턴을 보임. 친구와의 만남도 거의 단절되어 있었고, 은행 혹은 편의점 등 꼭 밖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 시에만 집 밖을 나가는 현상을 보임. 이 청소년들의 가정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의

재혼으로 혼자 독립생활하거나 한부모 가족으로 하루 종일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부모의 돌봄과 훈육 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의 밖에 안 나가요. 오늘은 문상(문화상품관) 준다고 해서 왔어요. 편의점 가거나 은행 갈 일 아니고는 집에서만 있어요. 명태까지도 하고 핸드폰하면서요. 밥도 거의 한 번 정도 먹나..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제가 소년원에 다녀왔는데. 밖에 나가면 또 나쁜 일들 할까봐서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청소년 1)

밤에 가끔 마트 가는 것 빼고는 집에만 있어요. 이혼한 뒤로 엄마가 돈 벌러 나가면 동생들 챙겨주는 거 해요.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와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요. 언니도 학교를 그만 두었고, 저도 그만 두었어요..남동생들 초등학교 다니는데.. 돌봐줘야 하고 (청소년 16)

- 일부 몇 명의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자이존중감이 낮고, 특별한 계획 없이 나타하며 무기력했음. 검정고시 응시, 애견샵 운영, 카페운영 등 향후 진로에 대해 대략적인 생각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실행력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로를 성취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해 했음. 당장 눈앞에 있는 2개월 후에 있을 검정고시 준비조차 홀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힘들어 했음
- 반면, 학업중단 전부터 학업중단의 명확한 이유와 의지가 있고,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학과 및 구체적인 직업관이 세워져 있는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에도 방향기간도 거의 없이 나름의 시간활용 계획과 실천 계획,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였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한 단계 한 단계 계획을 밟아 가고 있었음

지금은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벌어야 해서.. 한데.. 검정고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알바하면서 인터넷도 보는데 잘 되지는 않고..그냥 한 번 보려고요.... 전 애견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비싸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는 싶어요 (청소년 8)

저는 00대학 00학과에 가고 싶어요. 여기를 가려면 검정고시100점을 따야 해서 이번에 점수 올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학에 가려면 정시로 수능을 봐야 해요. 그래서 수능준비도 하고 있어요. 한데. 검정고시 출신자가 갈 수 있는 다른 대학 00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데. 해보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요. (청소년 11)

- (친구 및 가족관계 변화)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과거 학교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자주 만나 어울린다는 청소년보다는 대부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친구들과는 단절되거나 학교를 그만 두 이후부터 학교 친구들과는 거의 만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와서 새롭게 만난 친구나 언니, 동생들과 자주 어울리거나 본인과 같이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끼리 어울린다는 청소년이 많았고 그 외에는 홀로 혼자서 다닌다고 함. 홀로 지낸다는 청소년은 가

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모든 생활에서 혼자서 생활함을 나타냈고, 이에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기대감과 요구를 나타냄

학교 그만 뒤로 학교에서 저에 대한 소문은 많이 없어졌고, 그래도 동네에 살고 있는 학교 친구들은 서로 아는 채도 안하고 다녀요. 전 이 센터에 와서 여기에 있는 00언니, 00와 함께 지내는 게 편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좋아요. 학교 친구들과는 서로의 소식을 몰라요 (청소년 21)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한데. 이제는 잘 못어울라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다니는 것이 더 편해요. 함께 일 벌려 소련원 갔던 형들도 소식 없고. (청소년 4)

○ (가출과 비행 경험) 면접대상자 중 다수가 가출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하여 쉼터 및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가출 및 비행 경험 청소년들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 재혼,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거나 친구 집 혹은 친구와 함께 원룸을 마련하거나 홀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면접조사 대상 대다수가 음주, 흡연과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이 중 반 절 이상이 학교중단 이전부터 학교 친구나 선배들과 비행경험 및 범죄경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음

-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이성 친구를 만들고 교체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 관련 지식(피임, 임신, 성별 등) 수준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성 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동영상 등을 통해 얻은 잘못된 지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엄마가 재혼을 남동생이랑 했어요. 충남지역인데 전부 이사갔는데 저만 남았어요. 가기가 싫었어요. 엄마랑도 사이가 별로 안좋고 재혼한 아저씨도 싫고 동생은 어려서 갔지만 전 여기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해요. 가끔씩 엄마가 돈을 붙여주고 나머지는 제가 돈 벌어서 생활해요 (청소년 8)

아빠가 이혼하고 여기로 내려왔어요.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엄마는 도망갔고 그래서 지금 엄마랑 살았다는 것을 재직년에 아빠 이혼할 때 그 여자를 통해 들었어요.. 가끔 보고도 싶은데.. 연락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여자친구랑 함께 있어요.. 담배도 같이 피고 술도 같이 먹구요.. 성교육은 한 번도 받아 본적 없어요. 피임방법이랑을 알고 싶구요. 아동 보면서 알게 된 것 밖에 없어요.. (청소년 3)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하고 오빠 폭력 때문에 언니는 그룹홈에 있구요. 전 여기(쉼터)로 왔어요. 다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때려요. 그래서 집에 안들어가까지 오래되었고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어서 언니랑 집 얻어서 사는 게 목표예요 (청소년 11)

### ③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는 어려움

-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 편견, 선입견으로 나타남.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안 좋게 바라본다는 것을 힘들어 함. 이러한 부정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줌.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친인척들과의 만남 등을 꺼려함
- 다음으로 외로움과 소외감 등을 나타냄.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결국에는 단절되어 또래친구가 없어 외롭고, 주로 혼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줌. 특히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도 또래관계가 없음에 대해 힘들어 했고 이에 친구들과 축구, 야구 등을 운동장에서 함께 하고 싶음을 나타냄
- 또한, 향후 진로계획 및 준비를 혼자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진로와 적성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하고자 전문적인 상담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함.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자신을 항상 비교하며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심적으로 힘들어 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막연함을 혼자서 헤쳐 나아가야 함에 있어서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나타냄
-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여 대학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 불안함,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학진학에 대한 제한된 조건들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함

애들 학교 가 있는 시간에 동네 돌아다니기는 좀 그래요.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왜 년 학교 안 갔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좀 피하려고 해요.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청소년 15)

명절 때 친척집에 가기가 싫어요. 잔소리도 듣고 해서요. 집에 혼자 있고 싶어요. (청소년 14)

대안학교가 작아서 제 또래 친구가 전혀 없어요. 또래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여기 오면 동생들 돌봐 줘야 하고..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대안학교라서... 저랑 동갑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12)

학교를 다녔으면 학교에서 이것저것 알려주었을 텐데.. 전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해요. 혼자서 찾아야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막연하고 그래요, 지금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고졸 학력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뒤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로상담 같은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미술은 어렸을 때 가르쳐 주기는 했는데.. 이게 내 진로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진로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3)

#### ④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및 어려움

-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함.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용돈 마련과 생활비 마련이 대부분이었고, 용돈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갖고 싶은 옷과 신발, 친구들과 놀기 위한 비용 마련이었고 한부모가정일 경우에는 생활비 보탬을 위해, 그리고 혼자 독립생활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을 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의 주요 업종은 음식점 서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편의점, 카페, 마트, 주유소, 택배, 빵집, 일용직 등으로 나타남. 알바천국이란 아르바이트 안내를 통해, 혹은 지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되도록이면 편하면서 쉽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시급을 챙겨주는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혹은 반대로 힘들지만 많은 시급을 주는 곳을 단기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편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생각하여 아르바이트 업종을 선정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음

알바를 하고 있어요. 고기 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옷도 사고 신발이나 친구하고 카페가거나 놀러고 알바를 해요.. 편의점에서도 했었고, 빵집에서도 했었고, 돈을 모으고도 싶고 해서.. 또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카페 알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구요. 꿈드림 센터에서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청소년 15)

전 한 보름간 노가다를 해서 그 돈 다 쓰면 또 노가다를 알아보고 그래요. 여기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곤 하는데 노가다가 제일 싸요. 그래서 며칠 고생하고 그 돈을 써요.. 여자친구랑 같이 놀기도 하고 술고 먹고 담배도 사야하고 쓸데는 많죠 (청소년 2)

아빠가 택시기사인데 노름한다고 적게 벌어요. 그래서 내 용돈은 벌어서 써야 해요. 마트에서도 해봤고, 주유소, 편의점에서도 하는데 힘든 일 보다는 좀 쉬운 일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00까지 나가서 해요. 알바 천국같은 사이트도 알아보고 전단지도 보고 그러면서 찾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여자친구랑 타로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페 알바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청소년 3)

#### ⑤ 현재 상태 및 향후 진로 계획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음. 학교는 중단했지만 사회에서 더 나은 직장을 갖거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작년 혹은 4월에 치른 검정고시 점수를 보다 높이기 위해 혹은 중졸이나 고

졸 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이 대부분이었음. 일부는 검정고시와 수능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고, 일부는 검정고시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음.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청소년도 학력취득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서 검정고시 교육과정과 더불어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고 있었음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졸이란 학력이 앞으로의 직장 및 아르바이트 구직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졸 졸업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몇몇 청소년은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은 (전문)대학이란 진학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로 수시 혹은 정시로 대학교 입학 후 진학 계획하고 있었음(21명 중 7명이 대학진학 희망). 대학 진학을 희망한 청소년 중 일부는 대학과 전공학과까지 정해 놓고 검정고시 점수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인지 수시 이외 정시로만 가능한지를 이미 파악한 뒤 수능까지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었음. 이들은 검정고시 점수 향상과 수능준비를 위해 하루의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그려놓고 생활하고 있었음. 이에 대학 진학을 위해 대학입시(수시 면접 준비 등)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1:1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적인 입시 준비(수능학원비 지원 등)를 요구함
- 한편, 일부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보호관찰 선생님이 혹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이 하루하루 무료로 시간만 보내지 말고 검정고시라도 우선적으로 준비해보라는 권유로 검정고시를 소극적으로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었음. 이들은 검정고시 합격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성과 적극성이 낮았으며 검정고시 합격 이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계획에 있어서도 막연한 생각과 바램 뿐 이어서 향후 진로 탐색과 진로 설정을 위한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필요로 함

저는 00대학 가기 위해서는 00점정도 맞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00점 맞기 위해서 시험공부하고 있어요. 학교는 그만 두었지만 요즘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학을 가야만 한다고 주위에서 그렇기도 하고. 해서 대학가는 것에 대한 상담도 받고 싶고, 어느 대학이 좋을지 더 고민도 필요하고 누가 좀 잘 알려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19)

보호관찰 담당 선생님이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해서.. 검정고시 보려고 해요..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혼자서 하기도 힘들고.. 보라고 해서 보기 보이는 하는데.. 아무생각 없어요 (청소년 4)

대안학교여서 검정고시를 봐야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검정고시 준비를 해주긴 하지만 저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면 00점을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검정고시 학원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청소년 12)

- 아르바이트와 취업활동에 보다 관심을 보인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란 공부 싫어서 혹은 학력취득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서, 차후에 검정고시가 필요하다 느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갖고 있었음. 반면, 이들은 미술에 재능이 있다든지, 컴퓨터 공부가 하고 싶어서, 혹은 카페나 애견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는 취업에 대한 막연함을 나타냄. 막연한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고 그럴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연계, 인턴십,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체험활동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 검정고시는 인싸요. 꼭 봐야 할 필요는 없고. 군대 갔다와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때 검정고시 준비하려고요. 지금은 취성때나 그런 것 알아보고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청소년 2)

검정고시 준비는 하기는 하는데 잘 안돼요. 알바도 해야 하고. 시간도 별로 없고. 아직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7)

#### (다) 기관 이용 프로그램의 실태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선생님을 통해 연계된 경우 학교중단 과정에서 학교에서 안내해 준 경우, 학교 밖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를 먼저 중단했던 형제·자매를 통해서 혹은 혼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다소 있었음. 기관 무소속인 경우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검정고시 시험 접수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간의 입소문과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을

다루는 기관(소년원, 보호관찰소, 쉼터 등)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인지하고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보임

저는 소년원에 있을 때 꿈드림 센터 선생님들이 와서 뭘 했었어요. 그리고 소년원 퇴소 한 이후 보호관찰소 선생님도 검정고시 준비하라며 책 한권 주면서 꿈드림 센터랑 한 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청소년 2)

저보다 빨리 학교 그만 둔 친구 통해 알게 되었어요. 꿈드림 센터 가면 검정고시 공부도 해 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뭐 자격증 따면서 돈도 주고 뭐 이런다고 해서 친구가 알려줘서 왔어요 (청소년 21)

혼자 공부하다가 검정고시 접수하는 데서 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선물도 받고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준다 고 해서 왔어요. 검정고시 볼 때 도시락도 주고. 센터 가서 상담도 받고 멘토도 연결해 주고 (청소년 17)

## ② 주된 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아쉬움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검정고시 접수, 인터넷강의, 공부방, 멘토링 등) 이였고, 다음으로 자격증취득 프로그램(바리스타, 미용·헤어, 요리, 운전면허 등),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나타남. 그 외 일부 몇몇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사 문제에 대한 개인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고, 진로상담 및 수학여행,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두 번째 나왔다(첫 번째는 설문조사, 두 번째는 면접조사)는 청소년도 있었음
- 검정고시 준비 지원 프로그램 :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함. 검정고시 안내 및 접수 등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은 도움 되었고, 교재비 지원 및 인터넷 강의 지원 등으로 검정고시 준비 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나타냄. 가장 필요로 한 프로그램은 멘토링이었으나 필요한 교과목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의 멘토 연계가 잘 안되었다는 아쉬움과 멘토가 검정고시 시험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하는 바램을 나타냄. 그리고 혼자 막연하게 공부하다 센터의 도움으로 공부방, 스마트 공부 교실 등을 통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공부할 수 있었다는 만족감을 나타냄. 한편,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 및 수능 준비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도를 필요로 했으며, 대학 입시를 위한 1:1 맞춤 컨설팅, 수시 면접 준비 및 검정고시

점수만으로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대입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 정보 안내를 필요로 함. 무엇보다 정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수능시험 준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수능학원 연계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필요로 함

검정고시 준비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멘토 쌤도 연결해 줬는데 검정고시 시험문제를 보다 잘 짚어주는...보다 검정고시 시험 전문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와 수학 멘토 선생님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청소년 19)

센터에 와서 인터넷 강의 들으며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대학과 과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정시밖에 안 되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해요. 수능시험은 혼자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검정고시출신자가 갈 수 있는 더 많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수시 면접 보는 방법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수능시험 보는 것부터 대학 입시까지 누군가가 잘 알려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6)

- 자격증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많은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바리스타 자격증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나타냄.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인지도가 높고 취업 관련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수행하고 있었음. 반면, 헤어·미용, 요리 등 한정된 분야 이외 애견 관련 분야, 미술, 그래픽(애니메이션 등) 분야 등 청소년이 요구하는 특별 분야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들도 부가적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냄

친구들과 바리스타 자격증 함께 땀어요. 여기 와서 배우고 시험도 같이보며.. 자격증이 생기니 기분도 좋아지고 카페 일바도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또 20살 넘어 돈 좀 벌어 내 카페도 운영하고 싶기도 하구요. (청소년 17)

저는 애견샵이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바도 애견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애견관련 일이 쉽지는 않다고는 들었는데. 이 애견관련 일을 하고는 싶어요. 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청소년 8)

컴퓨터로 일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었구요.. 지금은 00재단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학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곧 있음이게 끝나요. 3개월 지원인데.. 조금 더 배우고도 싶은데.. 이런 컴퓨터 분야 관련 자격증도 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9)

### ③ 프로그램을 지속 참여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아르바이트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센터를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냄
-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의 이직으로 자동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지 않게 된 사례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음이란 정보를 학업중단 과정에서부터 안내해주거나 홍보가 보다 더 잘 되었으면 지금보다 빨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냄. 이에 학교 교사들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음을 홍보하고, 학업중단과 함께 카톡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문자가 여러 차례 안내해 주기를 요구함

애와 저는 일바 때문에 센터가 있어도 이용을 못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서 돈을 벌어야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를 빠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점심 먹고 저녁까지 일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늦은 시간에도 센터를 열면 좋겠어요 (청소년 8)

저는 원래 센터를 가끔 나갔었는데.. 센터에서 친한 선생님이 센터를 그만 두었었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나가요 (청소년 7)

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했어요.. 학교 그만 둘 때라도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아마도 이용했을 것 같아요.. 학교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 이후에는... 학교 그만두고 대부분은 아무생각없이 놀아요.. 한테 3개월 정도 지나면 뭐가 해야겠다란 생각이 드니까 그때 센터에서 문자도 주고 카톡도 주고 그러면 센터 나갈 것 같아요 (청소년 5)

### (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의 욕구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한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크게 (1)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2)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 (3) 다양한 복지 지원(교통비, 점심식사제공, 건강검진 및 여성생필품 지원), (4) 체험중심의 프로그램(국제교류봉사활동, 예체능활동), (5) 전문적인 진로상담, (6) 학교중단 전·직후 센터 연계 필요 및 센터 홍보 확대 등으로 나타남

## ①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 현재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을 다양한 방법(인터넷 강의 공유, 1:1 멘토링, 검정고시 공부방, 학원비 지원, 교재비 지원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요구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는 중단했지만 증졸 및 고졸 검정고시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는 지속하고 있었음. 무엇보다 1:1 멘토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를 요구했음. 1:1 멘토링에서 희망하는 과목 수학, 영어, 과학 등의 멘토를 요구했으나 요청에 의한 멘토 연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 대기상황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과 멘토가 학습 지원 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특히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에 있어서 기초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원을 요구함
- 인터넷 강의를 받기 위해 센터에 보다 많은 컴퓨터 추가 배치, 선호하는 인터넷 강의(에듀넷 등) 수강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지속적인 교재지원, 기출문제 지원, 검정고시 학원 연계 등으로 보다 전문적인 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함

센터에서 인터넷 강의 듣는데.. 컴퓨터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듣는 인터넷 강의 말고 000도 듣고 싶는데.. 그것은 좀 바빠가 보더라도요 (청소년 21)

1:1멘토링이 잘 되면 좋겠어요. 멘토 선생님 연계도 빨리 빨리 되면 좋겠어요. 기다리다가 시험 끝날 것 같아요.. 사회 멘토는 연결되어 좋은데.. 전 수학이랑 과학도 하고 싶거든요..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도 해주면 좋겠고, 수능 모의고사도 보고 싶고.. (청소년 19)

## ②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

- 2016년 전라북도 학교 밖 실태조사에서보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검정고시 준비와 더불어 대학입시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로 대학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보다 많이 필요로 했음. 대학진학 준비를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서 알아보고 결정 내려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큼을 나타냄
- 검정고시 점수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과 전공학과들에 대한 안내, 본인이 취

득한 검정고시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교와 진학할 수 있는 전공학과, 또는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전공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정고시 점수, 수시 면접 방법과 준비 지원, 전공학과들에 대한 쉬운 설명, 전공학과 졸업 시 예상되는 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인별 맞춤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설명회 등을 요구함

- 또한, 검정고시 점수만으로 진학하기 어려운 대학과 전공학과를 가고 싶은 청소년은 수능시험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학교를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능시험은 검정고시 보다 어려워하며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수능시험 단과반 혹은 종합반 학원비, 수능 모의고사 시험 등 수능시험 대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함

### ③ 다양한 생활 복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생활 복지지원을 요구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집과의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교통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센터를 방문하고 싶어도 힘들기에 교통비 지원이,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하루에 1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힘들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식사 및 간식 제공이 많은 도움 되고 있음이 나타남. 무엇보다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았고, 여자청소년들은 건강검진과 여성용품지원 등도 필요로 함. 특히 건강검진을 만 18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냄

전 여기 센터 오려면 택시 타야 해요. 버스 타면 하루 종일 걸려요. 오고가고 택시타면 9천원씩해서 2만원이 깨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만나와요. 센터에.. 교통비라도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번 나올 것 2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1)

센터에서 밥 먹으려고 나와요. 선생님이 밥먹자고 전화해요. 저는 하루에 한 번 밥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것(면접) 끝나면 선생님이라 밥 먹으러 갈 꺼예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고파요. (청소년 3)

학교에서 먹고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맛있는 반찬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학교 형평 상 그렇게 못해줘요. 도시락 먹을 때도 있고. 급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청소년 13)

전 학교 밖 청소년이면 전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줄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성인이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8)

#### ④ 다채로운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의 단절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 이에 또래친구들과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예체능 및 체육(축구, 야구, 수영 등)관련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요구함. 이에 또래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활동, 극기체험(국토순례 등), 단기여행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정서 발달과 내적 심리 정서 강화가 필요함
- 더 나아가 개인욕구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스포츠, 문화예술 등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 개발로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⑤ 전문적인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및 심리내적 상담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많은 수가 전문적인 진로 상담과 진로 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땀을 하고는 있지만, 검정고시 합격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막막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음.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도 전문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냄. 학교 밖 청소년은 막연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생각과 욕구가 있더라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음 상황임. 이에 개인별 진로직업 상담 전문가를 통한 진로상담 및 검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지도, 진로설정 및 이에 따른 직업탐색, 직업체험,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등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합적 진로지도와 체험적인 프로그램 등이 요구됨
- 또한, 전문적인 진로직업 상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진로직업 상담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냄
-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 사별 등 가족의 해체 과정 중에 가정폭력·가족 불화 등을 겪으면서 미해결된 마음의 감정과 내적 연약함들이 다소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짧은 면접조사

중에도 가정사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잊지 못하거나 눈가가 빨갛게 변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었음. 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내적 측면에는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문제와 소원한 관계에 대한 원망, 그리움 등 복잡한 감정이 쌓여 있었음. 이에 심리내적 및 관계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가로부터 개인 심리 상담과 가족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짐. 향후 자이존증감 향상과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개인 내적 문제와 가족관계 및 부모와의 부정적인 문제 등을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재정립해야만 심리내적 성장 뿐만 아니라 내적 힘의 강화로 보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나갈 수 있을 것임

#### ⑥ 학교중단 전·직후 센터 연계 및 센터 홍보 확대

-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음에 대해 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냄. 만약 자퇴 하더라도 학교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가면 어떤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또한, 학교중단 직후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자동적 연계를 필요로 했고 이로 인해 방황의 기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요구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확대가 필요함을 나타냄
- 이상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요구한 필요 지원정책을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 및 수능 시험 준비 등 학력취득을 위한 지원과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을 보다 필요로 했음. 다음으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은 점심 무상급식 제공과 예체능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동과 시설관련 사용에 있어서의 용이성을 요구함. 소년원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은 취업준비 및 자격증취득 관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립에 도움 받기를 요구함

- 마지막으로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중단 직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정보연계 (카톡 및 문자 등)로 방황기간의 단축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학교 밖 생활에 적응 할 수 있기를 요구함.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함에 있어서 검정 고시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높았으나 주말 및 저녁에도 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냄

## 나.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1) 조사개요

#### ① 조사목적

- 전북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과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관별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첫째,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자주 접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여 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객관적인 생활실태 및 학교 중단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함임
-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과 기관 유형별에 따라 겪고 있는 서로 다른 다층위적인 생활실태와 그에 따른 어려움 및 각기 상이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함. 셋째,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한계 점과 어려운 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넷째,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북형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② 참여대상자 및 조사방법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과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 보호관찰소의 관할 과장 및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직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교장, 여성 청소년과의 경찰관(경위), 청소년쉼터와 내일이룸학교의 종사자 등을 일컬음.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 5명,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2명, 그 외 기관 종사자 각각 1명씩 총 12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함
-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 면접조사는 본 연구 착수보고 간담회를 통해 면접조사의 필요성과 주요 목적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후 연구자

가 직접 기관의 종사자와 면접이 가능한 일정을 서로 조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함. 다음으로 경찰서(여성청소년계), 청소년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자립생활관 종사자들의 면접조사는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면접조사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됨.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의 종사자 면접은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협조 및 면접조사의 목적과 진행방법 및 질문문항 등에 대해 기관 공문을 보낸 뒤 면접조사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면접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 1: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함. 면접조사 시작 전에 본 조사의 목적과 참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 및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언급하였고, 참여대상자의 동의하에 면접내용을 녹음함. 평균 면접시간은 최소 50분 이상 최대 2시간 정도가 소요됨
- 면접 장소는 각 기관의 사무실과 교실 및 상담실에서 진행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됨

### ③ 주요 면접내용

-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욕구, 기관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의 문제점, 개선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과 기관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함. 면접내용은 기관유형(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호관찰소·경찰서·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내일이룸학교 등)을 구분하여 약간의 차이를 두었음
- 면접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첫째,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현 기관 근무경력(총 근무경력), 기관유형 등 기관별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함.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이들이 힘들어하는 점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지원서비스 등을 파악하고자 함.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기관 이용 현황, 제공 프로그램, 사례관리 방법과 종결사례 처리, 지역자원 연계 정도와 연계 시 어려운 점, 유관기관과의 연계 정도 등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기관 지원사업 운영 상 한계점과 문제점, 학교 밖 청소년 과 기관 종사자 관점에서 필요 정책적 욕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표 4-42〉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의 영역과 세부 내용

영역	세부 내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총 근무경력(현 기관 근무경력),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li> <li>◦ 상담 경력, 기관유형, 계약 및 위탁기간 등</li> </ul>
기관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이용 청소년 현황(성별, 연령별, 청소년특성별 등), 신규 등록 현황</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요 발굴 경로와 방법</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 중단 시기, 구체적 생활실태 및 힘들어 하는 것</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가정의 경제적 수준, 심리·정서상태, 가족상황, 학교생활, 사회적 문제 행동 등)</li> <li>◦ 기관유형별·청소년 특성별 정책적 지원욕구</li> <li>◦ 기관 이용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욕구</li> </ul>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예산, 인력 현황 및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성</li> <li>◦ 기관 내 특화된 프로그램 및 사업 등</li> <li>◦ 사례관리는 방법 및 종결사례 기준, 처리 및 관리 방법 등</li> <li>◦ 지역자원 연계 정도와 연계 시 어려운 점 및 필요사항</li> <li>◦ 유관 기관과의 연계정도(자원 현황과 한계 등)</li> </ul>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운영 상 제한점과 개선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사업 관련 문제점</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시스템</li> <li>◦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방향과 지원사업</li> </ul>

#### ④ 분석방법

- 참여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한 녹음내용(녹취록)과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반복 읽으면서 의미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 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

## 2) 분석결과

###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북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 중 면접조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는 총 12명임. 기관 유형 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5명,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2명, 그 외 기관에서는 각각 1명씩이 참여함

〈표 4-43〉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전공)	기관	현 기관 근무 (총 근무)	기관종사자 인원	결혼 상태	자격증
1	43세 (남)	석사 (심리학)	꿈드림 팀장 (위탁)	5년 (6년)	3명	기혼	청소년상담사(2급) 사회복지사(2급)
2	33세 (남)	석사 (아동심리학)	꿈드림 팀장 (직영)	2년 (5년)	2명 (1명 추가 예정)	미혼	청소년상담사
3	24세 (여)	학사 (심리학)	꿈드림 팀원 (위탁)	5개월	2명	미혼	상담심리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취득예정
4	49세 (남)	학사 (사회복지학)	꿈드림 팀원 (위탁)	5개월 (15년)	2명	기혼	사회복지사
5	40세 (여)	석사 (심리상담학)	꿈드림 팀원 (위탁)	3년 (3년)	2명	미혼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6	45세 (남)	학사	대안교육기관 교사	12년 (12년)	7명 (시간강사3명 포함)	기혼	교원자격증
7	65 (남)	박사	대안교육기관 대표	37년 (37년)	18명	기혼	교원자격증
8	41세 (남)	학사	청소년 자립생활관 생활지도실장	10년 (10년)	4명	기혼	
9	50세 (남)	학사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2년 (15년)	4명	기혼	
10	45세 (여)	학사	경찰서 경사	1년6개월 (6년)	3명	기혼	
11	29세 (여)	학사 (교육학)	내일이룸학교 교사	11개월 (11개월)	5명	미혼	심리상담사자격증(1급) 교육학 정교사(2급)
12	54세 (여)	박사수료 (사회학)	청소년센터 소장	5년 7개월 (20년 7개월)	6명	기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무경력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6년으로 평균 약 2년 정도 근무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

의 근무경력은 기타 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의 근무경력(6년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단편적으로 나타냄

- 학력수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5명 중 3명이 대학원졸(석사)이며 나머지는 대졸(9명)이었음. 기관유형별 현장 전문가들의 연령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원이 된 24세부터 많게는 2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65세까지로 평균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40대 이상 이었고,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혼이었음
- 각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실무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8명까지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는 평균 2.2명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증, 심리상담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5명 중 3명은 상담·심리 및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남

## (2) 주요 분석결과

- 현장 전문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비인가대안교육기관 교사, 보호관찰소·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 종사자, 경찰서 경위, 청소년쉼터와 내일이룸학교 종사자 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기관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지원정책 요구 등을 살펴봄

### (가)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발굴경로

-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다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함

#### ①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중단 시기 및 중단한 기간

##### □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

-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의 이혼, 사별, 연락두절 등 가족해체와 재혼이라는 재결합 과정에서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지체계의 붕괴를 지적함.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입학 이전부터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부모 간의 갈등, 가족불화, 가정폭력, 가족의 경제상황 악화 및 부모로부터의 유기와 방임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은 부모의 양육과 돌봄 및 관심 부족으로 이어져 학업에 대한 지도 부재, 불안정한 심리상태 형성, 공부에 대한 의미와 흥미 상실유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 형성, 비행 친구들과의 어울림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져 학교를 중단하는 상황을 발생시킴. 이에 현장전문가들은 부모들의 이혼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부모역할을 강화시키고 가족과 부모의 기능을 올바르게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함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해체, 그에 따른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 정서적 지지 체계 붕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아이들 가족을 들여다 보면 일률적으로 유사해요. 부모의 이혼, 부부갈등, 가정폭력, 경제적 상황 악화, 가족불화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학습부진, 습관형성도 안되고, 본인 실자고 아이들 버려두고. (현장전문가 1)

특히 저희 보호관찰소 아이들을 보면 .. 대부분이 이혼한 가정이고, 한부모가정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빈곤하니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장전문가 9)

- 다음으로, 학교생활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적응으로 학교를 중단하게 됨. 즉 (특정)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 집단따돌림과 폭력 등 또래친구들과의 부적응, 기초학력 부재로 인한 학습 부적응과 낮은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등 학교생활의 무료함과 답답함이 결석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무단결석 행동이 증가하면서 수업일수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교중단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개인 심리·행동적 특성상 또래친구들 보다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거나 혹은 마음과 멘탈이 약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낙오되는 경우에도 학교를 중단함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약해요. 멘탈이. 학교 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나온거라고 생각해요. 기초학력도 부족하니 학교가 재미가 없고. 이런 현상이 중학교부터 나타나요. 요즘 아이들 성적을 보면 중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맨 아래 아니면 맨위.. 맨 아래 애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니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없고 그러다가 비행을 저지르고 이러저러하다 그만두는 거죠 (현장전문가 1)

학교 내에서부터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 사회성이 떨어져 혼자 지내는 애들..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약해 약을 먹는 애들도 있구요 (현장전문가 2)

-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학진학을 위해 친구들과 경쟁하며 부족한 내신점수를 맞는 것보다 오히려 자퇴하여 검정고시 점수와 수능점수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단하고 내신점수 취득을 위해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검정고시와 수능점수를 높이는데 올인 하고자 하는 청소년도 있었음. 그 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는 부모의 교육관과 종교관 등 교육적 선택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일부는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공교육기관을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을 찾음

원하는 내신 등급 못 맞을 거라고 생각한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있어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쫓기 보다는 내신 포기하고 수능으로 대학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긴 해요. (현장전문가 1)

저희 학교에는 기독교 종교관과 함께 현 교육관의 문제 의식을 갖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관 안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암기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테 일반 공교육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의 양육관과 철학으로 아이들을 보내지만 저희는 또 체험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요. (현장전문가 7)

## □ 학교중단 시기 및 학교를 중단한 기간

- (학교중단 시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대부분 1학기 여름방학 전에 많이 이루어지며,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1년 때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순으로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지적함. 소년원에 수감되었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고등학교 1, 2년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며, 소년원 수감이나 보호관찰을 받기 이전부터 학교 혹은 사회에서 크고 작은 말썽이나 문제를 한 두 번씩은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음을 언급함. 한편, 2016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중학생 시기에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음을 지적함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후로 학교를 그만 두고 있죠. 고등학교 입학 후 이게 아니라 싶은 것이 중학교 때부터 쌓여서 그 때 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년 5월 이후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뒤요. (현장전문가 2)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만두는 학생들이 더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중학교 때 그만 두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1)

- (학교를 중단한 기간) 일반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길게는 1년이 넘어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학교중단 직전 학교 교사(교장 등)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 해 준 경우에는 보다 이른 시기에 센터를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보다 이른 시기에 센터를 방문하였고, 부모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부모의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집

에서 혼자 무계획적이고 불규칙한 은둔생활을 지속하다가 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생활에 집중하다가 학교중단 이후 2년 혹은 길게는 3년 이후에 센터를 찾는 것으로 나타남

학업중단숙요제를 통해 연계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화 해서 센터로 나오게끔 노력하죠.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방황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고 나름 학교 그만 둔 이후의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한데 저희 센터와 연계가 안 되는 아이들은 방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일탈도 겪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런 애들은 경제적으로도 가정형편상으로도 많이 어렵죠 (현장전문가 5)

아무래도 부모의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도 관리를 안 해주고 관심이 없으니 혼자 이래 저래 많은 것을 겪다가 친구가 여기 가서 월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학교를 중단한지 6개월이상 1년 된 아이들이 많죠 (현장전문가 1)

## ②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그만 두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

###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족영역, 학교영역, 개인특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가족영역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족형태는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및 친인척 집에 살거나 가출하여 쉼터나 생활관 혹은 혼자 원룸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가족형태를 지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과거에 가족해체 과정을 겪었음을 나타내줌. 부모님이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도 가정폭력(언어적 폭력) 및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 가정적 불화가 심하고 아버지의 도박 빚과 경제적 무능력, 한부모의 경제활동 몰입 등에 따라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다수가 저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20%의 학교 밖 청소년 가족을 보면, 종교적 가치관으로 종교 성향을 가진 대안교육기관을 찾아 학교를 보낸 경우, 자녀에 맞는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해 공교육을 중단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찾는 경우가 있었음. 이런 가족들은 경제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청소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돌봄 및 심리적 지원 정도가 높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앞으로의 진로계획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학교영역을 살펴보면, 학교 재학 중에 (특정)교사(체육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로(집단 따돌림과 폭력 등) 인해 학교를 중단하게 됨. 또한,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업 흥미 상실, 학교생활의 무료함과 시간에 대한 아까움,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안에서의 학교 분위기와 적성 및 진로가 서로 맞지 않음에서 오는 학교 부적응 문제, 그리고 내신등급을 올리기 위한 친구와의 치열한 입시경쟁에 대한 회의와 저조한 내신등급을 대신해 검정고시와 수능 점수를 보다 올리기 위해 학교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학교생활 중 친구와 혹은 선배와의 일탈을 경험하고 비행집단과 함께 범죄 행위를 저질러 학교를 중단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정서적 특성을 살펴보면, 불안감, 소외감, 우울과 외로움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수가 우울증 약을 복용고, 불안 등으로 자해를 경험한 청소년도 있음. 학교에 소속되지 못함에 대한 소외감, 또래관계에서의 소외함과 단절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외로움, 불안감, 자신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등을 지니고 있음.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음. 그 외 니트형은 무기력감과 귀찮음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학교 그만둔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

-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장 힘들어 하는 어려움은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부정적인 시각, 주위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나타남.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적인 선입견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안에만 있게 만들며,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을 시간에는 되도록 동네를 돌아다지지 않게끔 만듦.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가족과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무시와 차별 받고,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스비, 영화비 등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서 손해를 본 경험들을 나타냄

아무래도 주위의 사선을 가장 많이 의식하고 그에 대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학교를 안 다닌다는 것 자체로 부적응이, 문제이로 보는 사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사회적 인식 개선이 그래도 3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선이 많죠 (현장전문가 11)

학생증이 없어서 버스비나 영화비 할인이 안 된다거나 모든 일을 혼자 알아서 해야 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그러죠 (현장전문가 5)

-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단절되어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외로움, 소외감, 우울감, 후회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냄. 그리고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과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현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막막함, 조급증 등에서 오는 불안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도 나타냄
- 그 외 경제적 어려움도 나타냄. 한부모인 상황에서 혹은 가출로 인해 용돈과 생활비 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도 나타냄. 또한,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진로 설정 및 목표가 없음에 대해서도 힘들어함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 친구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구요. 친구들이 없어서 그리고 소속감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애들도 있고 외로워서, 우울해서 복합적으로 힘들어 하는 애들도 있고요 (현장전문가 2)

학교는 나왔고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본인만 후퇴하는 느낌을 받내봐요. 그래서 조급증이 생기는 애들도 있고 집안 사정이 인종이서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애들도 많아요. 뭘 좀 하고 싶어서 한부모 아래에서 경제적 사정은 여의치 않으니 잘 안되기도 하구요 (현장전문가 1)

### ③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요 발굴경로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굴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접수장과 고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굴되며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 센터의 안내와 홍보를 통해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 명단이 연계되어 발굴되고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학교중단 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센터에서 전화연계를 하면 낯설어하거나 이미 연계되어 있거나 혹은 전화통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등 교육청을 통한 신규 발굴에 있어서는 한계점들이 많음을 나타냄. 2016년과 비교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지도 확산과 주위 이용 학생의 소개로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발굴되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중단되는 대로 청소년을 바로 연계하기보다는 일관적으로 처리하여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명단을 공개하여 효과가 거의 없음. 학교(wee센터, wee 클래스)를 통한 연계 의뢰는 미흡함. 그 외 유관기관, 경찰서, 주민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연계되고 있음.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방법으로 자퇴원 작성 시 학교에서 센터로의 의뢰 의무화와 경찰서·보호관찰소·소년원·주민센터 등의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마련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SNS·앱과 아웃리치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함

요즘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발굴되기 보다는 검정고시 접수처나 고사장에서 아웃리치를 통해 발굴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혹은 지인을 통하거나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통해 이름이름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현장전문가 1)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발굴보다는 오히려 경찰서에서의 연계나 보호관찰소, 소년원 연계로 발굴되는 경우가 더 많나보요. (현장전문가 5)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오는 학교 밖 청소년 리스트는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오기에 이미 센터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전북 지역을 떠난 애들도 있고요.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발굴은 많지 않아요 (현장전문가 2)

- ④ 지원사업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 기관 유형별 현장전문가들이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추진 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내 놓은 요구사항들을 분석 정리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관 이용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은 중앙의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업 중심에서 지역적 특성과 학교 밖 청

소년 개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필요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제공해 주기를 요구함

- (학업형) 센터에 나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함. 그 중 1:1 학습 멘토 연계와 학습지원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접근을 요구함. 또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험 준비 지원과 핵심과목(국·영·수 등)에 대한 학원비 지원도 필요로 함.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개인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되길 요구함
- (취업형) 취업형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한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받기 원하고, 향후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과 걱정이 많았음. 이에 적성에 맞는 진로설정을 위한 전문적인 진로·직업 상담을 요구함. 집안 경제적 사정상 용돈별이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구직 알선과 일자리 안내 등을 요구했고 아르바이트와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말과 저녁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요구함

도시지역 센터는 멘토링이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군단위 지역은 멘토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이들은 멘토 연계를 필요로 하는데 멘토 자체를 구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애들이 바라는 것이 각기 다 다른데 중앙 지침에 따라 사업 진행하기에도 힘들고, 지역 나름의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현장전문가 3)

검정고시 합격했거나 검정고시 관심 없는 애들은 취업에 관심이 많아요. 진로직업 상담도 해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벌이와 연계되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래서 직업장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일하는 입장에서 잘 안돼요 (현장전문가 8)

####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지원을 요구함. 대안교육기관에서 적은 학생 수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영양사 인건비 등을 고려하기 어려워 도시락 배달 혹은 자체 해결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음.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영양가 많고 먹고 싶은 만큼의 맛있는 점심식사 시간이 주어졌음을 요구함
- 다음으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한계점은 운동장이 없다는 점으로 또래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이에 대안교육기관 주변의 공공의 체육시설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함

계속 말하고는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해 봤자 안 될 것을 아는 데.. 그래도 다시 말한다면 아이들 급식지원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교육부 혜택이 적으니 가장 기본적인 급식지원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없으니 이런 것도 기초자치체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현장전문가 7)

학교 운영이 힘든 관계로 영양사님을 두고 아이들 점심 급식을 진행하기에는 인건비 등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도시락도 해서 먹어보고, 가까운 요양원 급식도 먹어보고 했는데.. 다 별로더라고요 아이들 영양 급식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가까운 체육시설도 무료로 사용하면 좋겠고. 강사 지원도 해주면 좋겠고.. 뭐 그러죠 (현장전문가 6)

#### □ 보호관찰소·소년원·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상 혹은 집에서 기출한 이상 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미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 소개를 요구하였고 다음으로 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요구함
-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담배와 술 및 성관계에 있어서 경험이 많고 지속적인 성향을 보이며 성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비행이나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안에서 홀로 지내는 청소년들이 다소 있었고, 홀로 은둔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밤낮이 바뀐 생활패턴을 지니고 있기에 유관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동기 유발과 유인하고자하는 대책 마련으로 교통비와 식사지원 및 아르바이트 성격의 현금 지급 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관기관에 출석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사료됨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에 대한 취업알선을 원하고 있죠. 저희 자립생활관에서는 이런 일자리들을 연계하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오래 버텨내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일자리 지원하고 있는 곳에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 특성을 자주 안내해 주긴 하지만.. 아이들 특성이 그래서.. 자각도 자주하고 결석도 해버리고.. 못나온다 안나간다 이야기도 없이 아이들이 아예 안가기도 해서.. 이런 아이들을 잘 봐주고 일하게 해 줄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현장전문가 8)

뭘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는 애들이니까요.. 금연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성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애들에게 필요한 피임방법 같은 내용으로요.. (현장전문가 9)

## (나) 기관 운영 현황 및 운영 시 어려운 점

- 기관 유형별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제한적이고 문제적인 부분들을 살펴봄

### ① 기관 이용 및 운영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호관찰소·청소년자립생활관·경찰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청소년쉼터와 내일이룸학교 등 기관 유형별 사업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였음. 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 인원은 3~4명이었으며, 센터에서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최소 200명에서 최대 500명으로 나타남. 농촌지역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 인원은 2명으로 센터 이용 청소년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 정도이나 실제로 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은 약 10명 정도로 나타남. 기관의 지원사업들을 살펴보면, 중앙의 공통된 사업(상담지원, 교육(학습)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멘토 연계 등)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 이 중에는 자체 시비 예산을 보다 투입하여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보다 보강한 센터도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 센터는 지역자원 연계를 활용한 지원사업이 많았고, 청소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센터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직접 지원이 많았음
- (보호관찰소·청소년자립생활관·경찰서) 각 기관 종사자는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 사이였으며,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은 보호관찰소는 약 140여명, 자립생활관은 10명 내외, 경찰서는 순찰하는 기간과 상황에 따라 매번 상이하였고, 평균적으로 매월 약 1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보호관찰소에서는 법무부와 연계하여 한 달에 4면 정도 청소년과 면담을 하며 이들에게 추천하는 사업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인터넷 수강권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는 비행 학교 밖 청소년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자립생활관도 법무부와 연계하여 직업

훈련, 의료비 지원과 취업처 알선 등을 시행하고 있음.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함. 경찰서에서는 배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게 되면 바로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비행청소년과의 만남을 지속하여 주위의 친구들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학생 모두를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과 중고등학생을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사 4명과 시간강사 3명으로 총 7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계획되어진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육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약 20명이 넘는 교사가 약 4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신앙훈련부터 예체능 활동, 선교, 노작실습 및 필리핀 영어연수 교육과정까지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음
- (내일이룸학교) 기관 종사자 5명과 헤어미용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음.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은 15명(여학생 9명)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학업 지원, 외부 체험활동 지원, 훈련생들 간식 지원 등을 요구함. 반면, 사업 운영 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중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목표가 없고 모든 일에 의지가 약해 삶의 의욕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동기유발 프로그램 실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② 지원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

- 기관 유형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시 다양한 어려움이 발견됨.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사업 운영 시 나타나는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첫째,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1 멘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능기부자 참여 대상 모집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특히 군 지역 센터는 인근지역에 (전문)대학교마저 없어 멘토 모집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며, 지역사회 내 검정고시 학원 및 일반 학습 학원도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체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

- 둘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이 큼.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을 위해 도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명단을 제공하지만 학교를 중단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제공되는 명단이기에 대부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전반적으로 학교는 물론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고 이 중 많은 수가 도시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더 어려운 상황임
-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무자 인원수에 비해 담당해야할 업무가 너무 과한 상황.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 이외 행정과 회계처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다 가까이, 그리고 보다 집중하여 관심 있게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나타냄. 이에 행정 처리와 회계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보조 인력을 필요로 함
- 군 단위 지역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이 넓게 흩어져 있고 교통편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악조건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센터로 모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되었더라도 물리적 거리의 한계, 대중교통의 불편함, 비자발적인 특성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센터로 불러들일 수 있을 만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예로 비자발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로 출석할 수 있게끔 교통비 지급, 식사지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센터에 나오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인 인적·물적 자원 연계가 필요하지만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가 어려운 상황. 이러한 현상은 군 단위에서 더 두드러져 나타남
- 사례관리와 더불어 행정 및 회계 처리 등 과중한 업무와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건비와 식품비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식비를 부담 지우고는 있지만 학교 소속 학생들과 동일하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급식 제공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운동장이 없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체육관련 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예체능 관련 교육도 학교 내 교육처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보다 적극적인 연계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큼

## (다)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적 욕구

-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유형별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를 분석 정리함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행정 처리와 회계 담당 보조인력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 중 행정자료 처리와 회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함. 센터 내 최소한의 실무자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개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정자료 처리와 회계까지 분담함에 대한 업무 과중의 힘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의 부족함을 나타냄

센터 종사자 수는 정해졌고, 400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을 처음부터 사후관리까지 하기에도 힘든데 행정 처리 해야죠.. 돈 쓰는 사업마다의 행정서류며 이런 것 정리해야죠.. 차라리 이런 행정업무를 누군가가 전담해주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1)

아이들 발굴, 아웃리치, 상담, 프로그램 연계, 지역자원 발굴 등등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행정 처리까지 하려니까.. 2명에서 이것을 다해야 하나니까요.. 힘들어요 (현장전문가 5)

- (학업중단숙려제의 내실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에 있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정보연계 한계로 학교 밖 청소년 성과는 미흡함. 즉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명단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의 제공되며, 이 때문에 학교 중단한 학생이 이미 거주지역을 떠난 경우도 많고, 연락도 대부분 잘 되지 않으며, 다른 통로로 이미 발굴된 청소년이 되어 있기도 함. 이에 교육청을 통한 명단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연계 체계 강화로 보다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운영기관을 학교 밖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학교중단 학생을 센터 실무자가 직접 소개받아 숙려기간을 갖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3년 전과 비교하면 교육청의 지원..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명단 리스트 지원 등이 있긴 한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명단이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락되더라도 이미 저희 센터에 등록된 한 아이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구요 (현장전문가 1)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는데.. 학업중단숙려제가 보다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학업중단숙려제와 센터와의 연계가 안 되는 곳도 많고요.. (현장전문가 5)

- (군 단위 지역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군 단위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학교와 학생 수가 적어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음.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은 넓게 흩어져 있어 센터와 물리적 접근성이 낮고, 택시조차 오지 않을 만큼 대중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비자발적 특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함. 이에 교통비 지급 혹은 정기적인 버스운행 등의 교통편 제공이 필요하며, 자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출석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나 반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고려해야 함. 또한, 군 단위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지역사회 자원이 한정적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자원 발굴에서부터 연계가 힘든 상황임(예로 학습멘토 구하기 어려움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연계를 광역단위 센터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음. 마지막으로 군 단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취업 및 자립 지원 연계, 농촌형 진로직업 체험과 자격증 취득(축산, 전문농업인, 드론교육 등), 인턴십 등의 발굴 등이 필요함

군단위 지역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자체가 어려워요. 학교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어 학교 밖 청소년도 적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는 다른 도시지역으로 가기도 하구요. 또 남아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기 센터까지 오려면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해서 애들 특성상 센터에 지속 나오게끔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데 교통비나 식사제공을 지속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구요.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니 센터 나오면 수당 비슷하게라도 준다면 지속 나올 것 같기도 하구요. (현장전문가 3)

멘도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죠.. 근처에 대학도 없어서.. 여기가 농촌이니 농촌분야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도 센터에서도 좀 도와주면 더 좋겠죠 (현장전문가 4)

- (센터 실무자의 진로지도 및 상담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 따른 요구에 따라 센터 실무자의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등이 필요함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취업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등 발굴과 연계로 작업장 확대, 직업체험 확대,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필요
- (니트형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계적 지원 필요) 무기력하고 비자발적이면서 동기가 전혀 없는 니트형(무업형)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속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면 좋겠어요. 보다 전문적인 진로 상담을 해주고 싶어도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대학입시 관련된 내용도 제가 잘 몰라요. 이에 대한 워크샵 같은 것도 해서 제가 잘 일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5)

자립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작업장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하고 싶어도 연계 같은 것이 잘 안되네요.. 그리고 은둔형 아이들도 센터로 불러 모으고 싶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도 진행해야 하는데.. 힘들어요.. (현장전문가 1)

- (센터 실무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전문성 확대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센터 실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반면,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해 센터의 실무자들이 자주 교체되고 있음.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대면하는 실무자의 교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센터 출입 단절에 영향을 미치며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 저하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년들에게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초래함. 이에 센터 실무자들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동일한 업무를 봄에도 각 지역 센터마다 약간씩 연봉이 다르기도 하고 학력은 대학원 석사인데.. 연봉은 학사 수준이면서 일도 많고 해서.. 애정도 잘 안가고 받은 만큼만 하고 싶고.. 소명의식 같은 것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처우개선을 위해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현장전문가 5)

꿈드림센터 종사자가 처음에는 석사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학사수준으로 자격조건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요.. 왜 그러겠어요.. 이직률이 높으니 자격조건을 낮춘 거겠죠. 그래서 센터 종사자의 학력이 혼합되어 있는데 연봉은 비슷해요.. 학력에 상관없이.. 그러니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현장전문가 1)

#### □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자립생활관, 쉼터

-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은 대부분이 해체된 상황이며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부모의 이혼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정책과 부모역할 인지와 부모역할 강화,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상담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내적 치유를 위해 전문상담가 및 임상심리사를 통한 심리상담·가족상담·집단상담 등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 유관기관의 협조와 연계로 추진될 필요 제기
-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적응, 공격성·충동성 조절, 분노와 범죄 조절 등 결핍된 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소양교육과 가정·공동체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극기 훈련, 국토순례, 템플스테이 등) 등을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조와 연계로 추진되어지길 요구함
- 문신제거는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남. 이에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신제거를 위한 지원 사업과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자원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함.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 대부분은 담배와 음주 및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이에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금연과 금주 및 성교육 등이 필요함

보호관찰 받고 있는 애들 가족은 95% 이상이 가족해체가 된 상태예요. 저희 쪽에서 가족상황을 기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비슷해요. 가족해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청소년 기관과 연계해서 상담도 좀 전문적으로 받게 하고 싶고. 인성이 많이 결핍되어 있어요. 충동성이나 분노 혹은 범죄 같은 것을 조절 할 수 있게끔 소양교육도 좀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고. (현장전문가 9)

이 아이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극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센터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족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4)

학교 밖 이면서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 안전, 식사, 주거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아이들 발굴에서부터 보호 관리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해요 (현장전문가 12)

##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점심 무료급식이었음. 최근 들어 타 지자체 차원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대상 무료급식지원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고,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조례에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 이에 법적 근거에 따라 무료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구함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공교육기관이 갖춘 운동장 및 체육시설이 거의 부재함. 이에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수련관, 수영장, 농구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체육 관련 전문 코치나 강사 지원으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인 보다 체계적으로 체육 교육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로 함. 더불어 미술 및 음악 등의 예능 관련 교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사비 지원도 필요로 함. 그 외 문화체험, 수학여행, 캠프활동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지원받을 수 있기를 요구함

타 시도를 보면 이미 비인가 대안학교에까지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 지역도 점심 식사 급식지원이 되면 좋겠고. 조례상으로도 다 마련되었는데.. (현장전문가 6)

대안교육기관이라서 농구대, 운동장, 수영장 등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지자체가 이런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현장전문가 7)

## 제3절 소결

본 절에서는 먼저 기관유형별 및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반적인 생활실태(학업중단 관련 사항, 학교 그만둔 이후의 생활)과 현 지원정책의 평가와 필요한 정책적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다음으로, 기관유형별 현장전문가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관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학교를 그만두고 어려워하는 점 및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리와 기관유형별 현장전문가 관정에서의 현 지원 사업의 한계점과 개선사항 및 정책적 지원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쟁점들을 도출함

### 가.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

#### 1) 학교중단 관련 일반사항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고등학교 시기가 약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이 확립되는 고등학교 시기에 어려움이 분출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됨. 따라서 중학교 시기부터 학교중단 위기 청소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함께 의논하고 상담했던 대상을 살펴본 결과 비행형과 소년원쉼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다양하지 못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남. 또한, 의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은 남학생, 소년원쉼터, 비행형, 이혼·별거 가정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남. 따라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고, 그리고 그만둔 이후의

계획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청소년의 학교생활 규범 위반 경험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 규범 위반은 학교중단의 전조증상이라 볼 수 있음. 특히, 니트형 그룹 청소년의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학교생활 규범을 자주 위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 10명 중 약 4명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5명 이상이 수업참여도가 낮았음. 이는 학교생활 규범 위반과 같은 맥락으로 학교중단의 전조증상이라 할 수 있음
- 학교에서의 상담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4.6%가 상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학생과 비행형 그룹의 청소년의 미실시 비율이 높았음. 한편, 상담내용은 남학생은 진로 관련, 여학생은 또래관계 관련 내용이었음. 이는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공받았던 정보는 2016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미루어 볼 수 있음. 무엇보다 청소년이 학교라는 제도권 밖으로 나오게 될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학교밖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는 비율은 29.6%에 불과하였음
-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5%에 불과하였음.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장이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을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의 숙려제 참여 권유는 의무사항인 반면, 학생들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님. 하지만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중단 결심으로 철회할 수도 있고, 숙려제를 통해 학교 밖에서

의 생활정보와 지원정보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한편, 숙려제에 참여한 청소년은 숙려제 이후 꿈드림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즉,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중단 전과 후를 위해 반드시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보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또한, 학교밖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원정책도 진로와 관련된 내용임. 학교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학교를 나와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임. 특히, 니트형 분류 청소년은 진로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8.8%임

## 2) 학교중단 이후의 생활

- 학교를 그만둔 이후 후회했던 청소년은 43.5%임. 후회했던 이유는 친구사귄 기회가 줄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청소년기는 활발한 교우관계로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마련이 필요해 보임
- 학교를 그만둔 후 집에 외에 거주했던 경험은 ‘비행형>소년원>쉼터>남학생>무소속>이혼·별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주했던 장소는 친구집(15.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PC방/모텔/찜질방(11.3%), 원룸/고시원(9.3%) 등의 순이었음. 학교밖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발굴 장소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한 달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25.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부(17.5%), TV시청(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스마트폰(SNS등) 사용이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차지한다는 점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시각을 다르게 접근해보면, 학교밖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학교밖청소년의 46.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주된 아르바이트는 써

빙과 배달이 많았음.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5일, 하루 평균 6.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도와 비교해 긍정적 변화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부모동의서 제출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임. 하지만 아직 부당한 대우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은 임금체불, 욕설폭언 등의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학생은 임금체불, 계약위반 피해 비율이 높고, 여학생은 성폭력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학교밖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심리상태를 알아본 결과, 4점을 기준으로 우울감 2.09점, 불안감 2.02점, 자아존중감 2.60점으로 나타남. 우울감과 불안감은 응답자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 니트형의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심리상태는 식습관, 수면습관과도 연관이 있었음. 우울감 및 불안감이 높은 청소년은 식습관과 수면습관도 불규칙한 경향을 보이며, 자살생각 경험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임. 이러한 요인들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 서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인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3) 인권실태

- 학교를 그만둔 후 가정 및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음. 하지만 응답자 특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을 침해받는다라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소년원쉼터, 니트형, 이혼·별거가정 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한편, 인권 관련 정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들이 30%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나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무소속과 니트형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후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생증이 없어서 학생할인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2.5%고 가장 많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 취업(알바) 자격 제한(16.4%), 학생이 아니라 공모전에 참여 제한(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비행형 분류 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 영역에서 불이익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남
-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지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26.9%)’, ‘성차별(2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차별경험의 전체 누적빈도를 보면, 니트형(166.8%), 이혼별거가정(155.9%), 여자(153.9%)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후 인권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은 26.8%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받아 본적 없는 73.2%의 청소년은 인권교육 자체에 대해 들어본적 없다는 응답이 47.9%로 나타남. 한편, 본인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사람은 부모님(22.2%)이었음
- 학교밖청소년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에 대해 좁게는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존중받고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였지만, 실제로 인권의 실제 현장에서는 차별받고 있었으며,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음. 인권교육에 대해 들어본적이 없다는 응답은 그만큼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함. 이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증진 계획수립과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가 어려움 (27.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무시(22.2%)로 높았음. 2016년도와는 1위와 2위가 바뀌었으며, 전반적으로 항목별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선입견/무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한편, 어려움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전체 누적빈도는 이혼·별거가정(224.7%), 센터소속(208.0%), 여자(202.4%)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도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워 방향하다 학교를 그만두지만, 학교를 나와서도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지원 욕구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3.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전용 일자리 지원(2.88점), 건강검진(2.86점), 교통비(2.85점), 진로상담·체험(2.83점)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한편, 정책필요도 5위권 안에 진로직업 관련 지원정책 욕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업들(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이 존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정책은 존재하나 정책수혜자들은 그런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기존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자원연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나. 면접조사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

### 1) 기관 유형별 및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결과

-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한 주요 이유는 개인·가족·사회·학교 요인과 상황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동안 축적되어 나타남  
중단한 이유는 크게 (1)가족해체·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보호체계 붕괴, (2)학교분위기와 진로·적성이 맞지 않음, (3)학교생활에서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 (4)경쟁위주의 학업중심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5)형사처벌 등 범죄로 인한 비자발적인 중단 등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학교중단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에 하는 것으로 남.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순으로 나타남. 학교중단 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정보 연계정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그만둔 이후 후회하는 청소년들보다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이유는 모든 것을 혼자 준비야 한다는 부담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이 나타남.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한 만족 이유는 일탈에 따른 즐거움, 시간적 여유로움과 자유로움, 하고 싶은 공부와 나의 적성에 맞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음을 꼽음
-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직후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낌과 동시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느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심리적 방황 기간을 가짐. 방황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학교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감과 앞날의 불안감에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준비함. 그 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과 생활비 마련,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함
- 학교 그만둔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

선과 편견, 선입견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나타냄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4명을 제외한 17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 상 용돈 마련과 생활비 마련이 필요해서 였고, 용돈은 갖고 싶은 옷, 신발, 친구들과 놀기 위해 비용이며, 생활비 마련은 한부모 가정이나 혼자 독립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생계유지 방법이였음. 주요 업종은 음식점 서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의점, 카페, 마트, 주요소, 택배, 일용직 등으로 나타남. 대부분이 알바천국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 안내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5명을 제외한 16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몇몇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수능시험 준비도 겸하고 있었음. 한편, 소년원 출신 청소년이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무료하게 대부분 집 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선생을 통해 안내를 받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친구들의 소개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안내, 혼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접수처와 고사장에서 센터의 아웃리치를 통해 발굴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지속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를 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하는 청소년들은 시간과 여건 상 센터 이용이 어려웠고, 그 외에는 센터 선생님의 이직으로 자연스럽게 센터를 이용하지 않게 되거나 센터가 있음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음. 특히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함. 1:1멘토링에 대해 선호했지만 멘토 연계가 늦어짐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냄. 검정고시 준비도 검정고시 시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정고시 강사들의 연계를 필요로 함. 그리고 대학진학에 대한 입시 준비 시 1:1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을 필요로 했고, 수능준비를 할 경우 학원 연계와 학원비 지원을 필요로 함. 다음으로 센터와의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에 대한 해결요소로 교통비 지급, 불규칙한 식습관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바램인 급식지원 등을 요구함.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격증 취득관련 지원과 직업체험, 직장알선 및 체험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함. 그리고 학교 중단 직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체계적인 연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확대를 필요로 함

## 2) 기관 유형별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

- 기관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이용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였음. 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인원은 3명에서 4명 사이였으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도 최소 200명에서 최대 500명으로 나타남. 반면 농촌지역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 인원은 2명으로 센터 이용 청소년도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 정도이나 실제 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은 약 10명 정도로 나타남. 센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의 공통된 사업(상담지원, 교육·학습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멘토 연계 등)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었음. 보호관찰소·청소년자립생활관·경찰서는 각 기관 종사자가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 사이였으며 보호관찰소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0여명, 자립생활관은 10명 내외, 경찰서는 순찰기간과 상황에 따라 매번 상이하였고 평균 월 약 1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

남. 보호관찰소와 자립생활관은 법무부와 연계하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인터넷 수강권 지원, 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었음

- 기관 유형별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운영 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났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멘토 모집의 어려움, 농촌지역의 센터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의 어려움 등이 나타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점심식사 제공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체육과 예능 관련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나타냄
- 이에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행정 처리와 회계 담당을 위한 보조인력 필요, 학업중단숙려제의 내실화, 군 단위 지역의 지역적 한계점 극복을 위한 도 센터의 연계와 지원 필요, 진로지도 및 상담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필요, 니트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등이 나타남. 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자립생활관 기관의 종사자들은 부모의 이혼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정책과 부모역할 강화 관련 프로그램,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 전문 상담과 정책적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함.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연계를 통한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내적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가와 임상심리사의 상담, 공격성·충동성·분노 조절과 범죄조절, 결핍된 인성 회복을 위한 정례적인 소양교육,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함. 마지막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점심 무료급식 지원을 필요로 했고,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재로 지역사회 내에서 무료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기대와 예능 관련 시간강사 지원비를 요구함.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활발한 교류와 연계로 문화체험, 수학여행, 캠프활동 관련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했음



# 5

장

##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Jeonbuk Institute

---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 제5장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지역 학업중단 학생 현황 분석, 타 시도 우수지원 사례분석과 특화사업 분석,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결론 및 정책적 함의와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앞서 살펴본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차별적 인식 여전히 존재,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어려움(1위)' 다음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무시(2위)'가 나타남.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 선입견이었다고 토로함.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선입견에 대한 부담으로 집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되도록 집 밖으로의 외출을 삼가려는 성향이 보이는 청소년도 다소 있었음
-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은 2016년도의 전북 설문조사 때보다는 1단계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었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를 하며, 학교에서의 부

적응자라고 낙인 시켜버리는 사회적 인식에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이 부적응자라는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대단위의 홍보 강화와 학교 밖으로 나왔어도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군으로 당당히 자기 몫을 해 나가는 긍정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행사, 캠페인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홍보는 다양한 통로로 대중교통을 활용한 버스와 택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지역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 내에 지속적인 사업 안내 홍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주체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녹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참여활동을 지속 참여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성 향상과 재능 발휘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상(집중형 청소년) 적극 발굴과 맞춤형 지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중 집중형(비행형, 니트형)의 95% 이상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란 혼란스러운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의 애정결핍, 정서적 지지 부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빈곤상태, 부모의 학대와 가정폭력, 가족갈등과 가족기능 결함 등이 혼재된 심각한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에 집중형 학교 밖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중요 보호요인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의 부재로 위기·취약계층으로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집중형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와서도 깨어진 가족구조(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혼자 독립생활, 쉼터 및 청소년생활관 등)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거나 비행과 일탈을 지속 경험할 수밖에 없거나 반대로 무기력한 삶이나 자포자기한 성향으로 집 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음
- 고 위기의 집중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어느 것에도 유인되지 않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집중형 청소년 대상 지속적인 발굴 노력과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이 필요함

- 집중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와 연계한 찾아가는 아웃리치 확대와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함. 특히 집중형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인터넷 PC방이나 하루의 대부분을 핸드폰 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려하여 PC방 사장 및 직원 대상 집중형 위기·취약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안내와 더불어 사업장 내 홍보물 부착, PC방 컴퓨터 로그인 화면이나 바탕화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홍보 배너를 올리는 것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함. 그리고 집중형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게임, 아르바이트 등)에 배너달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 있음

#### **다.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보호관찰소, 소년원, 자립생활지원관 소속)과 꿈드림 센터간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필요**

- 여성가족부(2018. 10. 23)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상담, 교육, 학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그리고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학업지원, 상담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 등을 필요로 할 경우 전문적인 청소년 유관기관에 지원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호관찰소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 보호관찰 받고 있는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족에 해체된 상황이며 부모의 역할과 가족 기능이 부재한 상황으로 심리내적 치유를 위해 전문상담가 및 임상심리사를 통한 심리상담·가족상담·집단상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 유관기관의 협조와 연계로 추진되어야만 함을 요구함. 또한, 보호관찰 받고

있는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적응, 공격성·충동성 조절, 분노와 범죄 조절 등 결핍된 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소양교육과 가정·공동체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극기 훈련, 국토순례, 텀플스테이 등)을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조와 연계로 추진되어지길 요구함. 그리고 문신제거는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남. 이에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신제거를 위한 지원사업과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자원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함

- 이에 보호관찰, 소년원 및 법원 등의 기관과 꿈드림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의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완화 프로그램(더드림) 개발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원 기관과 동반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 라.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무화 및 유관기관 연계로 실효성 강화 필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5%(118명)에 불과했음.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16.4%)이 여학생(26.3%)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국 시도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수는 2017년 1년(2017. 3. ~ 2018. 2.)동안 392명으로 그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했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중단자 비율도 56.1%로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이에 우선적으로 지역별 각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대상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학업중단숙려제는 의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의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학교 교사 및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야 하고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도 학업중단숙려

제를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 및 학교장들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강화시켜야 함

- 다음으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효과성과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면접조사 결과, 상담교사가 학교를 다녀야만 한다는 말을 중점적으로 했고,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보다는 ‘너가 참아라’, ‘버텨라’, ‘시간 금방 간다’란 이야기로 학교에 남아있기만을 강요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는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담당하는 상담교사는 상담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고, Wee 센터 상담교사는 학생 및 학습과 진로,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이 주 업무이기에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로 그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 있음. 즉, 학업중단숙려제를 학교 내부 혹은 Wee센터 등 학교 측에서 상담교사가 진행하기 보다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청소년을 기관으로 보냄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장 대상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지침 안내와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학교중단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의 3월, 4월, 5월, 6월 등 여름방학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음에 대한 공문과 안내를 통지할 필요도 있음
- 또한, 학업중단숙려제를 학교 내 상담교사 등이 실시하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필요 있음
- 무엇보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의 연계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임.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의 청소년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를 그만들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으면 조기개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센터 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의 방향기간은 감소하며, 학교 밖 생활에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 마.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학업지원 정책 강화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었지 학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550명 설문 대상자 중 346명인 약 70%가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등 대부분 학업을 지속 이어가고 있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지원과 대학진학 지원 및 수능시험 지원들이 청소년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져 확대·강화될 필요 있음
- 먼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 밖 청소년 혼자 스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나 기초학력과 공부 습관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1:1 맞춤형 멘토 지원서비스가 가장 호응이 좋고, 이 지원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가 높으나 바로 멘토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멘토의 학습지원에 있어서 검정고시 시험 대비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필요로 하였음. 이에 현재까지도 1:1 멘토서비스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주요 교과목(영서, 수학, 과학 등)에 대한 멘토와의 빠른 연계, 보다 전문성 있는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 준비 지도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멘토 발굴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검정고시 점수대별 대학별 특별전형과 대학유형 및 학과별 안내, 수시 전형 지원 방법, 대학별 지원전략, 자기소개서 코칭 및 면접시험 코칭 등 1:1 맞춤형 입시상담이나 1:1 대학 컨설팅을 필요로 함.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 맞춤형 구체적인 대입정보를 담은 대학입시 안내 자료집 배포, 대학입시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홍보,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전문적인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4년제 및 전문대학입시

설명회, 상시적으로 1:1 맞춤형 대학 입시상담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수능시험으로 대학진학을 요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수능대비 반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우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대비반이 운영되거나 지원되고 있음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이런 지원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검정고시 준비 보다 어려운 수능 대비반은 전문적인 학원 강사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능 단과 학원비 지원, 혹은 종합반 학원비 지원, 모의고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지원 등도 필요함



자료 : 전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내용(2019)

〈그림 5-1〉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성별 비율

## 바. 군 단위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사업·예산 기준의 자율성과 융통성 확대 필요

- 전북의 군 단위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 범위가 넓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넓게 흩어져 있음. 게다가 대중교통편도 취약하며, 센터와 집 간의 왕복 시간도 오래 걸리는 악조건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특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불러 모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군 단위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 발생규모도 작고, 지역사회 자원과 인프라도 부족하며, 학교를 중단한 뒤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는 도시권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서 군 지역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어려움은 청소년 발굴과 지원 자원 연계로 나타남
- 이에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들인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지속적 지원과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지원기준에 있어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시켜야 함.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마련이 보장되어야 함. 즉 비자발적 특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출석해야 만하는 유인책 마련인 필요함. 예로 센터로 출석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청소년의 동기 유발을 위해 교통비지급, 식사지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센터에 나오는 만큼 참여수당과 연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청소년 지원과 개입 형태가 다양해져야 할 것이며, 사업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진로 및 직업체험에 있어서 농촌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을 찾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직업체험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원센터 내에 업무용 차량 배치와 운행으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가정방문 혹은 사례관리 위주의 서비스 지원 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됨

#### **사.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마련 및 道の 기존 지원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추가 지원 마련 필요**

-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지원 다음으로 청소년 일자리를 필요로 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주로 자격증 취득 지원과 인터십을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취업 및 일자리 연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자격증 취득과 인터십 과정 및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이후 일자리 및 취업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먼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공공형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친화기업 발굴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친화기업으로 적극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모색으로 취업연계 강화가 필요함.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작업장 확보가 필요하고 작업장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인 직업관련 기술과 경험을 통해 취업 이후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 될 것임
- 한편, 전북도 차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주거, 복지, 보건, 생활, 교통, 기타 등)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실효성을 따져 기존 지원 정책들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넣는 것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 있음. 이미 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기에 소규모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혜택 지원할 수 있고 기존의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됨
- 예를 들어, 주거지원 분야에서는 원가족으로부터 지원 받기 어려운 청소년 쉼터·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후기)청소년들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하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로 교육급여 우선지원, 생활보조금 지원,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지원(전문상담 서비스 등) 받기, 시·군별 새일센터 연계로 여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와 취업 연계 강화하기, 각 시·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로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 및 자해,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및 자살예방 교육 등 지원받기,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기업과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알선하기 등 전북도의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검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 지원 대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아.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징검다리거점공간) 설치·운영 필요

-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약한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 교육기관, 징검다리거점공간)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지역에 소재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대부분은 ‘전원형 대안학교’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먼 면단위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종교적 성향을 띄고 있음
-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기숙생활을 하는 전원형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할 만한 가정적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음. 이에 생활하는 거주지역에 근접해 있으면서 따뜻한 관심과 돌봄 및 안전한 관계 속에서 배움을 지속 이어갈 수 있는 도시형 학교 밖 배움터, 학교 밖 작은 학교를 통해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는 거점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원을 적은 인력과 한정된 시간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한계로 학교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및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 반면, 학교 밖 배움터의 운영이 마련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학업지도, 체험위주의 현장실습, 인성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근거리에서 학교 밖 배움터를 이용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은 전주지역에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지역 연계를 통한 양질의 대안학교 발굴 및 컨설팅으로 활성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제공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자. 정서·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여자 학교 밖 청소년 증가

- 학교 재학 중에서부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정서·심리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학교를 그만둔 이후부터 불규칙 생활, 불투명한 미래, 해체된 가족과 빈곤 상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소폭씩 증가 추세임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감, 불안감, 자살생각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소속 기관유형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들은 우울이 높고, 무소속 청소년들은 우울 및 불안감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가장 낮게 나타남. 유형별로는 니트형이 우울감과 불안감,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았고, 부모의 결혼상태가 이혼·별거인 경우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자살생각, 자살시도가 높게 나타남. 무엇보다 정서·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는 청소년을 포함해서 경계선 장애를 가진 청소년, 자살생각 경향이 높거나 자살시도와 자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등이 증가 추세임
-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발굴·연계되어 초기 상담 시 정서·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사례관리를 보다 집중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즉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여자, 니트형, 부모의 이혼·별거인 집단에서 정서·심리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은 정서·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가족해체 과정의 경험과 가족 지지의 부재, 애착결핍, 부모의 양육과 돌봄 부재 등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위기적 상황을 경험하기 있기에 정신·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심리사 및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 상담가에 의한 상담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로 정서·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전문 상담기관(가족상담, 임상심리사, 정신과 병원 등)간의 긴밀한 연계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해야 할 것 임

## 차.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간 다양한 교류활동 확대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학교를 중단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 내에서 지냈던 또래관계와 소원해지면서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은 소속감이 없고, 또래관계가 소원해짐에 대해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음.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기는 하지만 같은 나이의 또래를 접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또래관계가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함
-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로 모여 새로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연계한 체육대회, 다양한 합동 캠프 활동(스키캠프, 직업체험 캠프 등), 졸업식, 합동 여행(소풍) 등 다양한 연합 행사 등을 진행하여 또래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또래관계에 대한 경험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등이 필요함

## 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추후 개선방안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전라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이에 향후 실시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 연구 내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먼저, 실태조사 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집단을 정확히 규정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향후 실태조사를 위해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즉 최신의 교육통계 집계, 상급학교로의 미진학 학생 수 통계, 그

리고 학업중단 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로 모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함. 이와 같은 사항들이 실현된다면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고, 모집단을 설정할 수 있어 대표성 있는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후속 연구로는 (1) 전북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비행형, 니트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과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및 상담, 교육, 취업과 자립 지원을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2)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종 탐색 및 발굴 등을 통해 그에 따른 자격증 취득지원과 전북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3) 학교 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 발굴과 더불어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군 단위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의 다양화 방안, (5) 아르바이트 근로현장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근로권 보장을 위한 방안, (6)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 및 거버넌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의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 2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① 학교 밖 청소년 조기개입 체계 구축, ②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지원 특화, ③ 기관 유형별 맞춤 지원 및 연계 강화, ④ 전라북도 및 전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등 4개로 구분하고, 15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4가지 정책 방향 중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과 복지 지원 확대(건강검진 시 필수 교육 통합 실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의 전문성 제고, 급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사회인식 개선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대입 입시를 위한 1:1컨설팅 확대 및 면접·자기소개서 코칭, 학교 밖 청소년 및 유관 기관간 다양한 교류·연합 활동 확대,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시범 운영 등으로 구성됨
-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세부 과제의 중요도와 실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단기, 중기, 중장기)를 표기함

〈표 5-1〉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정책방향	세부사업	우선 순위	추진기관
학교 밖 청소년 조기 개입 체계 구축	학업중단속려제 참여 확대 강화 ▶ 학교(담당)교사 대상 찾아가는 학업중단속려제 홍보 ▶ 시기별 학업중단속려제 시행에 대한 공문 발송	단기	전북 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학업중단속려제 내실화 제고	중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실시	단기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지원 특화	학교(담당)교사 대상 찾아가는 학업중단속려제 홍보 ▶ 1:1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학습지 교사 멘토 활용	단기	학교 밖 청소년센터 방문 학습기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중기	전북도 학교밖청소년센터
	진로·직업 전문상담 실시로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청소년이 선호하는 다양한 직종 탐색 및 발굴	단기	학교 밖 청소년센터
		중기	
	학교 부과 가출상태가 중복된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기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
기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연계 강화	(보호관찰소) 비행예방 및 전문 상담과 체험·소양 프로그램 연계	단기	보호관찰소 법무부 학교 밖 청소년센터
	(대안교육기관) 체육시설 무료 대여와 강사 지원	중기	전라북도 기초지자체 도 교육청, 시군교육부
전라북도 및 전북 센터 역할 과 기능 확대	건강 및 복지 지원 확대 ▶ 건강검진 시 필수 교육 통합 실시 ▶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의 전문성 제고 ▶ 급식 지원 ▶ 교통비 지원	중기	학교 밖 청소년센터
	▶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의 전문성 제고 ▶ 급식 지원	단기	학교 밖 청소년센터 지역별 전문상담 기관
	▶ 급식 지원 ▶ 교통비 지원	단기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
	사회인식 개선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단기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
역할 과 기능 확대	대학 입시를 위한 1:1 컨설팅 확대 및 면접·자기소개서 코칭	단기	학교 밖 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 및 유관기관간 다양한 교류·연합 활동 확대	중기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시범 운영	중장기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 1) 학교 밖 청소년 조기 개입 체계 구축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업중단 학생 대부분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 한 학생 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비율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학교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잘 안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와 생활 적응력이 떨어지고 방황하는 기간이 증가하면서 일탈의 기회가 많아지게 됨
- 이에 지역별 각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상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확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인식과 숙려제 안내를 의무화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하게 권고해야 함.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업중단숙려기간 동안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전문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제고를 위한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1-1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확대 강화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국 평균 대비 전북지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 설문조사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은 550명 중 단 118명인 21.5%에 불과했음. 또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은 총 392명으로 학업중단자 수 1,355명의 1/4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 직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함

## ① 학교 (담임)교사 대상 찾아가는 ‘학업중단숙려제’ 홍보

- 사업주관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대상 : 각 지역별 학교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감, 학교장 등
- 사업내용 :
  - 학업중단률이 가장 높은 달을 선택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숙려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음에 대한 정보 안내 및 홍보
  -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고등학교에서도 특성 학교 등 전문계고를 중점적으로 우선적 실시해야 함

## ② 시기별 학업중단숙려제 시행에 대한 학교로의 공문 발송

- 사업주관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대상 : 각 지역별 학교
- 사업내용
  - 학교에서 학업을 가장 많이 중단하는 학급과 달(月)을 고려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에 공문보내기
  - (언제)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높은 5월, 6월 등 여름방학 전

-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 대한 안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구체적인 내용

1-2

##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제고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업중단숙려제를 담당하는 학교 내에서 상담교사나 Wee 센터 상담교사는 학생 및 학습과 진로, 학교폭력 관한 상담이 주 업무이기에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로 그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 있음. 즉, 학업중단숙려제를 학교 내부 혹은 Wee센터 등 학교 측에서 상담교사가 진행하기 보다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청소년을 기관으로 보냄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 제고를 꾀할 필요 있음
- 무엇보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의 연계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임.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의 청소년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교를 그만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으면 조기개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센터 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의 방황기간은 감소하며 학교 밖 생활에 빠르게 적응 가능하게 만들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각 시군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라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대상 : 지역별 각 학교 내 학업중단 위기 학생
- 사업내용
  - 학업중단속려제 담당 기관을 학교 내 상담교사 및 교육청 Wee센터·Wee 클래스 상담교사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권고

##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지원 특화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55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업형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행형 12.0%, 니트형 10.2%, 직업형 9.0%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유형별 중 가장 많은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지원 내용과 대학진학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시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등을 요구했음. 다음으로 집중형 중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보호관찰소, 쉼터, 소년원 등) 실무자들이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요구함

2-1

< 학업형 > \_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실시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 해에 2회 검정고시가 있고,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천원~2만원까지 제각각이었으나 2019년부터 전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 상황임
- 반면, 전북교육청은 2019년에도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2회 모두 1만원씩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용부담 완화 및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 있음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교육청
- 사업대상 : 고졸 검정고시 접수 대상자

○ 사업내용 :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표 5-2〉 전국 시도 교육청별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현황

교육청	응시수수료	교육청	응시수수료
서울	면제 (2019. 2)	강원	면제 (2015. 7)
부산	면제 (2019. 2)	충북	면제 (2017. 12)
대구	면제 (2019. 2)	충남	면제 (2019. 2)
인천	면제 (2019. 6)	전북	1인당 10,000원
광주	면제 (2019. 2)	전남	면제 (2019. 6)
대전	면제	경북	면제 (2019. 2)
울산	면제 (2019. 2)	경남	면제 (2019. 2)
경기	면제 (2013. 4)	제주	면제 (2011. 5)

2-2

< 학업형 >\_ 1:1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학습지 교사 멘토 활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결과,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초학력 수준의 저조로 1:1 멘토링에 의한 학습지원 요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한편, 주요 교과목에 대한 멘토 섭외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고, 군 단위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서는 멘토 발굴이 어려워 멘토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가 매우 소수에 불과했음
- 또한, 1:1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받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멘토를 요구함
- 이에 전문적 검정고시 학습 지원과 더불어 군 단위 지역의 멘토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문학습지 학습교사가 멘토 역할 대행
- 사업주관 :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학습지 기관과의 MOU 체결
- 사업대상 : 검정고시, 수능시험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 사업내용
  - 방문 학습지 학습교사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1개월에 4회 2만원 지원
  -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및 수능 시험에 대한 학습지도
  -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 중심 학습지도
  - 1:1 멘토링 체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고, 청소년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학습교사 방문하여 학습지도 실시(예: 센터 학습실, 아르바이트 장소, 청소년 집, 조용한 카페 등)

2-3

<학업형>\_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특정 정규 학교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는 장학생 선발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선입견과 편견, 교육 혜택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이 명확해지면서 격려와 힘이 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민간 장학재단 협약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사업내용 : 매년 35명에게 장학금 지급
  - 중졸 검정고시를 위해 노력한 학교 밖 청소년 10명, 각 20만원씩
  - 고졸 검정고시 후 대학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 20명 각 50만원씩
  -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한 학교 밖 청소년 5명 각 30만원씩

2-4

< 직업형 >\_ 진로·직업 전문상담 실시로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대부분은 바로 눈앞에 있는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는 준비하고는 있지만, 향후 나에 맞는 진정한 진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음. 집중형 학교 밖 청소년들도 현재는 아르바이트나 집에 은둔하며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는 있으나, 본인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꼬로 진로·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받기를 원했음
- 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일부는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진로·적성검사에 대한 자격증 및 자격 부재, 전문적 역량의 부족으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로·직업 상담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직업 전문 상담 실시가 요구됨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진로·직업 전문상담기관과 MOU 연계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전문 상담 실시 및 결과 분석
  - ▶ 청소년 전용 진로·직업 적성 검사 사이트 공유
    - 청소년들의 진로직업과 적성 상담 시 많이 활용하는 진로·직업 및 적성 검사 사이트를 시도 센터와 공유
    - 시도 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든지 진로작업 및 흥미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
    - 진로 및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흥미, 적성, 성격, 직업가치관 등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각각의 검사 사이트를 활용하여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취득 가능
  - ▶ 유료로 전문적인 진로·직업 및 적성검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일정기간의 MOU 체결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연계

〈표 5-3〉 진로·직업 및 적성 검사 사이트 안내

기관명	검사내용	사이트	전화번호	비용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워킹넷)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청소년용 직업적성검사, 청소년용 직업기차관검사	<a href="http://youth.work.go.kr">http://youth.work.go.kr</a>	02-2629-7000	무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진로기차관검사,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이공계 전공적합도검사, 주요능력 효능검사	<a href="http://www.careernet.re.kr">http://www.careernet.re.kr</a>	02-3485-5000	무료
진학진로정보센터	성격유형검사, 직업흥미검사, 다중지능검사, 직업기차관검사	<a href="http://www.jinhak.or.kr">http://www.jinhak.or.kr</a>	02-3111-260	무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학업진로, 대인관계, 분노조절), 사이버상담, 전문클리닉	<a href="https://www.kyci.or.kr">https://www.kyci.or.kr</a>	02-730-2000	무료
한국심리검사연구소	MBTI성격유형검사, 스트롱진로탐색검사, 학습능력검사, 다차원인성검사 등	<a href="http://www.kpti.com">http://www.kpti.com</a>	02-784-0990	유료
한국가이던스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다요인 인성검사, 홀랜드 적성탐색검사, 기타 인성검사 등	<a href="http://www.guidance.co.kr">http://www.guidance.co.kr</a>	02-861-2161	무유료
한국행동과학연구소	KIT지능검사, KAT적성검사, KPI-e초등인성검사, KPI-a청소년인성검사, KAB학습흥미검사, 진로지향성검사	<a href="http://www.kirbs.re.kr">http://www.kirbs.re.kr</a>	02-562-5960	유료

2-5

< 직업형 >\_ 청소년이 선호하는 다양한 직종 탐색 및 발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체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는 몇몇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었음. 예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이후 카페에서의 직업체험, 한식·일식 등 요리 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 헤어·미용 자격증 등 제한된 분야의 몇몇 직업군을 중심으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는 각기 상이하고 다양했으며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도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을 조사하고 탐색하여 자격증 지원, 직장체험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친화기업 등을 발굴할 필요 있음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북연구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북연구원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 기관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친화 기업 발굴
  - 선호 직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직장체험 지원 실시

2-6

<비행형>\_

학교 밖과 가출 상태가 중복된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장전문가들의 면접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학업형, 취업형, 집중형(니트형, 비행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상태를 그 보다 더 세분화하여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특히, 보다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관리해 줘야 할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가출상태가 중복되어 있는 청소년을 지적함

-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가출상태가 중복되어 있는 청소년은 학업문제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맞춤 지원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시급하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함
-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쉼터에조차 입소하지 않고 거리생활을 하는 가출 청소년, 지인의 집을 전전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만드는 가출팸(가출+패밀리)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은 식비 등을 위한 생활비 문제로 바로 일탈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됨.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가출상태가 중복되고 있는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의료 및 보건(씻기, 세탁 등)·규칙적인 식생활과 안전한 잠자리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업대상 : 학교 밖 이면서 가출 상태가 중복된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 가출팸이 있는 주요 지역 인근에 식당(음식점)과 협약하여 가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식사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전북 도내 가출팸 주요 지역 5곳 발굴, 무료 식사지원 식당 홍보
    - 가출팸 인근 지역 식당(5곳)과 협약(가출 청소년 식사 후 장부 체크)
    - 매달 식당으로 찾아가 식사비 결제
  - 월에 1회 식당에서 이벤트 실시, 가출 청소년과의 만남 지속

### 3) 기관 유형별 맞춤지원 및 연계 강화

-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관 유형별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남. 보호관찰소는 비행형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 및 체험위주의 프로그램과 인성회복을 위한 소양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하여 지원받기를 요구함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은 보편적 복지와 균형적 교육지원이란 명분 아래 급식지원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고, 운동장이 없다는 학교 여건상 체육시설을 무료로 지역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전문체육강사 및 예능강사 지원을 요구함

3-1

< 보호관찰소 >

비행예방 및 전문상담과 체험·소양 프로그램 연계 실시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여성가족부(2018. 10. 23)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적응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교육, 학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이에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요구하는 학업, 상담, 취업 및 자립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하에 도와주게 되어 있음
- 무엇보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따듯한 경험이 부족하고, 인성에 대한 결핍으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과 소양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교육은 위기청소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필요가 있음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비행예방 프로그램 실시

- 사업주관 : 보호관찰소와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협약
- 사업주체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대상 :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비행예방과 완화 프로그램인 더드림 프로그램 실시
  -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내 장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가 비행예방 및 완화 프로그램인 더드림 프로그램과 자립동기 강화 프로그램인 두드림 실시
  - '더드림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발한 비행형 청소년 대상 비행완화, 비행예방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임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전문상담 및 체험과 소양 프로그램 연계 실시

- 사업주관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 협약
- 사업대상 :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보호관찰 대상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심리 및 가족 상담 연계 실시
  - 가정과 공동체가 무엇인지 직업 체험위주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보호관찰소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실시
    - 극기 훈련, 국토순례, 템플스테이 등
    - 일 년에 1회 정도
  - 공격성·충동성 조절, 분노조절 등 결핍된 인성 회복을 위한 정례적인 소양교육 실시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있어서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 있음
- 이에 일부 타 지역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도 학교 내 청소년들과 동일한 교육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급식비와 더불어 강사비 및 사업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 더욱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전북지역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내 청소년들도 균형 잡힌 영향섭취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급식지원과 체육시설 이용 및 전문 체육·예체능 강사 지원 등이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기초지자체,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비인가대안교육기관
- 사업대상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청소년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육시설 및 체육관 무료 사용
  - 체육시설 사용 시 전문 체육 강사비 지원(일정 액수 지정 필요)
  - 예능관련 전문 교육 필요 시 강사비 지원(일정 액수 지정 필요)

#### 4) 전라북도 및 전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광역)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로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고 이에 따른 사업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음
- (광역) 시·도 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시·군·구 센터의 종사자교육과 컨설팅 지원,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정책수요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 시·군·구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공지사향 전달과 지역외견 수렴 및 연합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연계 및 홍보 등을 주로 실시함. 이에 시군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확대되어야 함

4-1

건강 및 복지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재학 중에서부터 혹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부터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특히 비행형과 니트형 학교 밖 청소년의 90% 이상은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결핍되어 있음.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학교의 부적응 및 심리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 및 자해 시도 등 복합적이고 다층위적인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센터의 실무자의 상담 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전문 상담기관(가족상담, 임상심리사, 혹은 정신과병원)간의 긴밀한 연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으로 집중형(니트형,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의 돌봄과 양육의 부재로 불규칙하고 인스턴트 중심의 불균형적인 식사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니트형 학교 밖 청소년 및 군 단위 지역의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

한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경제적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균형 잡힌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과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통비 지원이 필요함

## ① 건강검진 시 필수 교육 통합 실시

- 사업주관 :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센터 10개소
- 사업대상 :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필수 교육인 금연교육, 금주교육, 성교육(피임법과 성병 등)을 건강검진 시 통합하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는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이수하면 좋은 교육들(금연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을 건강검진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실시해야만 함을 처음부터 안내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의 전문성 제고

- 사업주관 :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역 내 전문 상담기관
- 사업대상 : 심리 및 정서적 건강이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 취약한 심리 및 정서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 우울증 소견을 보이는 청소년, 불안과 두려움을 보이는 청소년, 미해결된 다양한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및 자해시도를 했거나 생각을 자주 하는 청소년 등

○ 사업내용

- 센터 실무자가 학교 밖 청소년과 (초기)상담 시 혹은 라포 형성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적 취약성이 드러날 우 전문 임상심리사나 전문 (가족)상담사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함
- 심리 및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전문상담을 받겠다고 동의할 경우 지역 내에 있는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3회의 전문상담 실시(3회 상담 시 3만원 센터에서 지급)

○ 추진절차

-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각 지역별 전문상담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회기 당 1시간 1만원 총 3회기 의무 상담 실시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각 지역별 전문상담기관 정보 안내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심리 및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발견 시 동의를 얻어 전문상담기관에 연계 의뢰하여 의무적으로 3회기의 전문 상담 실시 권고

③ 급식 지원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사업주체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0개소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이용 청소년에게 월~금까지 점심식사 제공
  - 균형 잡힌 영양가 높은 도시락 혹은 센터 근처 식당과 연계하여 1일 1식 8,000원 이내에서 지원

#### ④ 교통비 지원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0개소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3개월 이상 이용한 취약계층(중위소득 75%이하 가구)의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교통카드에 교통비 충전, 월 3만원, 최대 6개월간(18만원)
  - 신청 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 교통비 지원 중단

- 한 달에 6회 이상 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 만 18세를 초과한 학교 밖 청소년(생년월일 기준)

#### ○ 추진체계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사업계획 수립, 사업총괄관리 및 행정지원 및 사업비 교부, 수탁기관 지도·감독
- 시군 학교 밖 지원센터 : 사업홍보, 대상자 모집과 선발, 교통카드 충전, 충전단말기 관리,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 교통카드 회사 : 교통카드 제작, 충전단말기 보급 등



광주광역시 교통카드



충청남도 교통카드

〈표 5-4〉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급하는 지역

지역	시기	담당처	내용
부산광역시	'19.5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꿈드림 이용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급(만 9~19세) 1인당 10만원
충북	'17.1	충북교육청	동행카드제 시행, 9~24세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형태의 카드 지급(교통비, 식비, 학원수강 및 도서구매 등 진로개발비와 문화체험비) 최초 10만원 충전,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5회까지 충전 가능 기초생활수급 가정 청소년에게는 최대 10차례 충전 지원
충남	'18.7	충청남도	세상소통카드(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월 1회 5만원씩 최대 4개월(총 20만원) 법인교통카드 시스템(티모넷) 도입, 자체 교통카드 제작
경기	('19.2)	경기도	월 3만원 교통비 지급, 월 6회 이상 센터 이용 청소년에게 10개월간 월 3만원 교통비 지원
광주광역시	'18.2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개월 이상 이용시 교통비 지원 세상배움카드 발급 시행, 만 9~18세 - 만 9세~12세(월 3만원), 만 13세~18세(월 5만원), 최대 6개월 - 중위소득 72% 이하가구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6개월 연장 지급

4-2

사회인식 개선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부적응자, 사회 낙오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에서 당당히 자기의 몫을 해내고 있음에 대한 이미지를 사회 전반에 알릴 필요 있음.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잠재성 개발, 사회성 발달, 삶의 동기부여, 정신적 보람, 적극적 삶의 계획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 또한, 집중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다각적인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① 지역사회 공헌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실시

- 사업주관 : 전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센터
- 사업대상 : 지역 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취약계층 등
- 봉사활동 유형
  - 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과 교육으로부터 얻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봉사활동
  - ② 봉사활동을 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원하는 내용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 등
  - ③ 봉사활동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와 선택으로 이끌고 가는 방법 등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센터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주체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0개소, 경찰서 협조
- 사업대상 : 기관 무소속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집중형(니트형,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 중심
-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법
  - ① 경찰서와 연계한 찾아가는 아웃리치 확대 : 전주시 완산구 경찰서는 정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시간대에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경찰서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관련 협약 구축 이후 전주시 덕진구, 익산시와 군산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연계한 아웃리치 확대 필요
  - ② 경찰서와 연계하여 인터넷 PC방 업주와의 간담회와 협약 이후 PC방 내

홍보물 부착과 컴퓨터 로그인 화면이나 바탕화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배너 올리기

- ③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게임 앱, 아르바이트 앱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원사업 관련 배너달기
- ④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 ⑤ 오프라인으로는 대중교통(버스, 택시, 정류장 등)을 통한 홍보

4-3

### 대학 입시를 위한 1:1컨설팅 확대 및 면접·자기소개서 코칭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는 그만 두었지만, 학업은 지속 유지하고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력 취득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음
- 특히 과거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진학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검정고시 출신자가 진학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과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검정고시 출신자가 진학 가능한 검정고시 점수대별, 대학별, 특별전형과 대학유형 및 학과별 안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그 중 1:1 맞춤형 대입 컨설팅 요구도가 높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시험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크게 나타남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대학 진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1:1컨설팅 확대 및 면접시험과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가르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센터와 시군 센터
- 사업대상 :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
- 사업내용
  - ① 대학입시 맞춤형 1:1 컨설팅
    - 검정고시 학원의 대학입시 전문가 섭외 및 MOU협약
    - (방법) : 인터넷 상 컨설팅 관련 질문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  
전화통화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대학입시 전 여러 차례의 공개적 교육 실시 등
  - ② 대학 진학을 위한 면접 및 자기소개서 코칭 교육 실시
    -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대학에 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 섭외 작은 간담회 개최
    - 대학 입시 전형 면접 및 자기소개서 전문 코칭교사 섭외 교육 실시

4-4

학교 밖 청소년 및 유관 기관간 다양한 교류·연합 활동 확대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생활실태 중 하나가 학교중단 이후 또래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또래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홀로 있다는 기분으로 우울해 함 이러한 현상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며 또래 접하기가 어려워 또래관계에 대한 추억을 만들지 못함에 대해 많이 아쉬워함

-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로 모여 새로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활동 기회 마련이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센터와 시군 센터
- 사업대상 : 기관 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
- 사업내용
  - 기관 연계 체육대회, 연합 (수학)여행/소풍
  - 다양한 합동 캠프(1박2일) : 스키캠프, 해양캠프, 직업체험 캠프, 템플 스테이, 워터파크 체험 등
  - 그 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합행사

4-5

학교 밖 배움터(도시형대안학교, 징검다리거점공간) 시범 운영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에 소재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대부분은 '전원형 대안학교'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먼 먼 단위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종교적 성향을 띄고 있음
-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기숙생활을 하는 전원형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할 만한 가정적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음. 이에 생활 거주지역에 근접해 있으면서 따뜻한 관심과 돌봄 및

안전한 관계 속에서 배움을 지속 이어갈 수 있는 도시형 학교 밖 배움터, 학교 밖 작은 학교 등을 통해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학습, 체험 등에 대한 면밀한 지원·돌봄·관리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대상 : 학교 밖 배움터 1곳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체험 배움터 공간을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약
  - 되도록 종교적 정치적 성향이 없는 전북소재 법인 혹은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중 전문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갖춘 단체 설정 방침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계획
- 사업내용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최가 되어 학교 밖 배움터 공모, 선정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 선정된 학교 밖 배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개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학업지도, 체험위주의 현장실습, 인성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가장 많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밖 배움터를 우선적으로 시업 운영 필요
  - 선정된 학교 밖 배움터의 인건비(1명, 약 150만원)와 운영비(60%), 학생 급식비 지원

〈표 5-5〉 서울시 학교 밖 배움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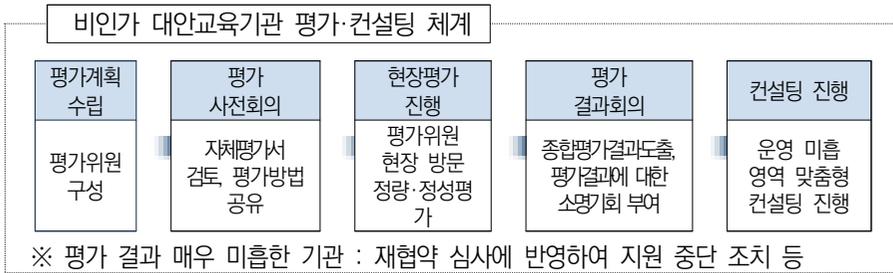
학교 밖 배움터 운영 지원

□ 학교 밖 배움터 평가 및 컨설팅 개선 사업

- 징검다리거점공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 징검다리거점공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지표 신규개발 및 기존 도시형 대안학교 평가지표 수정·보완

구분	특징
도시형대안학교	최소 기준 학생 수 10명(학교 형태 기관)
징검다리거점공간	최소 기준 학생 수 5명(중단기 프로그램 형태)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평가 및 컨설팅
  - 평가 매뉴얼 제작('18년 1~3월), 대안교육기관 평가('18년 9~11월), 컨설팅(연중)



자료 : 서울시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참고

## 참고문헌

- 김세나(2015). 대구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실태와 정책방향. 대구경북연구원.
- 민인철 외(2012).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박혜영(2014).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위기극복 방안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백혜정(2015).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체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정아 외(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5(4), 29-52.
- 유성렬 외 2인(2014).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개선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윤철경(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근영 외(2015). 경기도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근영, 배진형, 이지현, 송미향, 서성식(2015). 경기도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임우연(2014). 충청남도 학교 밖 여자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전경숙 외(201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경숙 외(2015). 경기도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혜원 외(2017). 경기도형 학교밖청소년 정책 모델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혜원(2017). 경기도형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아미(2013). 강동구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강동구.
- 조아미(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정호 외(2018).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하정화 외(2014).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선영 외(2018).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2018).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 2019-08

**2019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9년 8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258-5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